

중요민속자료(제8호) 기록화보고서

求禮 雲鳥樓

21

# 가옥

韓國의 전통



문화재청



金羅求禮云美桐家圖





# 목 차

## I. 조사개요

1. 실측조사명 .....	11
2. 문화재현황 .....	11
3. 기본 현황 .....	12
4. 실측조사기간 .....	12
5. 실측조사 내용 .....	13
6. 조사일정 .....	13
7. 실측조사 관계자 .....	13

## II. 운조루 창건과 변천

1. 운조루 연구사 .....	17
2. 운조루 입향과 창건 .....	18
가. 터잡기 .....	18
나. 창건년도 .....	19
다. 창건규모 .....	21
3. 운조루 건축의 변천 .....	23
가. 유제양의 일기 《시언》에서의 규모 .....	23
나. 유형업의 중수기에 수록된 ‘오미동와가구시전도’에서의 규모 .....	24
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천에 관한 종합고찰 .....	28

## III. 운조루 배치 및 건축양식

1. 운조루 배치 .....	33
2. 건축양식 .....	37

## IV. 안채 실측조사

1. 평면 .....	43
2. 기단 및 초석 .....	44
가. 기단 .....	44
나. 초석 .....	45
3. 가구 .....	45
가. 구성 .....	45
나. 기둥 .....	48
다. 보 .....	49

라. 도리 및 장여 .....	50
마. 대공 .....	50
4. 수장 .....	50
가. 인방 및 문선 .....	51
나. 벽체 .....	51
다. 마루 .....	52
5. 창호 .....	53
가. 문얼굴 및 문짝 .....	53
나. 창호철물 .....	54
6. 처마 .....	54
가. 구성 .....	54
나. 서까래, 평고대, 연합, 추녀 .....	54
다. 양곡과 안허리곡 .....	55
7. 지붕 .....	58
가. 구성 .....	58
나. 지붕물매, 바닥곡, 마루곡 .....	58
다. 기와 .....	59
라. 박공 .....	60
8. 아궁이 및 굴뚝 .....	60

## V. 큰사랑채 실측조사

1. 평면 .....	63
2. 기단 및 초석 .....	64
가. 기단 .....	64
나. 초석 .....	65
3. 가구 .....	65
가. 구성 .....	65
나. 기둥 .....	66
다. 보 .....	67
라. 도리 및 장여 .....	68
마. 대공 .....	68
4. 수장 .....	68
가. 인방 및 문선 .....	68
나. 벽체 .....	70
다. 마루 .....	70
5. 창호 .....	71
가. 문얼굴 및 문짝 .....	71
나. 창호철물 .....	73

6. 처마 .....	73
가. 구성 .....	73
나. 서까래, 평고대, 연합, 추녀 .....	73
다. 양곡과 안허리곡 .....	74
7. 지붕 .....	76
가. 구성 .....	76
나. 지붕물매, 바닥곡, 마루곡 .....	77
다. 기와 .....	77
라. 박공 .....	77
8. 아궁이 및 굴뚝 .....	78

## VI. 중간사랑채 실측조사

1. 평면 .....	81
2. 기단 및 초석 .....	82
가. 기단 .....	82
나. 초석 .....	83
3. 가구 .....	83
가. 구성 .....	83
나. 기둥 .....	84
다. 보 .....	85
라. 도리 및 장여 .....	86
마. 대공 .....	86
4. 수장 .....	86
가. 인방 및 문선 .....	86
나. 벽체 .....	87
다. 마루 .....	88
5. 창호 .....	88
가. 문얼굴 및 문짝 .....	88
나. 창호철물 .....	89
6. 처마 .....	89
가. 구성 .....	89
나. 서까래, 평고대, 연합, 추녀 .....	90
다. 양곡과 안허리곡 .....	91
7. 지붕 .....	92
가. 구성 .....	92
나. 지붕물매, 바닥곡, 마루곡 .....	93
다. 기와 .....	93
라. 박공 .....	93
8. 아궁이 및 굴뚝 .....	93

## VII. 기타 건물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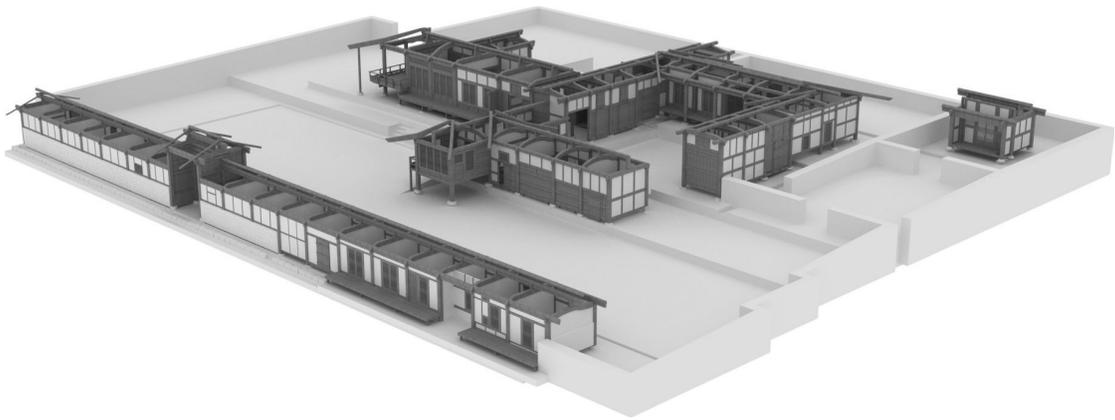
1. 사당 .....	97
가. 평면 .....	97
나. 기단 및 초석 .....	97
다. 가구 .....	98
라. 수장 .....	99
마. 창호 .....	100
바. 처마 .....	101
사. 지붕 .....	101
2. 대문채 .....	102
가. 평면 .....	102
나. 기단 및 초석 .....	102
다. 가구 .....	102
라. 수장 .....	104
마. 창호 .....	105
바. 처마 .....	105
사. 지붕 .....	106

## VIII. 부 록

1. 원색사진 .....	107
2. 흑백사진 .....	129
3. 도 면 .....	207

## I. 조사개요

---





## I. 조사 개요

1. 실측조사명 :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사업

2. 문화재현황

- 문화재명 : 구례 운조루(求禮 雲鳥樓)
- 지정별 : 중요민속자료 제 8호 (1968년 11월 23일 지정)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
- 소유자 : 유홍수
- 건립연대 : 조선시대(1776년 초창)

3. 기본 현황

- 운조루 - 정밀실측

구분	안채	사랑채	중사랑채
평면구성	온돌방(6)+대청+부엌(2) +광(2)	온돌방(2)+대청+누마루 +마루방	온돌방+대청+ 누마루+광
면적(m <sup>2</sup> )	143.75	60.21	61.23
기단	자연석기단	자연석기단	자연석기단
가구	5량	3량	3량
바닥	온돌+우물마루	온돌+우물마루	온돌+우물마루
천장	고미반자 + 연등천장	고미반자 + 연등천장	고미반자 + 연등천장
지붕	팔작+맞배	팔작	우진각+맞배
기와	구와	구와	구와+신와
부속시설	- 협문3 - 외부담장:149M, 내부담장:59M		

- 운조루- 간이실측

구분	사당	대문채
평면구성	마루	온돌방(5)+마루+광(8)
면적(m <sup>2</sup> )	12.44	152.17
기단	자연석기단	자연석기단
가구	3량	3량
바닥	우물마루	온돌+흙바닥
천장	연등천장	고미반자 + 연등천장
지붕	맞배	맞배
기와	구와	구와+신와
부속시설	- 측간1 - 협문2	

#### 4. 실측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 5. 실측조사 내용

- 연혁 및 관련 문헌자료 등 자료수집
- 건물양식 및 특징 등 현황조사
- 실측조사 및 도면 작성
  - 경역의 지형측량 및 실측도면 작성(지형측량도, 전체현황배치도, 대지 중횡단면도)
  - 건물 실측 및 도면 작성
- 기록용 사진 등 각종 사진촬영
- 캠코더 촬영
- 실측조사보고서 작성
- 용역성과물 납품

#### 6. 조사일정

구분	목적	내용	조사방법	조사기간	
문헌조사	실측대상 및 방법의 모색	관련자료 정리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 소유자 인터뷰	2007. 05. 29~ 2007. 06. 30	
현장조사	예비조사	조사대상의 구체화 및 본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실측인원, 장비, 소요기간, 사진촬영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현장 답사	2007. 06. 02~ 2007. 06. 03
	본조사	1차 기본도면 작성	배치측량, 각 건물 평면, 입면, 단면 등 기본 도면작성	실측 조사	2007. 07. 01~ 2007. 07. 31
		2차 상세도면 작성	창호상세, 기단상세, 가구상세	실측 조사	2007. 08. 01~ 2007. 08. 20
	추가조사	도면 검측	누락부분 확인 및 도면 수정·보완	현장 조사	2007. 09. 01~ 2007. 09. 15

#### 7. 실측조사 관계자

- 문화재청
  - 유흥준(문화재청 청장)
  - 이성원(문화재청 차장)
  - 엄승용(문화유산국 국장)
  - 김성범(근대문화재과 과장)
  - 이승환(근대문화재과 서기관)
  - 정 석(근대문화재과 시설주사)

○ 실측조사 및 도면 작성

- 조사책임자 : (주) 삼풍엔지니어링 안정환
- 실측조사 및 도면작성 : 최지연, 김상협, 이영수, 조영민, 강지환
- 사진촬영 : 김종훈, 최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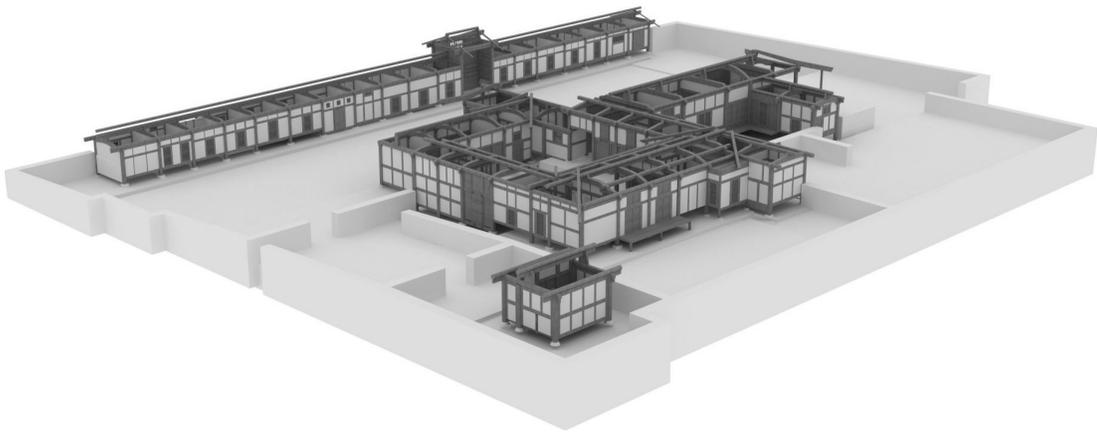
○ 보고서

- 원고작성 : 김왕직(명지대학교 교수) - 운조루 창건과 변천  
노현균(명지대 박사과정) - 운조루 배치 및 건축양식
- 편집 및 교정 : 최지연, 안선매



## II. 운조루 창건과 변천

---





## II. 운조루 창건과 변천

### 1. 운조루 연구사

운조루는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번지에 위치한 살림집으로 1968년 중요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요 문화재 기록보존을 위한 기록화 사업으로 현황을 정밀실측하여 자료를 남겨두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운조루는 살림집이면서도 일기나 분재기 등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 있고 또 드물게 부감형식으로 그림 배치도와 각 실의 명칭과 규모를 적어 넣은 배치도 형식의 간가도(間架圖)가 남아 있어서 비교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운조루의 창건배경과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부감형식의 칼라 도면을 비롯한 많은 자료가 도난에 의해 사라져서 아쉬움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일은 비단 운조루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지방의 살림집에서 흔히 있는 일로 지정된 문화재의 부동산 문화재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 동산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문제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운조루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는 1987년 국립민속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1988년에 발간하였다.<sup>1)</sup> 이 보고서는 조사분야를 역사학, 민속학, 건축학, 회화 및 고문서 분야로 세분하여 조사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운조루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내용별로 목록화 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운조루의 역사, 운조루 건축, 운조루 민속에 관한 원고가 있고 뒤에는 소장자료를 전적 및 문서류, 서화, 민속자료로 분류하여 사진과 목록을 게재하고 해설을 곁들였다. 따라서 운조루를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68년에 김정기 박사는 건축학적인 입장에서 운조루를 조사하여 《민속자료조사보고서》에 소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듬해에는 《문화재》지에 운조루가 지닌 건축적 의미와 성격을 게재하였다.<sup>2)</sup>

운조루에 관한 건축적인 논문으로는 박익수의 <구례 운조루의 주택사 연구>가 있다. 창건과 규모변화를 일기와 건축도 등의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운조루의 창건배경,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규모의 변화와 공간 이용의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sup>3)</sup>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박익수는 한국건축역사학회 논문집인 건축역사연구에 <구례운조루의 조영에 관한 사료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1994년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sup>4)</sup> 또 운조루에 관한 건축학적 연구논문으로는 <전라구례오미동가도를 통해 본 운조루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sup>5)</sup> 이 논문은 운조루에 관한 두 개의 도면을 바탕으로 하였다. 하나는 1800년대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전라구례오미동가도(全羅九禮五美洞家圖)’<sup>6)</sup>이고, 또 하나는 운조루 유씨집안의 후손인 유제양(柳濟陽)이 1916년 집을

1) 국립민속박물관 《구례 운조루》, 민속박물관학술총서4, 1988

2) 김정기, 장주근 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8호, 1968.3/ 김정기, <구례 운조루-이조중엽의 상류주택의 일례-> 문화재 제4호, 1969

3) 박익수 <구례 운조루의 주택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2호, 1998.2

4) 박익수 <구례운조루의 조영에 관한 사료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1994.12

5) 최수영외 2인 <전라구례오미동가도를 통해 본 운조루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11호, 2001.11

6) 이 도면은 창건당시의 운조루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그림이 그려진 연대는 박익수의 논문에서 1800년대로 추정하고 있다. 주변 산수를 포함해 집 전체를 그린 부감기법으로 그린 배치도로서 운조루의 전체적인 건물의 형식이나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 도면은 현재 도난에 의해

수리하고 남긴 가옥중수일기(家屋重修日記)에 실린 ‘오미동와가구시전도(五美洞瓦家舊時全圖)’ 7)이다. 이 논문은 도면을 통해 그린 사람의 시점을 분석하고 공간사용의 변화와 시지각적인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운조루에 관한 일기 등의 기록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991년에 발간한 《구례 운조루의 생활일기 상.하》가 있다. 또 운조루 도면에 관한 소개와 연구 자료들이 다수 있다.<sup>8)</sup> 또 운조루의 건축과 규모를 알 수 있는 역사기록으로는 문중에 전해지고 있는 생활일기와 재산을 나눈 분재기 등이 있으며,<sup>9)</sup> 창건주 유이주의 행적에 관한 내용은 윤사국(尹師國, 1728-1809)이 쓴 《삼수공행장(三水公行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2. 운조루 입향과 창건

### 가. 터잡기

운조루가 위치한 오미동(五美洞)은 지리산의 노고단이 진산인 조산이 되고 노고단에서 남쪽으로 빠져 내려와 형성된 형제봉이 주산이 된다. 앞으로는 넓은 들이 펼쳐지고 들 앞에는 섬진강이 있으며 섬진강 건너 오봉산이 안산이 된다. 그 너머 계족산이 조산이 된다. 동쪽으로는 왕시리봉이 좌청룡이 되며 서쪽으로 천왕봉이 우백호가 된다.<sup>10)</sup> 이로서만 보아도 앞이 물이 흐르고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진 배산임수의 명당 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1 운조루의 안산인 오봉산

이처럼 운조루터는 오래전부터 금귀몰니(金龜沒泥)의 길지로 알려져 왔으며 운조루 영건시 거북돌이 출토된 점에서 널리 알려졌고 집안의 가보로 전해져 오고 있으나 근래에 도난으로 없어졌다. 거북돌을 넣어 두었던 함의 뚜껑에는 집을 짓기 시작한 해인 1776년에 개기 때에 출토되었다고 그 연유를 적고 있다.<sup>11)</sup> 창건주인 유이주는 운조루를 지을 당시 낙안군수를 역임한 후이고 상주영장을 지내는 시점이었으므로 이 지역의 풍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정황은 앞서 언급한 《삼수공행장》에서도 잘 나타난다.<sup>12)</sup>

사라졌으며 운조루 문중에서는 사진촬영본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 도면은 김광현, <오미동가도>, 건축문화, 1997.9에서 소개 한 바 있으며 《산수간에 집을 짓고》에서는 내용소개 없이 도면을 게재하고 있다. 기타 논문과 운조루 조사보고서인 국립민속박물관의 《구례 운조루》라는 책에도 실려 있으나 흑백이고 해상도 문제가 있어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나마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본이 가장 선명하다고 할 수 있다.

7) 이 도면은 산릉도감의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면도의 우리 명칭인 간가도형식의 도면이다. 1916년 유제양 집을 수리하고 창건당시의 전체 평면구조를 추정하여 그린 배치도이다. 도면에는 각 실의 명칭과 규모를 포함해 어느 부분이 언제 소실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이 도면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조루의 변천 과정을 읽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8) 김광현, 오미동가도, 건축문화, 1997.9 《산수간에 집을 짓고》 박익수, <조선시대 영건의례의 건축도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등이 있다.

9) 운조루의 창건주인 유이주가 쓴 분재기인 《장자구처기》에는 운조루의 창건당시 규모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유이주의 현손인 유제양의 일기인 《시연》은 1851년부터 1922년까지 72년간의 기록으로 모두 7권5책으로 구성되었다. 또 유제양의 손자인 유형업이 쓴 《기어》는 1898년부터 1936년까지의 기록으로 모두 38권 31책으로 구성되었다. 이 일기를 통해 창건이후 변화된 운조루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향촌기인 유제양이 1908년에 쓴 《오미동려사》에서는 오미동의 유래와 풍수적인 입지조건 등을 알 수 있다.

10) 최수영, 앞의 논문,

11) 박익수 <구례운조루 주택사 연구>, ‘崇禎紀元後三丙申年五美洞瓦家開基時所出石云耳-壬戌五月十一日乙巳造成函’이라고 하여 후대에 만든 함을 만든 연도까지 기록하고 있다.

1789년에 발간된 호구조사표에 따르면 오미동이라는 마을 이름은 마을 성립초기부터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창건주의 현손인 유제양이 쓴 《오미동려사(五美洞閭史)》에서는 다섯 가지 아름다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설 해 놓았다.

- 마을의 안산인 오봉산의 기묘함
- 사방으로 둘러싸인 산들이 오성(五星)이 되어 길함
- 물과 샘이 풍부함
- 풍토가 질박함
- 터와 집들이 살기에 좋음

운조루에 소장된 호구단자 6건의 유물을 통해 보면 1774년에는 토지면 구룡정리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룡정리 마을은 현재 파도리로서 유이주의 아들인 유덕호의 처가가 있던 곳이다. 즉 이곳에 임시로 터를 잡았다가 운조루가 완성되는 1776년에 오미동으로 옮겨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 나. 창건년도

운조루의 창건년도와 규모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운조루 안채와 사랑채 종도리 목서와 유이주가 68세 되던 해인 1793년에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기록인 분재기 《장자구처기(長子區處記)》를 들 수 있다.

큰사랑채 대청마루 종도리에는 ‘龍龍龍崇禎紀元後三丙申秋九月己巳十六日甲申戊辰時上樑龍龍’ 라고 쓴 목서가 있다. 순정기원후 세 번째 병신년은 1776년이다. 즉 큰사랑채는 1776년 9월 16일에 상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채 대청마루 종도리에도 ‘崇禎紀元後三丙申七月二十七日酉時上樑龍龍龍’ 라는 목서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서가 잘 보였었는데 최근 앞의 연호부분이 무엇인가에 마모되어 사라졌다. 이전에 촬영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아무튼 안채도 사랑채와 같은 해인 1776년에 지어졌으며 사랑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 27일에 상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안채를 짓고 이어서 큰 사랑채가 차츰 상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안채 종도리 상량문



그림 3 큰사랑채 종도리 상량문

12) 운조루 창건주인 유이주는 1753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수어청 오위장을 거쳐 1771년에는 낙안군수를 역임하였으며 1773년에는 유배를 갔으며 1776년에는 함흥성을 쌓고 오위장에 복귀하였다. 1777년에는 상주영장을 역임하고 1782년에는 용인부사를 거쳐 1791년에는 풍천부사를 역임하였다. 운조루의 창건연대로 추정되는 1776년 정도에는 오위장으로 복귀하던 시점이었다.

13) 국립민속박물관, 앞 보고서, 39쪽

운조루가 지어지는 1776년보다 몇 년 앞 선 1770년대에는 운조루를 창건하기 위한 토지매입과 노비소유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창건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유제양(1846-1920)의 일기 《시언(是言)》에서는 지금은 전하고 있지 않지만 창건주 유이주가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성일기(造成日記)》를 인용하여 고조 유이주께서는 도면을 아들에게 주어 집을 짓도록 하였는데 시작한지 7년만인 병신년(1776)에 기와집 100여칸을 완성하였다고 기록하였다.<sup>14)</sup> 이 기록을 통해서도 운조루의 창건은 1776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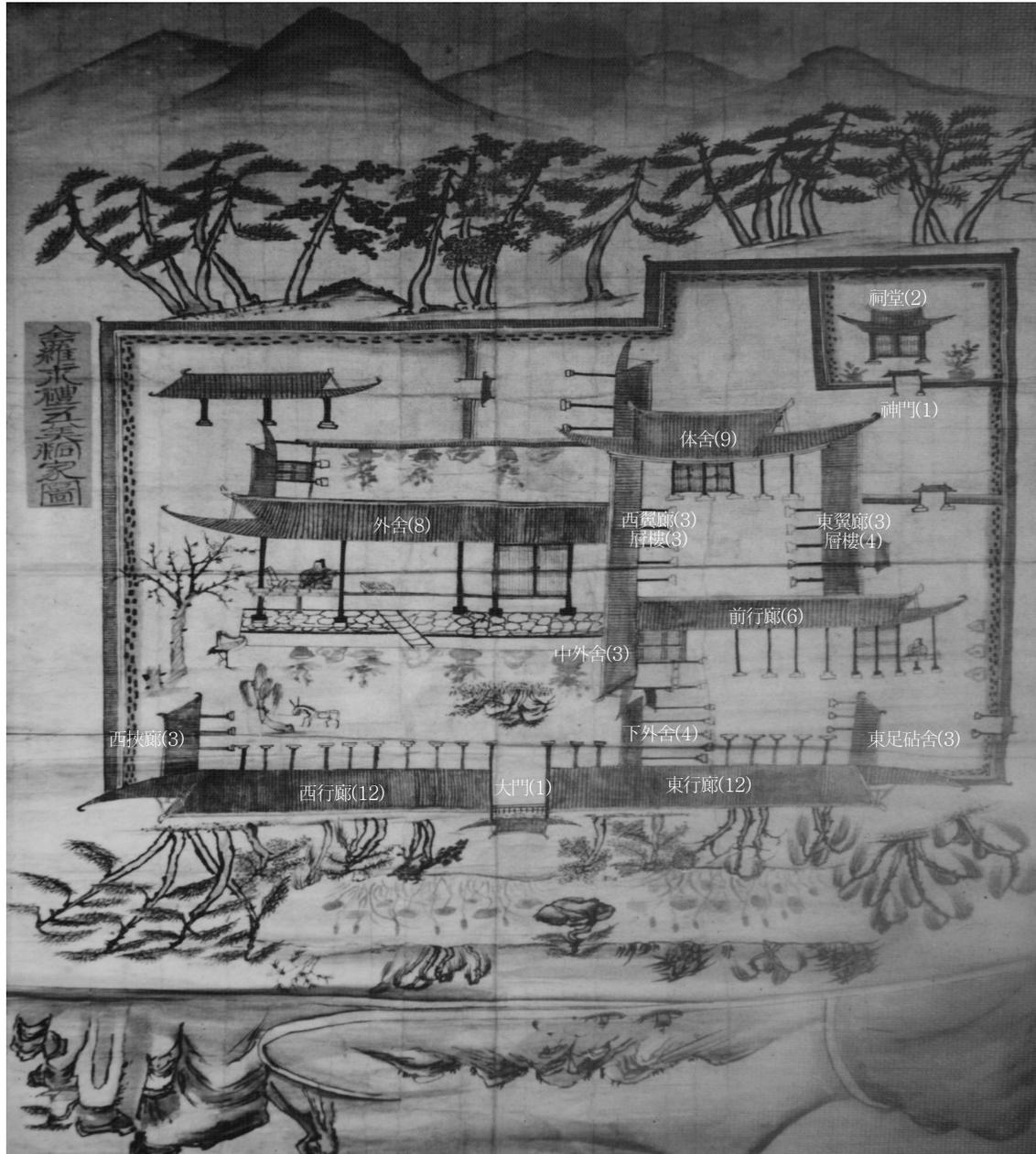


그림 4 ‘전라구례오미동가도’ (운조루 소장 사진인화본 접사)-채 명칭은 재산분재기인 1793년에 작성된 《장자구처기》에 의한 것임

14) 박익수, 앞의 논문, 199쪽

### 다. 창건규모

창건시의 규모는 건축적으로 정확한 기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창건주 유이주가 68세 되던 해인 1793년에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분재기인 《장자구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운조루가 창건 된지 20년도 지나지 않은 때여서 초창 때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또 창건 때의 도면은 아니지만 1800년 전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구례오미동가도’를 통해서도 비교적 초창 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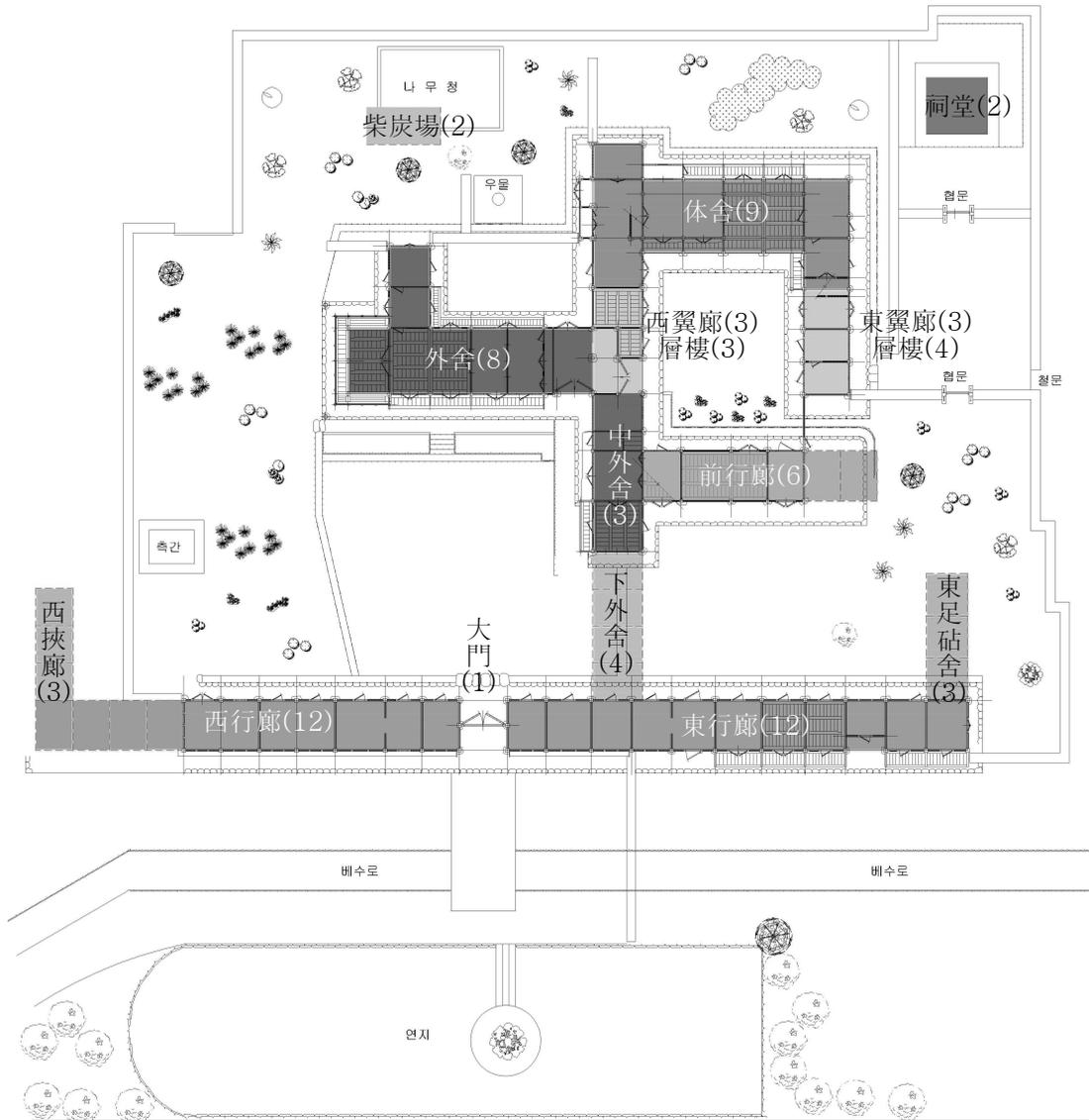


그림 5 현황과 비교한 전라구례오미동가도 및 장자구처기의 건축규모 및 명칭

15) 박익수는 그의 논문 <구례운조루의 주택사 연구>에서 전라구례오미동가도의 제작년대를 1800년 전후로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솟을대문의 목서명에 의하면 1804년 유이주의 사후에 홍살문이 내려 대문을 중수한 기록인데 채색가도에는 합각지붕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 제작시기는 1804년 이전이다. 그러나 운조루가 창건된지 17년 후인 1793년의 기록인 분재기인 《장자구처기》의 기록에는 사당 신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채색가도에는 신문이 그려져 있어서 1793년 이후로 볼 때 그림의 제작 시기는 1800년 전후로 추정하였다.

《장자구처기》는 아들 유덕조(柳德造)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의 기록인데 장자에게 인계한 가옥의 규모를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祠堂	2間	體舍	9間
東翼廊	3間	(東翼廊)層樓	4間
西翼廊	3間	(西翼廊)層樓	3間
前行廊	6間	外舍	8間
中外舍	3間	下外舍	4間
大門	1間	東行廊	12間
西行廊	12間	西挾廊	3間
東足砧舍	3間	內外厠	2間

모두 합하면 78칸의 규모이다. 창건한지 불과 18년이 경과된 시점이므로 창건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채색도인 ‘전라구례오미동가도’에 대입해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랑채 뒤에 있는 나무청 2칸이 분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나무청은 아마도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있었는데도 제외된 듯하다. 이는 사당의 정문인 신문과 중문을 비롯해 협문 3개가 생략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나무청과 협문 및 중문을 합하면 모두 85칸에 이르는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축면적을 고려한 칸수는 이보다 더 크다. 분재기의 칸수는 주칸 크기에 관계없이 실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즉 사랑채의 누마루인 족한정(足閑亭)은 실제 면적은 정면1칸, 측면이 2칸이어서 2칸으로 산정해야하지만 1칸으로 산정했다. 이는 방도 마찬가지로. 또 뒷마루 등은 칸수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실제 운조루의 칸수는 100여 칸에 이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재기에 나타난 채의 명칭은 지금과 비교하면 다른 것이 많고 재미있다. 사당 및 대문 등은 같으나 현재 보편적으로 안채로 명명되는 것을 분재기에서는 체사(體舍)로 표기했다. 또 안채 양쪽 날개는 동서익랑(東西翼廊)으로 명명하였으며 익랑위에 층층으로 들인 마루들은 층루(層樓)로 불렀다. 사랑채는 외사(外舍)라고 불렀는데 큰 사랑은 그냥 외사라고 했지만 귀래정이 있는 안채와 큰사랑채 사이의 사랑채는 중외사(中外舍), 하인들이 기거하는 바깥사랑채는 하외사(下外舍)로 표기했다. 안채 앞쪽에 안채와 마주하고 있는 행랑은 전행랑(前行廊)이라 했으며 대문을 중심으로 양쪽의 외행랑은 동행랑(東行廊)과 서행랑(西行廊)으로 불렀고 양쪽 행랑에서 북쪽으로 솟아 올라간 익랑은 각각 동족침사(東足砧舍)와 서협랑(西挾廊)이라고 불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운조루는 1776년에 지어졌으며 창건당시의 규모와 모습은 분재기인 《장자구처기》와 1800년대 전후에 그려진 채색도인 ‘전라구례오미동가도’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운조루는 사당과 안채, 안채전행랑, 큰사랑채, 중간사랑채, 바깥사랑채, 외행랑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85칸이었다. 마당을 중심으로 본다면 안채 안마당, 사랑채 앞마당, 안채 전행랑 앞마당이 품(品)자형을 이루는 배치를 하고 있다. 바깥행랑채 앞으로는 바깥 마당은 없으며 바로 긴 연못이 가로놓여 있다. 연못 한 가운데에는 삼신산이 하나 있으며 각종 연화를 비롯한 화초를 심었다. 또 사랑채를 중심으로 기단 아래 화분과 괴석들이 놓였으며 가산이 있다. 사랑채 후원도 역시 담장으로 막혀있고 화분과 괴석들로 장식했다. 큰 사랑채 후원의 나무청에서 안채 후원으로 통하는 협문이 있는데 이 문은

독립된 문으로 양쪽에 담장이 연결되어 사랑채 후원담장과 외곽담장을 남북으로 이어진다. 나머지 협문은 2곳이 있는데 모두 행랑에 달린 것이다. 하나는 안채 동익랑에서 사당 중문으로 통하는 협문이고 다른 하나는 중외사와 하외사 사이에 있어서 안채 전행랑 앞마당과 큰사랑 앞마당은 연결하는 문이다.

### 3. 운조루 건축의 변천

#### 가. 유제양의 일기 《시언》에서의 규모

유제양의 일기 《시언》 중에서 제4권 경술년(1910)조에는 건물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다. 이에 따르면 사당은 기와2칸이며 남쪽에는 길게 툇마루 1칸이 있다. 사당 앞 신문은 기와 1칸인데 지금은 훼손되었다. 안채인 체사는 기와집 9칸이다. 그런데 세부설명은 좀 차이가 있다. 즉 안채는 동서장방과 정침(안방)이 6칸이고 곡방이 동서에 각각 하나씩이라고 했다. 또 대청은 4칸이며 툇마루가 남쪽2칸, 동쪽에 1칸, 뒤쪽에 4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체사가 9칸이라고 한 것은 이전의 기록과 일치한다. 안채의 동익랑은 3칸이며 중층으로 복루가 3칸이다. 안채 서익랑도 3칸이며 층루도 동익랑과 같다고 하였다. 분재기에서 동익랑층루는 4칸이라고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안채 남행랑은 4칸이다. 이미 2칸은 훼손되었는데 농월헌으로 사용하던 방1칸과 마루 1칸이다.

중간사랑인 중외사는 3칸인데 마루가 1칸이고 담락와(湛樂窩) 1칸이 중간에 있고 귀래정(歸來亭)이 1칸이 있다. 큰사랑채인 외사는 8칸이다. 내외중문 2칸, 후협문1칸이고 장방은 지금은 칸막이를 설치했다. 마루가 4칸이며 전퇴가 4칸, 후퇴가 3칸이다. 방은 수분실(隨分室)과 귀만와(歸晚窩)이며 대청마루는 운조루이다. 서쪽으로 죽한정이라는 누가 2칸있다. 서실책방은 2칸인데 방1칸과 마루1칸으로 구성되었고 이공재(二肯齋)라고 한다. 바깥사랑채인 하외사는 지금은 없다.

동협문 1칸은 안채 남행랑 북쪽에 있다. 하협문은 1칸이고 대문도 1칸이며 대문 동쪽의 장행랑은 7칸이다. 이미 4칸이 철거되었는데 신유년(1861)중수 때에 목재와 기와가 부족해 복원하지 못했다. 서쪽 장행랑은 9칸이다. 위와 같이 4칸은 이미 철거되었는데 지금은 인근의 아이들이 와서 기거하고 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58칸이며 문6칸을 합해 64칸이다.

이전과 비교해 15칸이 훼손되었다. 신문 1칸은 병인년(1866)에 노후화 하여 저질로 소실되었고 농월헌 2칸은 기해년(1899)에 철거하여 기와를 동쪽 장행랑을 보수하는데 사용했다. 동쪽과 서쪽 장행랑 회침 각각 4칸은 신유년(1861) 중수시에 철거되었고 동쪽침사 2칸은 농월헌 동쪽에 있는데 이미 훼손되어 그 기와를 집 고치는데 사용했다. 서후협문 2칸은 죽한정 북쪽에 있는데 기사년(1869) 철거되어 그 기와를 집수리하는데 사용했다.<sup>16)</sup>

16) 박익수, 앞의 논문에서 ‘유제양의 일기 二山是言卷四 庚戌(1910)’의 원문을 인용한 것을 풀어서 쓴 것이다. 원문에 기록한 각 채의 규모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祠堂 瓦二間：南退抹樓長一間
- 神門 瓦一間
- 體舍 瓦九間：東西長房正寢六間+ 曲房東西一+ 中廳事四間+ 退抹樓前南二間東一後四間
- 東翼廊 瓦三間：復樓三間
- 西翼廊 瓦三間：上舍
- 內前南行廊 瓦四間：已撤二間 弄月軒房一廳一
- 外舍 瓦八間：內外重門二 後夾門一 廳事四間 前退四間後退三間 西樓二間

나. 유형업(柳瑩業)의 중수기에 수록된 ‘오미동와가구시전도’에서의 규모

오미동와가구시전도는 유형업의 1916년 중수기에 첨부된 평면배치도로 각 실의 명칭과 규모가 표기되어 있다. 평면도를 이용한 배치도형식인데 이러한 도면기법은 한국에서 산릉도감의례 등에서 많이 이용되었으며 이를 간가도라고 불렀다. 실명과 규모는 물론 초창 때의 모습을 추정하면서 언제 철거되었는지도 해설을 해 놓아서 많은 정보가 있다. 즉 이 도면은 1916년 중수 때의 규모 표현이 아니라 초창 때의 모습을 추정해서 배치도를 그리고 지금 없는 것은 옆에 해설을 달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면에 표기된 실명과 규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채의 명칭은 《시언》에 따랐다.

- 祠堂2
- 神門1
- 體舍9(大廳2+ 正寢2+ 大廚3+ 東上下房2)
- 西翼廊3(西庫2+ 內門1)
- 東翼廊3(廚1+ 東庫2)
- 內前南行廊6(虛間1+ 內米庫2+ 廚1+ 房1+ 弄月樓1)
- 外舍(大舍廊)8(隨分室長房2+ 雲鳥樓廳2+ 足間亭1+ 外廚門1+ 二肯齋2)
- 中外舍3(虛間1+ 湛樂窩1+ 歸來亭1)
- 下外舍4(夾門1+ 下人房2+ 廚1)
- 外大門1
- 東行廊11(虛間1+ 牛養1+ 內馬櫪2+ 虛間2+ 庫3+ 足砧室2)
- 西行廊7(虛廳2+ 外馬校2+ 西庫3)

도면은 상단에 제목이 있는데 ‘오미동와가구시전도’ 이고 그 옆에는 병신년(1776)에 건축되었다고 해설해 놓았다. 도면 우측에는 ‘丙辰夏圖現在’ 라고 하여 병진년(1916) 여름에 도면이 작성되었으며 이때의 운조루 모습을 도면에 남긴 것이라고 하였다. 남쪽에는 운조루 외행랑에 접해서 바로 옛 마을길이 있었음을 표현하였고 옛 도면에는 앞에 연지가 있고 연지에는 섬이 있었음을 표현하였다.

사당은 칸수는 표기하지 않았으며 다만 전면에 툇마루가 있고 사당내에는 북쪽에 탁자가 있다고 하였다. 앞에는 문이 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였다. 안채인 체사는 대청2칸, 정침2칸 앞에는 모두 툇마루가 있고 정침 뒤에는 협방(挾房)이 있으며 서쪽 주방쪽에는 벽장이 있다. 동쪽에는 상하방이 있고 그 북쪽에는 역시 협방이 있다. 서쪽에는 대주방 3칸이 있다. 안채 동쪽 익랑에는 주방1칸과 창고2칸이 있는데 위층의 층루에 대한 설명은 없다. 서쪽 익랑은 창고2칸과 안채로 통하는 내문 1칸이 있다. 역시 위층의 층루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것은 층루가 없어 졌다가 보다는 기록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

- 中外舍 瓦三間：廳事一間 湛樂窩中南顏 歸來亭外西顏 皆木粉
- 下外舍 瓦四間
- 書室冊房 瓦二間：房一廳一 二肯齋
- 大門 瓦一間
- 東挾門 瓦一間
- 下挾門 瓦一間
- 東長行廊 瓦七間
- 西長行廊 瓦九間
- 見 五十八間 門六間：六四

라서 원래 동익랑 층루 4칸과 서익랑층루 3칸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안채 전행랑(내전남행랑)은 허칸1칸, 곳간2칸, 주방1칸이며 농월루와 방1칸은 신축년(1901)에 폐지되었다. 농월은 유이주의 4대손인 유견룡(柳見龍)의 호이다.

큰사랑채는 동쪽에 주방이 있는데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을 겸하고 있다. 그래서 외주문(外廚門)이라 했으며 사랑방은 2칸으로 수분실장방(隨分室長房)이라 했는데 수분은 창건주 유이주의 아들 유덕호의 호이기도 하다. 호를 따서 실명을 붙인 것이다. 사랑방 서쪽에는 대청2칸이 있는데 이름은 운조루이다. 운조루는 이 집의 택호이기도 하다. 운조루는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는 칠언율시의 머리글자만 따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雲無心以出岫(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에 피어오르고)  
鳥倦飛而知還(새들은 날기에 지쳐 등우리로 돌아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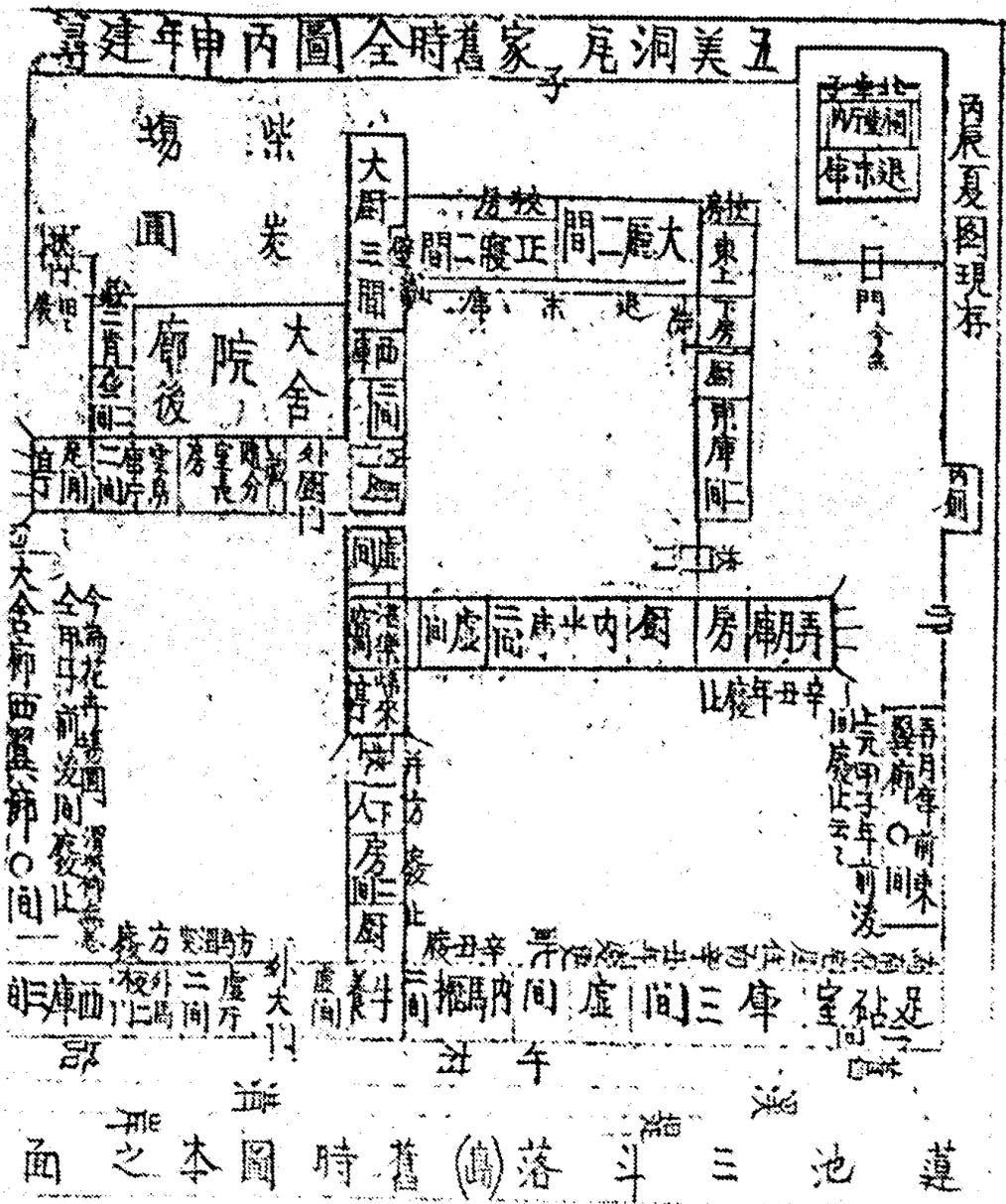


그림 6 '오미동와가구시전도' (《산수간에 집을 짓고》에서 인용)

서쪽의 누마루는 죽한정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한가롭게 머문다는 의미로 유이주의 3대손인 유억(柳億)의 호이다. 누마루는 측면이 2칸인데 칸수 산정에서는 1칸으로 산정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서 북쪽으로 빠져 올라간 익랑을 도면에서는 이궁채라고 했는데 이는 두 가지를 즐겨 한다는 의미이다. 유덕양의 일기 《시언》에서는 이를 서실책방(書室冊房)이라고 하였다. 이곳에서 공부하여 여러 사람이 관직에 나갔다고 전한다. 도면에는 사랑채 뒤에 나무청과의 사이에 담장을 쌓고 대사랑 후원이라고 표기하여 두었다. 180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채색가도에도 똑 같은 표현이 있으며 여기에는 화분과 괴석 등을 장식하여 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사랑채 밑에 주기를 단 것에 따르면 사랑채 후원인 화분장원(花奔場園)은 사랑채 서익랑과 함께 갑자년(1864)전후에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7)</sup> 사랑채에서 나무청으로 가는 협문도 있었으나 언제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없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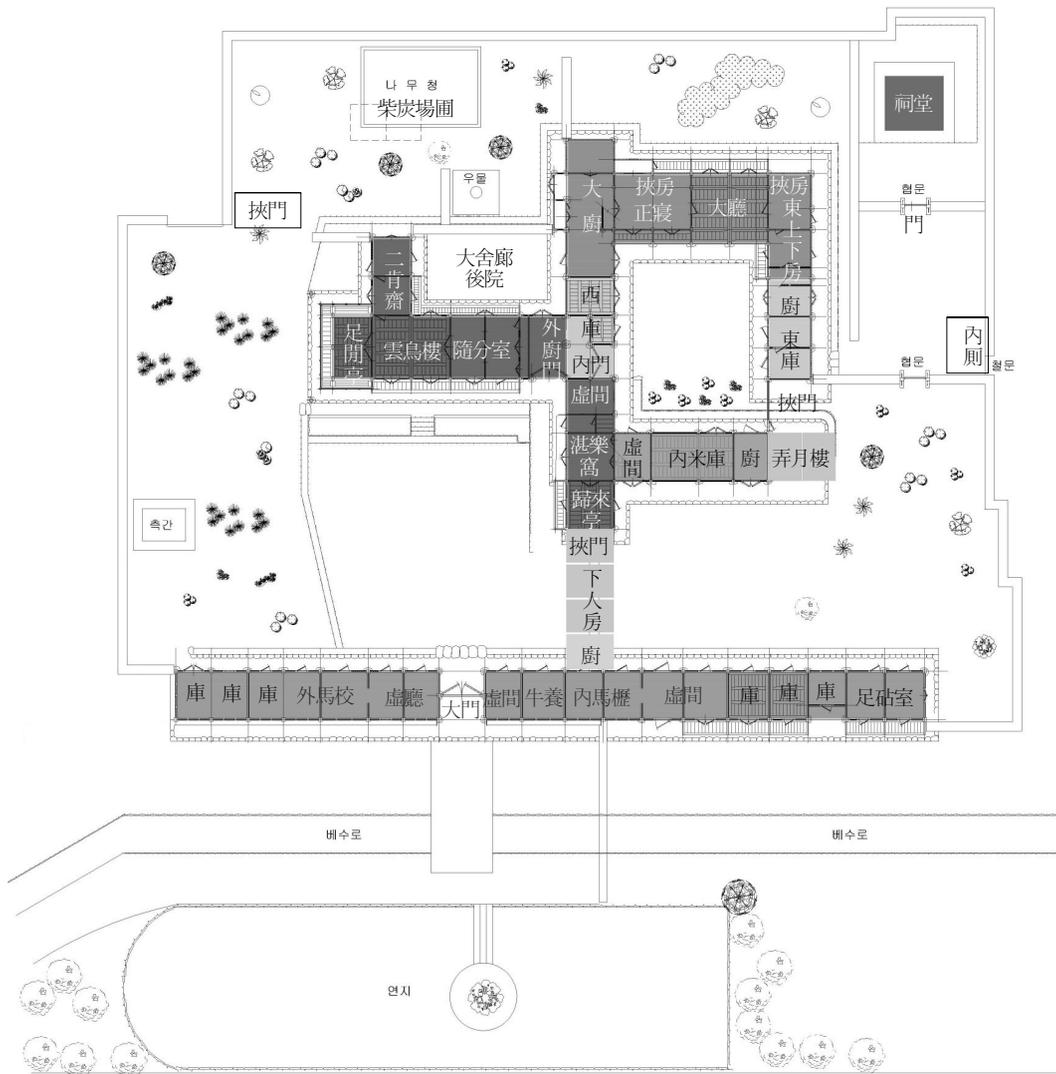


그림 7 현황과 ‘오미동와가구시전도’의 실 명칭 비교

17) ‘大舍廊 西翼廊○間, 今爲花奔場園 全甲子前後間廢止’ 여기서 사랑채 서익랑이 별도로 있었는지 아니면 이궁채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만일 이궁채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건물이 없어 졌다기보다는 기능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중간사랑채는 변함없이 허칸 1칸과 담락와 1칸, 귀래정 1칸으로 구성되었으며 허칸은 안채 안마당에서 이용하였다. 그 남쪽으로는 바깥사랑채인 하외사가 있었다. 협문과 하인방 2칸, 주방1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도 신축년(1901) 함께 철거되었다. 지금도 외행랑과 연결된 초석이 남아 있다.

다음은 대문간채와 외행랑이다. 동서 장행랑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으며 동행랑11칸으로 대문을 기준으로 허칸1칸, 외양간1칸, 내 마구간2칸, 허칸2칸, 창고3칸, 족침실(足砧室)2칸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주기를 달아 놓은 것에 의하면 남원택(南原宅)의 기거를 위해서 7칸을 용도를 변경하여 수리했으며 이 때 마구간은 기능이 없어서 폐지한 것으로 기록하였다.<sup>18)</sup> 마구간은 이시기 정도면 기능이 없어져서 내마구뿐만 아니라 외마구도 폐지하는데 기능만 바꾼 것인지 건물자체도 헐린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마구간이 행랑채 중간에 있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건물을 철거했다기보다는 기능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동행랑은 현재도 11칸인데 1916년에 중수하면서 11칸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창 때의 기록은 12칸이었으나 《시언》에 따르면 신유년(1861) 중수시에 4칸이 철거되었다고 했다. 그러던 것을 1901년 보수하면서 남원택이 기거할 수 있도록 다시 3칸을 늘리고 나머지도 보수하여 7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래서 동행랑은 총 11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행랑은 현재 7칸이다. 도면상에도 서행랑은 7칸인데 대문을 기준으로 허칭2칸, 외 마구간2칸, 창고3칸이 배치되었는데 마구간은 역시 1901년에 내마구와함께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다. 외마구 역시 행랑채 중간에 끼어 있는 것으로 건물을 철거했다기 보다는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서행랑도 동행랑과 같이 신유년(1861)에 4칸이 철거되었는데 초창 때 12칸에서 4칸이 철거되었다면 8칸이어야 되는데 언제 또 한 칸이 줄었는지는 알 수 없다. 초창 때 동서행랑이 모두 11칸이 아니었는지 추측된다.

내외측간 2칸은 도면상에서는 표기하지 않았지만 있었던 것으로 가정한다면 62칸으로 지금의 규모와 일치하게 된다. 다만 지금은 사당 정문이 1칸 늘어나 63칸이 되었다. 따라서 운조루는 1916년 중수기 때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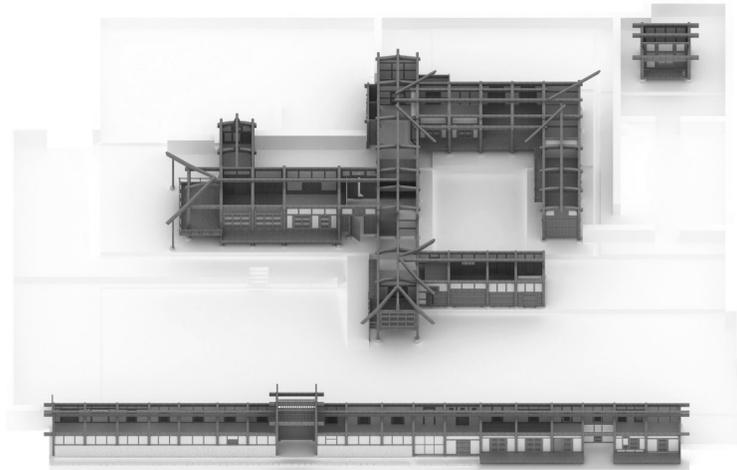


그림 8 운조루 배치 3D 이미지

18) ‘爲南原宅屋住辛丑年變更七間’이라고 하였다. 신축년은 1901년으로 이 때 운조루에 남원택이 새로이 들어와 기거하면서 동행랑의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체양의 일기 《시언》에도 1901년 7월 19일에 동행랑채를 보수하였고 8월 29일에 지붕을 보수한 기록이 나온다. 같은 해 7월 27일에는 농월헌 2칸이 철거되었다.

#### 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천에 관한 종합고찰

사당은 초창 때의 모습이라고 추정되는 ‘채색가도’에서는 정면이 분명하게 2칸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1916년의 ‘구시전도’에는 칸수를 명기하지 않았다. 지금 현재는 정면은 1칸이고 측면은 툇마루가 있어서 2칸인 격이다. 면적으로 보면 2칸이라 표기한 것이 맞지만 채색가도와 현재의 차이점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또 사당 앞의 신문은 ‘구시전도’에는 지금은 없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시언》에서는 1869년 노후화 하여 스스로 넘어졌다고 하였다.

안채인 체사는 익랑 및 익랑 위 중층인 층루 모두 초창 때의 모습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초창 때와 규모 및 모양의 변화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안채 상량대 목서에는 1776년 7월에 창건되었다는 목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1909년 11월에는 안채 측간이 새로 지어졌다고 일기에 적고 있는데 현재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1916년 3월에는 안방(정침) 앞 툇마루 2칸을 새로 놓고 전반적으로 수리했으며 이때의 중수기록은 양쪽 추녀에 남아 있다. 안채 동서 회침추녀에 모두 목서가 남아 있는데 동쪽 추녀에는 “丙辰春三月初一日庚午重修”이라 하였고 서쪽 추녀에는 “丙辰春三月初五日甲戌重修”이라고 하였다. 병진년은 1916년이며 같은 3월인데 1일과 5일에 중수했다고 기록하였다. 경미한 중수공사가 아닌가 추정된다. 1918년에는 기와 보수와 측간 개축공사가 있었다.

안채 전면에 가로 놓인 행랑은 초창 때에는 6칸이었으나 《시언》에서는 1899년 농월 현과 방 2칸을 해체하여 그 재와(材瓦)를 대문간채 장행랑을 보수하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시전도’에서는 1901년 철거했다고 하여 약간의 시차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4칸은 실의 용도가 바뀌었지만 원래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큰사랑채인 외사는 대체적으로 초창 때와 규모 및 모습에서 변화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랑채 대청마루인 운조루청의 상량대 목서에는 1776년 9월 초창 때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안채보다 2개월 늦은 상량기록이다. 그런데 보 옆에는 작은 덧보를 덧대고 여기에도 중수관련 목서를 남겼다. “甲戌夏六月甲申朔十七日庚子辛巳時重修”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술년이 1874인지 1934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아무튼 갑술년 여름인 6월 17일에 중수했다는 기록이다. 이외에도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1899년 10월에 툇마루 수리가 있었으며 1911년 6월에는 기와보수가 있었고 1914년 8월에는 이궁재의 온돌을 수리했다고 한다. 1925년 3월에는 서쪽 누마루인 죽한정의 기초와 난간을 수리하였다. 그리고 근래인 1996년 8월에는 대청인 운조루의 창호 5개소가 교체되었다.

중간사랑채(안사랑채)인 중외사는 초창 때와 현재의 모습이 차이가 없다. 다만 1899년 5월에 동북쪽 기와를 보수했으며 1911년 6월에 또 한 차례 기와보수가 있었다. 바깥사랑채인 하외사는 초창당시에는 4칸으로 하인들이 기거하는 건물이었으나 사회가 바뀌면서 1901년에는 4칸이 모두 철거되었다. 그러나 1010년 8월에는 초가 3칸으로 복원하였으나 이것도 6년이 지난 1916년 2월에 철거되었다. 이 건물은 안사랑채 귀래정과 동쪽 장행랑의 내마구간과 연결된 건물로 지금도 초석이 남아 있어서 건물의 주칸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대문은 1776년 초창되어 얼마 되지 않은 1804년에 한 번 중수되었다. 이때의 수리는 유이주의 사후 홍살문이 내려 중수된 것이다. 현재 대문은 맞배의 솟을대문이지만 채색가도에는 합각지붕인 점을 고려한다면 대문의 모습은 1804년에 중수하면서 현재와 같은 솟을대

문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채색가도는 1804년 이전에 그려진 것이다.<sup>19)</sup> 대문 종도리 목서에는 이때의 증건기록이 남아 있다. “龍龍崇禎紀元後三甲子秋九月二十四庚戌重修龍” 이라고 하여 1804년 9월24일 증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16년 2월에 기와보수가 있었다.

가장 변화가 많았던 건물은 대문 양쪽의 동서행랑이다. ‘채색가도’에서는 정확한 칸수는 헤아릴 수 없으나 지금보다 많았다는 것은 알 수 있으며 분재기인 《장자구처기》에는 동서 공히 12칸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초창 때부터 12칸이 아니라 11칸이 아닌가 추정된다. 《시언》의 1910년의 기록에는 철거내역에 동서 장행랑이 똑같이 1861년 수리시에 양쪽 끝 4칸이 같이 철거되었다고 하였다. 초창시 12칸이었다면 공히 8칸이 남아야 하지만 같은 기록에서 동장행랑은 7칸이고 서장행랑은 9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유형업의 일기 《기어(紀語)》에는 1913년과 1935년 기록에 1913년부터 유형업의 작은아버지 식구들이 동행랑채 7칸을 차지하면서 이사 온 후 그 자식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구시전도’의 기록에는 ‘爲南原宅屋住而辛丑年變更七間’ 이라고하여 1901년(신축)에 7칸이 변경수리된 것으로 기록하여 시차가 난다. 아무튼 초창 때 12칸에서 1861년에 4칸이 줄었던 동행랑은 1901년에 남원택이 이사하기 위해 수리하면서 늘어나 11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11칸은 1901년에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서행랑은 현재 7칸인데 1910년 기록에 9칸이라 했다. 그런데 1916년의 ‘구시전도’에서는 7칸으로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불과 6년 사이에 다시 2칸이 줄었다는 의미인데 그 정확한 년도는 알지 못한다.

1898년 4월에는 문 앞의 연지를 깊이 팠으며 1926년 4월에는 연지를 보수하였다. 1904년 2월에는 북쪽담장에 문을 내기도 했다.

근래인 1988년에는 귀래정 및 곳간채, 솟을대문 및 대문채 기단을 보수하였고 동쪽 외부 화장실을 신축하였다. 또 1993년 11월 동행랑 컷기둥 동바리이음으로 수리하고 배수로 정비하였으며 온돌을 재설치하였다. 그리고 퇴락한 창호 14짝을 새로 갈았다. 서쪽 외부 화장실을 동일한 규모로 재축하였다.

1996년 8월에는 사랑채 운조루 창호 5개소 교체, 중외사 귀래정의 창호 1개소 교체, 안채 판문 2개소는 수리하고 1개소는 교체하였다. 그리고 안채 세살분합문 9개소 교체하였다. 담장 20m 구간의 기와보수 하였고 외행랑채 일부 벽체 회백바르기와 고막이 해체보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협문이나 측간 등을 제외 한다면 초창 때의 78칸 규모는 1861-1916년 사이에 안채 남행랑에서 2칸이 철거되고 바깥사랑채인 외사 4칸과 대문 양쪽 동서장행랑 6칸, 동쪽침사 3칸, 서협랑 3칸을 합해 18칸이 소실되었다. 따라서 이 때 60칸 규모로 축소되었고 이는 현재의 규모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1861년과 1916년 사이에 형성된 모습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이후로 규모와 형태가 줄거나 변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창 때와 달라진 것은 앞에서 열거한 18칸의 건물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규모와 모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비교적 초창 때의 원형이 잘 남아있는 조선후기 상류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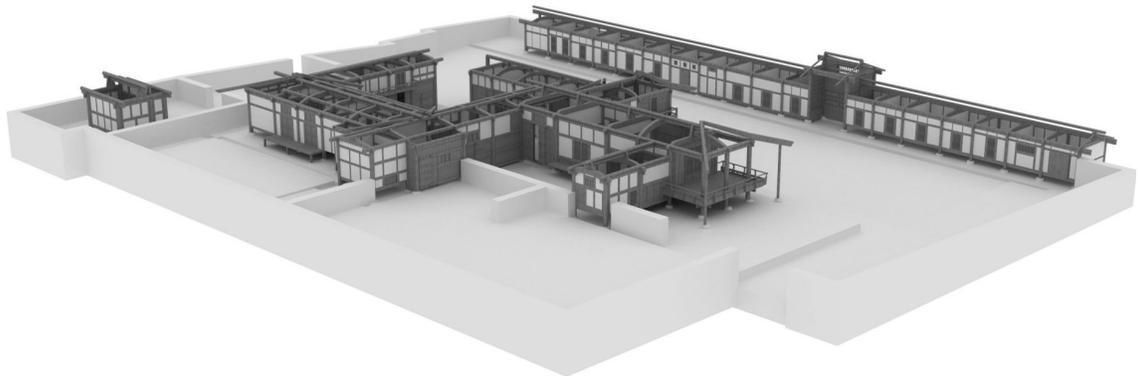
19) 박익수, 앞의 논문, 200쪽

표 1. 운조루 각 채 규모의 변화

	長子區處 記+彩色 家圖 (1793)	是言 (1910년)	五美洞瓦家 舊時全圖 (1916년)	현유구 (2007년)	비고
사당(祠堂)	2	2	2	2	· 채색가도에는 정면이 2칸으로 표 현되었으나 구시전도와 현재는 단 칸으로 되어 있다. · 신문은 1866년 스스로 넘어짐
체사(體舍)	9	9	9	9	· 초창 때와 변화 없음 · 상량대 목서에는 1776년 7월의 창건기록, 추녀목서에는 1916년 3 월의 중수기록이 남아 있음 · 1909년 11월 측간을 새로 지음 · 1916년 3월 정침 앞 빗마루 2칸 을 새로 놓고 전반적으로 수리함 · 1918년 9월 기와보수, 측간개축
동익랑(東翼廊)	3	3	3	3	
(동익랑)층루 (層樓)	4	3	4	4	
서익랑(西翼廊)	3	3	3	3	
(서익랑)층루 (層樓)	3	3	3	3	
전행랑(前行廊)	6	4	4	4	· <구시전도>에서는 1901년 농월헌 2칸 철거했다고 함. · <是言>에서는 1899년에 철거하여 그 재료를 장행랑을 보수하는데 사용했다고 함
외사(外舍)	8	8	8	8	· 초창 때와 변화 없음 · 상량대 목서에는 1776년 9월의 창건기록이 남아 있음 · 1899년 10월 빗마루 수리 · 1911년 6월 기와보수 · 1914년 8월 이궁재 온돌수리 · 1925년 3월 서루의 기초 및 난간 수리
중외사(中外舍)	3	3	3	3	· 1899년 5월 동북쪽 기와보수 · 1911년 6월 기와보수
하외사(下外舍)	4	0	0	0	· 1901년 4칸 모두 철거 · 1910년 8월 추가3칸으로 복원 · 1916년 2월 하외사 추가 철거
대문(大門)	1	1	1	1	· 1804년 9월의 중수기록 목서 · 1916년 2월 기와보수
동행랑(東行廊)	12	7	11	11	· 1861년 여름 중수시 재외부족으로 4칸 철거 · 1901년 7칸 수리(4칸 다시 늘림) 및 지붕보수
동족침사 (東足砵舍)	3	0	0	0	· 1869년 철거
서행랑(西行廊)	12	9	7	7	· 1861년 여름 중수시 재외부족으로 4칸 철거
서협랑(西挾廊)	3	0	0	0	
내외측(內外廁)	2	-	-	2	· 1988년 동쪽 외측 신축 · 1993년 서쪽 외측 재축
협문(夾門)	3	2	1	1	· 서후협문은 1869년 철거
신문(神門)	1	1	0	1	
사당정문	1	-	-	1	
나무청	3	-	-	-	
합계	85	64	59	63	

### Ⅲ. 운조루 배치 및 건축양식

---





### III. 운조루 배치 및 건축양식

#### 1. 운조루 배치

조선시대 백성이 사는 가옥의 구분은 거주자의 신분에 따라 또는 그 신분에서 오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민가와 반가로 나눌 수 있다. 지역성이 잘 나타나는 민가와 달리 상류주택인 반가는 상위층의 예제(禮制) 등 공통적인 가치관으로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동질적인 평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상류주택의 경우 16세기 이후 성행한 성리학의 예제는 주거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남녀의 공간에 대한 구분이 더욱 철저해지고, 제례에 따른 독립된 제사의 공간과 제사를 하기 위하여 모여든 손님의 접객 공간이 발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통적인 행위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가옥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운조루는 사랑채에 남아있는 상량목서 등에 영조52년(1776)에 창건된 기록이 명확하고, 전라구례오미동가도(全羅求禮五美洞家圖-이하 가도)나 유제양의 일기 시언(是言) 등 그림이나 문헌 기록이 잘 남아 있는 호남지방에 몇 안되는 18세기 이전의 소중한 가옥이다. 더욱이 호남에 있으며, 경북의 가옥과 유사한 평면형태는 해남의 녹우당 정도일 뿐 이 지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sup>20)</sup> 이는 운조루의 창건주인 유이주의 이력에서 알 수 있다.

유이주의 고향은 호남이 아닌 경북 안동군 해안면 입석동에서 출생하여 17세 되던해에 상경하고, 그 후 28세 되던 영조29년(1753)에 무과에 급제한 이후부터 관직에 등용된다. 그의 관직은 낙안군수와 삼수부사와 같이 주로 지방수령 내지 대규모 국가조영사업의 책임자였다. 운조루의 창건이 시작된 연도는 1771년으로 그가 낙안군수로 재직해 있던 시절로 비록 호남에 있지만 그가 계획한 집은 그의 고향에서 살고 보던 집으로 건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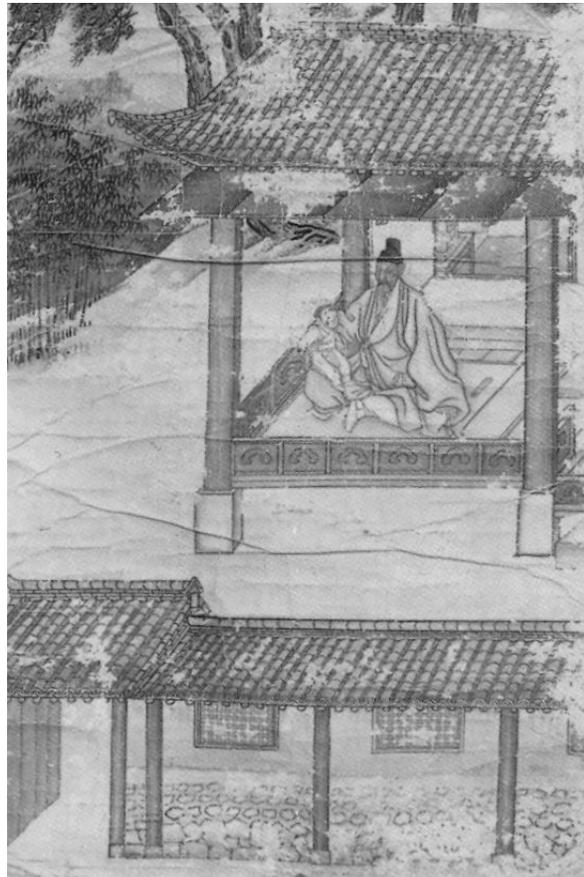


그림 9 운조루 창건주 유이주 영정(影幀)

20) ㄷ자형의 안채가 가지는 평면형식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안마당에 면한 정면의 몸체에 마루만 놓이는 상체형(常體形)과 정면에 안방과 마루가 같이 놓이는 변체형(變體形)이 그것이다. 녹우당과 윤두서가옥이 상체형을 취하는데 반하여 운조루는 변체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체형은 서울 및 경기지방에서 주로 사용되어 경기형이라고도 하며, 변체형은 경북지역의 주거들에서 흔히 발견된다. 따라서 녹우당이 서울집의 모범을 따른 것이라면, 운조루는 경북집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전봉희, 《한국의 건축문화재-9전남편》, 기문당,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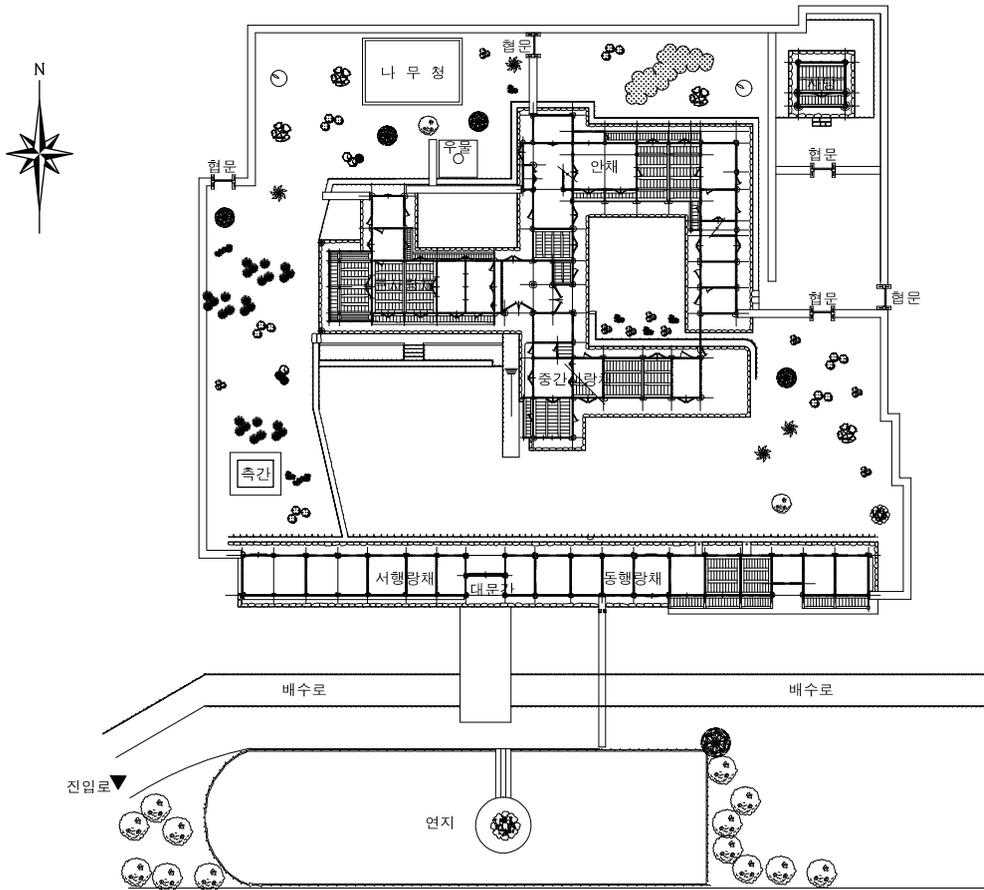


그림 10 운조루 배치도

운조루는 동서 최장길이가 55,812mm이고, 남북 최장길이가 47,365mm인 방형의 터에 남향으로 자리잡은 형태로 산자락의 지형을 이용하여 대문채에서 안채로 갈 수록 약간 높아지는 형국이다. 가옥배치를 보면 중앙으로 가옥의 기본이 되는 사랑채와 안채가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 대문채를 놓았으며, 사당은 안채 동북쪽에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하여 놓았다.

가옥의 배치는 용도에 따른 채(棟)를 위치시키는 방법이다. 서양의 가옥은 모든 기능이 한 동의 건물에 집약되지만 동양의 가옥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채가 구분되어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 수반되는 것이 채와 채, 또는 채와 담장 사이의 마당이다.

이렇게 마당을 중심으로 운조루의 배치를 살펴보면 동서로 19칸의 긴 대문채를 터의 남측경계 삼아 놓고 그 앞에 대문 바깥마당과 방형의 연못을 놓았다. 연못에는 중앙에 1개의 원형의 섬을 놓았는데 이는 조선시대 상류층의 조경관이던 천원지방(天圓地方)을 표현한 것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중간사랑을 기준으로 서측의 큰사랑마당과 동측의 안사랑마당



그림 11 운조루 앞 연지

로 나뉘는데 현재 안사랑마당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큰사랑마당 뒤로는 이 집의 주인이 거하는 큰사랑이 있는데 운조루는 본래 큰사랑채의 이름으로 ‘구름속에 새처럼 숨어사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집에 전해오는 가도를 보면 가옥형태에서 학과 같이 목이 긴 새가 비상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으며, 머리부분에 이 가옥의 주인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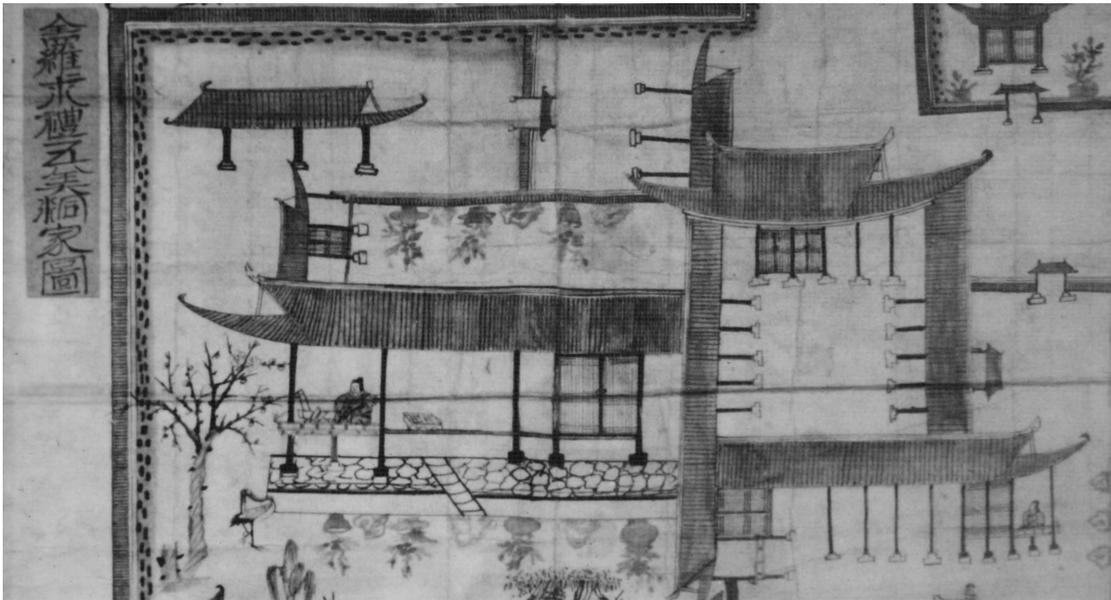


그림 12 오미동가도 중 본채부분  
(집의 모습이 운조루라는 이름같이 비상하는 새의 형상이다.)

귀래정이라 불리우는 중간사랑은 이 집 주인의 아들이 거하는 곳이며, 그 아래로 손주 등이 사는 작은사랑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지고 가도나 남아있는 초석에서 그 흔적만 느낄 수 있다. 중간사랑 좌측으로 있는 경사로를 타고 오르면 중문이 나오고 중문을 들어가면 정면과 우측에 문이 2개 나오는데 직진하면 큰사랑 뒷마당이 나오고 우로 꺾어 들어서면 안마당으로 갈 수 있다. 안마당 북서쪽 모서리에는 안채부엌에서 나온 돌거북으로 만든 석확(石確) 있다.<sup>21)</sup>



그림 13 안채 부엌 앞의 석확

21) 오미리에는 금환락지(金環落地)와 더불어 금구몰니(金龜沒泥)와 오보교취(五寶交聚)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 왔다. 오미리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 세 명당은 오미리 구만들에서 상중하대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운조루가 상대인 금구몰니 명당이고, 행랑채 밖 연못자리가 중대 금환락지, 면소재지에 있는 유부사가 세웠다는 돌탑자리가 하대 오보교취의 명당이라는 것이다. 운조루가 금구몰니의 명당에 해당한다고 하는 향간의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유이주가 집터를 잡을 때 땅속에서 어린애 머리 크기만한 돌거북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집을 앉힐 때 돌거북이 나온 자리에 부엌을 만들었다. 그 이유는 거북이 말라 죽지 않도록 습기가 많은 부엌을 둔 것 이다.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6-지리산자락》, 돌베개, 1996

안채는 一자형의 채들을 안마당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배치시킴으로서 ‘口’ 자형 태가 된다. 안마당에 기단을 두고 안채(북측채)를 위치하였으며, 좌우측에 안마당과 같은 높이로 방과 부엌, 광이 있는 서측채와 동측채를 두었으며, 남측으로 단을 두고 높이를 낮추어 곡간채(남측채)를 위치하였다. 서측채에 있는 부엌에 들어서면 남측으로 큰사랑뒷마당을 통하여 큰사랑에 계신 손님의 수발을 들고 음식을 나눌수 있도록 문이 있으며, 북측에는 큰사랑뒷마당 담장 뒤로 부엌일을 할 수 있도록 우물이 있는 부엌마당을 두었다. 안채 뒤로는 단을 높여 안채뒷마당이 있는데 지금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큰사랑뒷마당은 사랑채 뒤에 있지만 실사용은 부엌과 연계된 공간이라는 점과 동시에 담장을 두르고 화계에 각종 화초를 심어 큰사랑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든 재미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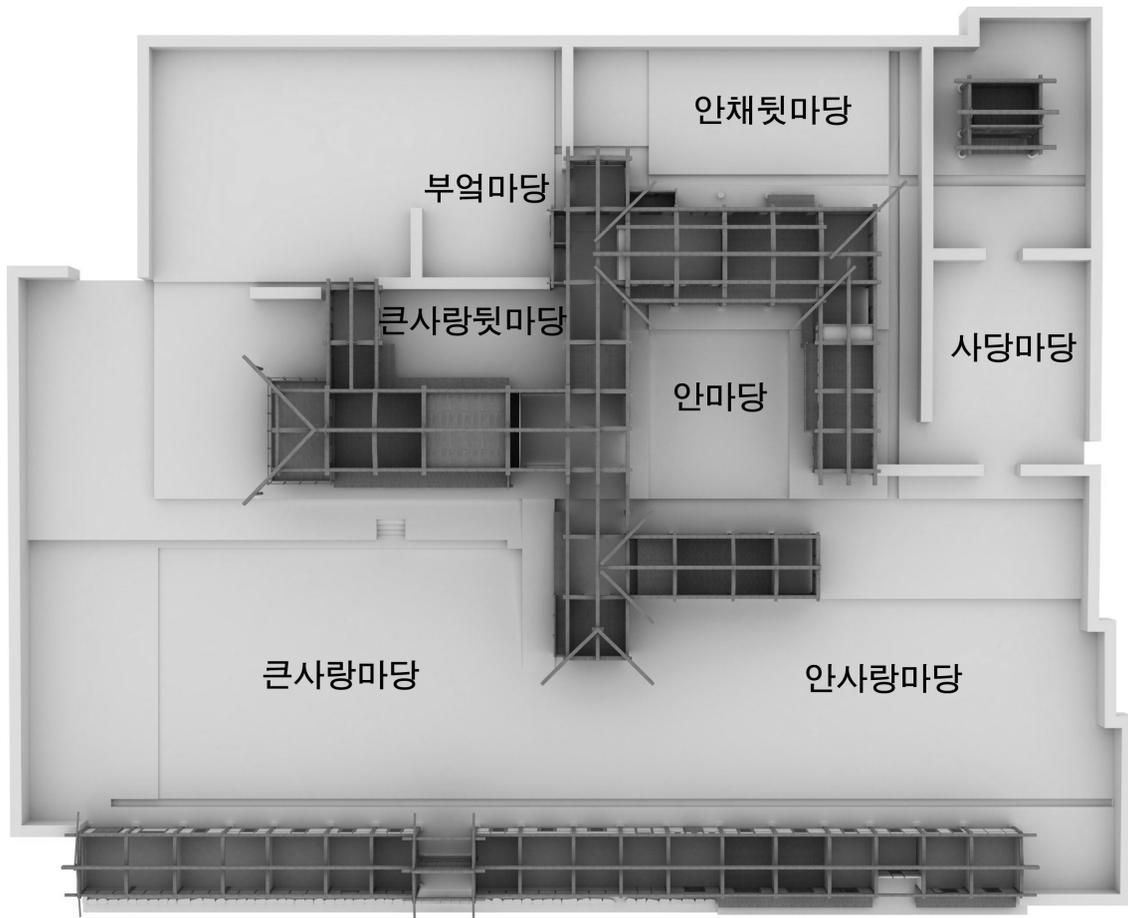


그림 14 운조루 배치평면 3차원 이미지

안마당 동측에 있는 동측채를 통해 나가면 사당의 서측담장이 보이고, 이 담장을 따라 남측으로 내려가면 사당마당이 나온다. 사당마당 중심으로 남측과 동측, 북측에 협문을 두었는데 남측협문으로 나가면 안사랑마당으로 통해 있어 제사 때 안사랑마당에서 직접 사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이 되는 셈이다. 북측협문은 사당의 정문으로 그 안으로는 단을 높여 사당을 위치하였다. 동측에 있는 협문은 운조루에서 동측으로 나갈 수 있는 문으로 현재는 외부에 닭을 양계하고 있다.

## 2. 건축양식

건축양식은 한 시대와 한 지역의 보편적인 건축적 특성을 대별하는 말로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역사적 상황이 그 시대의 양식을 만들어 낸다. 전라남도의 민가는 비옥하고 넓은 평야지대의 생활환경과 맞게 홑집형의 ‘一’ 자집이나 ‘ㄱ’ 자집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만든 튼집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sup>22)</sup> 운조루의 경우 경사도 사람이 창건주라는 사실답게 경상북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ㄱ’ 자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건축양식을 평면과 입면, 가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가. 평면

운조루의 평면형태는 본채인 ‘ㄱ’에 사랑채가 서측과 남측으로 곁달린 형태이다. 이렇게 ‘ㄱ’ 자집에 사랑채를 곁달린 형식은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로 안동의 충효당과 양진당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사랑채가 독립되어 나오는 것은 남녀의 규율이 더욱 엄격해지고, 제례시 손님 접객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필요함에서 발달된 것으로 16세기 이후 성리학의 이해가 더 깊어지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조루의 사랑은 서측의 큰사랑채와 남측의 중간사랑채로 나누어져 있다. 그전에는 중간사랑 아래도 작은사랑이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사랑채가 많이 있는 것은 당시의 대가족제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sup>23)</sup> 큰사랑채는 중간에 사랑대청을 놓고 좌우로 온돌방과 누마루를 두었는데 특이한 것은 후면에 마루방을 별도로 두고 그 뒤로 온돌방을 하나 더 두었다. 이 곳은 본래 서책을 보관하기 위한 서고와 공부하는 글방으로 사랑채와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공간이다.

운조루의 안채는 사랑채와 사이에 있는 중문간을 통하여 진입할 수 있다. 안방 위에는 골방이 있고 그 위로는 다락을 두었는데 좌측채와 우측채 모두 상부에 다락이 있다. 이렇게 다락을 두어 2층을 구성하는 수법은 경북의 예천씨종가나 의성김씨종가처럼 역시 경상북도 가옥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서측채 다락은 사랑뒤풀마당으로 오를 수 있는데 남단 벽에는 원래 가로로 누워진 띠살 들창문이 달려있어서 과거 남성들에 의해 통제된 젊은 여성들이 사랑마당을 오가는 남성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주인의 어린 시절만 해도 마을앞 조망을 즐기는 놀이공간이었다고 하나 현재는 불박이창 하나만 붙어 있다. 동측채 다락은 안채주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건넌방을 통하여 오를 수 있고, 안채 안쪽으로 계단과 쪽마루가 있어



그림 15 큰사랑채 뒀마당

22) 천득염 외 6, 《전남지방 주거건축의 특성》, 경인문화사, 2004, 56쪽

23) 대가족제도 하에서 사랑채의 주인인 할아버지 외에 장성한 아들도 독립적인 손님을 맞을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사람의 객이라 할지라도 서로 면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손님이 많이 드는 대가집의 사랑채에서는 이처럼 보다 공식적인 형태로 큰사랑방 외에 작은 규모의 사랑방들이 덧붙여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전봉희, 《한국의 건축문화재-9전남편》, 기문당, 2002

부엌에서 다락으로 음식을 나를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입면

가옥의 멋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입면의 장식이다. 입면은 외부로 직접 보이는 부분으로 건축주의 성향과 미감에 따라 장식에 차이가 있다. 사람의 인체와 대별하여 보면 운조루의 경우에도 다리에 해당하는 기단부와 몸통에 해당하는 벽체부, 머리에 해당하는 지붕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단부를 보면 큰사랑채는 막돌을 허튼층으로 쌓은 외별대 기단위에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워 상부하중을 받도록 하였다. 기단의 중앙부에는 6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놓았다. 초석은 모두 부정형의 자연석을 사용하였지만 사랑채 앞의 쪽마루 하부초석과 활주초석은 화강석을 팔각으로 하여 멋을 내었다. 중간사랑채는 대지경사를 적절히 이용하여 입면구성을 하였는데 경사의 방향에 직각으로 세워져 제일 아래의 마루는 자연스럽게 누마루가 되었다. 이렇게 운조루의 머리에 해당하는 큰사랑 마루와 날개에 해당하는 중간사랑 마루를 누형식으로 함으로 마치 공중에 떠서 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운조루에서 특이한 것은 굴뚝이다. 안채와 사랑채의 굴뚝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전면 기단에서 연기가 배출되도록 하였는데 일설에 의하면 어려운 시절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여 밥 짓는 연기가 멀리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설계<sup>24)</sup>라고 하니 당시 사대부의 인품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운조루의 벽체부를 이루는 기둥의 단면형태를 보면 큰사랑채는 모두 원기둥으로 되어있고, 중간사랑채를 비롯하여 안채는 모두 각기둥을 사용하였다. 이는 운조루 솟을대문 앞의 연못과 같이 당시 천원지방과 연계된 건축관으로 가장 높은 어른이 거하는 큰사랑만 위계를 달리하여 원기둥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각기둥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안채의 경우 대청마루 2칸을 이루는 정면 기둥 3개만 원형 기둥을 사용하였는데 역시 가옥내에서 안주인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sup>25)</sup> 벽체는 기둥과 기둥사이에 인방을 두고 여기에 중깃과 가새를 설치한 다음 놀외와 설외를 다시 엮고 흙을 안팎으로 맞춰 바른후 미장하여 마감하였다.

창호는 모두 띠살 창호를 설치하였다. 큰 사랑채의 경우 가로 띠살이 위로부터 5-6-5로 되어있으며, 대청입면에는 상부에 정자살창을 설치하였다. 중간사랑채의 경우 가로 띠살이 4-5-4로 설치하여 역시 위계의 차이를 두었는데 누마루가 있는 귀래정 남측 창호의 경우 상부에는 띠살을 두지 않고 중간과 하부에만 띠살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남측 창호 중 하나가 후대 보수과정에서 잘못 설치되어 거꾸로 달려있는데 추후 재정비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림 16 중간사랑채 띠살

24) www.unjoru.com

25) 한편 조형론적인 분석으로 보면 원형은 공간의 포용을 뜻하고 각형은 공간의 단절을 뜻한다고 보았을 때 안채의 원형기둥은 개방형 가옥이 많은 전라도에서 폐쇄적인 'ㄷ' 자형집에서 살아가는 안주인의 숨통을 대청에서라도 조금 틈어주려는 의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큰사랑채의 누마루에는 계자난간(鷄子欄干)을 설치하였다. 난간동자를 계자각으로 하고 그 위에 하엽무늬의 두겹받침을 두고 그 위에 원형의 난간두겹을 설치하였다.

지붕은 큰사랑채의 서측에만 합각을 둔 팔작지붕형태이며, 중간사랑채에서 남측에만 우진각지붕으로 하였다. 그 외에는 모두 맞배지붕이 기본이다.



그림 17 운조루 지붕전경

#### 다. 가구

운조루의 가구는 사랑채의 경우 모두 3량의 가구를 지니고 있으며, 안채만 5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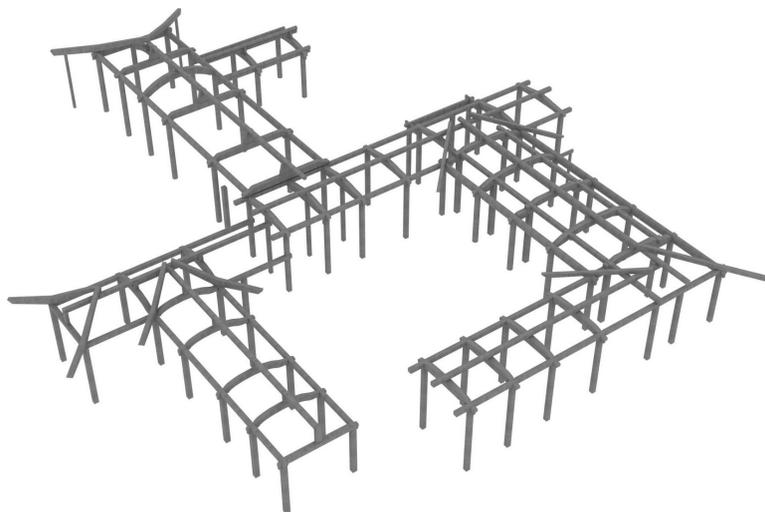


그림 18 운조루 가구도

큰사랑채의 경우 평주 위에 대들보와 납도리를 결구한 후 대들보 중간에 판대공을 놓고 종도리를 설치하여 가구를 이루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대청과 같이 상부가 개방되는 곳에는 연등천장으로 하고 대공없이 크게 휘어진 곡량을 대량으로 하였다.



그림 19 큰사랑채 대청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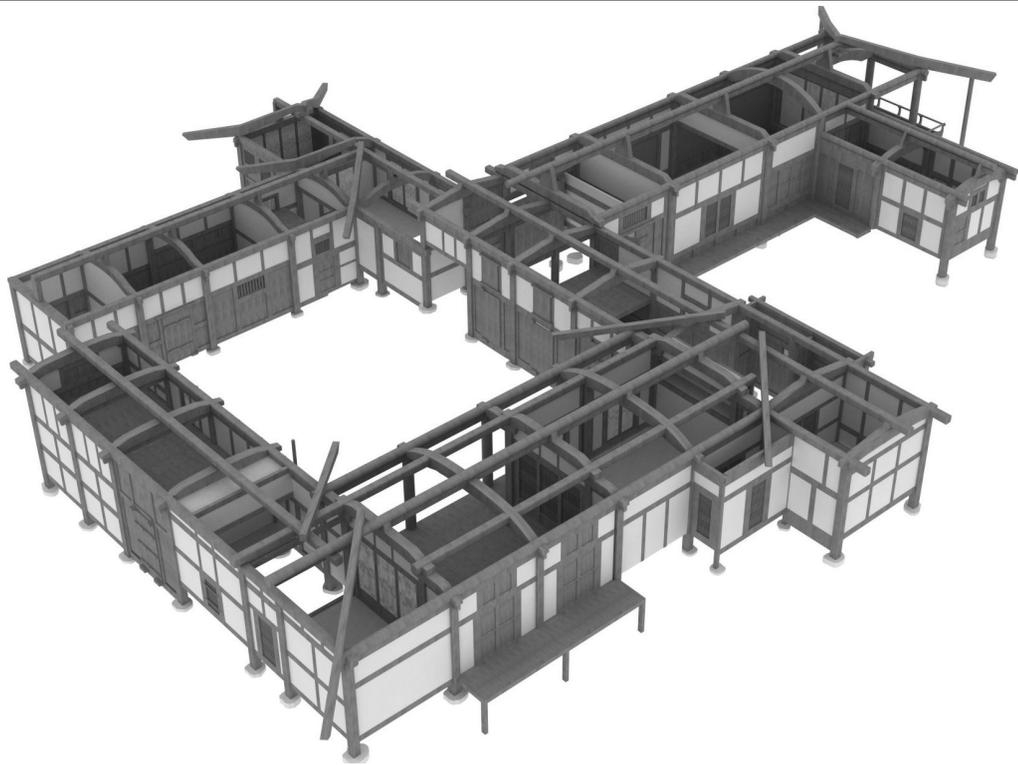
그림 20 안채 대청상부

안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대보와 종보를 놓고 5량가를 하는 방법과 다르게 약간의 곡이 있는 대보만 놓고 5량을 구성하였다. 연목 역시 중도리에서 종도리까지 단연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장연만을 이용하여 구성한 2가연 가옥이다. 이러한 수법에 대해 누다락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특이한 의장수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sup>26)</sup>

26) 국립민속박물관, 《구례 운조루》 〈운조루의 건축〉, 1988, 58쪽

#### IV. 안채 실측조사

---





## IV. 안채 실측조사

### 1. 평면

사랑채(外舍, 큰사랑채)와 귀래정(中外舍, 중간사랑채) 사이의 중문을 통해 들어서면 안마당이 나오고 안마당보다 높게 기단을 쌓은 ‘ㄷ’ 자형 평면인 안채(體舍)와 마주하게 된다. 형태상 귀래정의 오른쪽으로 붙은 남행랑이 안채 전면에 놓임으로서 ‘튼ㄷ’ 자형을 이룬다고도 할 수 있다.

안채는 평면을 살펴보면 북측채(體舍)와 동측채(東翼廊), 서측채(西翼廊)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의 중심인 북측채는 9칸으로 서쪽부터 부엌(大廚) 3칸과 방(正寢) 2칸, 대청 2칸 그리고 동쪽의 방(東上下房) 2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측채는 3칸으로 부엌과 2칸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측채도 3칸으로 2칸의 광과 중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측채의 경우 방과 대청 앞으로 전후면에 쪽마루가 놓여 있으며, 동측채는 방 전면으로 누마루가 연결되어 있다. 더불어 동측채의 가장 북쪽 방 위로 근래에 증축한 세면장이 있다. 그러나 형태상 부엌은 서측채에 포함되고 세면장과 동쪽 회침부의 상하방은 동측채에 포함되어 보이므로 이 후 건물에 대한 서술은 형태상의 서측채와 북측채, 동측채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건물은 남측면의 마당 위에 615mm 높이의 단을 쌓아 구성되었다. 방은 대부분 기름보일러 방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동쪽의 작은 부엌과 서쪽의 큰 부엌에 설치되었던 아궁이는 아직도 남아있다.

표 2 주간 실측치

구분	서측채(서측면)		서측채(동측면)
Y2-Y6	4,073	Y2-Y4	2,173
Y6-Y7	2,489	Y4-Y6	1,900
Y7-Y10	3,050	Y6-Y7	2,489
Y10-Y11	2,020	Y7-Y9	2,125
Y11-Y13	1,695	Y9-Y10	925
Y13-Y14	2,600	Y10-Y12	2,790
		Y12-Y13	925
		Y13-Y14	2,600
계	15,927	계	15,927
	북측채(북측면)		동측채(서측면)
X1-X2	3,062	Y1-Y3	2,052
X2-X3	2,494	Y3-Y5	2,025
X3-X4	2,470	Y5-Y8	2,460
X4-X5	2,472	Y8-Y9	2,146
X5-X6	2,470	Y9-Y10	925
X6-X7	2,784	Y10-Y12	2,790
		Y12-Y13	925
계	15,752	계	13,323

평면의 주칸은 서측채가 남쪽에서부터 2,173mm, 1,900mm, 2,489mm, 3,050mm, 2,020mm, 1,695mm, 2,600mm이고, 북측채가 서쪽에서부터 3,062mm, 2,494mm, 2,470mm, 2,472mm, 2,470mm, 2,784mm, 2,470mm, 2,784mm, 동측채는 북측에서부터 925mm, 2,790mm, 925mm, 2,146mm, 2,460mm, 2,025mm, 2,052mm이다. 전체 주칸은 서측채가 15,927mm이고 북측채는 15,752mm이며 동측채는 13,323mm이다. 북측채의 경우 퇴칸이 전후면 925mm로 대량칸은 4,640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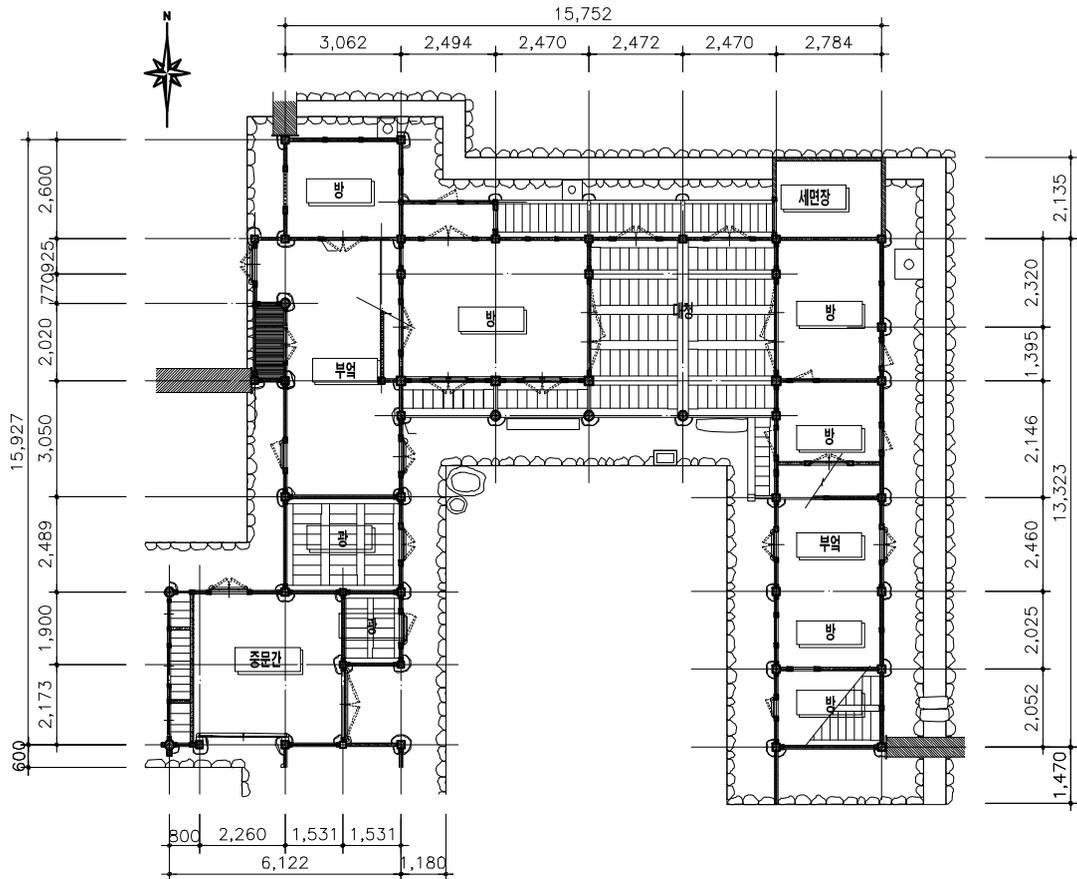


그림 21 안채 1층 평면도

## 2. 기단 및 초석

### 가. 기단

안채의 기단은 모두 자연석이 사용되었고 쌓기 방법은 허튼층쌓기와 바른층쌓기가 혼용되어 있다. 대지 조성을 위하여 터를 깎고 둔우어 터담기를 실시한 후 가옥의 위치에 맞도록 기단을 설치하였다.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기단은 한 단으로 높이 615mm로 축조되었다. 기준선에서의 레벨은 북측채의 상위면이 615mm로 가장 높으며, 동서채의 다른 두 면은 경사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서측채 기단 상면은 남측에서 북쪽으로 경사져 올라가 북측채 기단과 평탄하게 이어지고, 동측채도 남측에서 북쪽으로 구배를 이루어 북측채 기단과 평탄하게 이어진다. 서측채의 기단은 북측채 기단 상면과 385mm의 차이를 갖고, 동측채는

북측채 기단과 만나는데 최대 595mm의 레벨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단 내밀기는 안마당 방향으로 서·북·동측채 각각 1,180mm, 1,300mm, 1,300mm 정도로 길게 내밀었다. 안채 가운데 동측채의 남쪽 기단 내밀기가 1,500mm로 가장 길게 조사되었다.



그림 22 안채 기단



그림 23 안채 초석

#### 나. 초석

한식목조건축의 초석은 대개 다듬은돌 초석이거나 자연석 초석의 두 가지 중 하나가 사용된다. 다듬은돌 초석은 화강석을 원형이나 방형으로 잘 다듬어 상면의 수평을 맞추어 설치하므로 정평주초(定平柱礎)라고도 하며, 자연석 초석은 건물 규모나 기둥 크기에 적당한 규격의 자연석을 얼추 수평을 맞추어 놓기는 하나 덩벙덩벙 놓은 것처럼 보이므로 덩벙주초라고도 한다.

안채에서는 45개의 기둥과 45개의 초석이 사용되었으나 내진에 사용된 것들은 실측이 불가하여 모두 확인해볼 수는 없었다. 초석은 모두 정치하게 다듬지는 않았고 정방형이나 원형에 가깝거나 혹은 부정으로 다듬어 만든 덩벙주초가 사용되었다. 안채에 사용된 초석의 평균 규격은 약 470×470mm 정도이고, 기단 상면에 노출된 초석 높이는 평균 113mm, 최대 243mm이다.

### 3. 가구

집의 뼈대가 되는 가구는 축부를 구성하는 벽체가구와 지붕틀을 구성하는 지붕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축부 구성의 기본적인 부재는 기둥이고 여기에 창방이 포함되기도 한다. 지붕가구재로는 보, 도리, 장여, 대공 등의 부재가 사용된다.

#### 가. 구성

안채의 가구는 북측채와 서측채, 동측채가 서로 구별되는 특징있는 구성을 이루고 있다. 북측채는 내진주가 설치된 부분에 전·후면 평주와 내진주 사이에 퇴량을, 내진주 사이에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대들보 상면에는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걸었다. 그리고 전·후 평주 위에 주심도리를 걸어 전체적으로 가구의 짜임은 5량가로 구성되어 있다.

내진주는 고주를 사용하였고 내진주 상부에는 방형의 종도리를 설치해 놓았다. 그런데 내진주가 설치되지 않은 대청 중앙열은 전·후평주 사이에 굴곡의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대

공을 세워 5량가로 구성해 놓았다.

동측채와 서측채는 북측채와 달리 내진주가 없으며 결국 전면 평주와 배면 평주 사이에 대들보를 걸고, 중앙에 마루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건 3량가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서측채는 고주를 사용해서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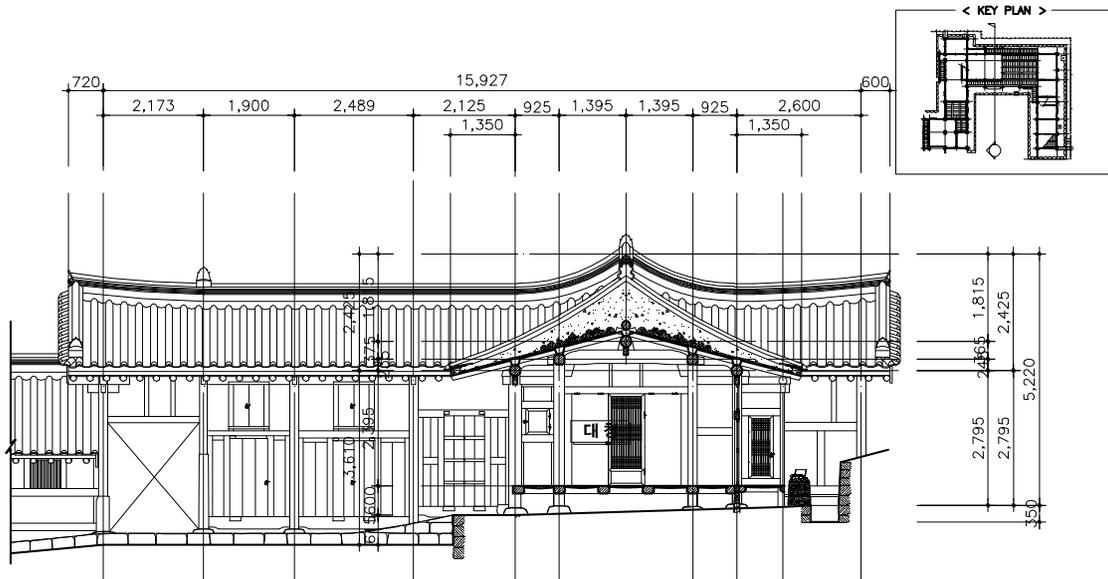


그림 24 안채 종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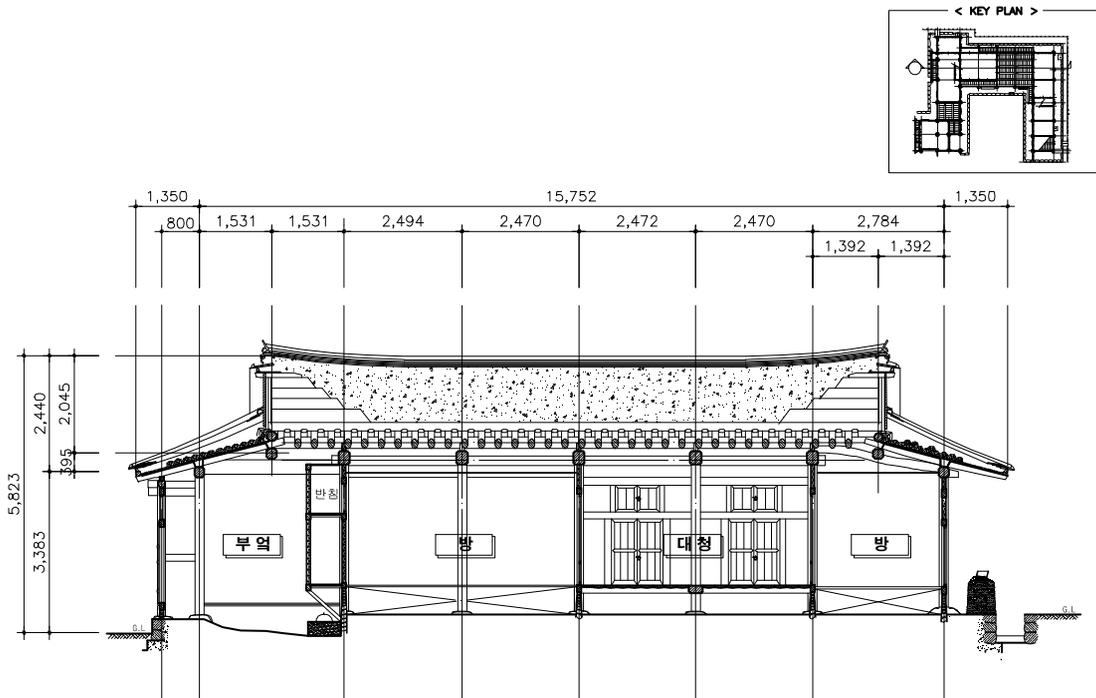


그림 25 안채 횡단면도-1

### 나. 기둥

기둥은 위치, 단면형태, 입면형태 등에 따라 구분된다. 기둥은 일반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외진주와 내진주로, 단면형태에 따라서는 원기둥과 네모기둥으로, 입면형태 즉 상하의 다듬은 형태로서는 배흘림기둥과 민흘림기둥으로 나뉘고 모두 하부를 그랭이질하여 세우게 된다. 안채에는 45개의 기둥이 사용되었으며, 그 가운데 41개가 네모기둥이고 4개가 원기둥이다. 형태상 원기둥에는 배흘림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네모기둥도 상하부의 둘레가 동일한 직립주가 사용되었다.

#### (1) 기둥

안채에는 서측채에 21개, 북측채에 9개, 동측채에 15개가 사용되어 총 45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서측채에 원기둥이 하나 사용되었으며 북측채에는 전면 외진주에 원기둥 3개가 사용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직립의 네모기둥이 쓰였다.

기둥의 크기별로 살펴보면 다섯 종류의 기둥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중문간에 설치된 기둥이 160×160mm로 그 크기가 가장 작으며, 그 다음은 2칸 부엌 밖으로 놓인 기둥으로 크기는 175×175mm 정도이다. 세 번째는 안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기둥으로 크기가 190×190mm이며, 네 번째는 대청과 방이 있는 북측채의 전면 내진주로 쓰인 기둥으로 네모기둥 가운데 가장 크며 크기는 225×225mm 정도이다. 다섯 번째는 북측채의 전면 외진주로 쓰인 원기둥으로 지름이 270mm 정도이다.

기둥의 길이는 서측채의 평주가 3,276mm 정도이고, 북측채의 외진주는 2,848mm, 내진주는 3,044mm 정도이고, 동측채의 평주는 3,255m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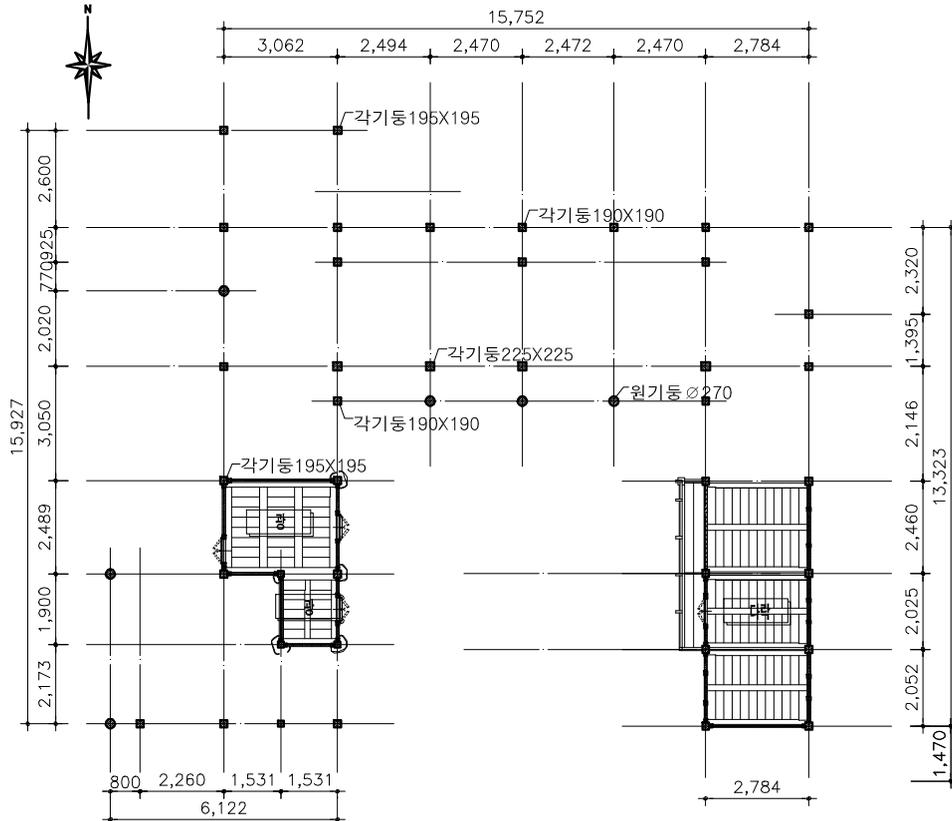


그림 26 안채 2층 평면도

(2) 귀숫음과 안솔림

기둥을 세울 때에 귀숫음이나 안솔림을 얼마나 두었느냐에 대한 조사는 전통목조기법에 대한 조사로써 항상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통상적으로 전통 한식건축에서는 기둥을 세울 때에 우주쪽을 여칸 평주들보다 약간 높게 세워 귀숫음을 주는 기법을 사용한다. 귀숫음에 대한 조사는 수평기준선을 설정하고 기준선에서부터 상하부의 기둥높이를 측정하여 이들 수치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초석이 정평주초인가 덩빙주초인가에 따라서 이들 치수를 검토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게 된다. 덩빙주초가 사용된 운조루 안채는 가구의 변형 등으로 인해 귀숫음에 대한 정확한 당초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안솔림에 대한 조사는 기둥 하부중심과 상부중심의 편차를 조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수직기준선을 띄워 기둥 상하부를 조사하여 안채 기둥의 솔림을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남동쪽의 솔림 현상이 나타나며, 위치에 따라서는 일부 남서쪽으로 솔림이 나타나고 있어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가옥의 중수 및 목재의 건조, 수축, 그리고 일조 등으로 인한 자연적, 인위적 환경에 의한 상부가구의 뒤틀림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조사된 기둥상부의 솔림 방향과 수치를 살펴보면 북측채와 동측채의 기둥은 대체로 남동쪽으로 솔리고 있고, 서측채는 남서쪽으로 솔리고 있는 상태이다. 솔림의 정도도 작게는 5mm에서 심하게는 80mm 정도에 이르는 등 정기적으로 계속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부주칸과 상부주칸을 비교해 보면 하부주칸보다 상부주칸이 더 넓은 칸도 많아 가구재들의 변형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안솔림에 대한 당초의 정확한 의도를 알아내기는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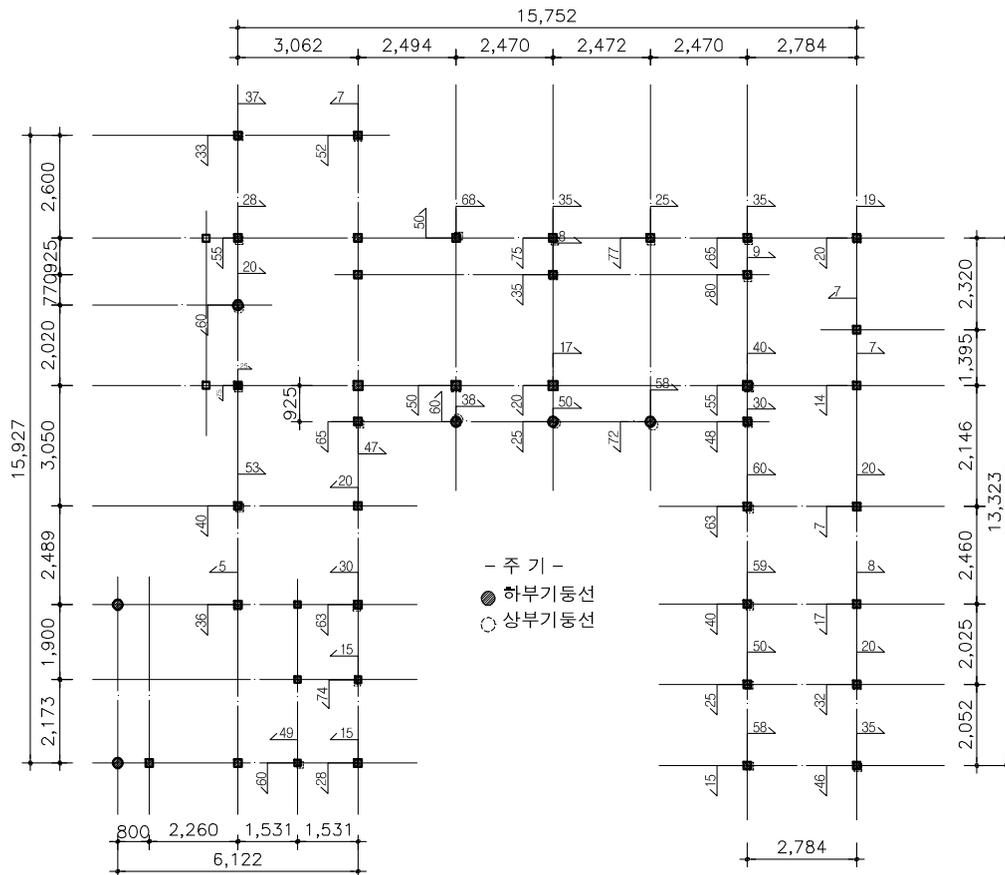


그림 27 안채 주심도

다. 보

안채의 북측채는 5량가로서 대들보와 퇴량이 설치되어 있고, 동측채와 서측채는 3량가로 대들보로 구성되어 있다.

대들보의 단면 크기는 규격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너비보다 춤이 긴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이다. 전체적인 입면은 위로 휘어져 오른 원래의 형태를 최대한 살려서 다듬은 모습이다. 북측채 대청에 사용된 것들의 단면 크기는 240×270mm 정도이며, 서측채와 동측채 대청에 사용된 것은 240×300mm 정도이다.

보머리 형태는 규격을 줄여 내밀고 상면을 경사하게 다듬은 후 마구리를 단순하게 직절 한 형태로 되어있다. 보머리 내밀기는 북측채 내진고주는 240mm 정도이며, 서측채와 동측채는 235mm 정도이다. 노출되어 있는 대들보 전체 길이는 북측채 대청의 것이 4,640mm이고 방의 것은 2,790mm이다. 서측채의 대들보 길이는 3,062mm이고, 동측채의 대들보 길이는 2,784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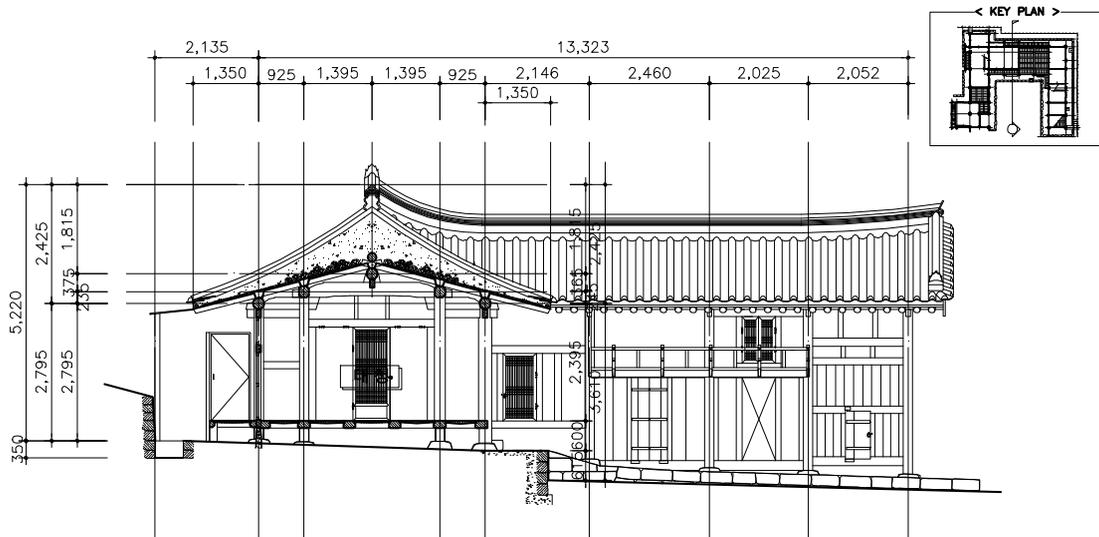


그림 28 안채 종단면도-2



그림 29 북측채 대청 상부각구



그림 30 서측채 부의 상부각구

퇴량의 단면은 규격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대들보와 같이 장방형에 가까운 방형의 네 모서리를 굴곡린 형태이다. 전체적인 입면은 중앙부가 약간 위로 휘어져 오르게 다듬은 모습이다. 퇴량의 단면 규격은 180×240mm 정도이다. 보머리 형태는 대들보와 마찬가지로 규격을 줄여 내밀고 상면을 경사지게 다듬은 후 마구리를 단순하게 직절한 형태로 되어있다. 보머리 내밀기는 278mm 정도이고 노출되어 있는 퇴량 전체길이는 전후면 모두 925mm 정도이다.

#### 라. 도리 및 장여

안채는 가구가 삼량가와 오량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도리는 처마도리와 중도리 그리고 중도리의 세 종류이다. 단면 형태는 굴도리와 납도리로 규격은 위치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다. 처마도리는 굴도리로 단면 크기는 지름 240mm 내외이고, 중도리는 납도리로 210×210mm 정도이다. 대들보 중앙의 중도리는 굴도리로 단면 크기는 지름 180mm 정도이다.



그림 31 대청 중도리 상량문

북측채는 처마도리와 중도리 하부에 장여를 보강하였다. 모두 수장폭이 90mm 내외이고, 춤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165mm이다. 대청 중도리 장여 하부에 글귀가 조사되었는데, ‘송정기원후삼병신칠월이십칠일유시상량용용용(崇禎紀元後三丙申七月二十七日酉時上梁龍龍龍)’이라는 상량문이다. 서측채 전면 처마도리 하부에도 장여를 받쳐 보강하였다. 크기는 수장폭이 90mm, 춤은 165mm이다. 그 외의 서측채와 동측채 처마도리와 중도리 하부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 마. 대공

대공은 도리를 받치는 부채로서 형태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안채의 경우 중도리를 받치는 마루대공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루대공은 모두 사다리꼴 형태의 판대공이 사용되었다. 크기는 수장폭이 90mm 정도이고, 높이가 170mm 정도이다. 동측채와 서측채에 사용된 마루대공 또한 판대공으로 수장폭이 90mm 정도이고, 높이가 133mm 정도이다.

### 4. 수장

안채의 기둥사이 각 칸에는 하인방이나 상·하인방 혹은 상·중·하인방이 설치되어 있다.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 칸에서 인방은 문지방이나 문미를 겸하게 되고 문짝 양옆에는 문선이 설치된다.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기둥사이 부분에는 벽체가 들어져 있는데 벽체는 모두 회벽으로 마무리한 심벽으로 되어있다.

각 실 내부바닥을 살펴보면 방은 온돌 위에 장판지로, 마루는 우물마루로, 부엌은 흙바닥으로 마감되어 있다. 천장은 대청과 방이 각각 서까래가 드러나 보이는 연등천장과 종이 반자로 되어있다. 이들 수장에 대해 살펴보고도록 한다.

## 가. 인방, 문선

### (1) 인방

인방은 벽체의 뼈대와 문얼굴 구성을 위해 기둥과의 사이에 상·중·하인방을 각각 가로지른 횡부재로서 창호와 벽체가 구성되는 칸에 모두 설치되어 있다. 하인방은 모든 칸에 사용되었으나 중인방과 상인방은 창호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위치에 차이가 있다. 창호가 있는 칸에서 대부분 상인방과 하인방은 각기 문미와 문지방을 겸하였다.

인방재의 폭은 상·중·하인방 대부분이 90mm 정도이고, 굵은 110~260mm 정도의 것들이 사용되었다. 상인방은 120mm의 것들이 주로 사용되었고, 중인방은 120~150mm 정도의 것들이 사용되었다. 중인방이 머름 하방을 겸할 경우에는 225mm의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인방의 굵은 150~260mm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중·상인방보다 크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인방의 크기는 설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 (2) 문선

살림집이므로 많은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창호를 설치하기 위해 문짝 양옆으로 문선이 설치되어 있다. 문선 두께는 북측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150mm 정도로 인방재의 두께와 비슷하며, 서측채와 동측채에 사용된 것들은 120~125mm 정도로서 인방재의 두께보다 살짝 얇다. 폭은 대부분 90mm 정도이다.

인방재로 문미와 문지방을 구성하며 양옆에 문선을 세워 문얼굴이 완성된다. 문선에는 돌쩌귀 등을 부착하여 창호를 단다. 안채의 문얼굴은 각 모서리가 연귀맞춤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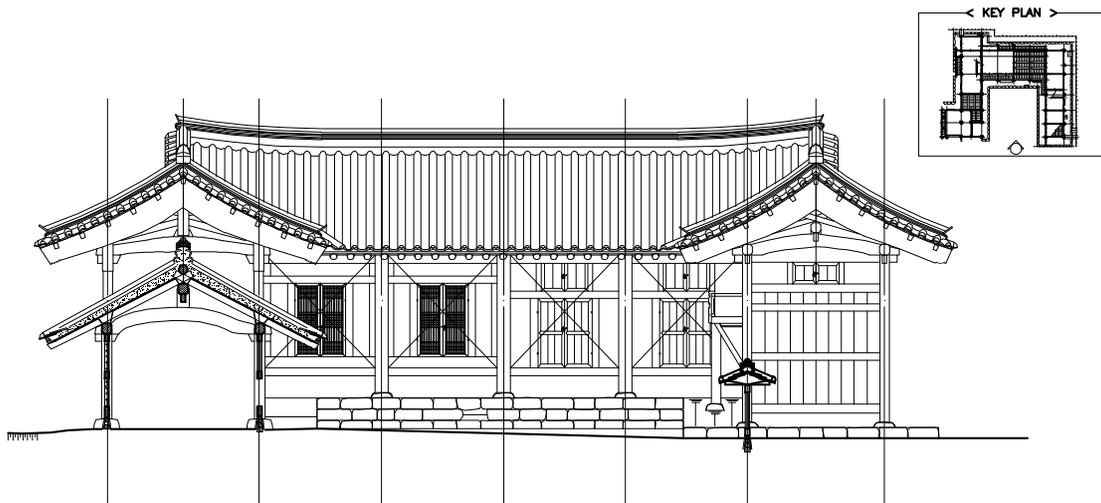


그림 32 안채 정면도

## 나. 벽체

벽체를 하부에서부터 살펴보면 네 면의 하인방 하부에는 대청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막이벽이 설치되어 있다. 북측채는 대청 고막이 부분을 전면 부분만 띄워 놓았다. 정면과 배면 그리고 서측면과 동측면 온돌방과 대청에 창호가 설치되는 칸에는 대부분 머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각 칸마다 창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벽체는 인방을 건너지르고 인방 두께에 맞도록 흙을 채워 회벽으로 마무리한 심벽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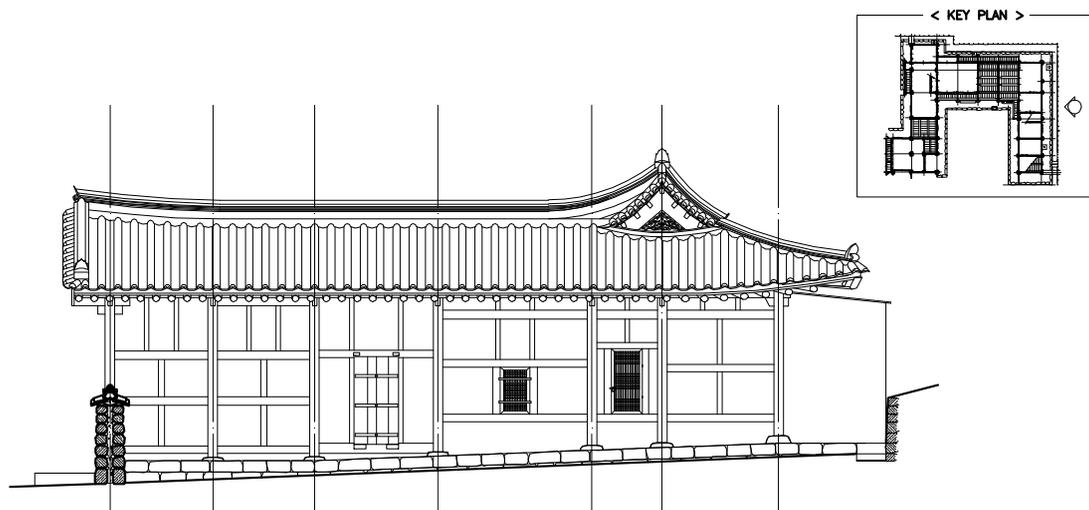


그림 33 안채 우측면도

#### 다. 마루

대청에 설치된 우물마루는 기둥에 장귀틀을 걸고 이에 직교하여 동귀틀을 걸구한 후 청판을 깐 우물마루의 형태로 되어 있다. 동귀틀의 한쪽 면은 장귀틀에 걸구되고, 반대편 벽체 부분에는 동귀틀을 설치하지 않고 켈중방에 걸구되어있다. 북측채는 한 칸에 우물을 세 개씩 놓고 전후 퇴칸에 한 개씩 놓아 5개의 우물을 구성해 놓았다. 청판은 각 우물마다 9장씩 설치되어 일정하다.

부채의 단면 크기는 장귀틀이  $295 \times 150\text{mm}$ , 동귀틀은  $240 \times 150\text{mm}$ 으로 귀틀은 춤에 비해 너비가 모두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귀틀 간격을 넓게 잡아 청판의 길이를  $693\text{mm}$  내외로 길게 하였고, 두께는  $45\text{mm}$ 로 되어있다.

북측채 전면의 뒷마루는 각 칸마다 반귀틀과 여모귀틀 사이에 우물을 구성하여 청판을 끼워 놓았다. 반귀틀의 너비는  $195\text{mm}$ , 춤은  $150\text{mm}$  정도이며, 여모귀틀 너비는  $240\text{mm}$ , 춤은  $150\text{mm}$  정도이다. 청판의 두께는 대청과 같은  $45\text{mm}$  정도이다. 후면의 뒷마루는 전면과 동일하게 각 칸마다 반귀틀과 여모귀틀 사이에 우물을 구성하여 청판을 끼워 놓았다. 반귀틀의 너비는  $140\text{mm}$ , 춤은  $120\text{mm}$  정도이며, 여모귀틀 너비는  $90\text{mm}$ , 춤은  $120\text{mm}$  정도이다. 청판의 두께는 역시 대청과 같은  $45\text{mm}$ 이다.

동측채 방 앞의 쪽마루는 북측채 후면 뒷마루와 같이 우물을 구성한 후 청판을 끼워 놓았다. 동귀틀 너비는  $125\text{mm}$ , 춤은  $150\text{mm}$  정도이고, 여모귀틀 너비는  $190\text{mm}$ , 춤은  $150\text{mm}$  정도이다. 청판의 두께는  $45\text{mm}$  정도이다. 쪽마루에서 연결되는 다락마루는 동측채 부엌 상부의 다락으로 이어진다. 다락의 동귀틀 너비는  $210\text{mm}$ , 춤은  $150\text{mm}$  정도이다. 청판의 두께는  $45\text{mm}$  정도이다.

안채의 모든 쪽마루는 안방 부분과 대청부분에 높이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청과 다락 사이에 높이 차이를 두어 각 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맞추어 쪽마루 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안채 대청 마루



그림 35 동측채 다락 마루

## 5. 창호

### 가. 문얼굴 및 문짝

#### (1) 문얼굴

문짝을 달기 위한 문얼굴의 구성은 인방과 문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대부분 하인방과 상인방을 문지방과 문미로 하고 양옆에 세운 문선으로 문얼굴을 구성하고 있다.

#### (2) 문짝<sup>27)</sup>

안채의 창호는 크게 외부 세살문 및 장지문, 판문으로 나뉘지며 기타 사롱창 등이 있다. 모두 여닫이로 되어있는 세살문은 방의 출입문으로 사용되었다. 북측채 방에 설치되어 있는 세살문의 형식은 창으로 설치되었으나 실제로는 문으로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세살문은 청판이 있는 세살청판문과 청판이 없는 세살문으로 구분된다. 대청에 면해있는 방 문에는 세살청판문을 사용하였으며, 뒷마루와 면해있는 방 문에는 세살문을 사용하였다. 세살쌍창의 내부에는 장지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창호지 대신 벽지를 발라 빛을 차단하여 암실을 만드는 갑창으로 맹장지이다. 판문은 부엌과 광, 대청, 다락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청 부분에 설치된 것은 창호의 기능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울거미는 창호에 따라 단면 크기에 차이를 둔다. 그러나 세살문에 보통 60×45mm의 울거미가 쓰였고 대청 판문에도 60×45mm의 같은 크기의 울거미가 쓰였다.

모서리는 모두 세살이 있는 쪽으로 연귀맞춤 되어 있고, 세살의 폭은 대부분 49mm 내외로 비슷하며 두께는 15mm 정도이다. 쇠시리는 모두 투밀이 살로 되어있다.

부엌과 대청 배면의 창호는 모두 두 짝 판문으로 구성되었다. 부엌의 판문은 상하부에 통둔테를 설치하여 두께 36mm의 판재를 띠장으로 연결한 후 둔테의 장부 구멍에 끼워 설치하였다. 북측채 대청 판문은 배면의 상하에 놓인다. 형식은 동일한 것으로 60×45mm 크기의 울거미가 쓰였으며, 판재의 두께는 30mm 정도이다.

내부 창호는 세살문 내부에 장지문을 두었고, 울거미는 30×54mm로 상하 홈대에 홈을 내어 턱을 둔 후 설치되었다.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되어있으며 문살은 30×30mm의 살로 가로 4줄, 세로 3줄을 구성하였다.

27) 한옥에서 건물에 달리는 문과 창은 그 크기와 모양을 비롯하여 개폐방식이 비슷하여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용도상으로 구분하자면 문은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한 것이고 창은 환기와 일조를 위한 것이다. 김왕직, 그림으로 보는 한국 건축용어, 발언, 2002, 135쪽

다락의 출입문으로는 세살문이 사용되었다. 다른 세살문과 동일하게 60×45mm 크기의 울거미가 쓰였다. 모서리는 모두 세살이 있는 내측으로 세모접기가 되어 있고, 세살의 폭은 대부분 49mm 내외로 비슷하며 두께는 15mm 정도이다. 다락의 세살문도 쇠시리는 모두 투밀이 살로 되어있다. 띠살창호 살 구성을 살펴보면 창호의 규격에 따라 동살은 3·3·3개에서 5·7·5개까지 설치되어 있고, 장살은 4개에서 12개까지 설치되어 있다.



그림 36 북측채 방 세살문

그림 37 서측채 판문

#### 나. 창호철물

창호에는 돌쩌귀, 국화쇠, 배목, 문고리 등의 철물이 사용되었다. 돌쩌귀는 암수 두 개와 축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굽기는 지름 12mm의 것과 24mm 정도의 것 두 가지가 사용되었다. 높이는 70mm, 125mm 정도이다. 지름 24mm의 것은 상부와 하부에 비해 중앙부가 배부른 형태로 모양을 내었는데 세 곳만 설치되어 있다.

국화쇠의 지름은 47mm이고, 배목의 외부지름은 23mm 정도이다. 문고리는 손잡이로 설치된 단고리로 된 것과 내부 고정용으로 설치된 배목과 고리 사이에 연결고리를 하나 설치한 것 두 가지가 있다. 문고리의 지름은 68mm 정도이다.

중앙부가 배부른 형태의 돌쩌귀를 설치한 창호에 사용된 배목과 문고리는 다른 것들보다 비교적 큰 치수의 것들을 사용하였으며, 국화쇠도 이들 창호에만 설치되어 있다.

### 6. 처마

#### 가. 구성

안채는 ‘ㄷ’ 자형의 맞배지붕으로 처마는 모두 홑처마로 되어 있다. 처마내밀기를 조사한 실측치는 북측채 정면 1,322mm, 북측채 북측면 1,322mm, 동측채 서측면 1,322mm, 동측채 동측면 1,322mm, 서측채 서측면 1,321mm, 서측채 동측면 1,321mm 정도로서 4尺 정도의 내밀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서까래, 평고대, 연합, 추녀

##### (1) 추녀 및 서까래

추녀는 북측채와 동측채, 서측채가 만나는 부분에 회침추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대각선 반대편에 추녀가 설치되었다.

추녀는 춤이 너비보다 큰 장방형부재를 뱃바닥에 완만하게 곡을 주어 다듬었다. 추녀의

마구리는 별다른 치장 없이 사절하고 하부 모서리는 모접기를 하지 않아 각지게 되어있다. 회침추녀는 회침부 밖으로 길게 설치되었고, 직교하는 연목의 마구리를 빗잘라 회침추녀의 옆면에 결구되어 있다. 마구리 부분에는 판재를 대각선 방향으로 자른 삼각형 형태의 고삼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38 북측채 동쪽 회침추녀

안채의 북측채 동·서쪽 회침추녀 바닥에는 모두 목서가 남아 있다. 동쪽 추녀 하부에는 ‘병진춘삼월초일일경년중수(丙辰春三月初一日庚年重修)’ 이라 하였고, 서쪽 추녀 하부에는 ‘병진춘삼월초오일갑술중수(丙辰春三月初五日甲戌重修)’ 이라 하였다.<sup>28)</sup> 회침추녀 마구리 규격은 160×180mm 정도이다. 북측채와 동측채가 만나는 회침추녀의 대각선 방향에 있는 추녀의 규격은 160×180mm로 회침추녀와 동일하다.

안채의 서까래는 모두 처마서까래만이 사용되었다. 크기는 북측채가 평균 120mm 내외이고, 동·서측채는 평균 135mm 내외로 평균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안목에서 133mm일 때 말구는 105mm로 28mm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쪽에서부터 마구리까지 걷어 올려 다듬고 북측채의 경우 15mm, 동·서측채는 28mm 정도 빗잘라 내었다.

## (2) 평고대 및 연합

북측채의 평고대 크기는 90×45mm 정도이고, 연합의 크기는 75×90mm 정도이다. 동측채의 평고대 크기도 90×45mm 정도이고, 연합의 크기는 75×90mm 정도이다. 서측채의 평고대 크기는 90×90mm 정도이고, 연합은 75×90mm 정도이다. 안채 가운데 서측채 처마부의 평고대 크기만 90×90mm로 가장 크고, 북측채와 동측채는 90×45mm로 일정한 것을 볼 수 있다.

## 다. 양곡과 안허리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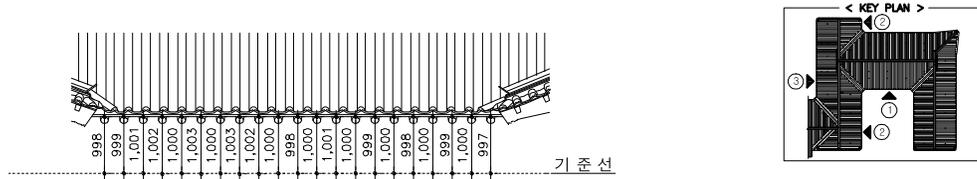
한식 지붕에서 처마곡선은 귀처마쪽을 위로 들어주는 양곡과 앞으로 내밀어 주는 안허리곡 이 두 가지의 곡률에 의해 그 형태를 갖추게 된다. 안채는 맞배지붕의 구성으로 실측치를 살펴보면 각기 위치에 따라 처마에 어느 정도의 곡이 잡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 (1)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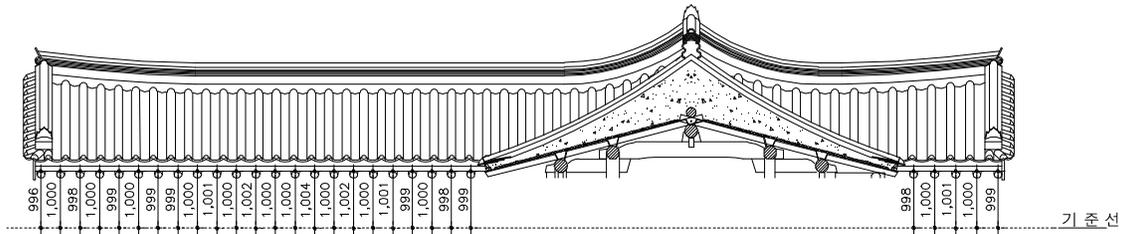
양곡의 실측은 수평기준선을 연목하부에 설정하여 각 연목 위치에서 평고대까지 떨어진 거리를 실측하였다.

안채의 중심에 있는 북측채 정면은 기준선에서 양곡편차는 997~1,003mm로 약 6mm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끝에서 일정한 체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므로 정면의 경우에는 양곡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안채에서 팔각지붕형식인 북측채의 북쪽면과 동측채의 동쪽면에서만 양곡을 찾아볼 수 있었다. 북측면은 중앙을 기준으로 최대편차가 344mm이며, 동측면은 중앙을 기준으로 북쪽의 초장까지 편차가 286mm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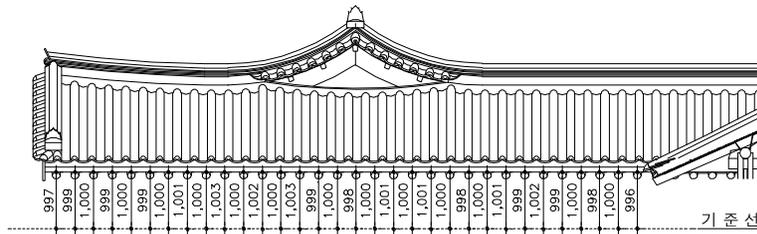
28) 여기서 병진년은 1916년으로 3월 1일과 5일에 수리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 11쪽 참고.



안채 양곡 상세도 1



안채 양곡 상세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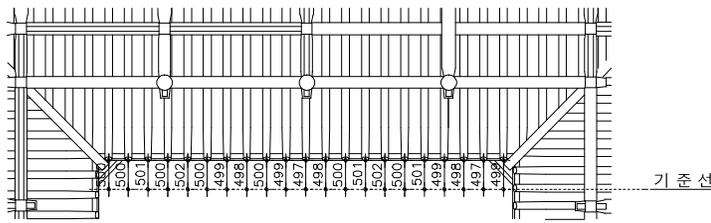
안채 양곡 상세도 3

그림 39 안채 양곡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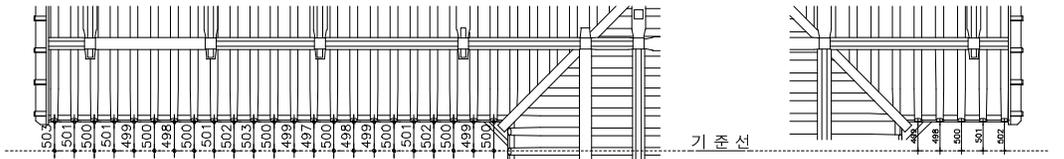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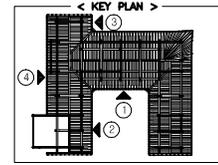
(2) 안허리곡

안허리곡의 실측은 수평기준선을 수직으로 이동하여 기준선을 설치하고 각 연목마다 떨어진 거리를 실측하였다.

북측채의 남측면과 동측채의 서측면, 서측채의 양 측면이 맞배지붕이어서 안허리곡이 없다. 안채의 북동쪽 부분이 팔작지붕으로 끝에서 8장 정도 지점에서 조금씩 내밀어 128mm의 안허리곡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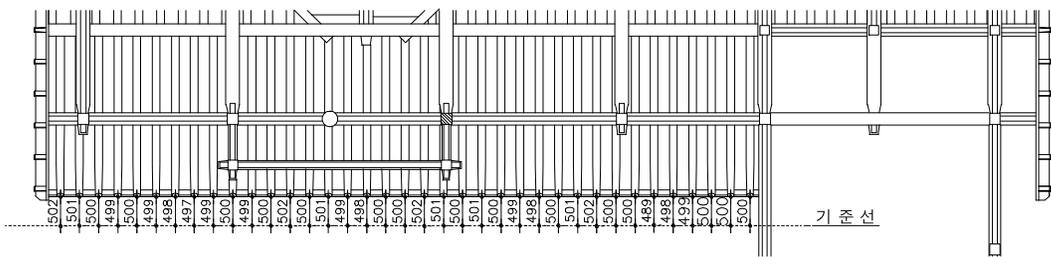


안채 안허리곡 상세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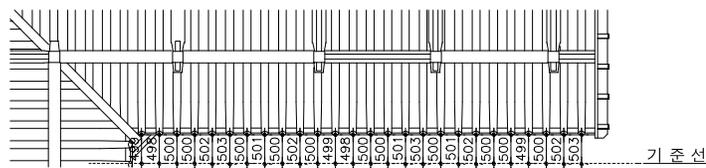


안채 안허리곡 상세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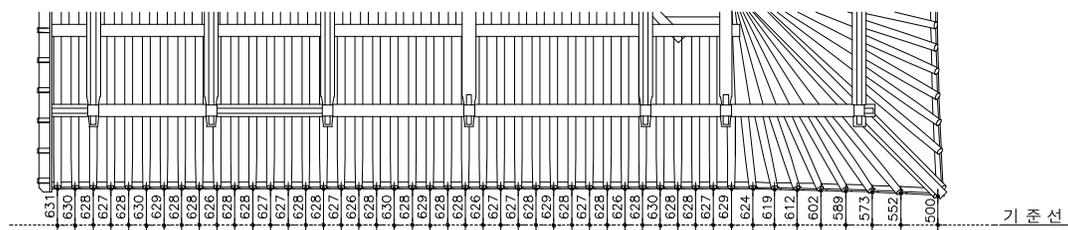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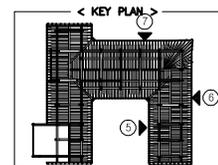
안채 안허리곡 상세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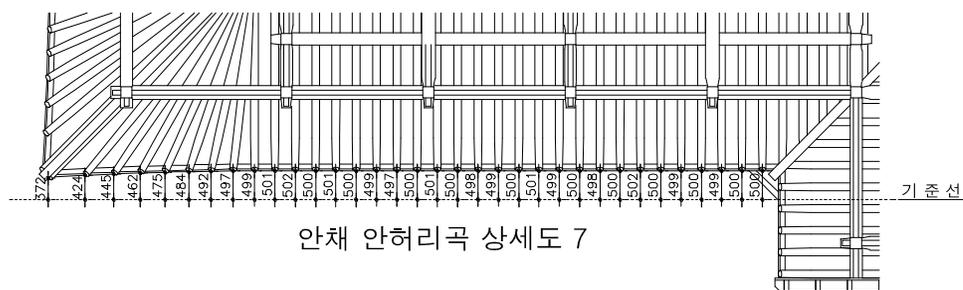
안채 안허리곡 상세도 4



안채 안허리곡 상세도 5



안채 안허리곡 상세도 6



안채 안허리곡 상세도 7

그림 40 안채 안허리곡 상세도

## 7. 지붕

### 가. 구성

‘ㄷ’ 자형 평면으로 모두 맞배지붕이고, 가옥이 꺾이어 만나는 곳의 모서리는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마는 모두 흘처마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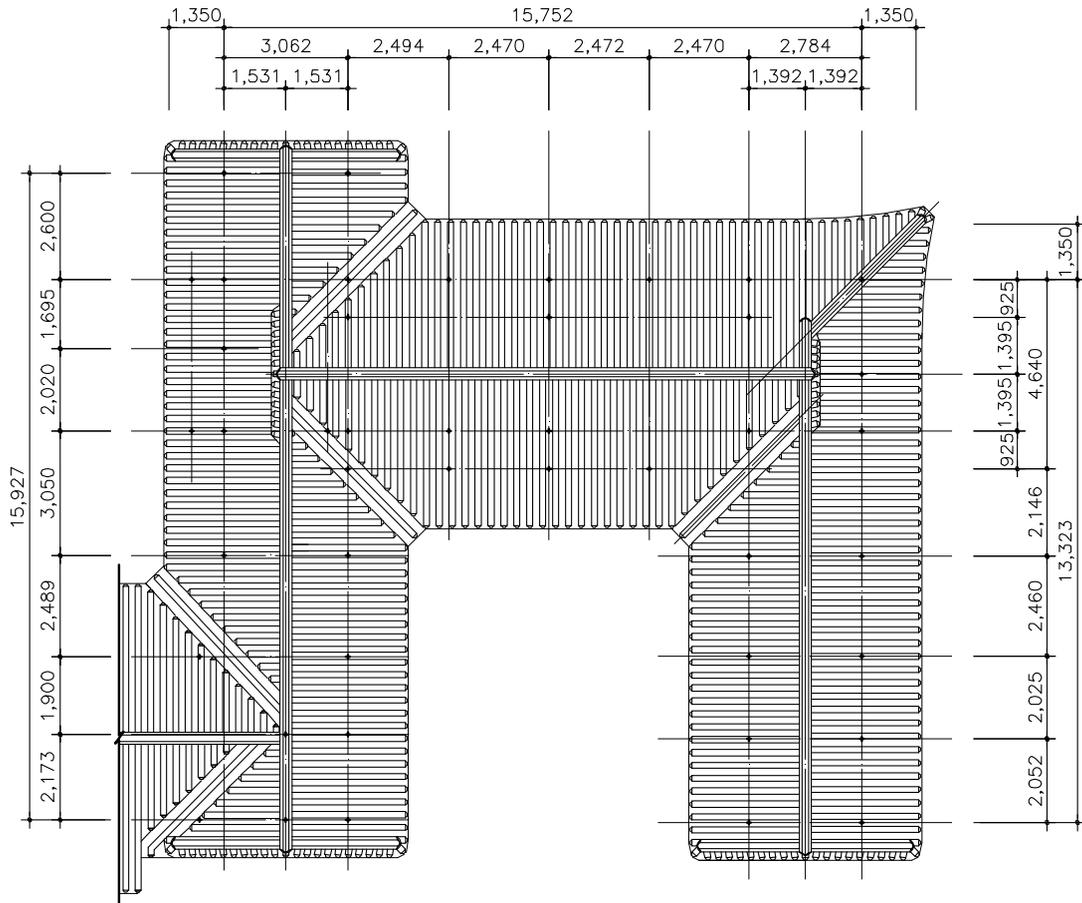


그림 41 안채 지붕평면도

### 나. 지붕 물매, 바닥곡, 마루곡

지붕은 용마루, 내림마루(팔작지붕의 경우 합각마루), 추녀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용마루는 채에 따라 레벨이 차이가 있는데 상단점을 비교하면 북측채가 서측채보다 612mm 높고, 북측채가 동측채보다 610mm 높다. 결국 북측채의 용마루가 가장 높고 서측채가 동측채보다 2mm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용마루의 길이와 만곡을 조사하기 위해 각종 마루에 기준선을 설치하고 500mm 간격으로 기준선에서의 거리를 측정하여 마루곡을 실측하였다. 대청이 위치한 북측채의 용마루는 전체 길이가 13,074mm이다. 용마루곡의 좌우 끝단과 중앙과의 최대 만곡치는 북측채와 서측채, 동측채가 각각 253mm, 224mm, 215mm로 중심부의 용마루곡이 양 측면채의 곡보다 더 크게 조사되었다.

내림마루(팔작지붕의 경우 합각마루) 역시 용마루와 같은 방법으로 실측하였다. 박공부의 내림마루 평균 길이는 서쪽 남측면이 3,017mm이고, 만곡치는 97mm이다. 동쪽 남측면은 평균 길이가 2,902mm이고, 만곡치가 121mm이다. 서측채보다 동측채의 내림마루 곡이 더 세다. 북쪽의 합각마루의 길이는 북측채 서측면이 2,225mm로 만곡치는 177mm이고, 동측면은 1,518mm로 만곡치는 82mm이다. 합각마루 곡은 서측이 동측보다 더 크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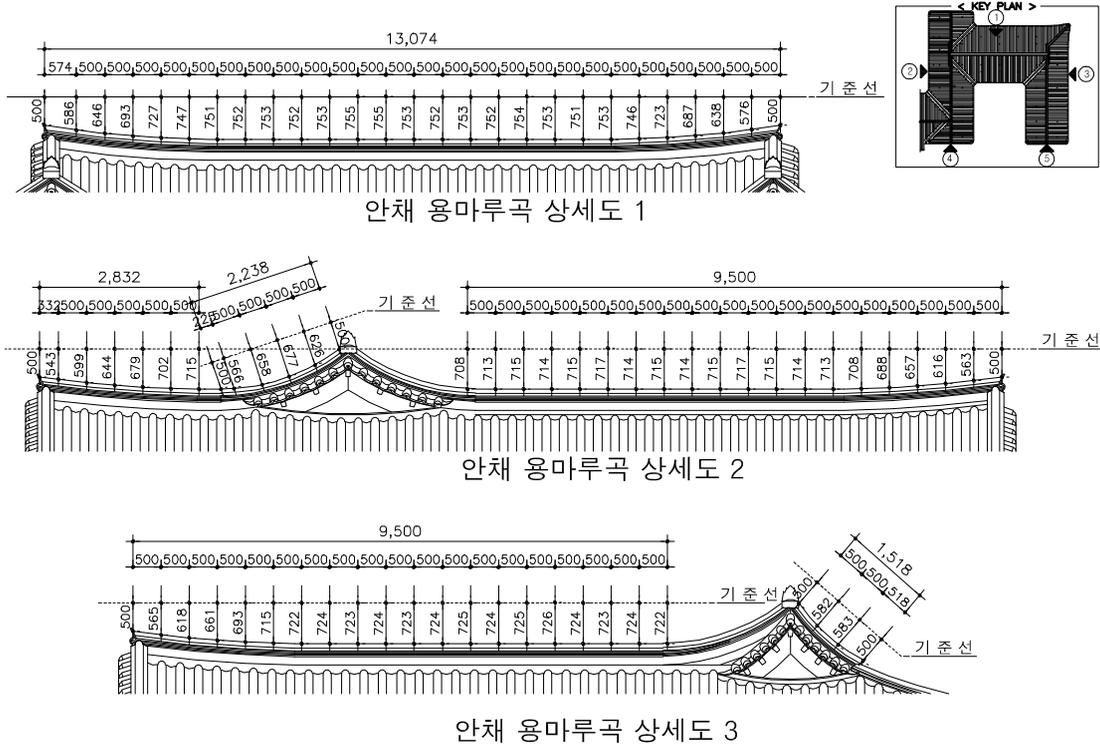


그림 42 안채 지붕마루곡 상세도

#### 다. 기와

안채의 지붕은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고, 지붕에는 용마루와 추녀마루 및 내림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 적새 5단쌓기이고, 추녀마루는 당골 위 적새 3단쌓기, 내림마루는 당골 위 적새 3단쌓기이다.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기와 종류로는 암키와, 수키와, 망와가 사용되었다. 구와와 신와가 함께 사용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신와로 교체되어 있다. 신와는 색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가 사용되었다. 망와는 두 종류의 기와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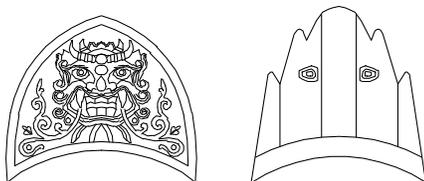


그림 43 안채 망와 문양 상세도



그림 44 안채 지붕 전경

### 라. 박공

서측채와 동측채는 맞배지붕으로 남측과 북측에 박공이 있다. 박공의 두께는 평균 42mm, 너비는 675mm 내외이다. 박공널의 끝머리는 사절한 후 계눈각을 파지 않고 끝에서 살짝 구불구불한 곡을 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목기연이 끼이는 상부면은 목기연이 통으로 물릴 수 있도록 박공면을 따내었다. 각면의 박공부에는 평균 11개의 목기연이 사용되었다. 목기연의 크기는 90×105mm 정도이다.



그림 45 서측채 박공

### 8. 아궁이, 굴뚝

안채에는 모두 다섯 개의 온돌방이 있고, 방마다 각기 아궁이와 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서측채 부엌과 동측채 부엌에 아궁이가 하나씩 있고, 굴뚝은 네 개이다. 안채 뒤쪽 기단 위에 독립형으로 세운 굴뚝은 높이가 810mm이다. 크기는 가장 큰 것이 가로 775mm, 세로 748mm로서 외편 쌓기하고 상부에 배연구를 뚫었다.

운조루 굴뚝의 특이한 점은 기단에 굴뚝 구멍을 냈다는 것이다. 네 굴뚝 가운데 한 곳이 안마당에서 볼 수 있는 기단 사이의 굴뚝인 것이다. 크기는 300×150mm 정도로 기단의 좌측에 치우쳐 있다.



그림 46 서측채 아궁이



그림 47 동측채 아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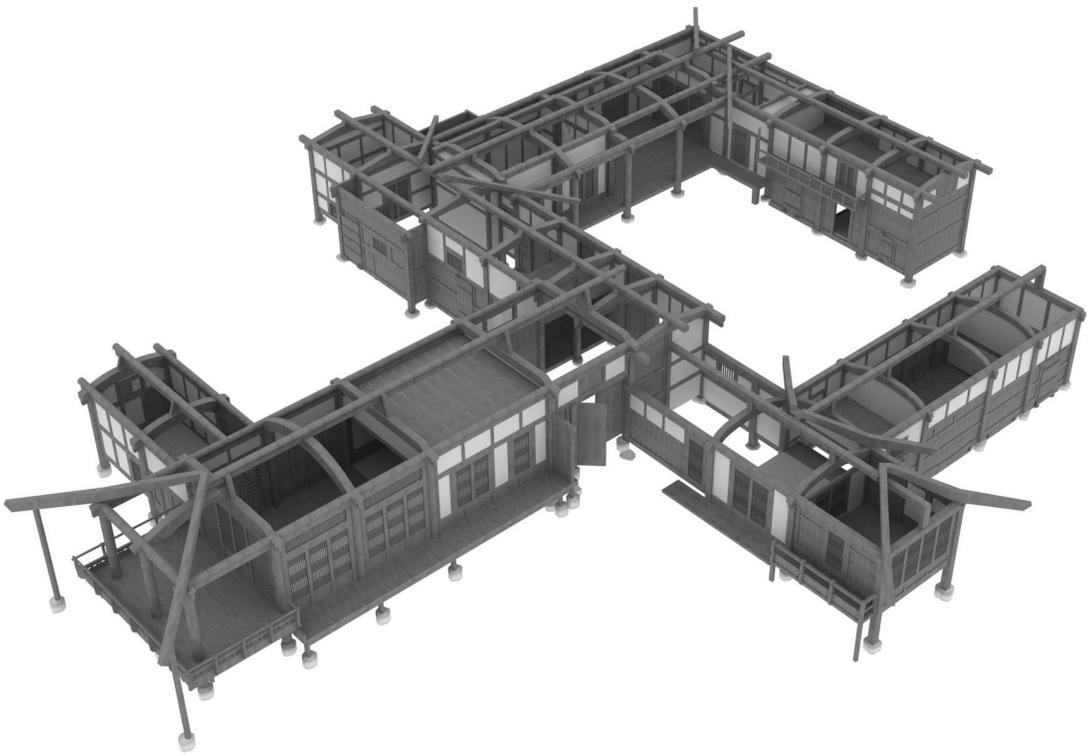
그림 48 북측채 정면 기단 굴뚝



그림 49 동측채 굴뚝

## V. 큰사랑채 실측조사

---





## V. 큰사랑채 실측조사

### 1. 평면

대문을 통해 들어서면 바깥마당이 나오고 마당 뒤의 사랑채와 바로 마주하게 된다. 좌측에 놓인 것이 사랑채(外舍, 큰사랑채)이고 우측에 놓인 것이 귀래정(中外舍, 중간사랑채)이다.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큰사랑채는 남측채 6칸(중문간 포함)과 북측채 2칸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ㄱ’ 자형이고, 남측채의 동쪽으로 안채의 중문간이 연결되어 있다. 남측채는 서측에서부터 1칸 누마루(足閒亭)와 2칸 대청(雲鳥樓), 2칸 방(隋分室長房), 중문(外廚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측채는 사랑채 대청마루에서 북쪽으로 연결된 익랑(二肯齋)으로 1칸의 마루방과 1칸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큰사랑채의 대청과 2칸 방 남측면에는 전체적으로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후면과 북측채의 동측면으로도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누마루 주위로는 난간이 둘러져 있다.



그림 50 큰사랑채 남측면



그림 51 큰사랑채 북측면

표 3 주칸 실측치

구분	남측채(서측면)		남측채(남측면)
Y1-Y2	2,000	X1-X2	2,526
Y2-Y3	2,013	X2-X3	2,473
	북측채(서측면)	X3-X4	2,480
Y3-Y4	2,482	X4-X5	4,328
Y4-Y5	2,818	X5-X6	3,060
계	9,313	계	14,867

평면의 주칸은 서측에서부터 2,526mm, 2,473mm, 2,480mm, 4,328mm, 3,060mm이고, 남측에서부터 2,000mm, 2,013mm, 2,482mm, 2,818mm 정도이다. 전체 주칸은 남측채의 남측면이 14,867mm이고 서측면이 4,013mm이다. 북측채의 서측면은 5,300mm이고, 북측면은 2,473mm이다. 결국 남측채의 대량칸은 4,013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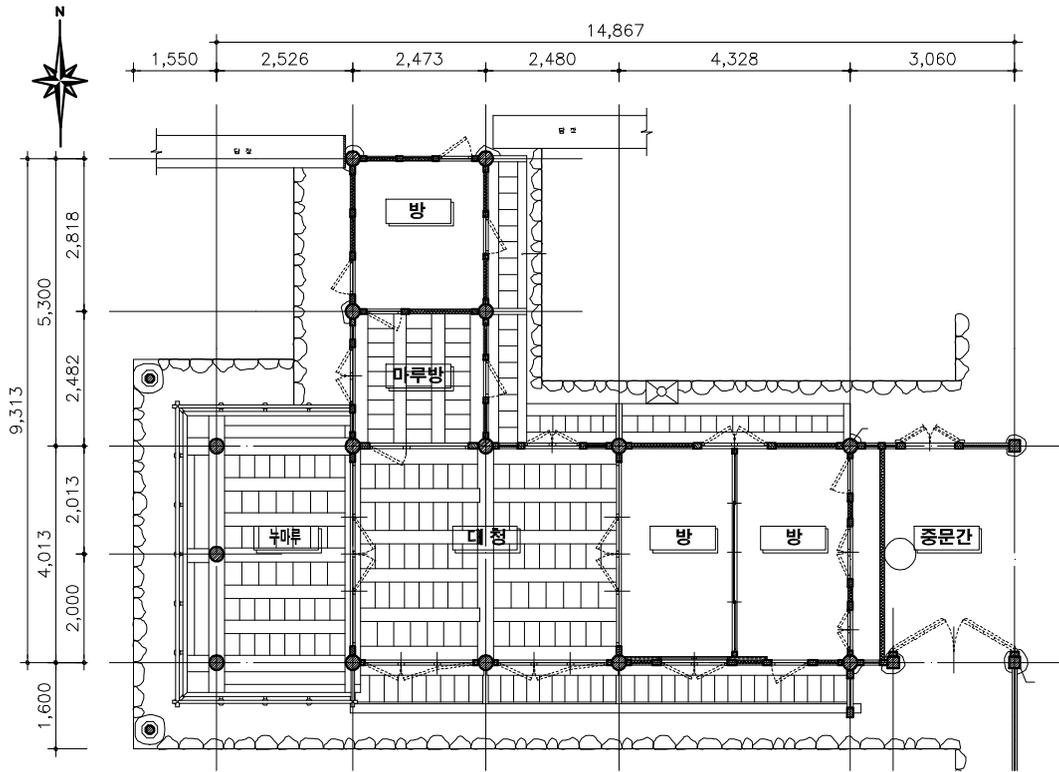


그림 52 큰사랑채 평면도

## 2. 기단 및 초석

### 가. 기단

기단은 배면쪽이 높고 정면쪽이 낮은 지형 때문에 전면에 석축을 쌓고 기단을 설치했다. 사랑채의 기단은 모두 자연석이 사용되었고 한 단으로 되어있다. 대지 조성을 위하여 터를 깎고 돋우어 터뒹기를 실시한 후 가옥의 위치에 맞도록 기단을 설치하였다.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기단은 한 단으로 정면은 높이 280mm로 배면은 80mm로 축조되었다.

기단 내밀기는 남측채의 전·후면이 각각 1,600mm, 1,200mm로 배면보다 정면쪽으로 길게 내밀었으며, 서측면 기단 내밀기는 1,550mm이다. 북측채는 서측면과 동측면이 각각 1,100mm, 1,200mm이다. 큰사랑채 가운데 남측채의 남쪽 기단 내밀기가 1,600mm로 가장 길다.



그림 53 큰사랑채 석축



그림 54 서측면 배수로

## 나. 초석

큰사랑채에서는 18개의 기둥과 18개의 초석이 사용되었다. 초석은 모두 정치하게 다듬지는 않았고 정방형이나 원형에 가깝거나 혹은 부정으로 다듬어 만든 덩벙주초가 사용되었다. 초석의 규격은 누마루 초석이 약 690×690mm 정도이고, 대청과 방의 초석이 약 870×870mm 정도이다. 기단 상면에 노출된 초석 높이는 평균 130mm, 최대 243mm이다. 쪽마루 초석의 크기는 약 330×330mm 정도이고, 기단 상면에 노출된 초석 높이는 평균 75mm이다.

## 3. 가구

### 가. 구성

큰사랑채의 가구는 남측채와 북측채가 3량가로 서로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다. 큰사랑채는 안채와 달리 내진주가 없으며 사랑채 전·후면 평주가 모두 원기둥이다. 안채와 이어지는 중문간 외에는 네모기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면평주와 배면평주 사이에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중앙에 중도리를 건 3량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측채는 대들보 가운데에 장여와 중도리를 바로 올리지만 북측채는 대들보 위에 판대공을 올리고 장여와 중도리를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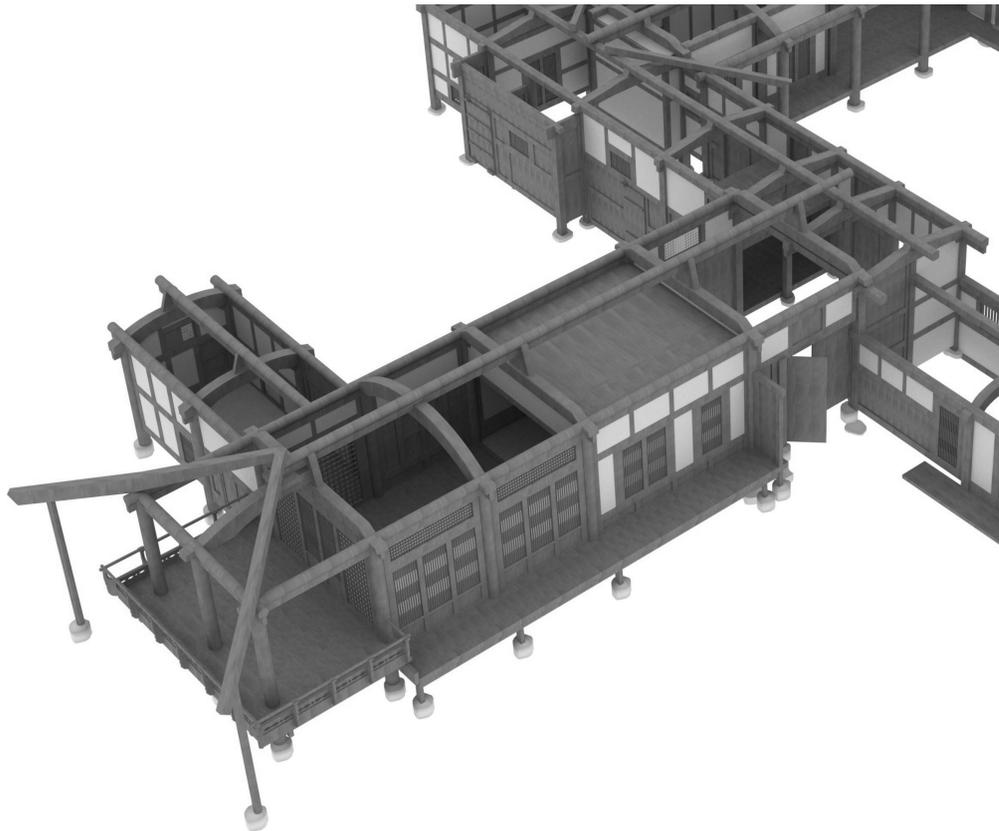


그림 55 큰사랑채 가구도 3D 그래픽

## 나. 기둥

### (1) 기둥

큰사랑채에는 남측채에 14개, 북측채에 4개가 사용되어 총 18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중문간 3개의 네모기둥을 제외하고 남측채와 북측채에 모두 원기둥이 사용되었다.

기둥을 크기별로 살펴보면 두 종류의 기둥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중문간에 설치된 네모기둥이 210×210mm이고, 그 다음은 사랑채의 평주로 쓰인 원기둥으로 지름이 270mm 정도이다. 안채의 원기둥 지름과 동일하다. 기둥의 길이는 남측채의 평주가 약 3,350mm 정도이고, 북측채의 평주는 2,770mm 정도이다.

### (2) 귀숫음과 안쏠림

덤방주초가 사용된 운조루 사랑채는 가구의 변형 등으로 인해 귀숫음에 대한 정확한 당초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안쏠림에 대한 조사는 기둥 하부중심과 상부중심의 편차를 조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사랑채 기둥의 쏠림을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 있다. 가옥의 중수 및 목재의 건조, 수축, 그리고 일조 등으로 인한 자연적, 인위적 환경에 의한 상부가구의 뒤틀림이 일어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조사된 기둥상부의 쏠림 방향과 수치를 살펴보면 남측채와 북측채의 기둥은 대체로 북서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태이다. 쏠림의 정도도 작게는 3mm에서 심하게는 42mm 정도에 이르는 등 정기적으로 계속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안쏠림에 대한 당초의 정확한 의도를 알아내기는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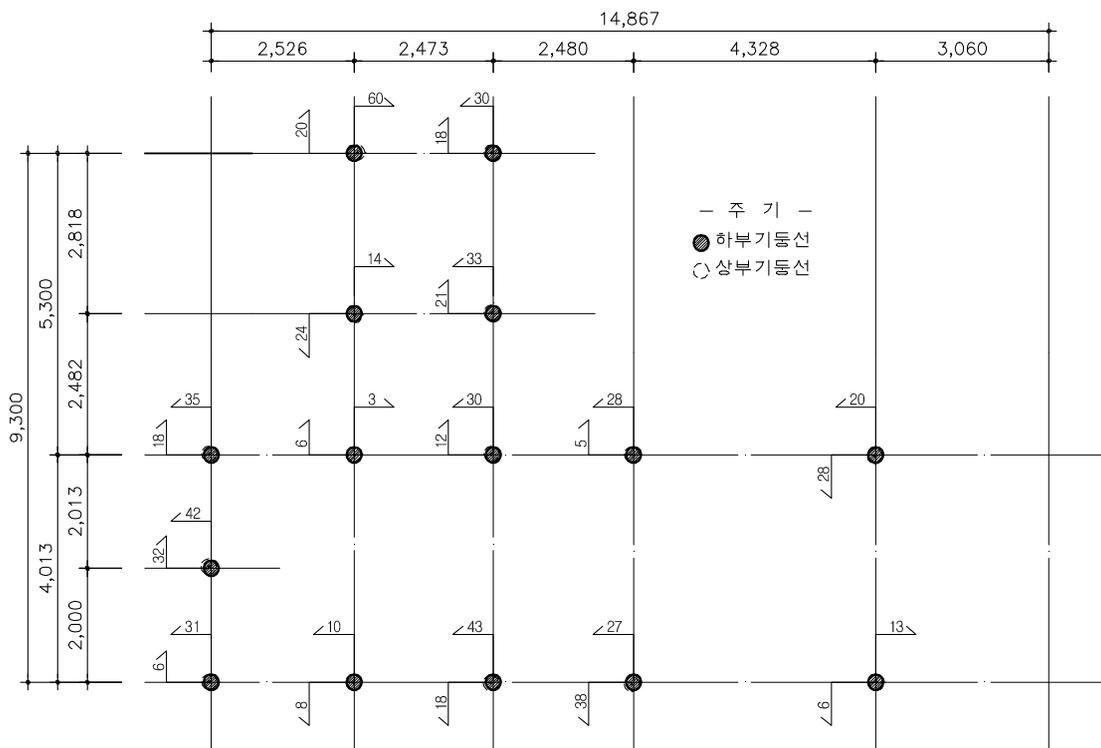


그림 56 큰사랑채 주심도

다. 보

큰사랑채는 3량가로서 남측채와 북측채 모두 대들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들보의 단면 크기는 규격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너비보다 춤이 긴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이다. 전체적인 입면은 위로 휘어져 오른 원래의 형태를 최대한 살려서 다듬은 모습으로 남측채에 사용된 보가 위로 더 많이 휘어져 오른 모습이다. 남측채 대청에 사용된 것들의 단면 크기는 240×330mm 정도이며, 북측채에 사용된 것은 240×300mm 정도이다. 보머리 형태는 규격을 줄여 내밀고 상면을 경사지게 다듬은 후 마구리를 오각형으로 다듬고 단순하게 직절한 형태로 되어있다. 보머리 내밀기는 남측채 평주는 300mm 정도이며, 북측채도 300mm 정도이다. 노출되어 있는 대들보 전체 길이는 남측채 대청의 것이 4,013mm이고, 북측채의 대들보 길이는 2,473m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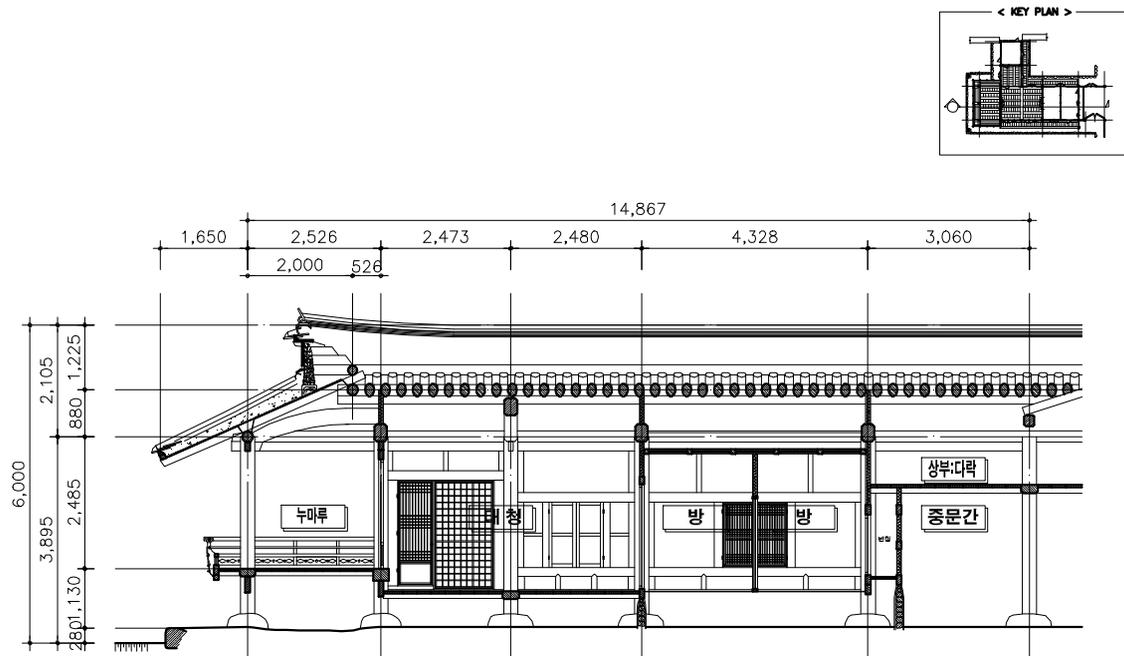


그림 57 큰사랑채 횡단면도



그림 58 남측채 대청 상부가구



그림 59 남측채 누마루 상부가구

### 라. 도리 및 장여

사랑채는 가구(架構)가 3량가로 도리는 처마도리와 종도리의 두 종류가 설치되어 있다. 단면 형태는 모두 굴도리로 단면 크기는 처마도리와 종도리 둘 다 지름 210mm 내외이다.



그림 60 대청 종도리 상량문

도리 하부에는 장여를 받쳐 보강하였다. 처마도리와 종도리 하부에 장여를 보강하였고 그 크기는 모두 수장폭이 90mm 내외이고, 춤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165mm이다. 남측채 대청 종도리 장여 하부에 글귀가 조사되었는데, ‘龍龍龍崇禎紀元後三丙申秋九月己巳十六日甲申戊辰時上樑龍龍’ 라고 쓴 목서가 있으며, 그 옆에는 ‘甲戌夏六月甲申朔十七日庚子辛巳時重修’ 이라는 상량문이 또 쓰여 있다.<sup>28)</sup> 북측채도 처마도리와 종도리 하부에 장여를 받쳐 보강하였다. 크기는

수장폭이 90mm고, 춤은 165mm이다. 안채의 도리 장여와 동일한 크기이다.

### 마. 대공

대공은 도리를 받치는 부재로서 형태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사랑채의 경우 북측채에만 종도리를 받치는 마루대공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루대공은 사다리꼴 형태의 판대공이 사용되었다. 크기는 수장폭이 90mm 정도이고, 높이가 418mm 정도이다.

## 4. 수장

### 가. 인방, 문선

#### (1) 인방

인방재의 폭은 상·중·하인방 대부분이 90mm 정도이고, 춤은 165~180mm 정도의 것들이 사용되었다. 상인방은 165mm의 것들이 주로 사용되었고, 중인방은 175mm, 머름중방은 175mm 정도의 것을 사용하였다. 하인방의 춤은 180mm 정도로 중·상인방보다 크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인방의 크기는 설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 (2) 문선

문선 두께는 남측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165~185mm 정도로 인방재의 두께와 비슷하며, 북측채에 사용된 것들은 105~150mm 정도로서 인방재의 두께보다 살짝 얇다. 폭은 대부분 90mm 정도이다.

인방재로 문미와 문지방을 구성하고 양옆에 문선을 세워 문얼굴이 완성되며, 문선에는 돌쩌귀 등을 부착하여 창호를 달게 된다. 사랑채의 문얼굴은 각 모서리가 연귀맞춤으로 되어 있다.

28) 승정기원후 세 번째 병신년은 1776년 9월 16일에 상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옆의 덧보에 있는 갑술년은 1874년인지, 그 후 60년이 지난 1934년인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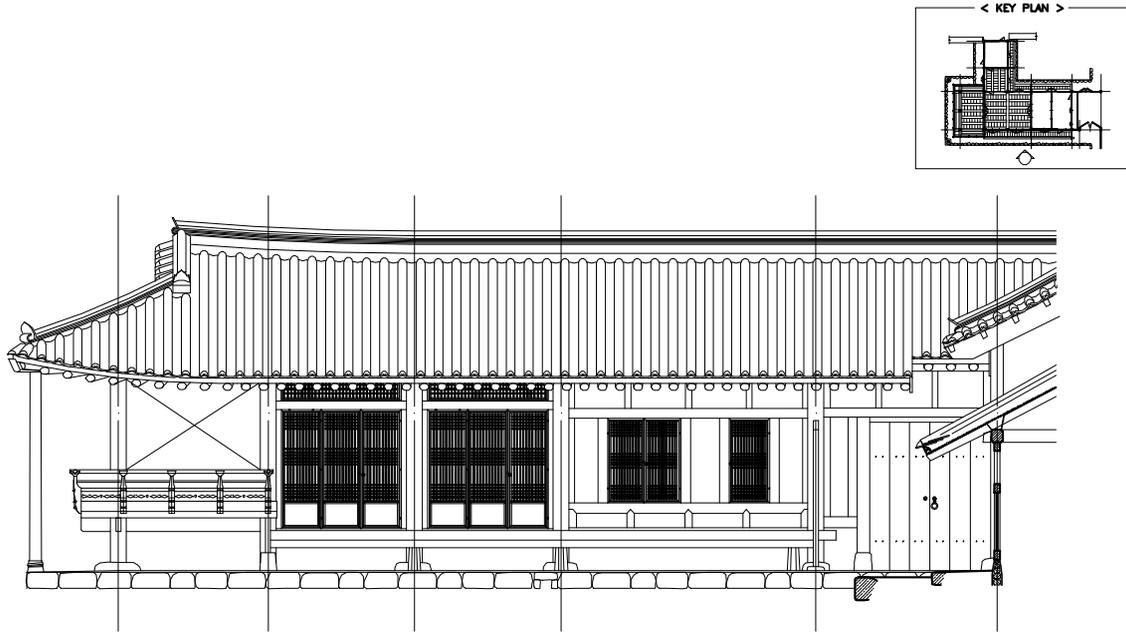


그림 61 큰사랑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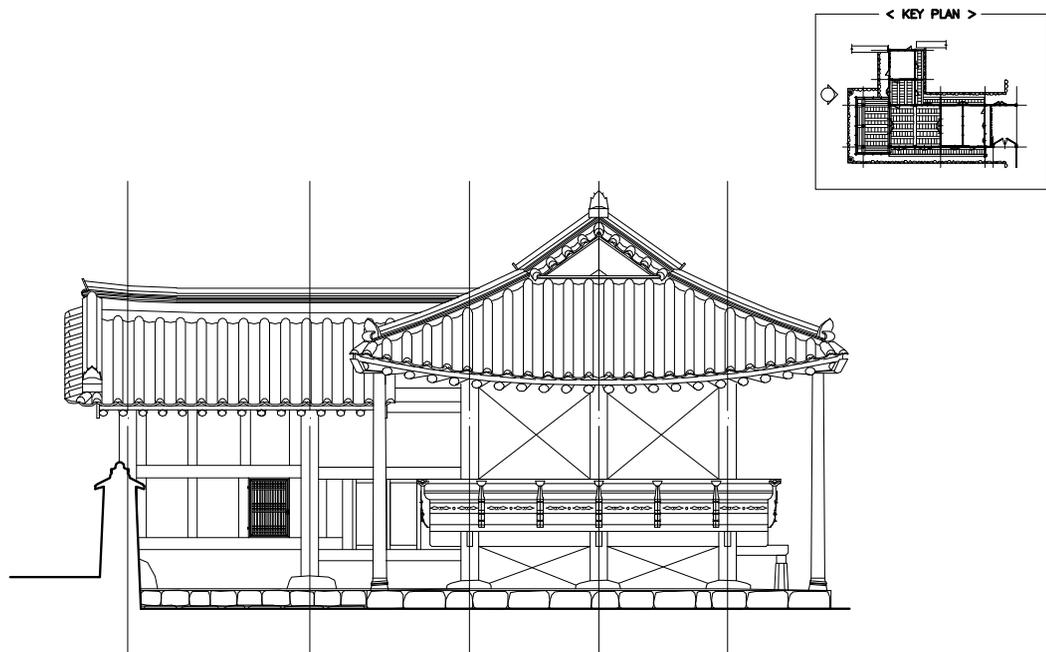


그림 62 큰사랑채 좌측면도

## 나. 벽체

벽체를 하부에서부터 살펴보면 네 면의 하인방 하부에는 귀래정의 마루 하부를 제외하고 모두 고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서측채의 귀래정에서 창호가 설치되는 칸에는 대부분 머름을 설치하였으며, 각 칸마다 창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벽체에는 인방을 건너지르고 인방 두께에 맞도록 흙을 채워 회벽으로 마무리한 심벽이 사용되었다.

### (1) 벽체

벽체는 인방을 건너지르고 인방 두께에 맞도록 흙을 채워 재사벽으로 마무리한 심벽이 사용되었다. 남측채의 대청 일부 및 중문간의 벽체와 북측채의 마루방은 판벽으로 구성하였다. 문선과 기둥, 기둥과 기둥사이에 두께 24mm의 판재를 끼워 판벽이 구성되었는데 상·하 인방에만 흙을 파고 끼워 넣었다. 사랑채의 벽체는 안채와 동일한 구조로 하였다.



그림 63 남측채 방 내부



그림 64 남측채 대청 내부

### (2) 머름

사랑채의 일부 방과 대청 칸에는 쌍창 하부에 문지방(머름)을 설치해 놓았다. 머름중방(머름대)과 하인방(머름하방)을 기둥 하부에 끼우고 그 사이를 머름동자와 머름청판으로 짜맞춘 보통머름이 사용되었다.

머름대의 폭은 90mm로 인방재와 동일하며, 춤은 머름하방이 175mm로 가장 크다. 머름중방의 춤은 175mm이고, 머름착고는 두께 30mm이다.

## 다. 마루

남측채의 대청에 설치된 우물마루는 기둥에 장귀틀을 걸고 이에 직교하여 동귀틀을 걸 구한 후 청판을 깐 우물마루의 형태로 되어있다. 동귀틀의 한쪽 면은 장귀틀에 걸구되고, 반대편 벽체 부분에는 동귀틀을 설치하지 않고 켈중방에 걸구되어있다. 누마루와 연결된 곳은 동귀틀을 장귀틀에 걸구하였다. 한 칸에 우물을 5개씩 구성해 놓았고, 청판은 각 우물마다 8장씩 설치되어 일정하다. 남측채의 서측면에 돌출된 누마루도 우물마루의 형태로 되어 있다. 한 칸에 3개씩 우물을 구성해 총 6개의 우물을 구성하였으며 청판은 각 우물마다 7~8장씩 설치하였다. 북측채의 마루방도 우물마루의 형태이다. 한 칸에 3개의 우물을 구성하였으며 청판은 각 우물마다 9장씩 설치하였다.



그림 65 대청 우물마루



그림 66 누마루 계자난간

부재의 단면 크기는 대청의 장귀틀이 310×150mm, 동귀틀은 250×135mm, 누마루의 장귀틀은 290×150mm, 동귀틀은 250×135mm, 마루방의 동귀틀은 240×135mm 정도이다. 귀틀은 춤에 비해 너비가 모두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귀틀 간격을 좁게 잡아 청판의 길이를 475mm 내외로 하였고, 두께는 45mm로 하였다.

누마루 주위에는 계자난간을 둘렀다. 난간대의 크기는 지름 60mm이고, 난간의 하방 크기는 80×172mm이다. 청판의 두께는 18mm이고, 난간청판에는 풍혈이 있다.

남측채 전면의 뒷마루는 각 칸마다 반귀틀과 여모귀틀 사이에 우물을 구성하여 청판을 끼워 놓았다. 반귀틀의 너비는 200mm, 춤은 160mm 정도이며, 여모귀틀 너비는 170mm, 춤은 160mm 정도이다. 청판의 두께는 대청과 같은 45mm 정도이다. 후면의 뒷마루는 전면과 동일하게 각 칸마다 반귀틀과 여모귀틀 사이에 우물을 구성하여 청판을 끼워 놓았다. 반귀틀의 너비는 210mm, 춤은 135mm 정도이며, 여모귀틀 너비는 220mm, 춤은 135mm 정도이다. 청판의 두께는 역시 대청과 같은 45mm이다.

큰사랑채의 누마루 바닥은 대청 및 방의 바닥과 430mm의 높이 차이가 있다. 누마루가 가장 높고 대청과 방은 동일한 높이이다.

## 5. 창호

### 가. 문얼굴 및 문짝

#### (1) 문얼굴

문짝을 달기 위한 문얼굴의 구성은 인방과 문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대부분 하인방과 중인방을 문지방과 문미로 하고 양옆에 세운 문선으로 문얼굴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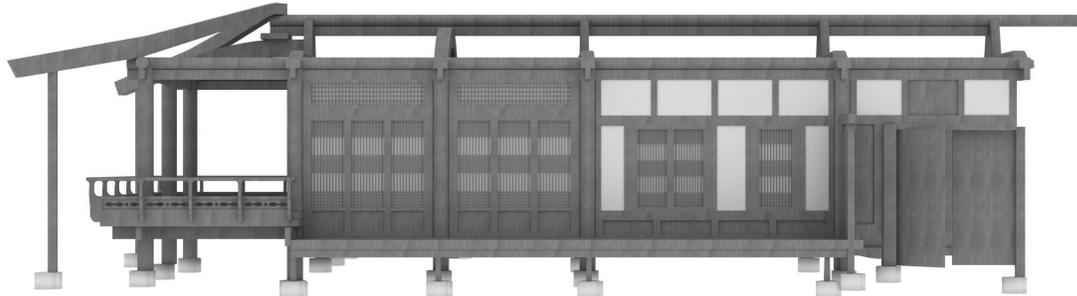


그림 67 큰사랑채 정면 이미지

(2) 문짝

사랑채의 창호는 크게 외부 세살문 및 장지문, 판문으로 나뉘지며 기타 광창(만살창) 등이 있다. 여기서 개폐방식이 여닫이로 되어있는 세살문은 문 아래에 청판이 있는 세살청판문과 청판이 없는 세살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방의 출입문과 창으로 사용되었다. 세살청판문은 대청의 출입문으로 쓰였고, 세살문은 툇마루와 면해있는 각 방의 창과 문으로 쓰였다.

누마루와 이어지는 벽에는 세살청판문을 두고 양 옆으로 만살문(장지문)을 두었다. 세살문안에는 장지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창호지 대신 벽지를 발라 빛을 차단하여 암실을 만드는 갑창으로 맹장지이다. 판문은 중문간과 마루방, 대청에 설치되었으며 대청부분에 설치된 것은 창의 기능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울거미는 창호에 따라 단면규격에 차이를 둔다. 그러나 세살문에 보통 60×45mm의 울거미가 쓰였고 대청 판문에도 60×45mm의 같은 크기의 울거미가 쓰였다. 모서리는 모두 세살이 있는 쪽으로 연귀맞춤 되어 있고, 세살의 폭은 대부분 48mm 내외로 비슷하며 두께는 12mm 정도이다. 쇠시리는 모두 투밀이 살로 되어있다.

중문간과 대청 배면의 창호는 모두 두짝 판문으로 구성되었다. 중문간의 판문은 상하부에 통둔테를 설치하여 두께 36mm의 판재를 띠장으로 연결한 후 둔테의 장부 구멍에 끼워 설치하였다. 판재의 두께는 45mm 정도이다.

내부 창호는 세살문 내부에 장지문을 두었고, 울거미는 45×18mm로 상하 홈대에 홈을 내어 턱을 둔 후 설치되었다.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되어있다. 띠살창호 살 구성은 살펴보면 창호의 규격에 따라 동살은 3·3·3개에서 5·6·5개까지 설치되어 있고, 장살은 10개에서 13개까지 설치되어 있다.



그림 68 세살문



그림 69 문선 및 판문



그림 70 다락 고창



그림 71 만살창

## 나. 창호철물

창호에는 돌쩌귀, 국화쇠, 배목, 문고리 등의 철물이 사용되었다. 돌쩌귀는 암수 두 개와 축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굵기는 지름 12mm의 것과 24mm 정도의 것 두 가지가 사용되었다. 높이는 70mm, 125mm 정도이다. 지름 24mm의 것은 상부와 하부에 비해 중앙부가 배부른 형태로 모양을 내었는데 세 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국화쇠의 지름은 47mm이고, 배목의 외부 지름은 23mm이다. 문고리는 손잡이로 설치된 단고리로 된 것과 내부 고정용으로 설치된 배목과 고리 사이에 연결고리를 하나 설치한 것 두 가지이다. 문고리의 지름은 68mm 정도이다.

## 6. 처마

### 가. 구성

사랑채는 ‘一’ 자형의 남측채에 북측채가 붙은 ‘工’ 자형의 평면이다. 지붕은 남측채가 팔작지붕이고 여기에 맞배지붕의 북측채가 이어진다. 처마는 모두 홑처마로 되어 있다. 처마서까래의 개수는 남측채 남측면 51개, 남측채 서측면 22개, 북측채 서측면 15개, 북측채 동측면 15개, 남측채 북측면 47개가 사용되었다. 남측채 서측면쪽 귀처마는 모두 한 틀에 10장씩의 선자서까래로 구성되어 있다. 처마내밀기를 조사한 실측치는 남측채 남측면 1,628mm, 남측채 북측면 1,628mm, 남측채 서측면 1,628mm, 북측채 서측면 1,033mm, 북측채 동측면 1,033mm 정도로서 3尺~5尺 정도의 내밀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서까래, 평고대, 연합, 추녀

#### (1) 추녀 및 서까래

추녀는 남측채의 누마루 상부에 추녀가 설치되어 있다. 추녀는 춤이 너비보다 큰 장방형부재를 뱃바닥에 완만하게 곡을 주어 다듬었다. 추녀의 마구리는 별다른 치장 없이 사절하고 하부 모서리는 모접기를 하지 않아 각지게 되어있다. 추녀의 폭은 180mm 정도이다.

서까래는 모두 처마연만이 사용되었다. 크기는 남측채가 평균 165mm 내외이고, 북측채는 평균 135mm 내외이다. 남측채는 평균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안목에서 165mm일 때 말구는 150mm로 15mm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북측채는 평균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안목에서 135mm일 때 말구는 120mm로 15mm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안쪽에서부터 마구리까지 걸어 올려 다듬고 남측채와 북측채 모두 15mm 정도 빗잘라 내었다.



그림 72 누마루 추녀



그림 73 남측채 처마

(2) 평고대 및 연합

남측채의 평고대 크기는 80×70mm 정도이고, 연합은 70×80mm 정도이다. 북측채의 평고대 크기도 80×70mm 정도이고, 연합은 70×80m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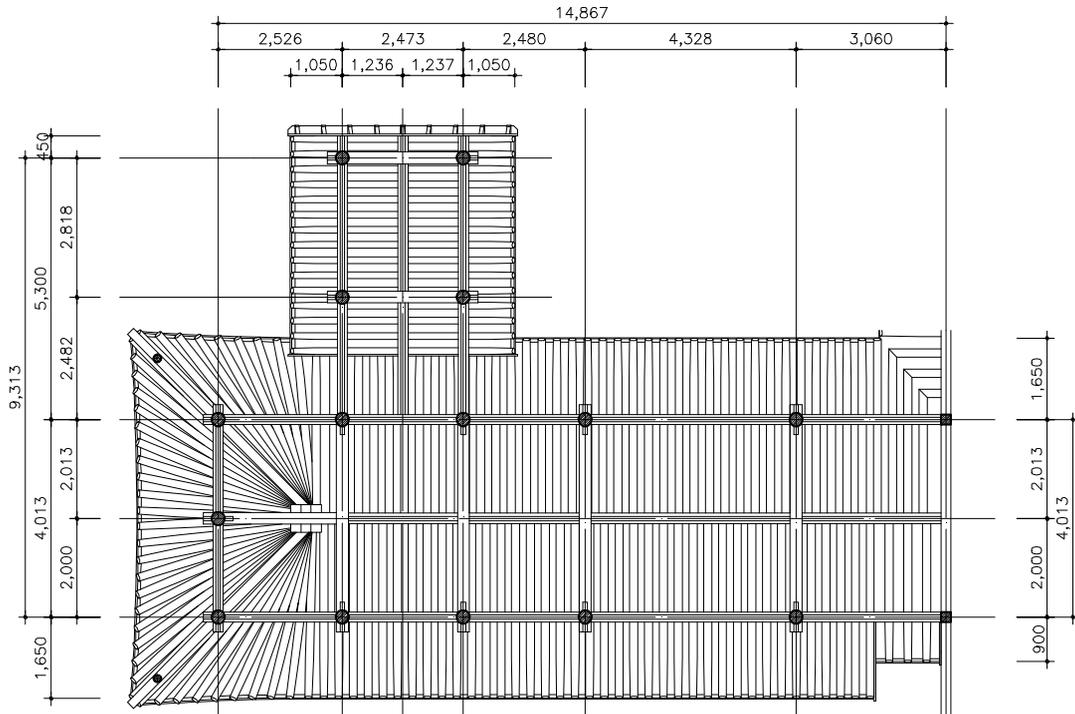


그림 74 큰사랑채 천장평면도

다. 앙곡과 안허리곡

(1) 앙곡

사랑채에서는 팔작지붕 형식인 남측채의 서쪽에서만 앙곡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각 방향 모두 중앙을 기준으로 그 편차를 보면 정면이 344mm이고, 좌측면이 278mm이며, 배면은 350mm로 조사되었다. 정면이나 배면의 앙곡이 측면보다 70mm 가량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2) 안허리곡

사랑채의 안허리곡은 주심도리와 수평을 이루는 기준선을 연목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편차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앙곡과 같이 추녀가 있는 남측채의 서쪽에서만 안허리곡이 있는데 그 기준선과 가장 먼 곳이 850mm이며 기준선과 가장 가까운 선자초장까지는 708mm로 그 편차는 약 142mm이다.

북측채는 맞배지붕이어서 북측면이 박공면을 이루는 등 박공의 양쪽에서는 안허리곡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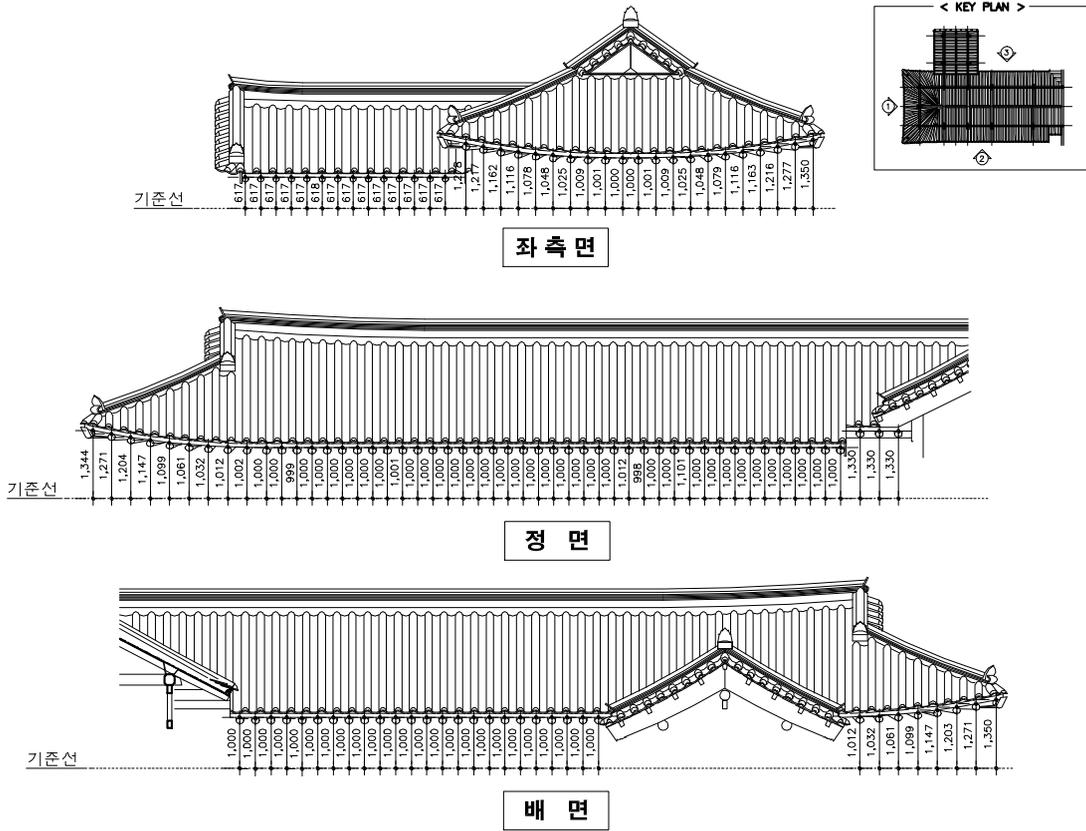


그림 75 큰사랑채 양곡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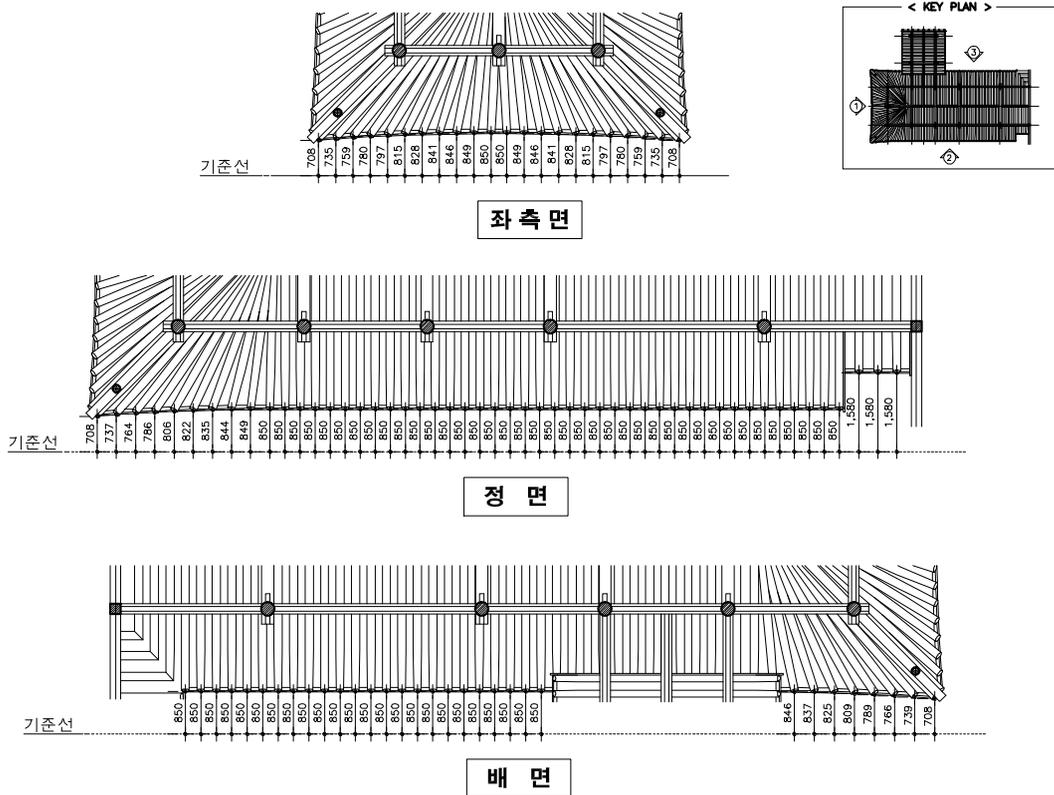


그림 76 큰사랑채 안허리곡 상세도



나. 지붕 물매, 바닥곡, 마루곡

지붕에는 용마루, 내림마루(팔작지붕의 경우 합각마루), 추녀마루가 구성되어 있다. 용마루는 채에 따라 레벨 차이가 있는데 상단점을 비교하면 남측채가 북측채보다 1,060mm 높다.

용마루의 길이와 만곡을 조사하기 위해 각종 마루에 기준선을 설치하고 600mm 간격으로 기준선에서의 거리를 측정하여 마루곡을 실측하였다. 대청이 위치한 남측채의 용마루는 전체 길이가 14,886mm이다. 용마루곡의 끝단과 중앙과의 최대 만곡치는 177mm로 안채의 용마루곡이 더 세게 조사되었다. 북측채의 용마루는 전체 길이가 6,225mm로 용마루곡의 끝단과 중앙과의 최대 만곡치는 104mm 정도이다.

다. 기와

지붕은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고, 지붕에는 용마루와 추녀마루 및 내림마루가 구성되어 있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 적새 5단쌓기이고, 추녀마루는 당골 위 적새 3단쌓기, 내림마루는 당골 위 적새 3단쌓기이다. 기와 종류로는 암키와, 수키와, 망와가 사용되었다. 구와와 신와가 함께 사용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구와이다. 망와는 두 가지 문양의 망와가 사용되었는데 귀목문형과 귀면형으로 보수된 시대에 따라 새겨진 문양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림 79 지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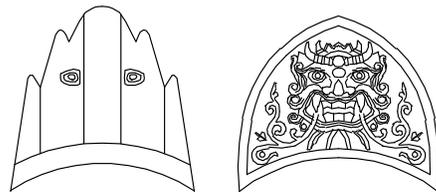


그림 80 큰사랑채 망와 문양 상세도

라. 박공



그림 81 북측채 박공

북측채는 맞배지붕이므로 북측에 박공이 설치되어있다. 박공의 두께는 평균 42mm이고, 너비는 400mm 내외로 조사되었다. 박공널의 끝머리는 안채와 같이 사절한 후 계눈각을 파지 않고 끝에서 살짝 구불구불한 곡을 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목기연이 끼이는 상부면은 목기연이 통으로 물릴 수 있도록 박공면을 따내었다. 각 면의 박공부에는 평균 9개의 목기연이 사용되었다. 목기연의 크기는 90×105mm 정도이다.

## 8. 아궁이, 굴뚝

사랑채에는 남측채와 북측채에 모두 한 개의 온돌방이 있는데, 방에 각기 아궁이와 굴뚝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남측채의 중문간인 부엌에 아궁이가 하나 있고, 굴뚝은 남측채 방 후면에 위치한다. 사랑채 뒤쪽에 기단 위로 독립형으로 세운 굴뚝은 높이가 1,100mm 정도이다. 평면크기는 가장 큰 것이 가로 600mm, 세로 425mm로서 외편 쌓기로 만들고 상부에 한 개의 배연구를 뚫어 놓았다. 북측채의 서재방은 굴뚝을 찾아볼 수 없다. 아궁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온돌구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단 사이에 굴뚝 구멍을 설치한 것은 운조루의 특징으로 기단 옆으로 배연구를 뚫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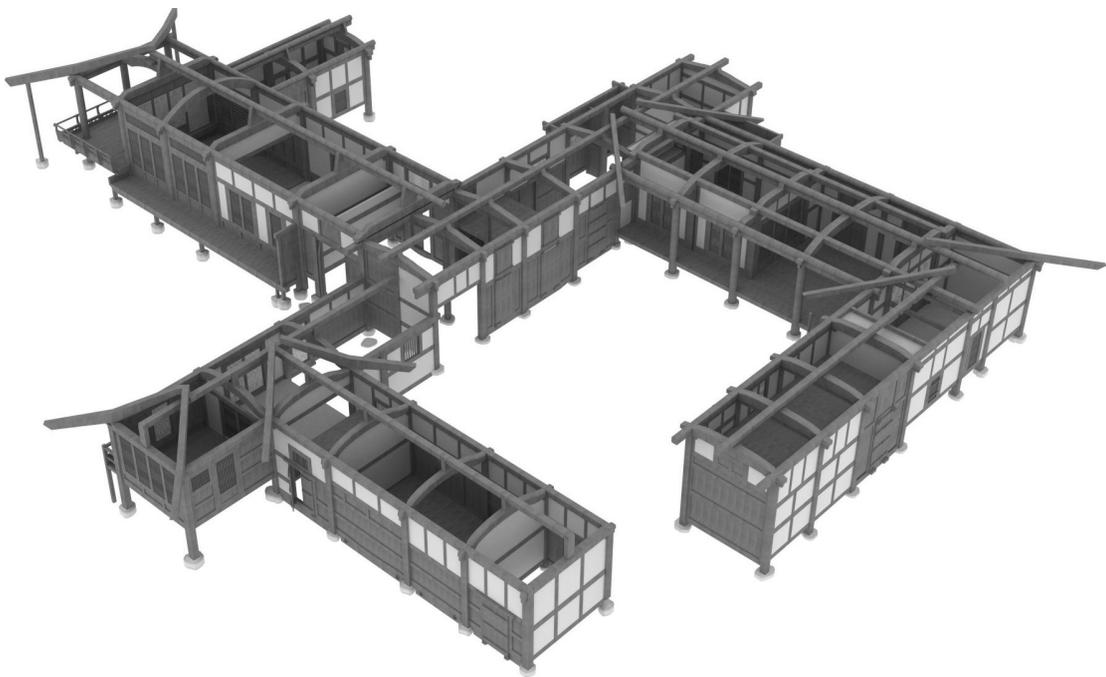
그림 82 남측채 중문간 아궁이



그림 83 남측채 굴뚝

## VI. 중간사랑채 실측조사

---





## VI. 중간사랑채 실측조사

### 1. 평면

대문을 통해 들어서면 바깥마당이 나오고 마당 뒤의 사랑채와 바로 마주하게 된다. 좌측에 놓인 것이 사랑채(外舍, 큰사랑채)이고 우측에 놓인 것이 귀래정(中外舍, 중간사랑채)이다. 귀래정이 마당으로 가장 돌출되어 있다.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중간사랑채는 ‘|’ 자형의 서측채 3칸과 ‘一’ 자형의 동측채 4칸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 자형이고, 서측채의 북쪽으로 안채와 사랑채의 중문간이 연결되어 있다. 서측채는 남측에서부터 1칸 귀래정(歸來亭)과 1칸 방(湛樂窩), 1칸 방(虛間)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측채는 서측채 방(湛樂窩)에서 동쪽으로 연결된 내전남익랑(內前南行廊)으로 1칸의 허칸(虛間)과 2칸 곡간(內米庫), 1칸의 광(廚)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상 동측채는 귀래정과 연결되어 있으나 안채에서 이용했던 행랑이다. 그러나 그 특징을 귀래정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그림 84 서측채 귀래정 남측 전경



그림 85 동측채 북측면

표 4 주간 실측치

구분	서측채(서측면)		동측채(남측면)
Y1-Y2	3,149	X2-X3	2,451
Y2-Y3	3,101	X3-X4	3,033
Y3-Y5	3,622	X4-X5	2,224
계	9,872	X5-X6	2,179
	서측채(남측면)		
X1-X2	3,094		
계	3,094	계	9,887

평면의 주칸은 서쪽에서부터 3,094mm, 2,451mm, 3,033mm, 2,224mm, 2,179mm이고, 남쪽에서부터 3,149mm, 3,101mm, 3,622mm 정도이다. 전체 주칸은 서측채의 서측면이 9,872mm이고, 북측면은 3,094mm이다. 동측채의 서측면이 3,101mm이고 북측면은 9,887mm이다. 결국 서측채의 대량칸은 3,094mm이고 동측채의 대량칸은 3,101mm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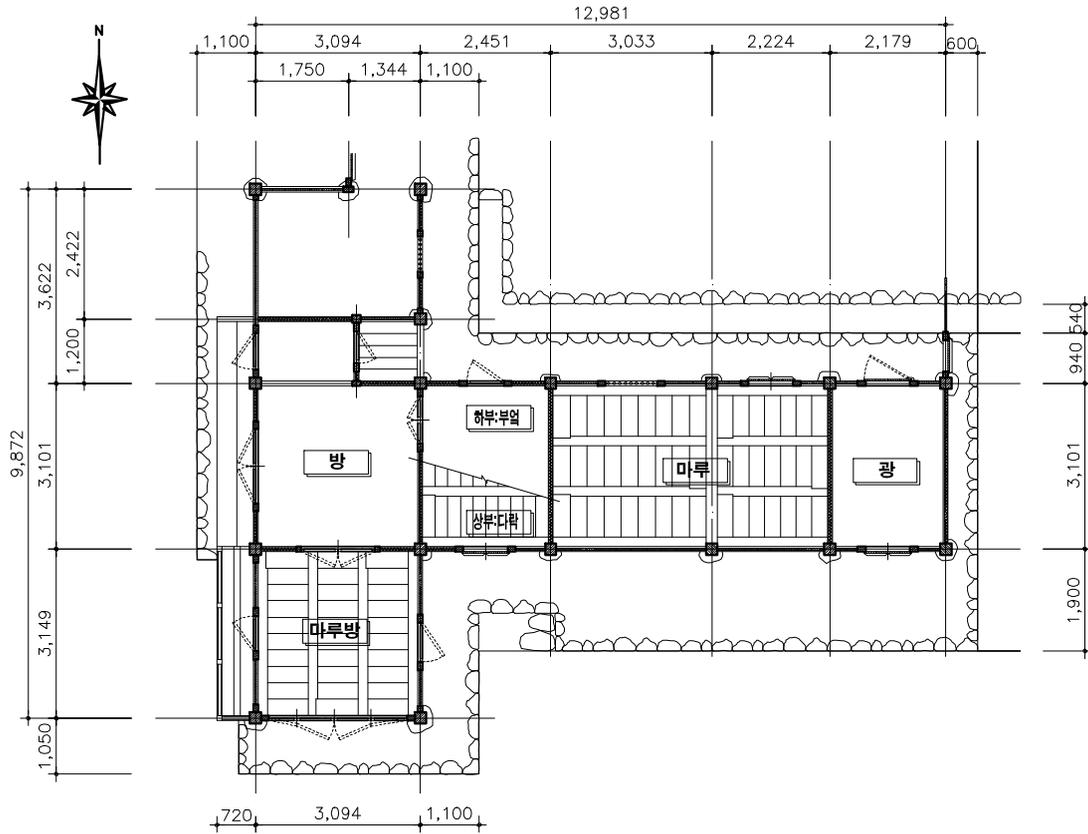


그림 86 중간사랑채 평면도

## 2. 기단 및 초석

### 가. 기단



그림 87 기단 및 경사로

중간사랑채의 기단은 배면쪽이 높고 정면쪽이 낮은 지형 때문에 경사 기단을 설치하였다. 중간사랑채의 기단에는 모두 자연석이 사용되었고 외벌대로 지형에 맞추어 경사지게 구성하였다. 안채와 큰사랑채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터를 깎고 돋우어 터닦기를 실시한 후 가옥의 위치에 맞도록 기단을 설치한데 반하여 중사랑채는 경사지에 그대로 기단을 설치하였다.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기단은 한 단으로 정면은 높이 300mm, 배면도 300mm로 축조되었다.

기단 내밀기는 서측채의 동·서측면이 1,100mm이고, 북측면이 600mm이다. 동측채의 남측면은 1,900mm이고, 북측면이 940mm이다. 동측채의 북측 기단은 안채 안마당의 석축과 540mm 정도 떨어져있다. 중간사랑채 기단 가운데 동측채의 남쪽 기단 내밀기가 1,900mm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 초석

중간사랑채에서는 17개의 기둥과 17개의 초석이 사용되었다. 초석은 모두 정방형이나 원형에 가깝거나 혹은 부정으로 다듬어 만든 덩벙주초가 사용되었다. 초석의 규격은 귀래정 초석이 가장 큰 것이 740×740mm 정도이고, 그 밖의 실 초석이 약 550×550mm 정도이다. 기단 상면에 노출된 초석 높이는 평균 150mm, 최대 259mm이다. 쪽마루 초석의 크기는 약 305×305mm 정도이고, 기단 상면에 노출된 초석 높이는 평균 160mm이다.

## 3. 가구

### 가. 구성

중간사랑채의 가구는 서측채와 동측채가 3량가로 서로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다. 큰사랑채와 같이 평면 가운데 내진주는 없으나 중간사랑채 전·후면 평주 모두 네모기둥이다. 그리고 전면 평주와 배면 평주 사이에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중앙에 중도리를 건 3량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측채와 동측채는 대들보 위에 마루대공을 올리고 장여와 중도리를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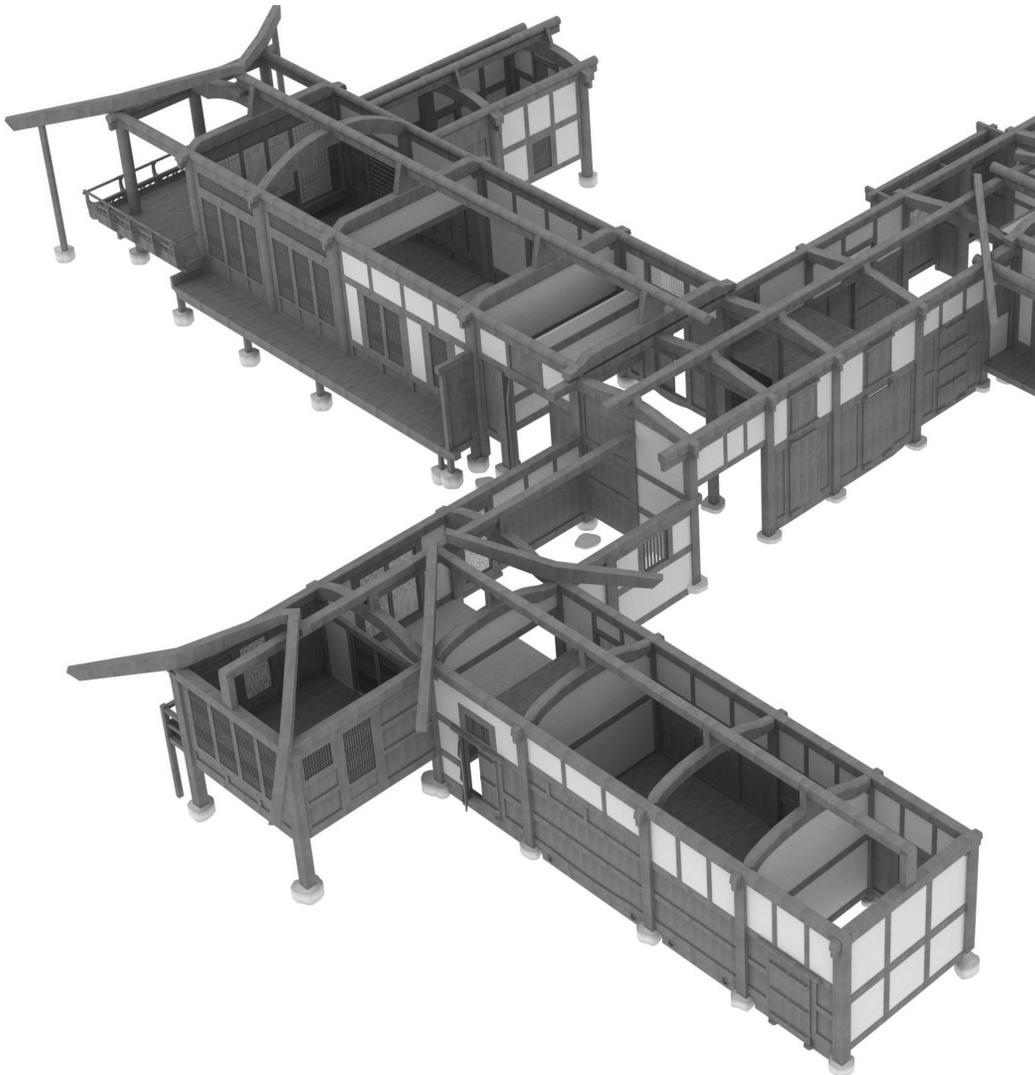


그림 88 중간 사랑채 가구도

## 나. 기둥

### (1) 기둥

중간사랑채에는 서측채에 9개, 동측채에 8개가 사용되어 총 17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대부분 두리기둥을 썼던 큰사랑채와 달리 모두 네모기둥이 사용되었다. 그 외 한 칸 방에 네모기둥을 하나 설치하였다.

기둥을 크기별로 살펴보면 한 종류의 기둥만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기둥의 크기는 210×210mm으로 큰사랑채 중문간 기둥 크기와 동일하다. 안채의 대청 기둥보다는 작고 부엌과 방의 기둥보다는 큰 것이다. 한 칸 방에 설치한 각기둥의 크기는 150×150mm 이다. 기둥의 길이는 서측채의 평주가 가장 긴 것이 약 2,963mm 정도이고, 평균 2,710mm이다. 동측채의 평주 길이는 2,700mm 정도이다.

### (2) 귀솟음과 안쏠림

중간사랑채는 가구의 변형 등으로 인해 귀솟음에 대한 정확한 당초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안쏠림에 대한 조사는 기둥 하부중심과 상부중심의 편차를 조사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기둥의 쏠림을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가옥의 중수 및 목재의 건조, 수축, 그리고 일조 등으로 인한 자연적, 인위적 환경에 의한 상부가구의 뒤틀림이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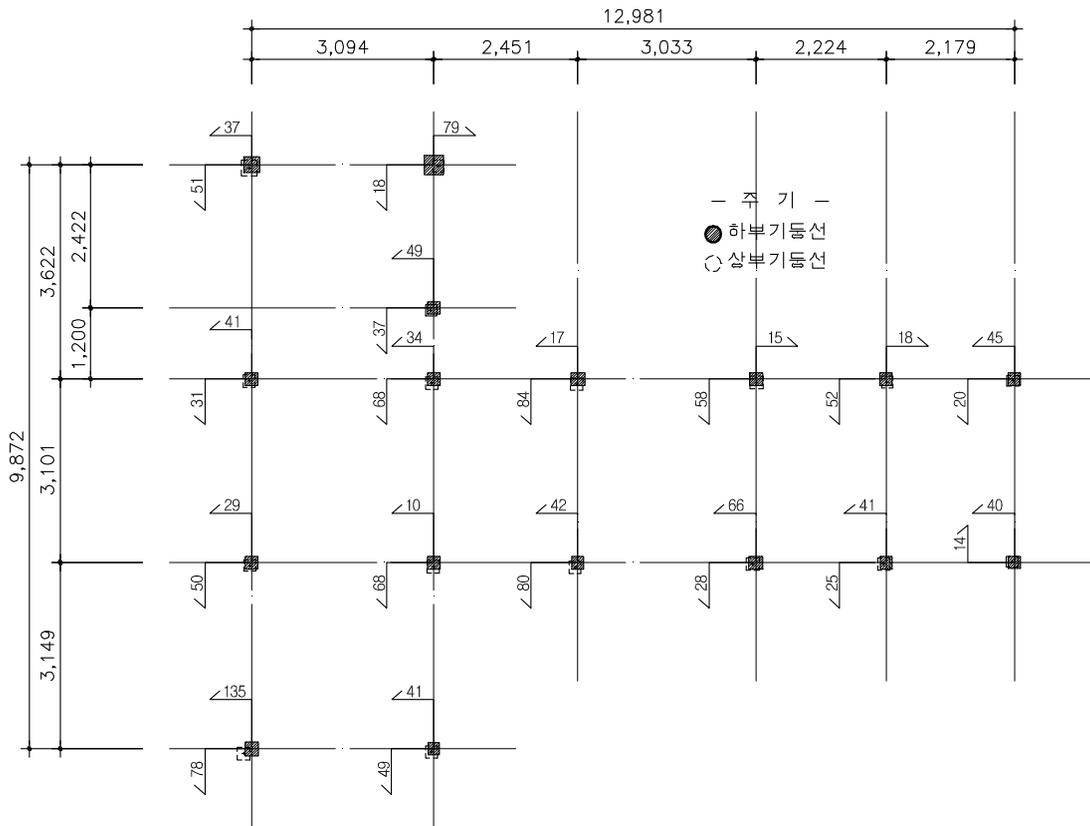


그림 89 중간사랑채 주심도

조사된 기둥상부의 쏠림 방향과 수치를 살펴보면 서측채와 동측채의 기둥은 대체로 남서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태이다. 쏠림의 정도도 작게는 10mm에서 심하게는 135mm 정도에

이르는 등 다른 채들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안솔림에 대한 당초의 정확한 의도를 알아내기는 힘들다.

다. 보

중간사랑채는 3량가로서 서측채와 동측채 모두 대들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들보의 단면 크기는 규격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너비보다 춤이 긴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위로 휘어져 오른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서 다듬은 모습인데 안채에도 비록 5량이지만 같은 모습의 보를 사용한 것이 운조루의 특징이기도 하다.

서측채 귀래정에 사용된 보의 단면 크기는 165×270mm 정도이며, 동측채에 사용된 것도 165×270mm 정도이다. 보머리 형태는 규격을 줄여 내밀고 상면을 경사지게 다듬은 후 마구리를 오각형으로 다듬고 단순하게 직절한 형태로 되어있다. 보머리 내밀기는 서측채 평주는 240mm 정도이며, 동측채도 240mm 정도이다. 노출되어 있는 대들보 전체 길이는 서측채가 3,094mm이고, 동측채의 대들보 길이는 3,101m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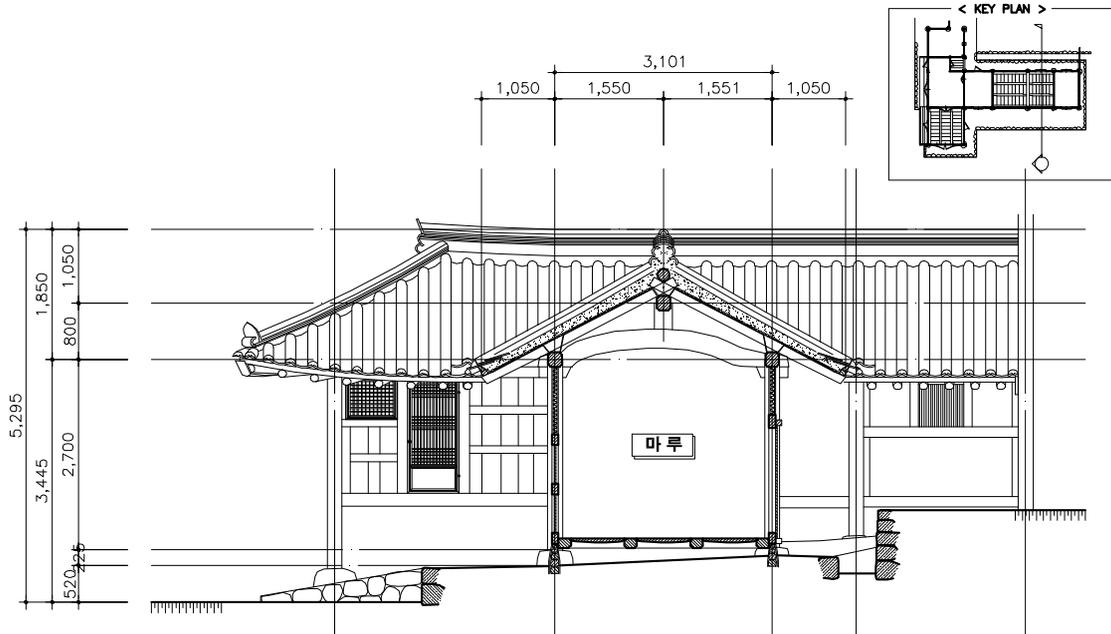


그림 90 중간사랑채 종단면도-1



그림 91 서측채 귀래정 총량



그림 92 동측채 상부가구

### 라. 도리 및 장여

중간사랑채는 가구(架構)가 3량가로 도리는 처마도리와 종도리의 두 종류가 설치되어 있다. 단면 형태는 모두 납도리로 단면 크기는 처마도리와 종도리 둘 다 210×210mm 내외이다. 큰사랑채와 같이 처마도리와 종도리의 크기를 같게 하였다.

도리 하부에는 장여를 받쳐 보강하였다. 그러나 서측채의 처마도리와 종도리 하부에만 장여를 보강하였고 그 크기는 모두 수장폭이 90mm 내외이고, 촘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150mm이다. 큰사랑채의 장여보다 약 15mm 작다.

### 마. 대공

대공은 도리를 받치는 부재로서 형태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사랑채의 경우 북측채에만 종도리를 받치는 마루대공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루대공은 사다리꼴 형태의 판대공이 사용되었다. 크기는 수장폭이 90mm 정도이고, 높이가 418mm 정도이다.

## 4. 수장

### 가. 인방, 문선

#### (1) 인방

인방재의 폭은 상·중·하인방 대부분이 90mm 정도이고, 촘은 150mm~230mm 정도의 것들이 사용되었다. 상인방과 중인방은 150mm~180mm의 것들이 주로 사용되었고, 머름중방은 178mm 정도의 것을 사용하였다. 하인방의 촘은 180mm~230mm 정도로 중·상인방보다 크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인방의 크기는 설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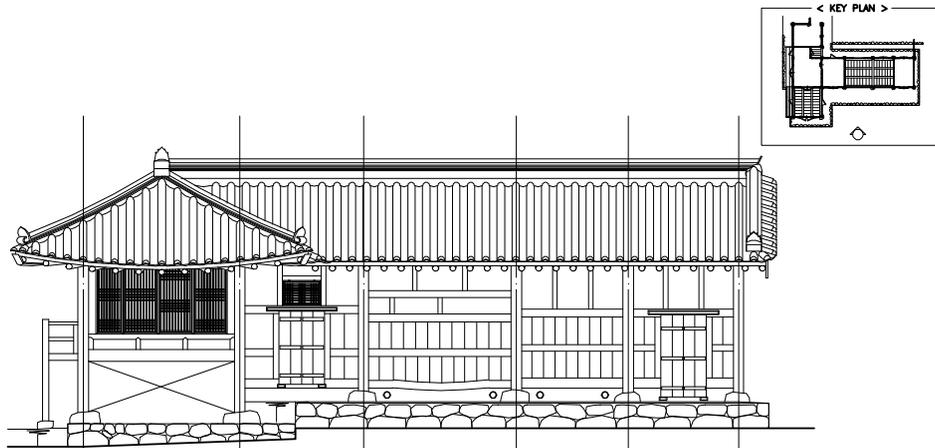


그림 93 중간사랑채 정면도

문선 두께는 서측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150mm 정도이고, 동측채에 사용된 것들도 150mm 정도로서 인방재의 두께와 비슷하다. 폭은 대부분 90mm 정도이다. 인방재로 문미와 문지방을 구성하고 양옆에 문선을 세워 문얼굴을 완성한다. 문선에는 돌쩌귀 등을 부착하여 창호를 달게 된다. 중간사랑채의 문얼굴은 각 모서리가 장부맞춤 되어 있다. 큰사랑채와 안채의 창호 문선이 인방재와 연귀맞춤 되었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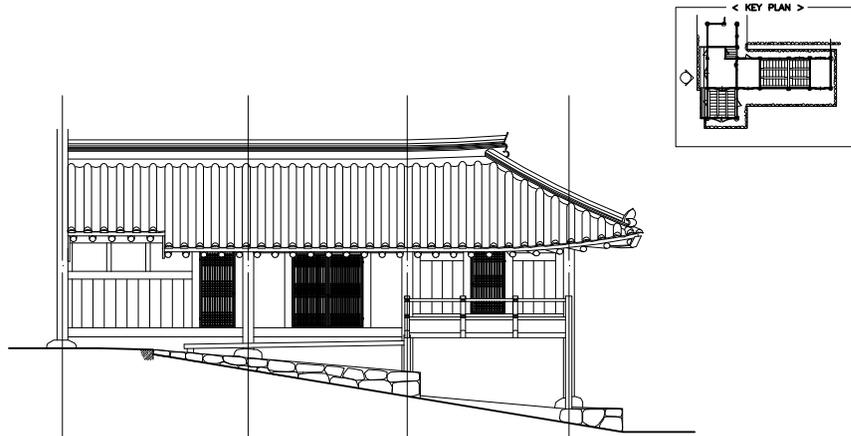


그림 94 중간사랑채 좌측면도

## 나. 벽체

벽체를 하부에서부터 살펴보면 각 채의 네 면의 하인방 하부에는 대청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고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남측면과 북측면 그리고 서측면과 동측면 온돌방과 대청에서 창호가 설치되는 칸에는 대부분 머름을 설치하였으며, 각 칸마다 창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벽체는 인방을 건너지르고 인방 두께에 맞도록 흙을 채워 회벽으로 마무리한 심벽으로 되어있다.

### (1) 벽체

벽체는 인방을 건너지르고 인방 두께에 맞도록 흙을 채워 재사벽으로 마무리한 심벽이 사용되었다. 동측채의 귀채정 일부 벽체와 동측채의 곡간 및 광은 판벽으로 구성하였다. 문선과 기둥, 기둥과 기둥사이에 두께 30mm의 판재를 끼워 판벽이 구성되었는데 상·하인방에만 흙을 파고 끼워 넣었다. 전체적인 중간사랑채의 벽체는 안채나 큰사랑채와 동일한 벽체 구조로 하였다.



그림 95 서측채 북측 외벽



그림 96 동측채 남측 외벽

### (2) 머름

중간사랑채의 귀채정에는 세살창 하부에 문지방(머름)을 설치해 놓았다. 머름중방(머름대)과 하인방(머름하방)을 기둥 하부에 끼우고 그 사이를 머름동자와 머름청판으로 짜맞춘 보통머름이 사용되었다. 머름대의 폭은 90mm로 인방재와 동일하며 좁은 머름중방이 178mm, 머름하방이 230mm이다. 머름착고는 두께 30mm 정도이다.

## 다. 마루

서측채의 귀래정에 설치된 우물마루는 기둥에 장귀틀을 걸고 이에 직교하여 동귀틀을 걸구한 후 청판을 깐 우물마루의 형태로 되어있다. 동귀틀의 양쪽 면은 모두 반대편 벽체 부분에 동귀틀을 설치하지 않고 켈중방에 걸구되어있다. 한 칸에 우물을 3개 구성해 놓았고, 청판은 각 우물마다 10장씩 설치되어 일정하다. 동측채의 좌측 광 상부다락과 2칸 곡간 바닥도 우물마루의 형태로 한 칸에 3개씩의 우물을 구성하였다. 청판은 각 우물마다 상부다락에는 10장씩, 곡간 서측칸에는 9장씩, 동측칸에는 7장씩 설치하였다.

부재의 단면 크기는 서측채 귀래정의 동귀틀이 180×135mm 정도이다. 귀틀은 춤에 비해 너비가 모두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측채 상부다락의 동귀틀은 180×135mm이고, 곡간 마루의 장귀틀은 210×135mm, 동귀틀은 180×135mm이다. 동귀틀 간격을 넓게 잡아 청판의 길이를 763mm 내외로 하였고, 두께는 45mm로 하였다.

서측채 귀래정 서측면의 쪽마루는 장널을 놓고 주위에 난간을 둘렀다. 난간대의 크기는 90×60mm이고, 난간의 하방 크기는 90×105mm이다. 난간청판에는 풍혈이 없다.



그림 97 서측채 귀래정 우물마루



그림 98 서측채 귀래정 쪽마루

## 5. 창호

### 가. 문얼굴 및 문짝

문짝을 달기 위한 문얼굴의 구성은 인방과 문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대부분 하인방과 증인방을 문지방과 문미로 하고 양옆에 세운 문선으로 문얼굴을 구성하고 있다.

창호는 크게 외부 세살문, 만살문, 판문으로 나뉘지며 기타 사롱창 등이 있다. 모두 여닫이로 되어있는 세살문은 문 아래에 청판이 있는 세살청판문과 청판이 없는 세살문으로 구분된다. 세살청판문은 중간사랑채 실 가운데 귀래정의 동쪽 창문으로 쓰였고, 세살문은 귀래정을 비롯해서 보통 방의 창과 문으로 고르게 쓰였다. 특이한 점은 청판이 있는 세살청판문은 문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례인데 귀래정에서는 창으로 쓰인 것이다. 이전과 다르게 변형된 것으로 사료된다. 판문은 모두 동측채의 광에 설치되었다.

문의 울거미는 세살문에 보통 60×45mm의 울거미가 쓰였고, 판문에도 60×45mm의 같은 크기의 울거미가 쓰였다. 모서리는 모두 연귀맞춤 되어 있고, 세살의 폭은 대부분 48mm 내외로 비슷하며 두께는 12mm 정도이다. 쇠시리는 모두 투밀이 살로 되어있다.

광의 창호는 두 짝 판문으로 구성되었다. 판문은 상부에 통둔테를 설치하여 두께 30mm의 판재를 띠장으로 연결한 후 둔테의 장부 구멍에 끼워 설치하였다.

띠살창호의 동살은 4·5개에서 3·4·3개, 5·7·5개이고, 장살은 7개에서 13개까지 다양하다. 마루방에 설치된 동살 4·5개의 세살문의 경우 네 짝 가운데 한 짝이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아 보수된 것을 알 수 있으나 본래부터 동살이 둘로 나뉜 창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림 99 외부 세살문



그림 100 내부 세살문



그림 101 판문



그림 102 사롱창

### 나. 창호철물

창호에는 돌쩌귀, 문고리 등의 철물이 사용되었다. 돌쩌귀는 암수 두 개와 축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굽기는 지름 12mm의 것이 사용되었다. 높이는 70mm 정도이다. 문고리는 손잡이로 설치된 단고리로 된 것과 내부 고정용으로 설치된 배목과 고리 사이에 연결고리를 하나 설치한 것 두 가지가 있다. 문고리의 지름은 68mm 정도이다.

## 6. 처마

### 가. 구성

중간사랑채는 ‘1’ 자형의 서측채와 ‘一’ 자형의 동측채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卜’ 자형의 평면이다. 지붕은 서측채가 우진각지붕이고 여기에 맞배지붕의 동측채가 이어진다. 처마는 모두 홑처마로 되어 있다. 처마내밀기를 조사한 실측치는 서측채 서측면 1,179mm, 서측채 남측면 1,179mm, 서측채 동측면 1,179mm, 동측채 남측면 1,029mm, 동측채 북측면 1,029mm 정도로서 3尺~4尺 정도의 내밀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서까래, 평고대, 연합, 추녀

(1) 추녀 및 서까래

서측채의 귀래정 처마부에 추녀가 설치되어 있다. 추녀는 춤이 너비보다 큰 장방형부재를 뺏바닥을 완만하게 곡을 주어 다듬었다. 추녀의 마구리는 별다른 치장 없이 사절하고 하부 모서리는 모접기를 하지 않아 각지게 되어있다. 추녀의 폭은 180mm 정도이다. 그리고 서측채와 동측채가 만나는 부분에 회침추녀가 설치되어 있다. 회침추녀는 회침부 밖으로 길게 설치되었고, 직교하는 연목의 마구리를 빗잘라 회침추녀의 옆면에 결구되어 있다. 마구리 부분에는 판재를 대각선 방향으로 자른 삼각형 형태의 고삐이 설치되어 있다. 회침추녀의 폭은 180mm 정도이다. 서까래는 3량구조에 맞게 2가연으로 크기는 서측채와 동측채는 평균 135mm 내외이다. 평균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안목에서 135mm일 때 말구는 120mm로 15mm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안쪽에서부터 마구리까지 걷어 올려 다듬고 모두 15mm 정도 빗잘라 내었다.



그림 103 서측채 처마



그림 104 동측채 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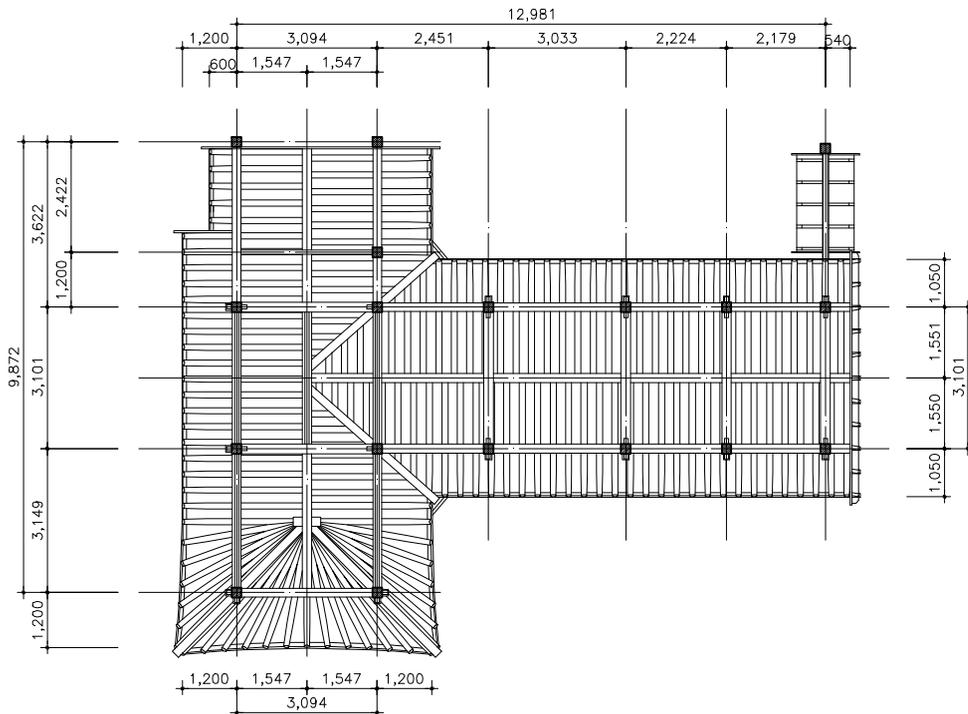


그림 105 중간사랑채 천장평면도

(2) 평고대 및 연합

서측채의 평고대 크기는 80×70mm 정도이고, 연합은 70mm×80mm 정도이다. 동측채의 평고대 크기도 80mm×70mm이고, 연합은 70mm×80mm이다. 서측채와 동측채 모두 일정했다.

다. 양곡과 안허리곡

(1) 양곡

양곡의 실측은 수평기준선을 연목하부에 설정하여 각 연목 위치에서 평고대까지 떨어진 거리를 실측하였다. 맞배지붕에서의 양곡은 박공 끝지점 가까이서 시작되나 중간사랑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진각지붕인 서측채의 남쪽 면에서만 양곡이 나타나고 있다. 그 편차를 보면 서측면은 중앙을 기준하여 154mm이며, 남측면은 255mm, 동측면은 155mm로 추려가 설치된 남쪽면의 양곡이 평균 205mm 정도 더 높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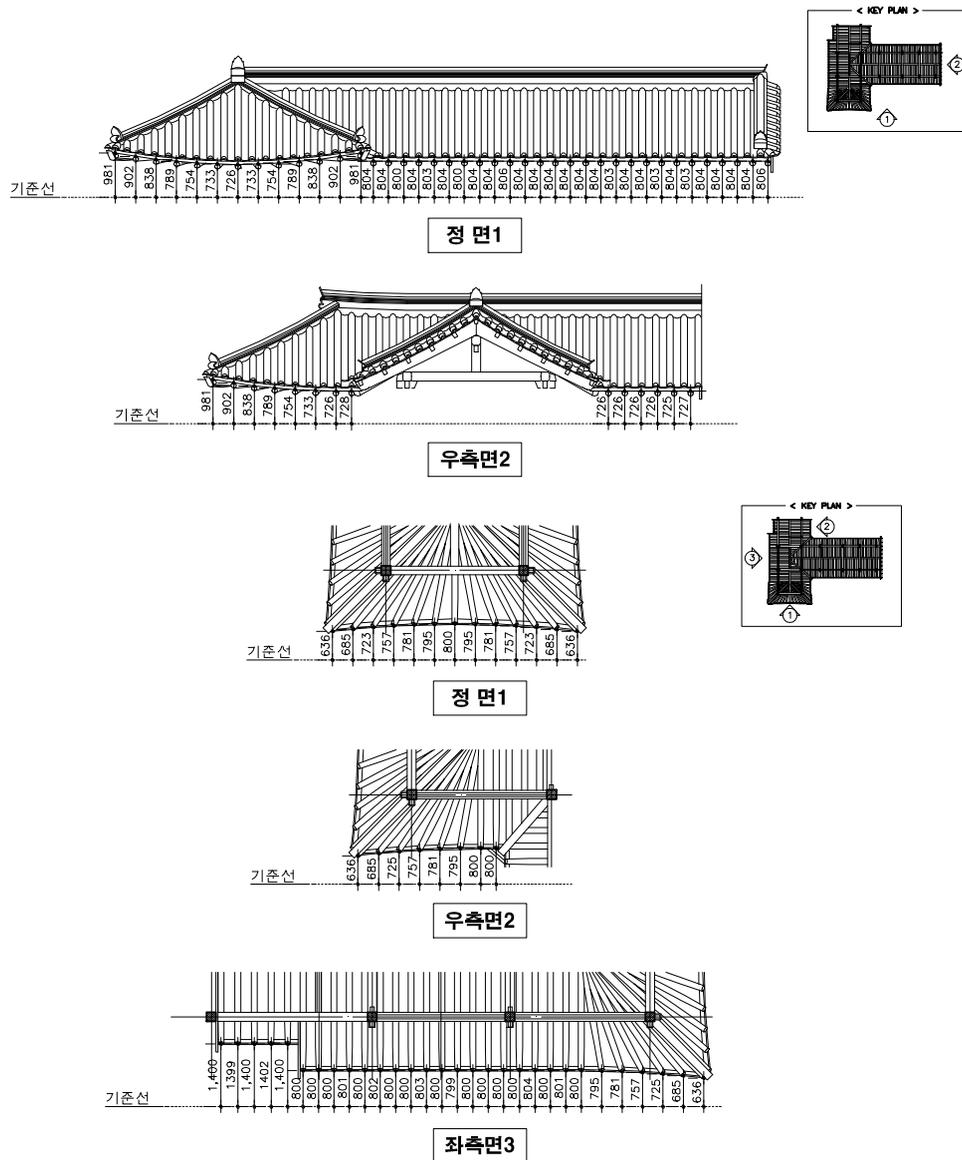


그림 106 중간사랑채 양곡, 안허리곡 상세도



### 나. 지붕 물매, 바닥곡, 마루곡

용마루의 길이와 만곡을 조사하기 위해 각종 마루에 기준선을 설치하고 600mm 간격으로 기준선에서의 거리를 측정하여 마루곡을 실측하였다.

귀래정이 위치한 서측채의 용마루는 전체 길이가 8,548mm이다. 용마루곡은 용마루 끝부분과 중앙과의 높이차로 최대 만곡치는 86mm로 조사되었다. 동측채의 용마루는 전체 길이가 11,693mm이며, 용마루곡의 높이차는 6mm 정도로 별차이가 없다.

### 다. 기와

중간사랑채 지붕은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이고, 용마루와 내림마루(팔작지붕의 경우 합각마루), 추녀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 적새 5단쌓기이고, 추녀마루는 당골 위 적새 3단쌓기, 내림마루는 당골 위 적새 3단쌓기이다.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기와 종류로는 암키와, 수키와, 망와가 사용되었다. 구와와 신와가 함께 사용되었으나 대부분이 신와로 교체되어 있다. 신와는 색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가 사용되었다. 망와는 모두 세 가지 문양의 망와가 사용되었다. 외부 형태는 비슷하나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새겨진 문양에 다소 차이가 있다. 꽃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과 글자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 추상적인 문양이 있는 것으로 3종류로 구분된다.



그림 109 지붕 전경



그림 110 용마루 망와

### 라. 박공

동측채는 맞배지붕이므로 동쪽에 박공이 설치되어있다. 박공의 두께는 평균 40mm이고, 너비는 400mm 내외로 조사되었다. 박공널의 끝머리는 안채나 큰사랑채와 같이 사절한 후 계눈각을 파지 않고 끝에서 살짝 구불구불한 곡을 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평균 11개의 목기연이 사용되었고, 크기는 90mm×105m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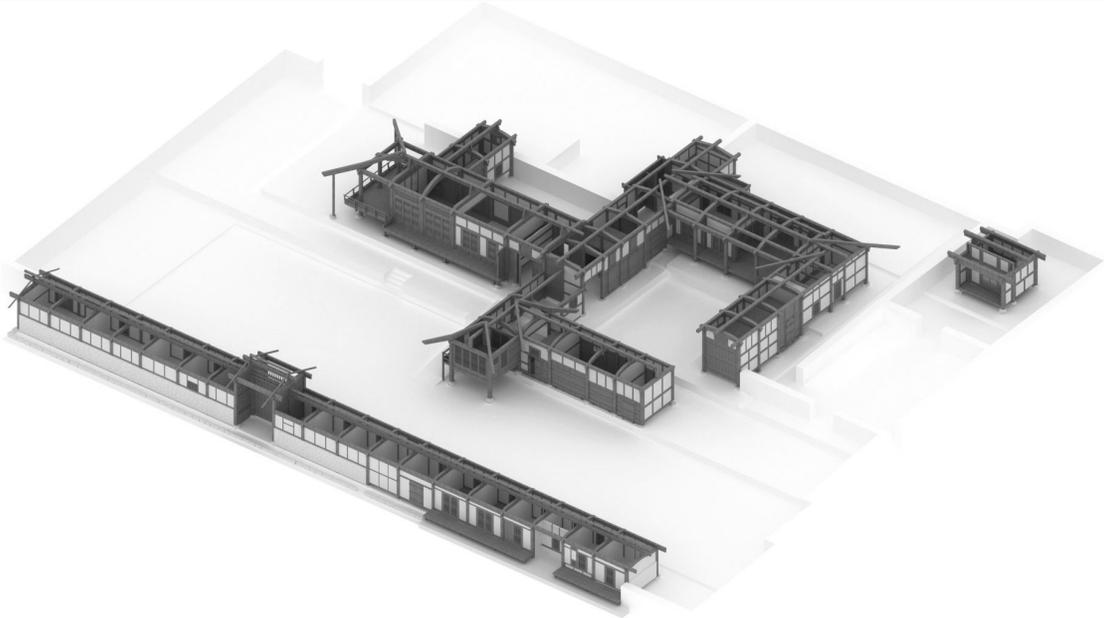
## 8. 아궁이, 굴뚝

중사랑채에는 서측채에 모두 한 개의 온돌방이 있는데, 방에 각기 아궁이와 굴뚝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서측채에 붙어있는 광에 아궁이가 하나 있고, 굴뚝은 서쪽의 경사진 기단 옆면에 위치한다. 기단 사이에 굴뚝 구멍을 설치한 것은 운조루의 특징으로 안채 및 큰사랑채와 더불어 중간사랑채도 경사진 기단 옆으로 배연구를 뚫어 놓았다.



## VII. 기타 건물조사

---





## VII. 기타 건물조사

### 1. 사당

#### 가. 평면



그림 111 사당 남측면

안채 동측채의 부엌을 지나 들어서면 안채와 사당을 구분하는 담이 나오고 담 뒤로 사당과 협문이 위치하고 있다. 남쪽의 협문을 지나 사당으로 출입하게 된다.

평면의 구성을 살펴보면 정면 1칸, 측면 2칸(전퇴칸을 갖음)으로 구성되었다. 전퇴칸은 마루이고, 사당 내부도 마루로 되어있다. 전체 주칸은 남측면 도리간이 3,660mm이고 서측면 보간이 3,400mm이다. 보간으로 정면에 1,030mm의 전퇴칸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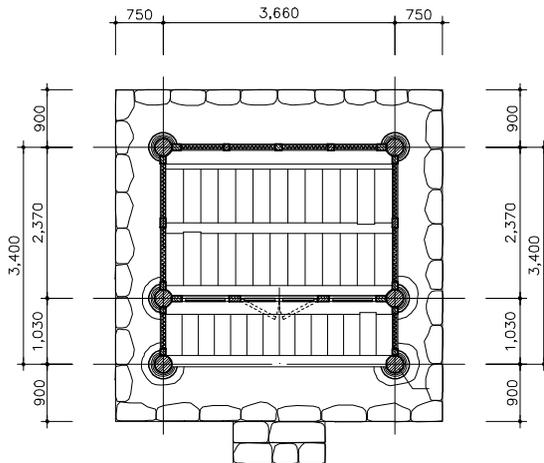


그림 112 사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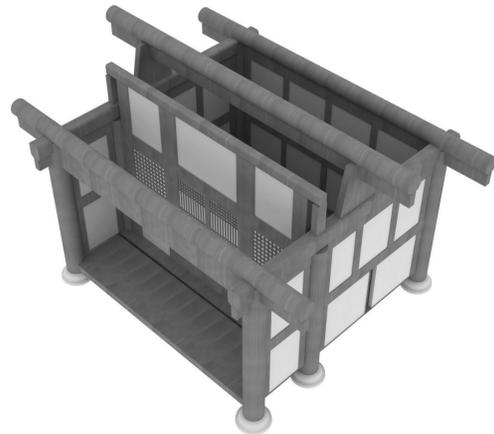


그림 113 사당 가구 3D 이미지

#### 나. 기단 및 초석

사당의 기단은 배면쪽이 높고 정면쪽이 낮은 지형 때문에 전면이 높고 후면이 낮은 기단을 설치했다. 재료는 모두 자연석이 사용되었고 외벌대로 지형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대지 조성을 위하여 터를 깎고 둔우어 터담기를 실시한 후 건물의 위치에 맞도록 기단을 설치하였다.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기단은 한 단으로 정면은 높이 600mm로 배면은 200mm로 축조되었다.

기단 내밀기는 전후면이 각각 900mm, 900mm로 배면과 정면쪽이 같게 내밀었으며, 좌우면도 각각 750mm, 750mm로 좌측면과 우측면의 내밀기가 같다. 기단 정면으로 2단의 계단이 있고, 재료는 자연석이다. 계단의 길이는 1,450mm 정도이고, 폭은 각각 330mm 정도이다.

사당은 6개의 초석이 사용되었다. 안채와 큰사랑채 및 중간사랑채에 자연석초석을 사용하였던 것과 다르게 사당에는 가공석초석을 사용하였다. 각 초석의 주좌의 크기는 지름 340mm로 초반을 포함한 초석의 규격은 지름 475mm~715mm 정도의 것이다. 가장 큰 것이 지름 715mm 정도이다.



그림 114 기단 및 계단



그림 115 초석

#### 다. 가구

벽체가구는 내진주가 없으며 전·후면 평주가 모두 원기둥이다. 그리고 지붕가구는 전면평주와 배면평주 사이에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중앙에 중도리를 건 3량가이다. 대들보는 위에 판대공을 올리고 장여와 중도리를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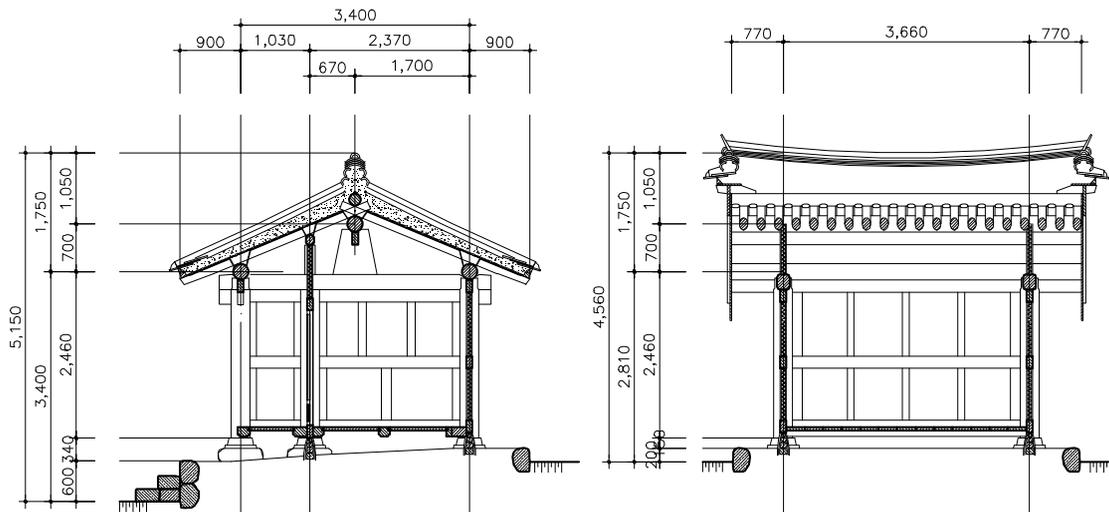


그림 116 사당 종단면도, 횡단면도

기둥은 6개의 기둥이 사용되었으며, 모두 원기둥이다. 크기는 위치에 상관없이 지름 280mm 정도이다. 이것은 큰사랑채에 사용된 원기둥보다 10mm 정도 큰 것이다. 기둥의 길이는 2,460mm 정도이다.

사당은 3량가로서 대들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들보의 단면 크기는 규격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너비보다 축이 긴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이다. 단면 크기는

190×230mm 정도이며, 보머리는 규격을 줄여 내밀고 상면을 경사지게 다듬은 후 마구리를 오각형으로 다듬고 단순하게 직절한 형태이다. 보머리 내밀기는 320mm 정도이다. 노출되어 있는 대들보 전체 길이는 3,400mm 정도이다.



그림 117 실내 상부가구



그림 118 실외 상부가구

도리는 처마도리와 종도리의 두 종류가 설치되어 있다. 단면 형태는 모두 굴도리로 단면 크기는 처마도리와 종도리 둘 다 지름 240mm 내외이다. 처마도리와 종도리 하부에는 장여를 보강하였고 그 크기는 모두 수장폭이 90mm 내외이고, 춤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185mm이다. 대들보 상부에는 종도리를 받치는 마루대공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루대공은 사다리꼴 형태의 판대공이 사용되었다. 크기는 수장폭이 90mm 정도이고, 높이가 660mm 정도이다.

### 라. 수장

사당의 기둥사이 각 칸에는 하인방이나 상·하인방 혹은 상·중·하인방이 설치되어 있다. 인방은 벽체의 뼈대와 문얼굴 구성을 위해 기둥과의 사이에 상·중·하인방을 각각 가로지른 횡부재로서 창호와 벽체가 구성되는 칸에 모두 설치되어 있다. 하인방은 모든 칸에 사용되었으나 중인방과 상인방은 창호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위치에 차이가 있다. 창호가 있는 칸에서 대부분 상인방과 하인방은 각기 문미와 문지방을 겸하였다.

인방재의 폭은 상·중·하인방 대부분이 90mm 정도이고, 춤은 180mm 정도의 것이 사용되었다. 상인방과 중인방, 하인방의 춤이 모두 180mm 정도로 다른 채들의 하인방 춤이 상인방이나 중인방보다 큰 것과 비교된다.

인방재로 문미와 문지방을 구성하며 양옆에 문선을 세워 문얼굴이 완성된다. 문선은 창호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문선 두께는 180mm 정도로서 인방재의 춤과 비슷하고, 폭은 90mm 정도이다. 창호와 관계없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세운 벽선은 100mm~150mm로 폭은 90mm 정도이다. 벽체에 문얼굴이 완성되면 문선에는 돌쩌귀 등을 부착하여 창호를 달게 된다. 사당의 문얼굴은 각 모서리가 장부맞춤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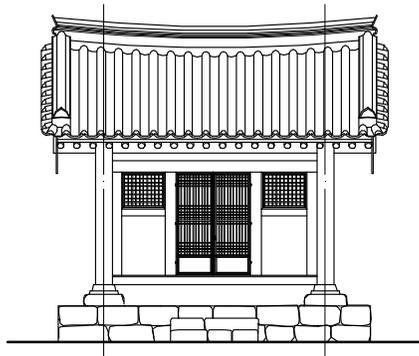
벽체를 하부에서부터 살펴보면 네 면의 하인방 하부에는 모두 고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벽체는 인방을 건너지르고 인방 두께에 맞도록 흙을 채워 재사벽으로 마무리한 심벽이 사용되었다.

실과 마루에 설치된 우물마루는 기둥에 하인방을 걸고 이에 직교하여 동귀틀을 결구한 후 청판을 칸 우물마루의 형태로 되어있다. 실내에는 2개의 우물을 구성해 놓았고, 정면 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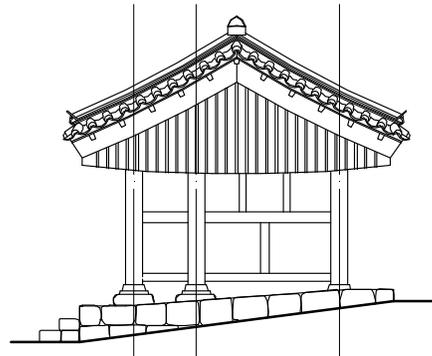
마루는 1개의 우물을 구성해 놓았다. 청판은 각 우물마다 13장씩 일정하게 설치되어있다.

부재의 단면 크기를 살펴보면 실내의 동귀틀은 폭이 160mm~220mm, 춤이 135mm 정도의 것이 사용되었다. 빗마루의 동귀틀은 205×135mm, 여모귀틀은 180×135mm 정도이다. 귀틀의 크기는 춤에 비해 너비가 모두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물은 동귀틀 간격을 넓게 잡아 청판의 길이를 815mm 내외로 하였고, 두께는 51mm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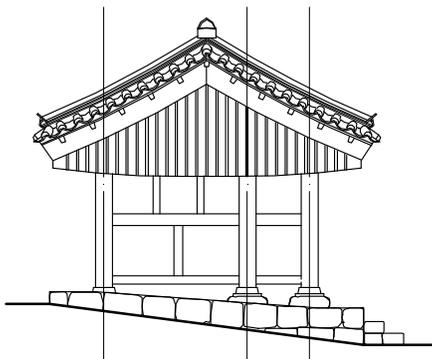
실의 내부바닥을 살펴보면 우물마루로 되어있고, 천장은 전면 마루와 방이 모두 서까래가 드러나 보이는 연등천장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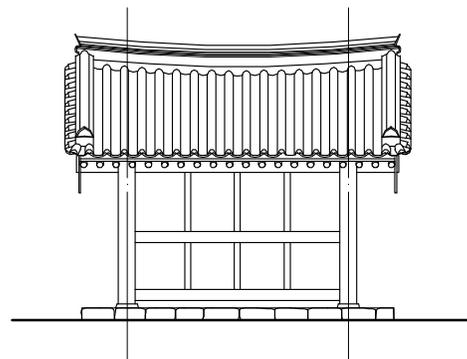
사당 정면도



사당 우측면도



사당 좌측면도



사당 배면도

그림 119 사당 입면도



그림 120 남측 외벽



그림 121 내부 벽체 및 마루

### 마. 창호

사당의 창호는 세살문과 만살창이 사용되었다. 여단이로 되어있는 세살문은 문 아래에 청판이 있는 세살청판문이며 방의 출입문으로 사용되었다.

세살문에는 60×45mm의 울거미가 쓰였고, 모서리는 모두 세살이 있는 내측으로 연귀맞춤 되어 있다. 세살의 폭은 대부분 48mm 내외로 비슷하며 두께는 12mm 정도이다. 격자창에도 60×45mm의 같은 크기의 울거미가 쓰였다. 세살의 폭은 대부분 66mm 내외로 비슷하며 두께는 12mm 정도이다. 쇠시리는 모두 투밀이살로 되어있다. 띠살창호 살 구성을 보면 동살은 4·5·4개가 설치되었고, 장살은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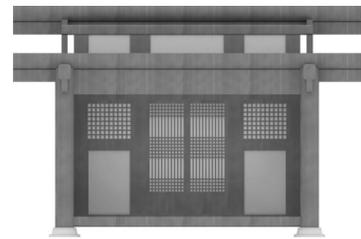


그림 122 사당 정면 이미지

### 바. 처마

지붕의 처마는 전후면 모두 흘처마로 되어 있다. 처마내밀기를 조사한 실측치는 남측면 878mm, 북측면 878mm 정도이다. 서까래의 크기는 평균 120mm 내외로 안목에서 120mm일 때 말구는 105mm로 15mm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안쪽에서부터 마구리까지 걸어 올려 다듬고 15mm 정도 빗잘라 내었다. 평고대 크기는 80×70mm이고, 연합은 70×80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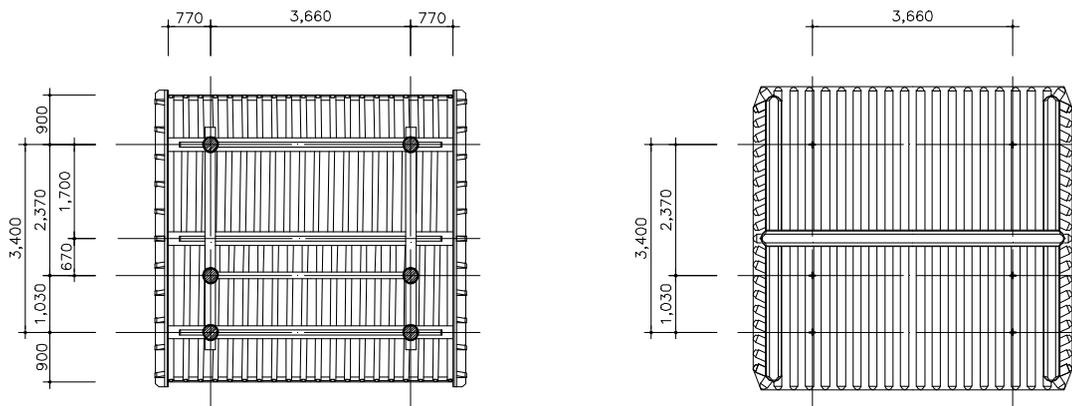


그림 123 사당 천장평면도, 지붕평면도

### 사. 지붕

사당의 지붕은 맞배지붕이고, 용마루와 내림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 적새 4단쌓기이고, 내림마루는 착고 위 적새 3단쌓기이다.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기와 종류로는 암키와, 수키와, 망와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망와는 안체에 쓰인 것과 동일한 추상문양의 망와이다.



그림 124 망와

## 2. 대문채

### 가. 평면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운조루 대문채는 정면 19칸, 측면 1칸 건물로 19칸은 서행랑 7칸과 외대문, 동행랑 1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쪽에서부터 가빈터 2칸, 광 3칸, 방 1칸, 광 1칸, 대문 1칸, 광 4칸, 부엌 1칸, 방 1칸, 대청 2칸, 방 3칸 구성이다.

평면의 주칸은 서쪽에서부터 2,470mm, 2,530mm, 2,500mm, 2,330mm, 3,030mm, 2,380mm, 2,290mm, 3,080mm, 2,360mm, 2,790mm, 2,470mm, 2,460mm, 2,820mm, 2,780mm, 2,790mm, 2,430mm, 2,480mm, 2,480mm, 2,630mm로 전체 주칸은 남측면 도리간이 49,100mm이고 서측면 보간은 3,100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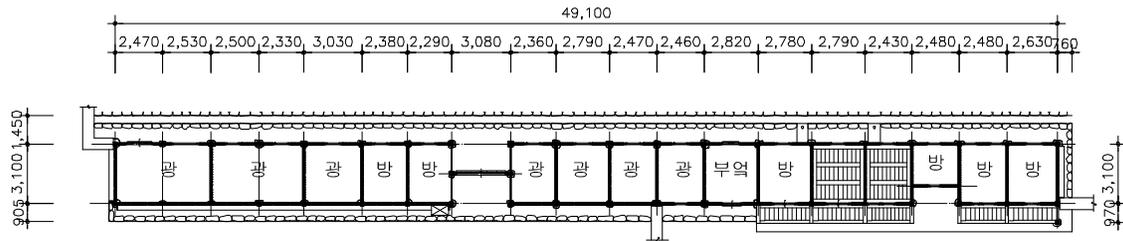


그림 125 대문채 평면도

### 나. 기단 및 초석

기단은 배면쪽이 높고 정면쪽이 낮은 지형 때문에 전면이 높고 후면이 낮은 기단을 설치했다. 후면의 기단은 배수로를 겸하고 있다. 재료는 모두 자연석이 사용되었고 외벌대로 지형에 맞추어 쌓아 놓았다.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기단은 한 단으로 정면은 높이 210mm로 배면은 250mm로 축조되었다. 배면 기단이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서 기단 상면의 높이는 마당 높이와 동일하다.

기단 내밀기는 전면과 후면이 각각 905mm, 1,060mm로 배면이 정면보다 길게 내밀었다. 좌측면은 담장에 면하고 있어서 기단 내밀기가 없고, 우측면의 기단 내밀기는 760mm



그림 126 기단 및 배수로

이다.

대문채에서는 43개의 초석이 사용되었다. 초석은 모두 정치하게 다듬지는 않았고 정방형에 가깝거나 혹은 부정으로 다듬어 만든 덩빙주초가 사용되었다. 초석의 규격은 약 450×450mm 정도이다.

#### 다. 가구

대문채의 벽체가구는 내진주가 없으며 전·후면 평주가 모두 네모기둥이다. 그리고 지붕가구는 전면평주와 배면평주 사이에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중앙에 종도리를 건 3량가이다. 대들보는 위에 관대공을 올리고 장여와 종도리를 걸었다.

기둥은 43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모두 네모기둥이다. 크기는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며 7종류의 기둥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크기에 따른 기둥 위치가 일정하지는 않다. 가장 작은 기둥이 170×170mm이고, 가장 큰 기둥이 225×225mm 정도이다. 기둥의 길이는 3,700mm 정도이다.

대문채는 3량가로서 대들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들보의 단면 크기는 규격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너비보다 축이 긴 장방형의 네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이다. 단면 크기는 190×250mm 정도이며, 보머리 형태는 규격을 줄여 내밀고 상면을 경사지게 다듬은 후 마구리를 오각형으로 다듬고 단순하게 직절한 형태로 되어있다. 보머리 내밀기는 245mm 정도이다. 노출되어 있는 대들보 전체 길이는 3,100m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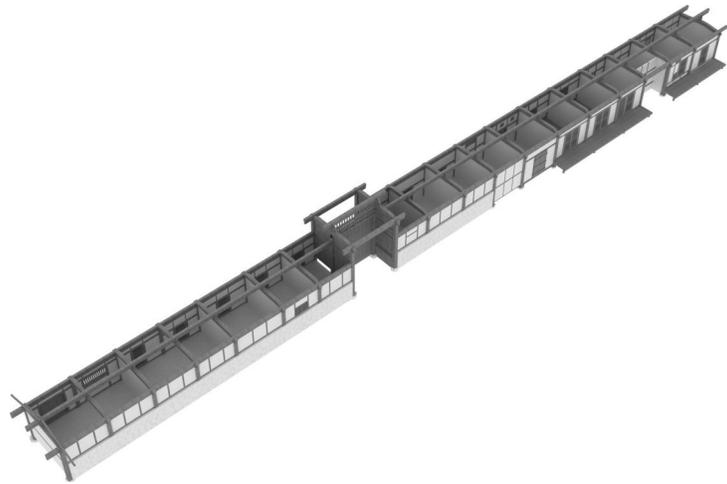


그림 127 대문채 3D 이미지

도리는 처마도리와 종도리의 두 종류가 설치되어 있다. 단면 형태는 모두 납도리로 단면 크기는 처마도리가 150×175mm이고, 종도리가 185×190mm 정도이다. 처마도리와 종도리 하부에는 장여를 보강하였고 그 크기는 모두 수장폭이 90mm 내외이고, 축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165mm이다. 대들보 상부에는 종도리를 받치는 마루대공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루대공은 사다리꼴 형태의 관대공이 사용되었다. 크기는 수장폭이 90mm 정도이고, 높이가 460m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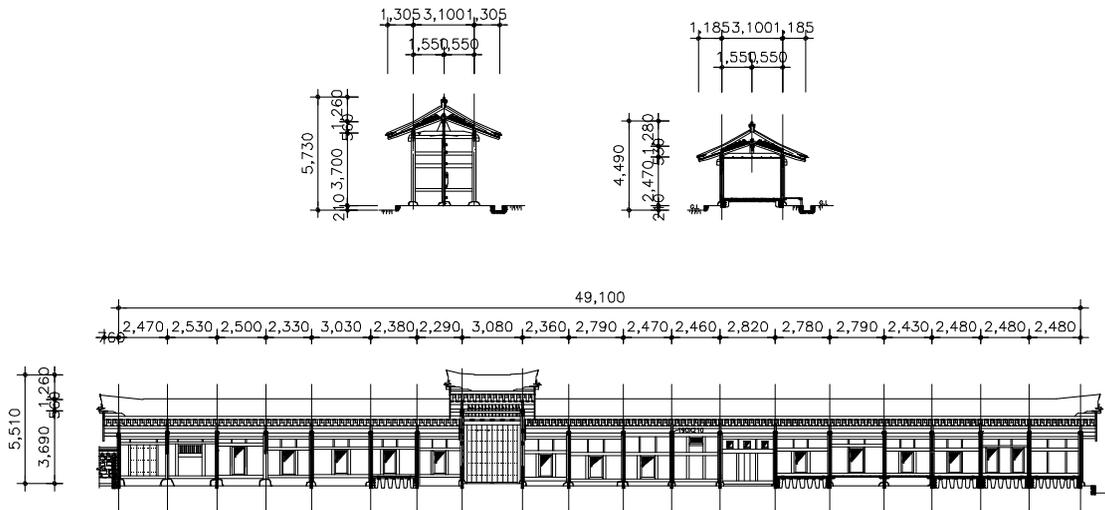


그림 128 대문채 종단면도, 횡단면도

### 라. 수장

인방재의 폭은 상·중·하인방 대부분이 90mm 정도이고, 춤은 105mm~180mm 정도의 것이 사용되었다. 상인방은 105mm~150mm의 것들이 주로 사용되었고, 중인방은 150mm 정도의 것을 사용하였다. 하인방의 춤은 175mm~180mm 정도로 중·상인방보다 크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인방의 크기는 설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림 129 대문채 입면 이미지

인방재로 문미와 문지방을 구성하며 양옆에 문선을 세워 문얼굴이 완성된다. 문선은 창호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문선 두께는 100mm~148mm 정도로서 인방재의 춤보다 조금 작고, 폭은 90mm 정도이다. 창호와 관계없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세운 벽선은 85mm로 폭은 90mm 정도이다. 벽체에 문얼굴이 완성되면 문선에는 돌쩌귀 등을 부착하여 창호를 달게 된다. 사당의 문얼굴은 각 모서리가 장부맞춤 되어 있다.

벽체를 하부에서부터 살펴보면 네 면의 하인방 하부에는 모두 고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벽체는 인방을 건너지르고 인방 두께에 맞도록 흙을 채워 재사벽으로 마무리한 심벽이 사용되었다.

실과 마루에 설치된 우물마루는 기둥에 동귀틀을 걸고 이에 직교하여 동귀틀을 결구한 후 청판을 간 우물마루의 형태로 되어있다. 실내에는 3개의 우물을 구성해 놓았고, 정면 뒤틀마루는 1개의 우물을 구성해 놓았다. 청판은 각 우물마다 10장씩 일정하게 설치되어있다.

부재의 단면 크기를 살펴보면 실내의 동귀틀은 폭이 210mm 정도의 것이 사용되었다. 뒤틀마루의 동귀틀은 165mm 정도이다. 우물은 동귀틀 간격을 넓게 잡아 청판의 길이를 723

mm 내외로 하였다. 천장은 대청과 방이 각각 서까래가 드러나 보이는 연등천장과 종이반자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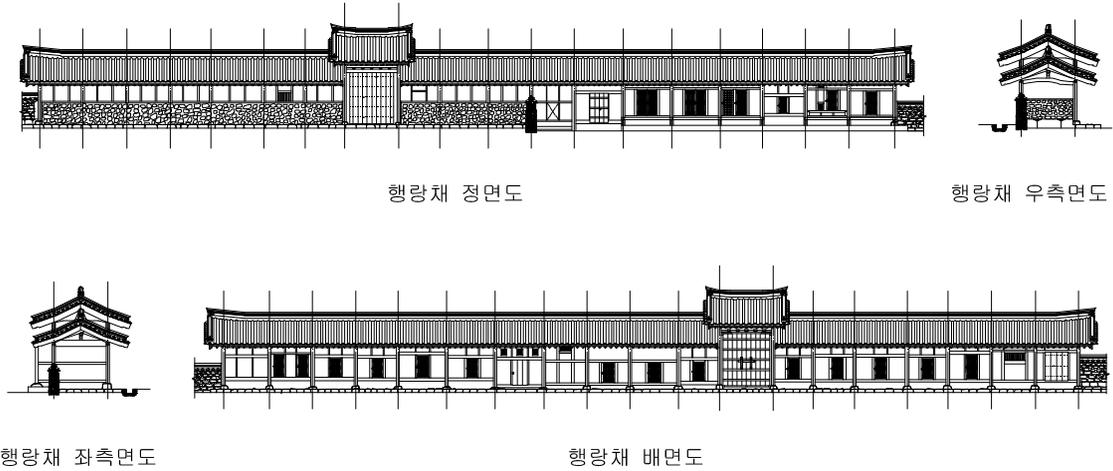


그림 130 대문채 입면도

### 마. 창호

창호는 크게 외부 세살문 및 만살창, 판문으로 나뉘지며 기타 사롱창 등이 있다. 모두 여닫이로 되어있는 세살문은 방과 광의 출입문으로 사용되었고, 만살창은 주로 고창으로 사용되었다. 판문은 부엌과 광(가빈터), 대문에 설치되었다. 동행랑의 부엌에는 앞뒤로 판문이 설치되었는데 남측면으로 두 짝 판문을 두었고 북측면으로 한 짝 판문을 두었다. 대문은 전후평주 사이에 기둥을 설치하고 판문을 설치하였다.

문의 울거미는 세살문에 보통 68×42mm의 울거미가 쓰였고, 모서리는 모두 세살이 있는 내측으로 연귀맞춤 되어있다. 세살의 폭은 대부분 57mm 내외로 비슷하며 두께는 14mm 정도이다. 쇠시리는 모두 등밀이 살로 되어있다. 띠살창호 살 구성은 살펴보면 창호의 규격에 따라 동살은 2·5·2개, 4·5·4개, 5·7·5개의 것이 설치되어 있고, 장살은 8개에서 11개까지 설치되어 있다. 판문은 상하부에 통둔테를 설치하여 두께 32mm의 판재를 띠장으로 연결한 후 둔테의 장부 구멍에 끼워 설치하였다. 대문칸에 설치되어 있는 문짝도 두께 45mm의 판재에 띠장을 대어 만들었고 문선에 설치된 둔테에 고정되어 있다.



그림 131 서행랑 북측 입면



그림 132 동행랑 북측 입면

### 바. 처마



그림 133 대문채 처마

대문채 지붕의 처마는 전면과 후면 모두 홑처마로 되어 있다. 처마내밀기를 조사한 실측치는 남측면 1,275mm, 북측면 1,275mm 정도이다.

처마서까래의 개수는 남측면 162개, 북측면 162개가 사용되었다. 대문간의 서까래 개수는 그 가운데 15개가 사용되었다. 서까래의 크기는 평균 120mm 내외이다. 평고대 크기는 75×60mm 정도이고, 연합은 75×80mm 정도이다.

### 사. 지붕



그림 134 지붕 전경

문간채의 지붕은 서행량과 동행량 그리고 대문이 모두 맞배지붕이다. 대문간의 지붕을 서행량과 동행량보다 높게하여 외관을 구성하였다.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로 되어 있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 적새 5단쌓기이고, 내림마루는 당골 위 적새 3단쌓기로 하였다.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기와 종류로는 암키와, 수키와, 망와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망와는 신와로 용문양의 망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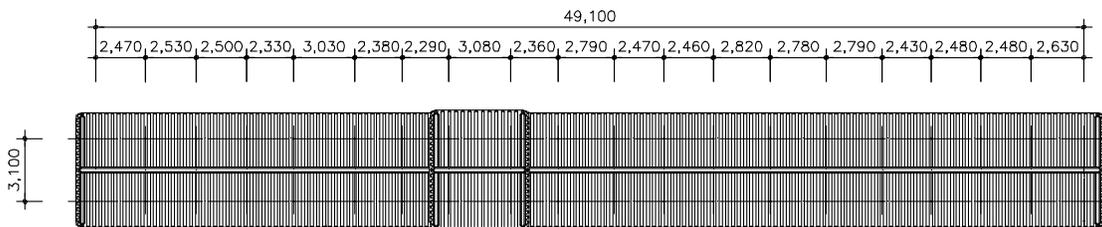


그림 135 대문채 지붕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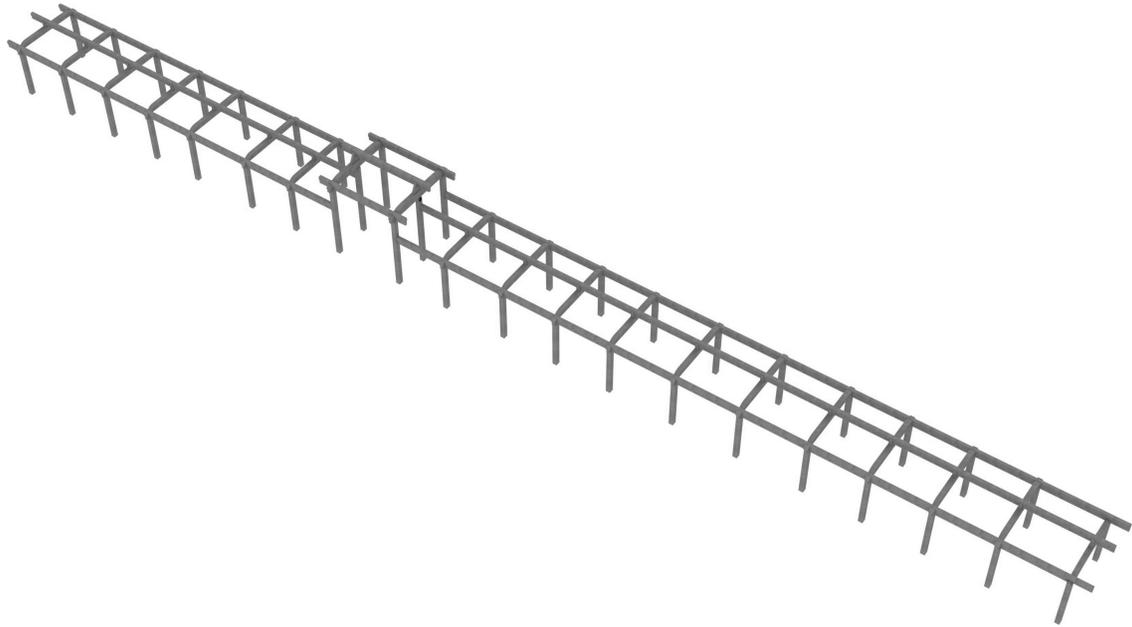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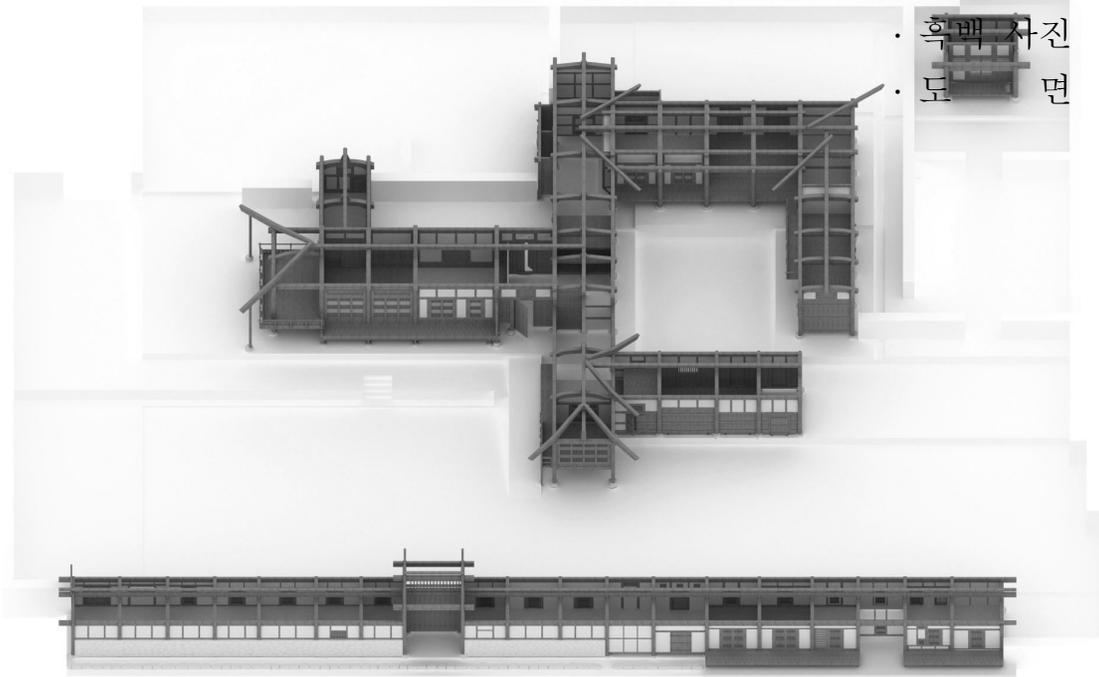
그림 136 대문채 가구 이미지



## VIII. 부 록

---

- 원색 사진
- 흑백 사진
- 도 면







운조루 전경



안채, 큰사랑채, 중간사랑채 지붕 전경



귀래정 정면



귀래정 측면



귀래정 누마루 내부1



귀래정 누마루 내부2



큰사랑채 전면



큰사랑채 좌측면



큰사랑채 대청내부1



큰사랑채 대청내부2



큰사랑채 뒷마당



중문간



안채 전경



안채 대청 내부



안채 부엌입구



안채 부엌



운조루 솟을대문



동측채(안채) 서측면



서측채(안채) 동측면



남측채(큰사랑채) 남측면



남측채(큰사랑채) 남측면 방



남측채(큰사랑채) 누마루 기둥 및 초석



남측채(큰사랑채) 대청 상부가구 및 창호



남측채(큰사랑채) 인방 및 쪽마루



서측채(중간사랑채) 남측면



서측채(중간사랑채) 서측면



동측채(중간사랑채) 곳간 내부



서측채(중간사랑채) 방 장호



동측채(중간사랑채) 곳간 내부



서측채(중간사랑채) 방 창호



동측채(중간사랑채) 허칸 남측 창호



사당 남측면



사당 상부가구



대문(대문채) 남측면



서행랑(대문채) 남측면



대문 및 서행랑(대문채) 북측면



안채 안마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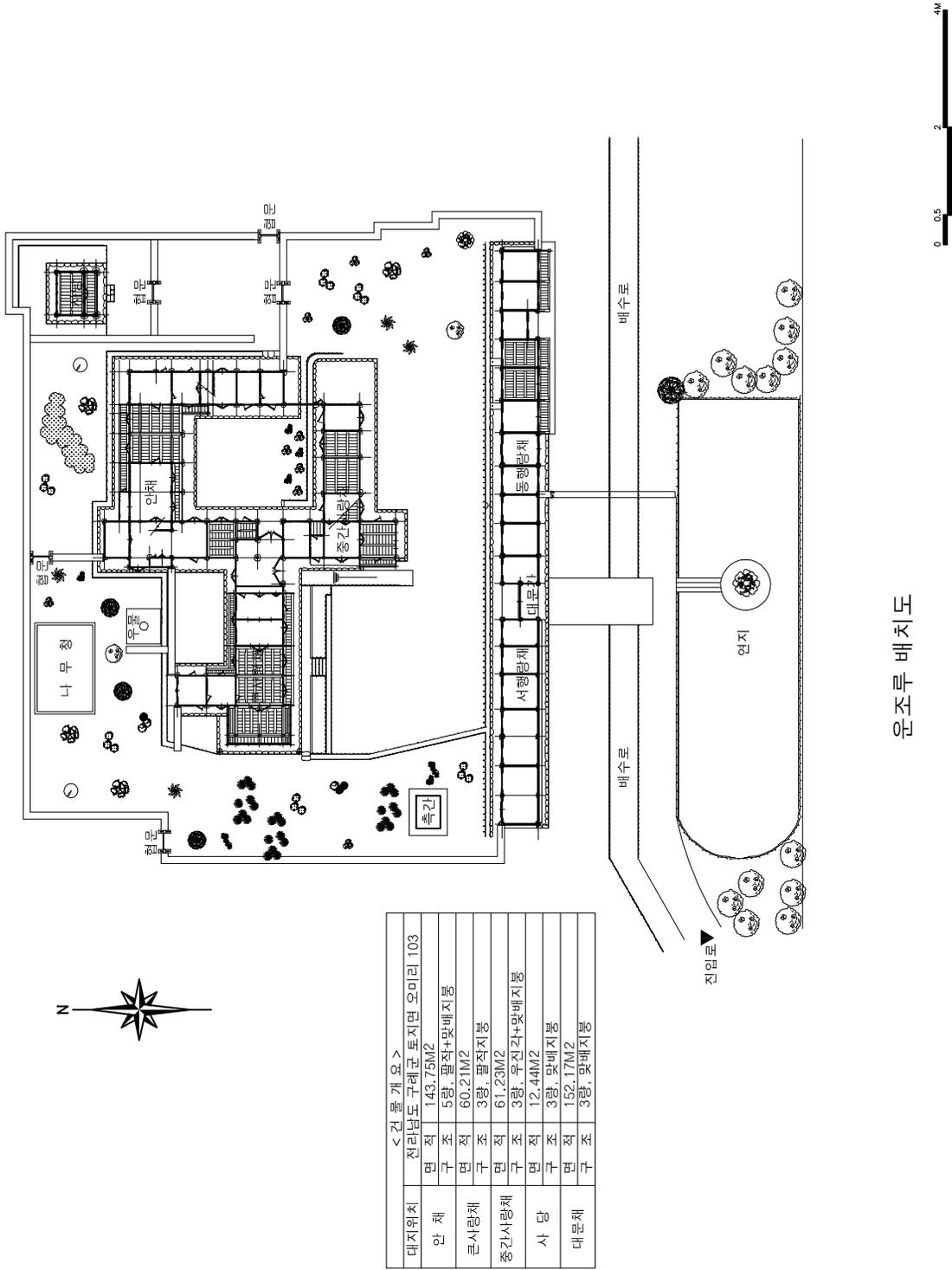
안채 북쪽 협문



사당 남쪽 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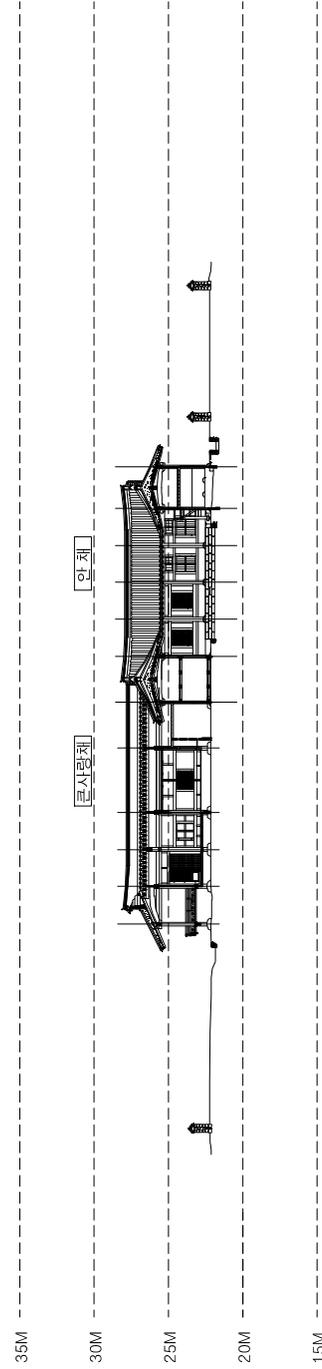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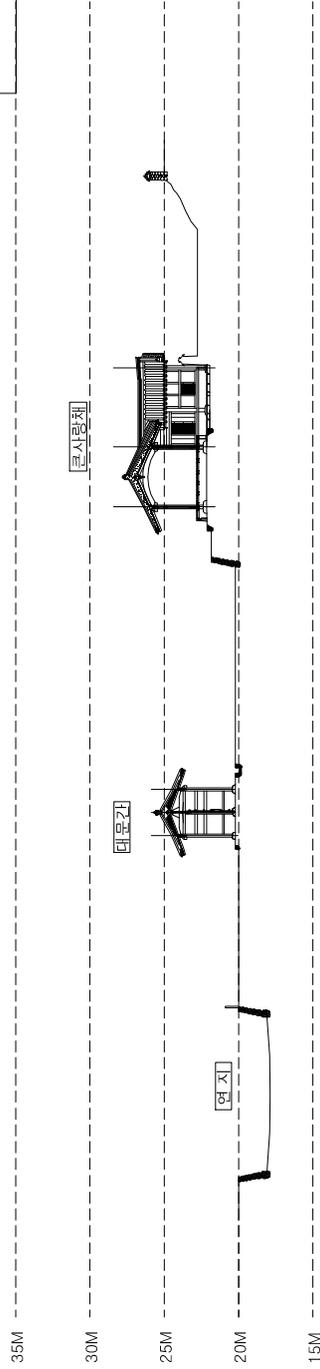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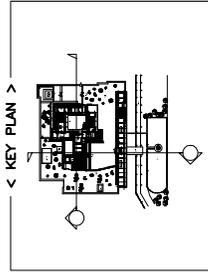
사당 동쪽 협문



< 건 록 개 요 >  
진리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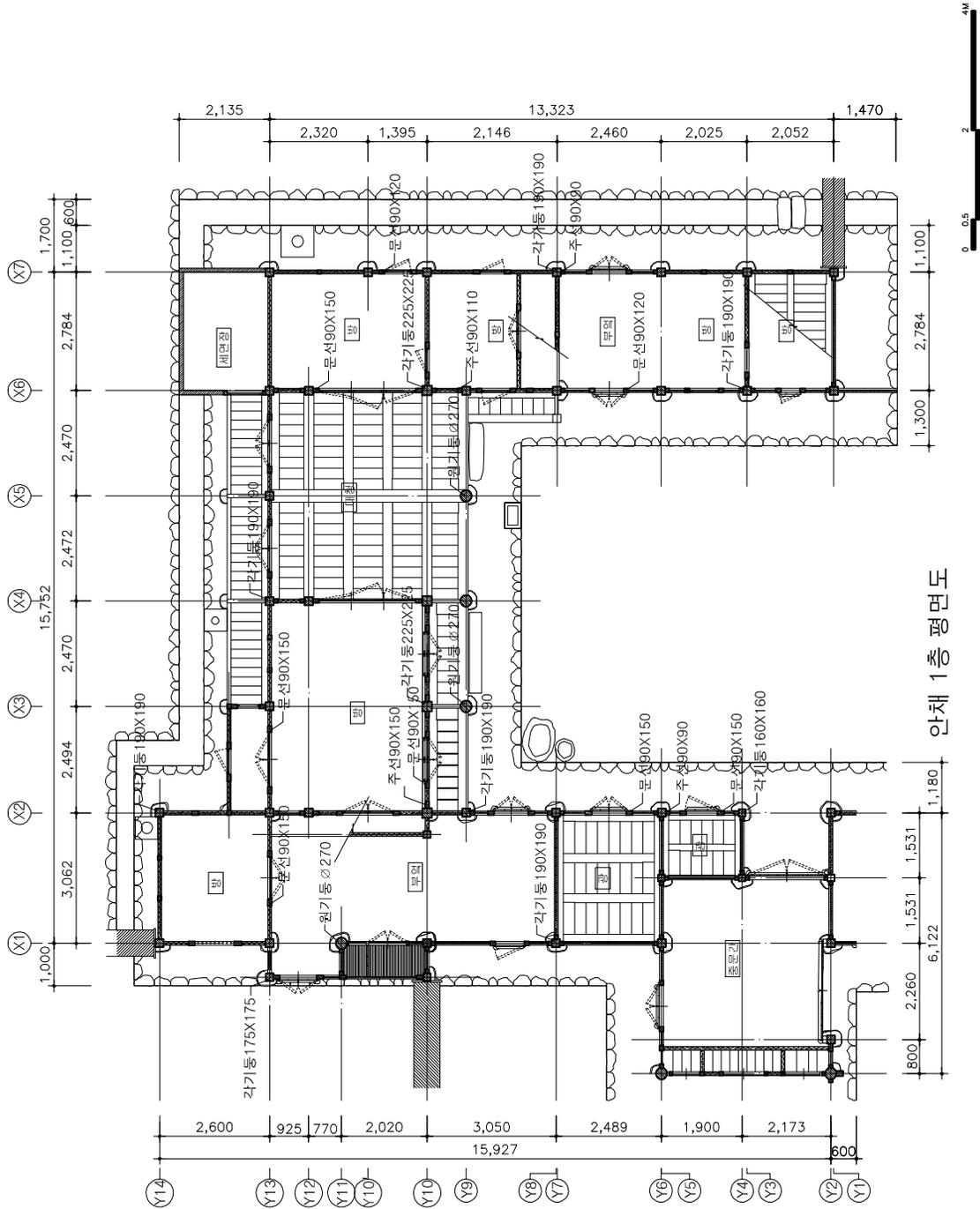
대지위치	면 적	143.75M <sup>2</sup>
안 체	구 조	5랑. 팔작+맞배지붕
근사랑채	면 적	60.21M <sup>2</sup>
	구 조	3랑. 팔작지붕
중간사랑채	면 적	61.23M <sup>2</sup>
	구 조	3랑. 우진각+맞배지붕
사 당	면 적	12.44M <sup>2</sup>
	구 조	3랑. 맞배지붕
대문채	면 적	152.17M <sup>2</sup>
	구 조	3랑. 맞배지붕

은조루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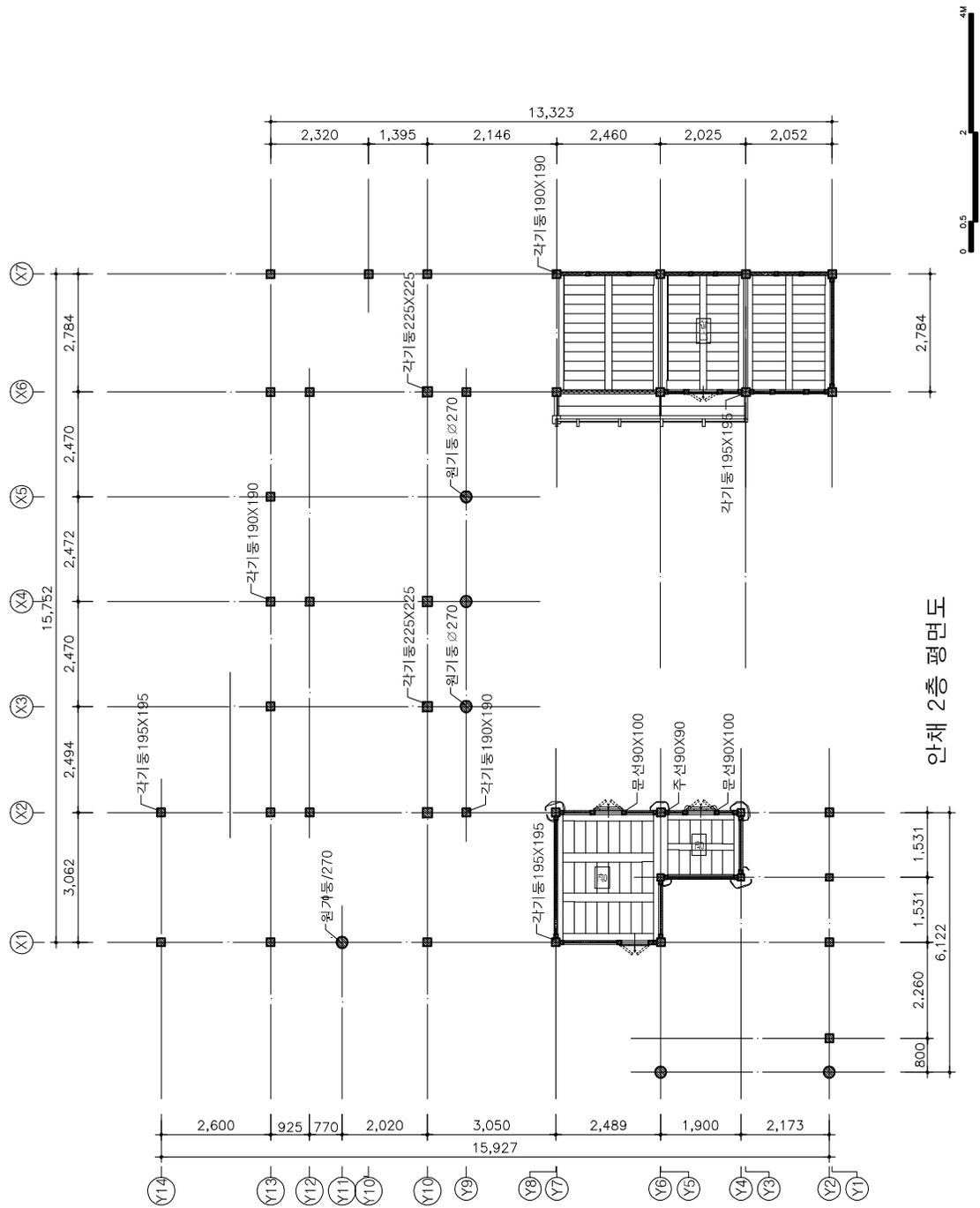
운조루 대지 중, 황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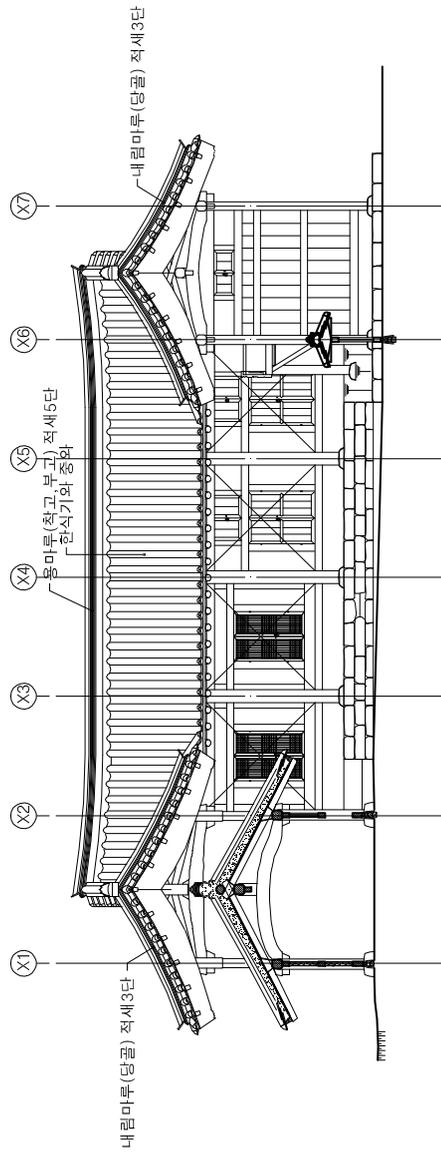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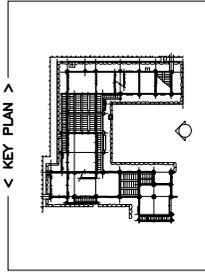




안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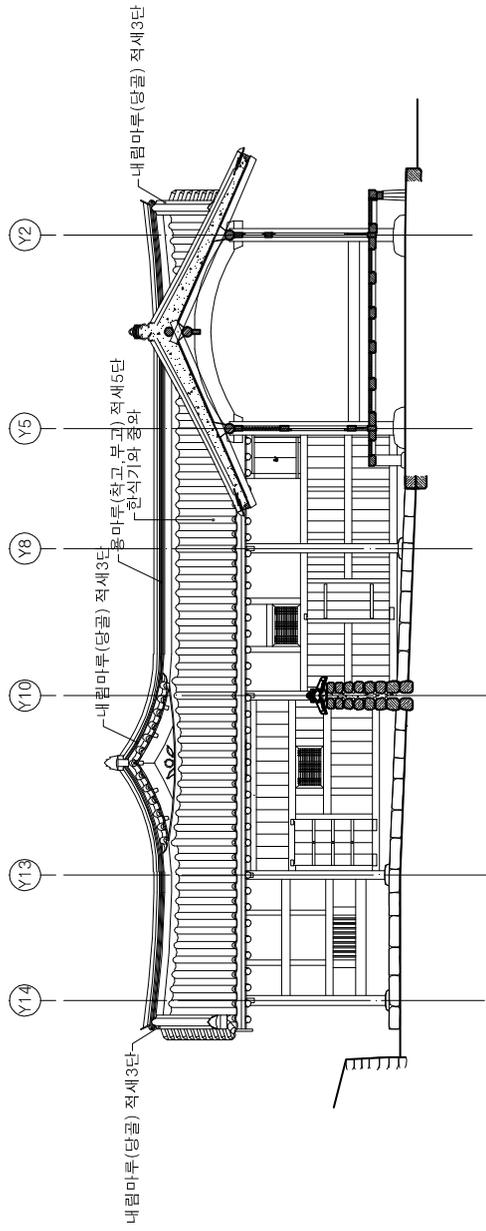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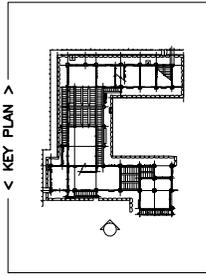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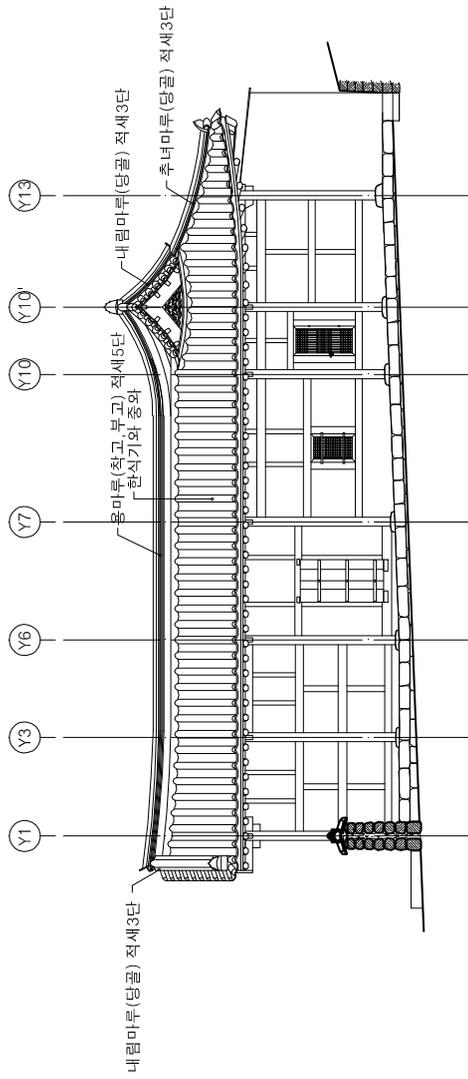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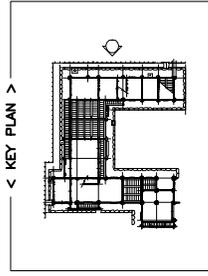


안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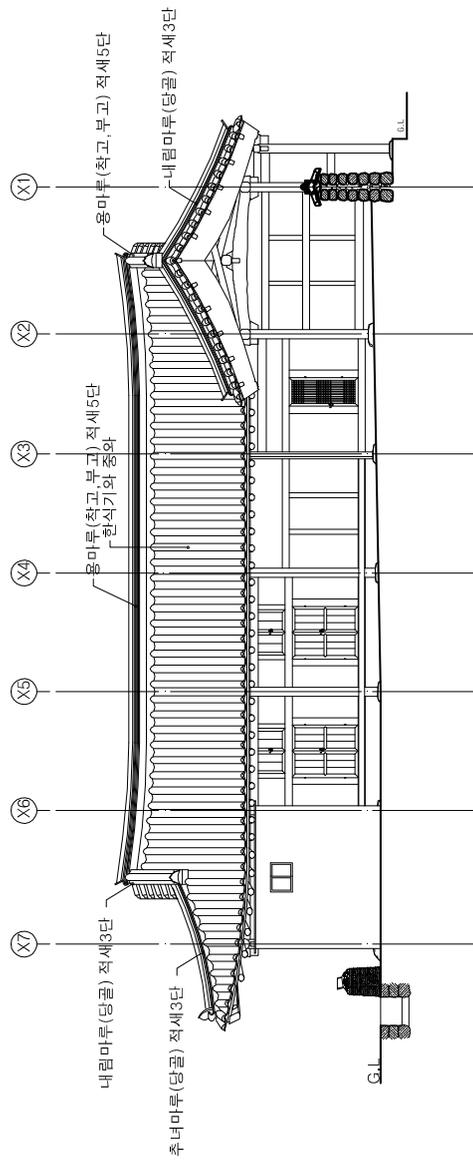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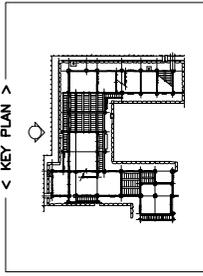




안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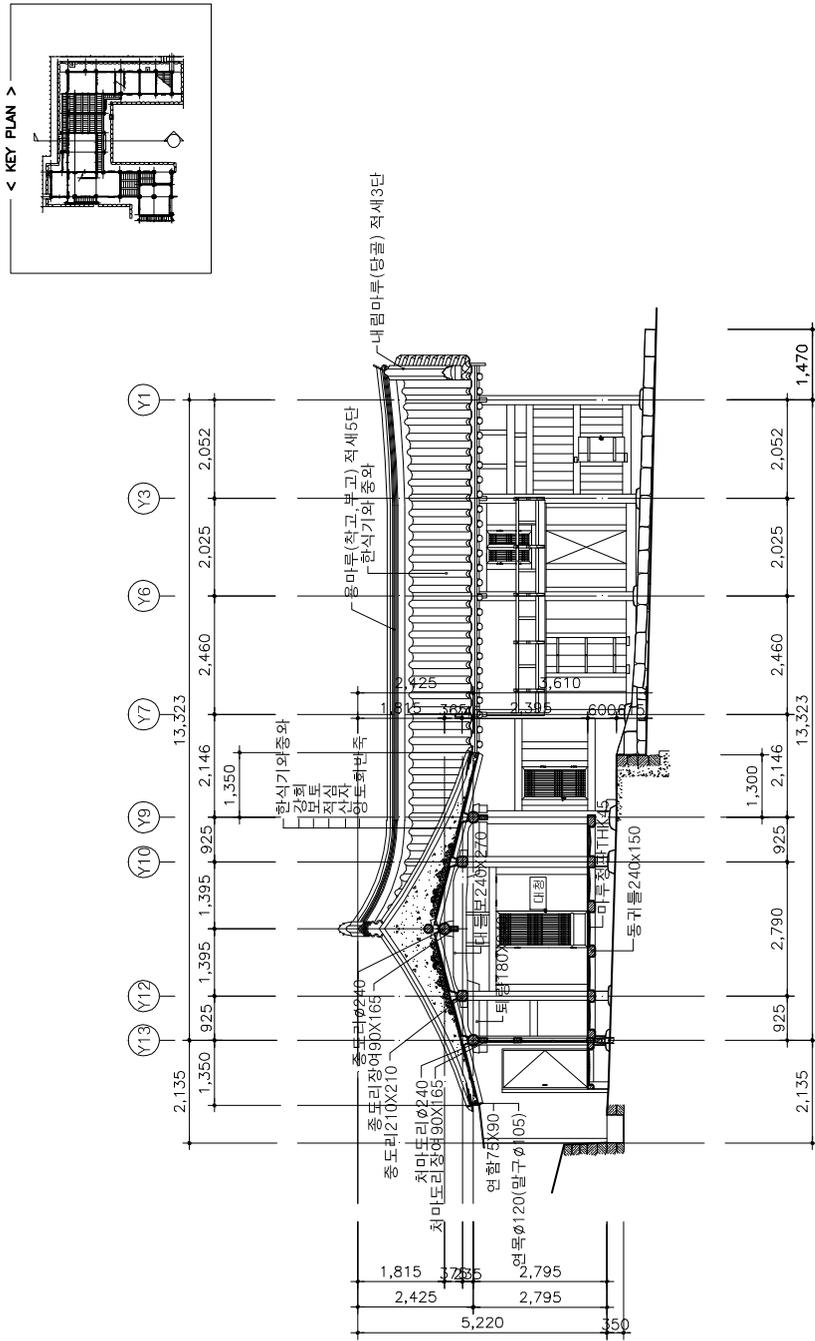


안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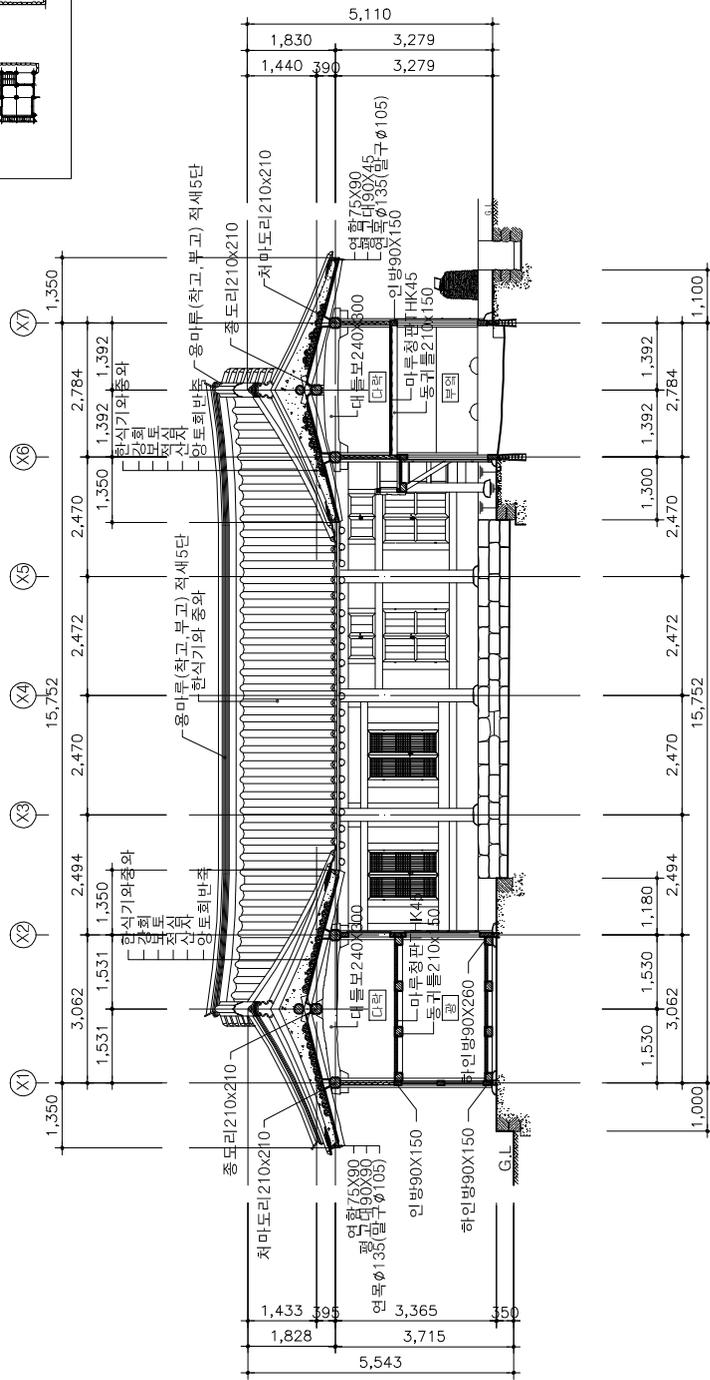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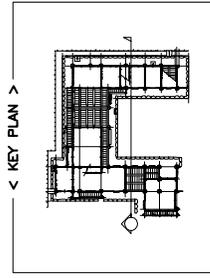


안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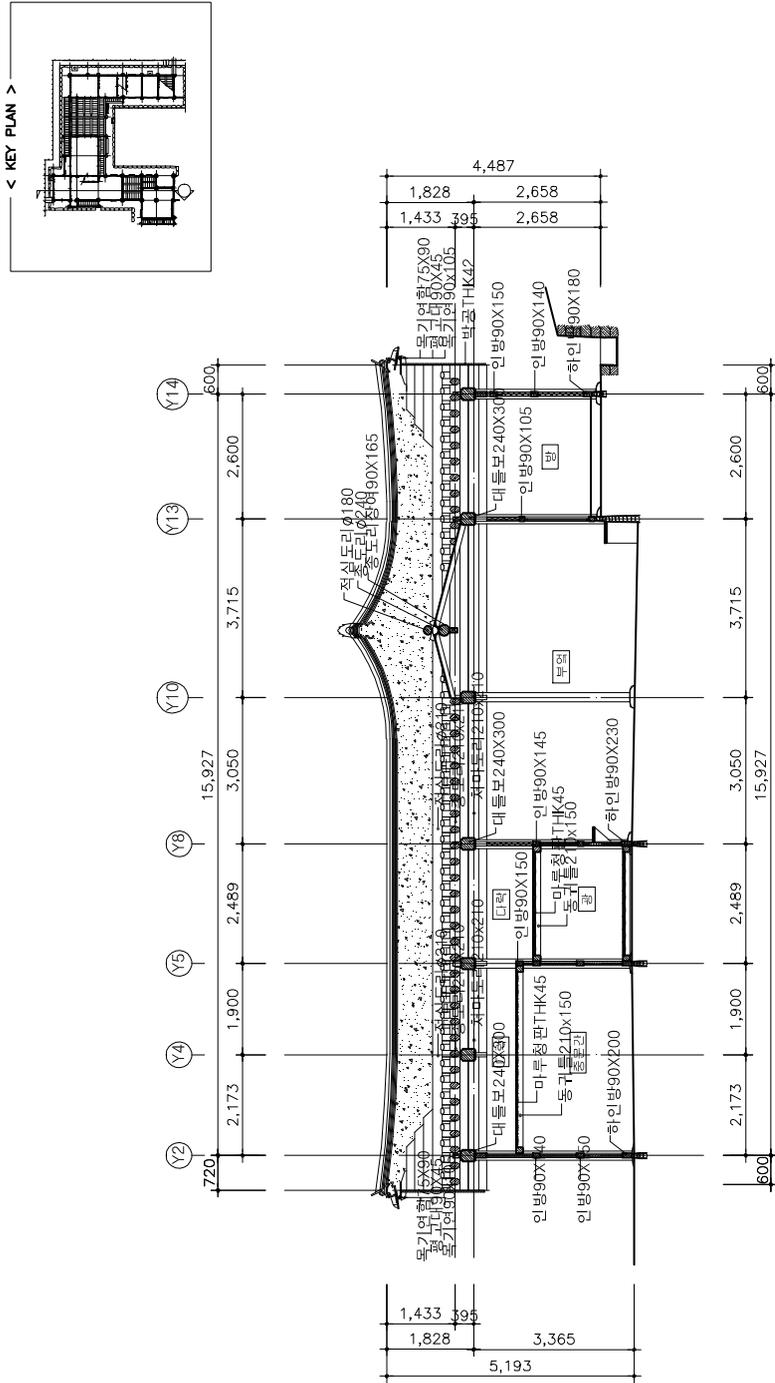


안채 중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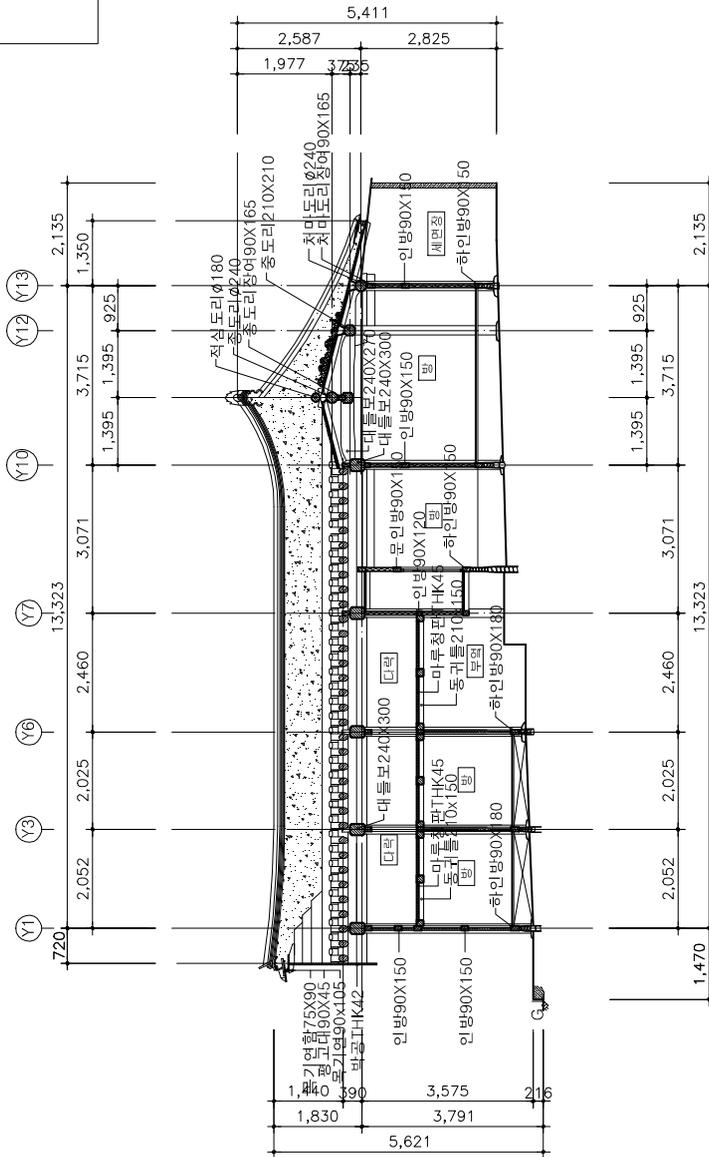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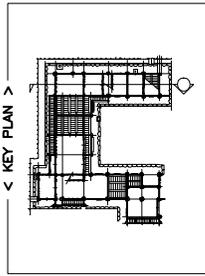


안채 종단면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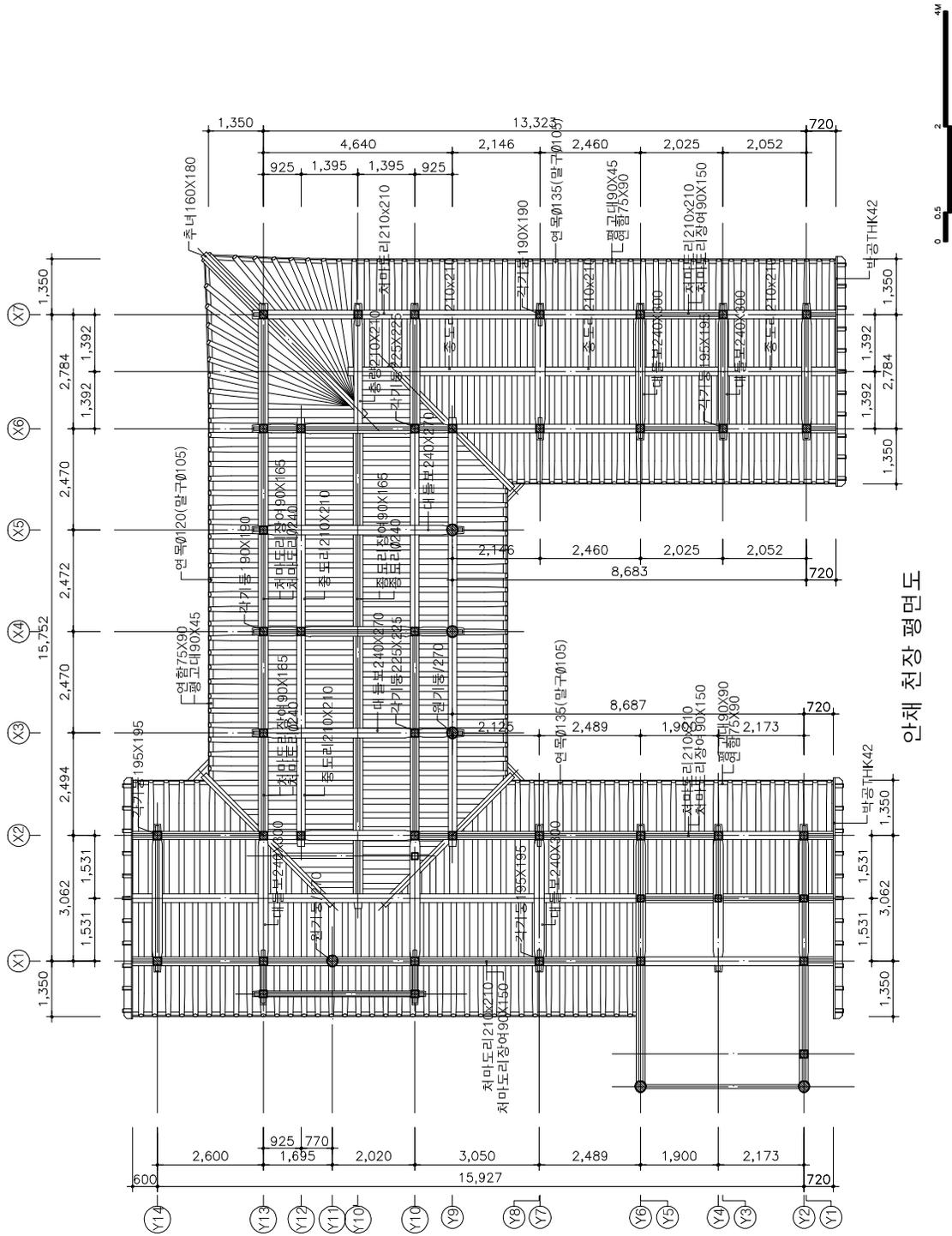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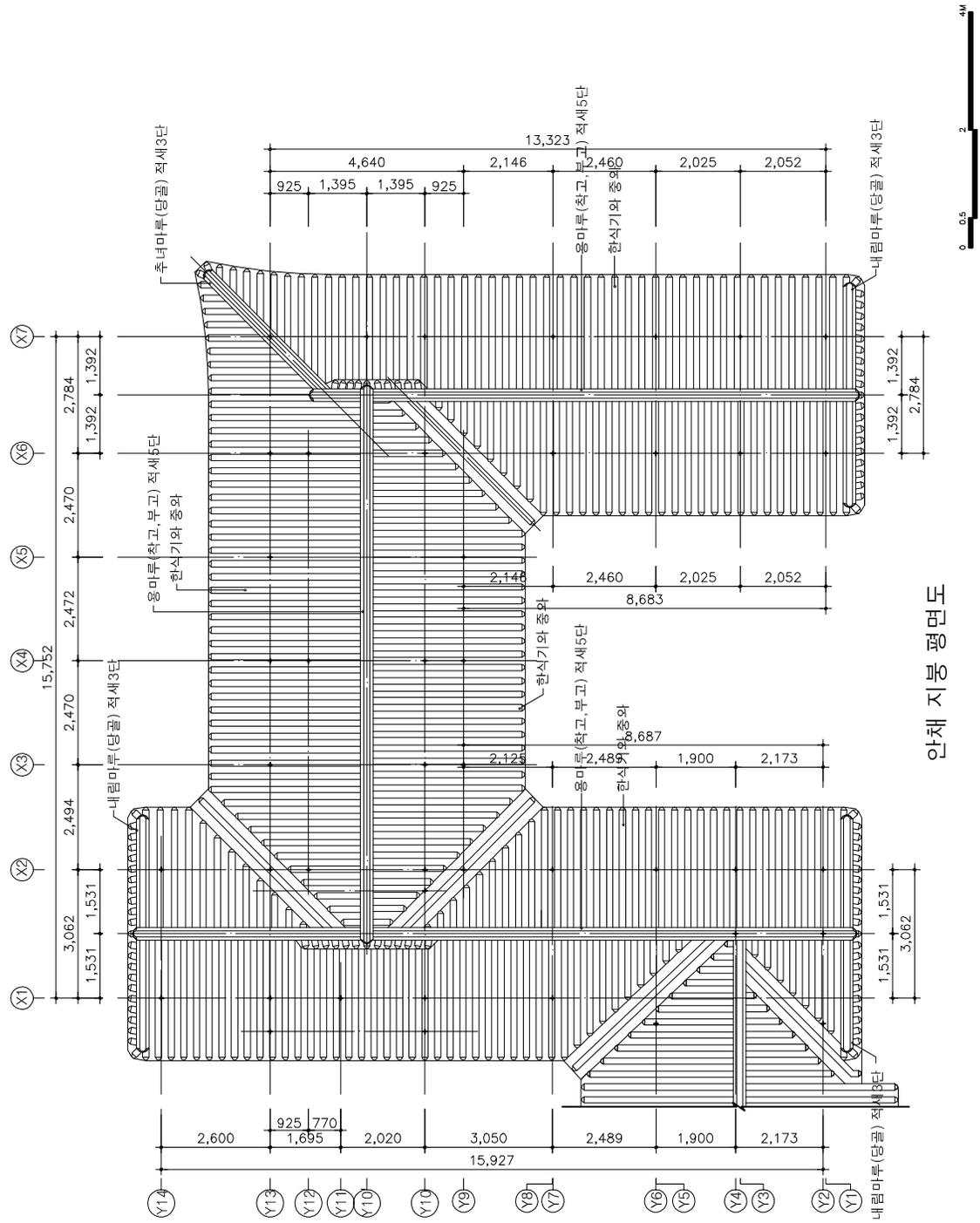


인채 횡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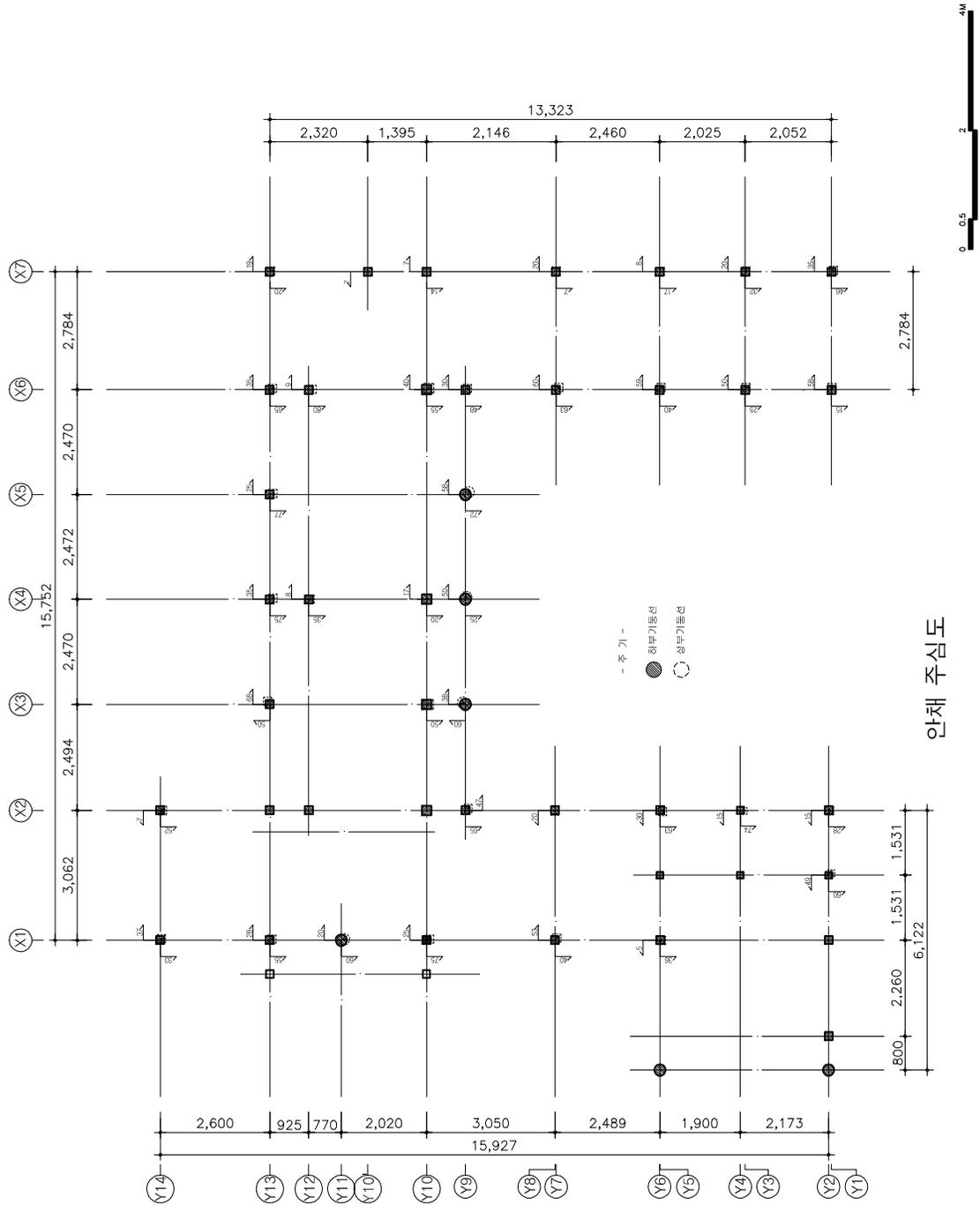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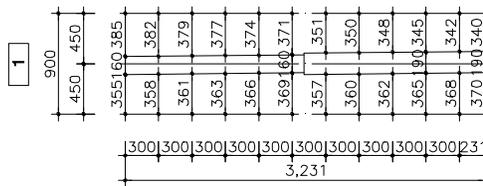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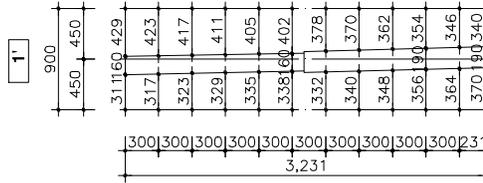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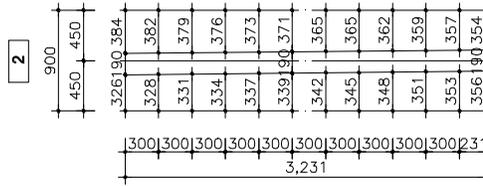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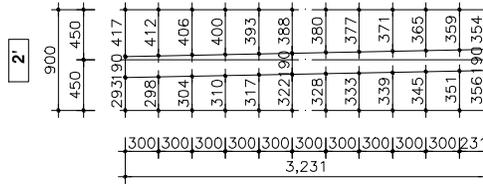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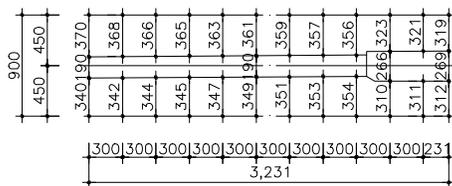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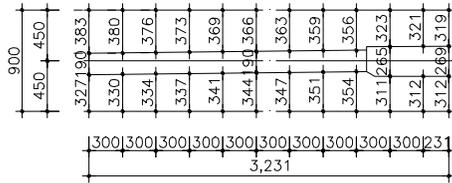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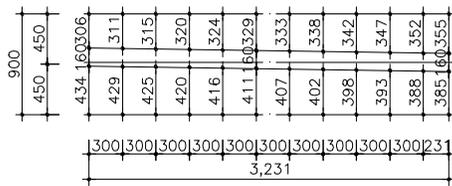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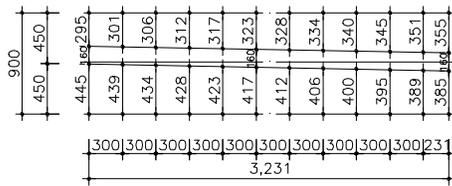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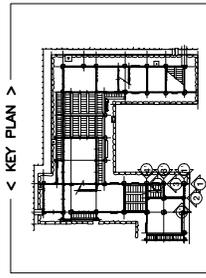
안채 횡단면도-3





안채 지붕 평면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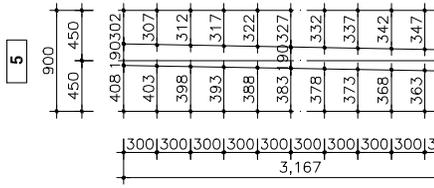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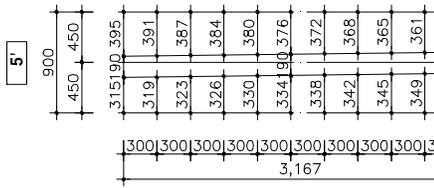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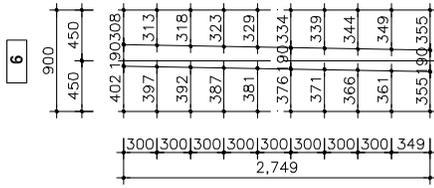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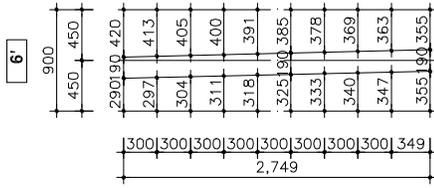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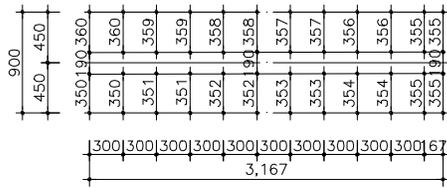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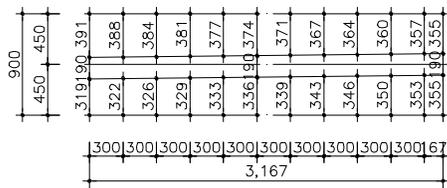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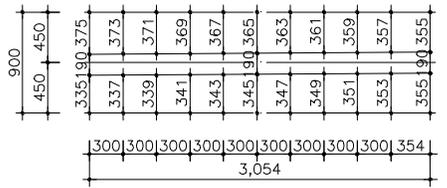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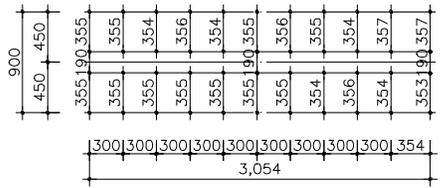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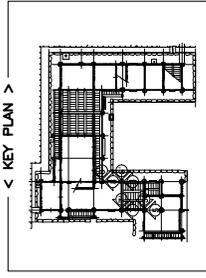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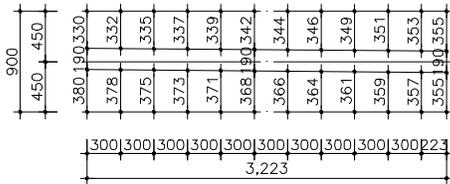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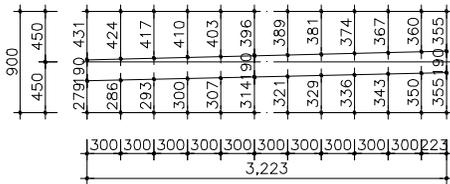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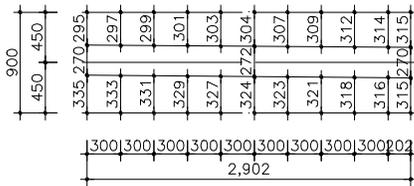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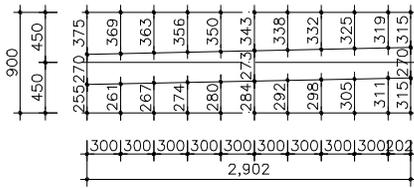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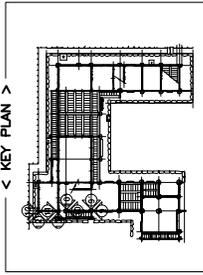
3

안채 기동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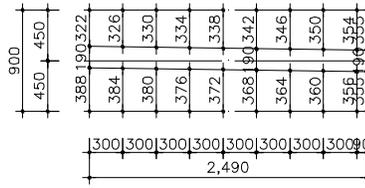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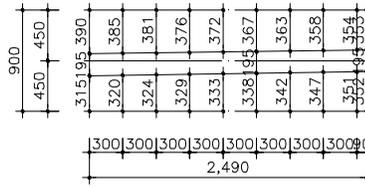
안채 기동상세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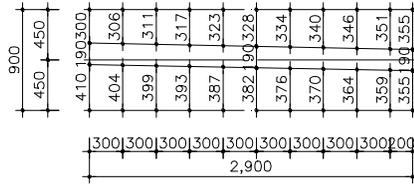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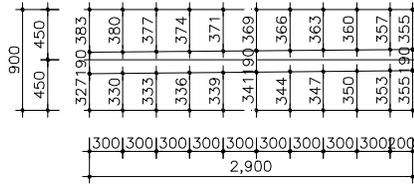
10



9'



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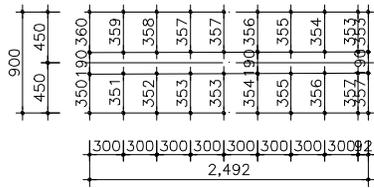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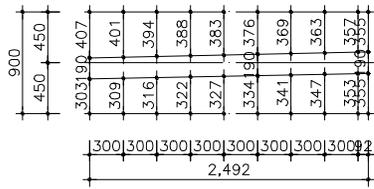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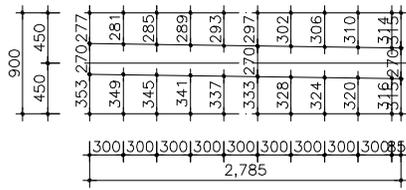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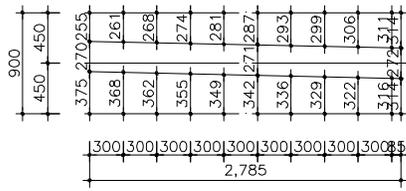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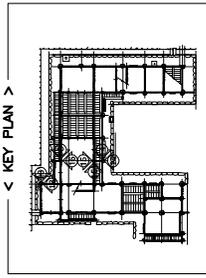
12

11'

11



안채 기둥상세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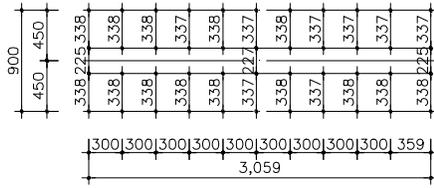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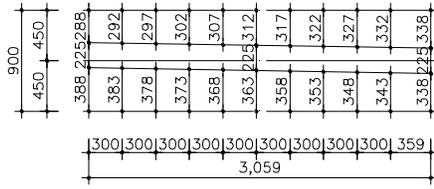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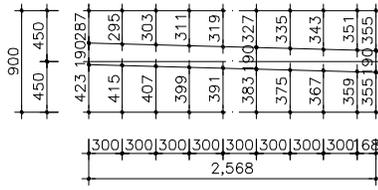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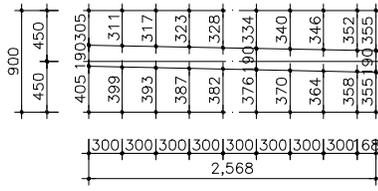


13

14

13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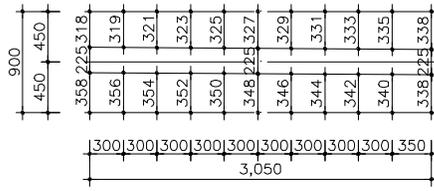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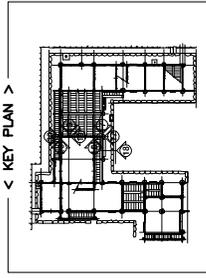
1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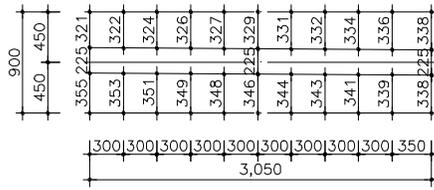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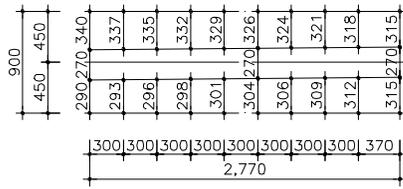
안채 기동상세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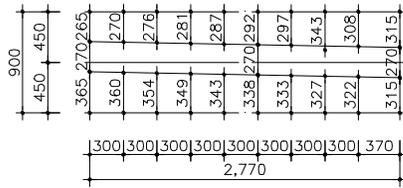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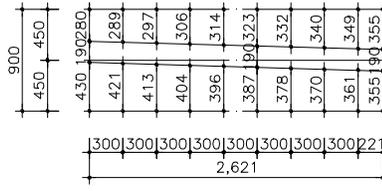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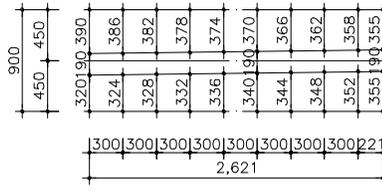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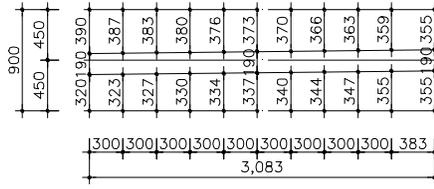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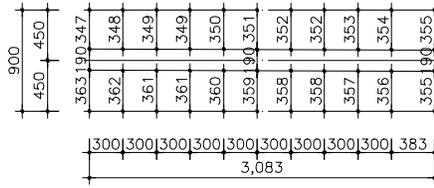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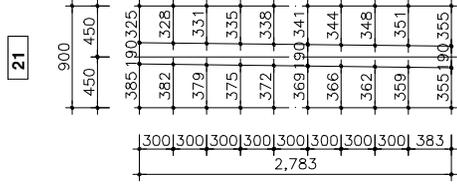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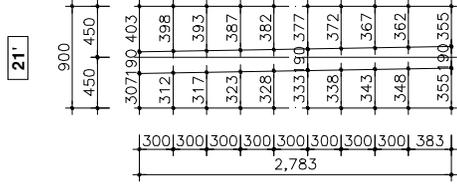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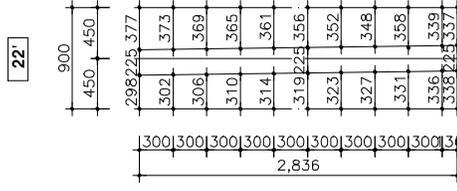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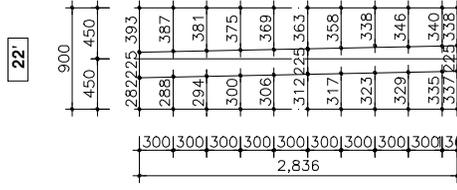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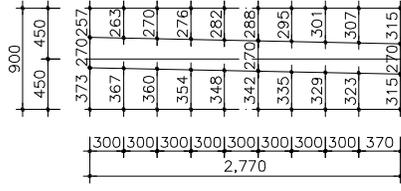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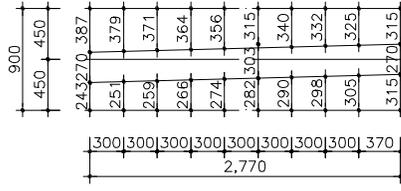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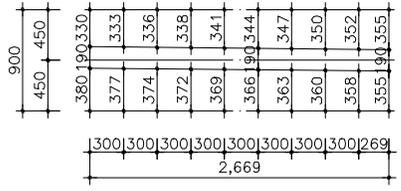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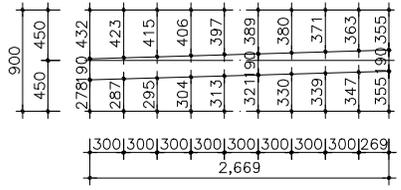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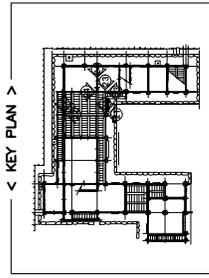
19'



20'



안채 기동상세도-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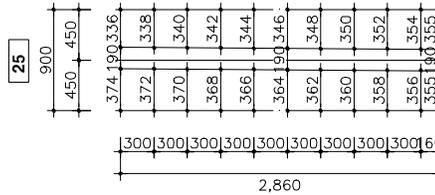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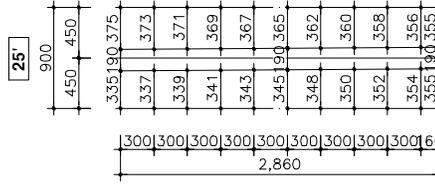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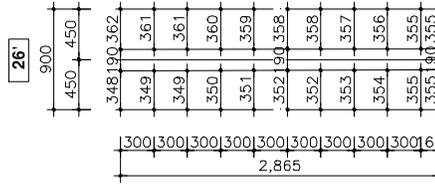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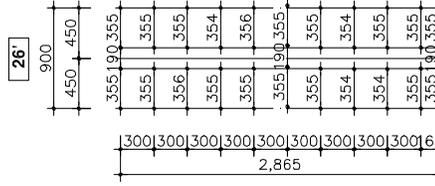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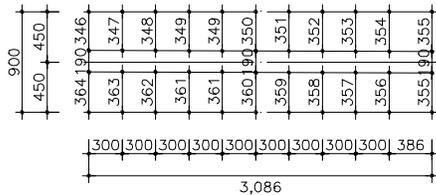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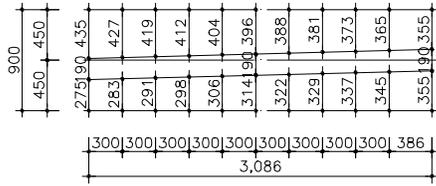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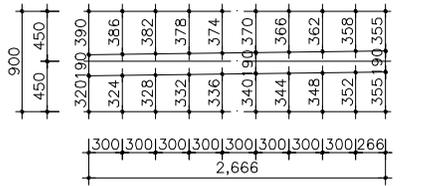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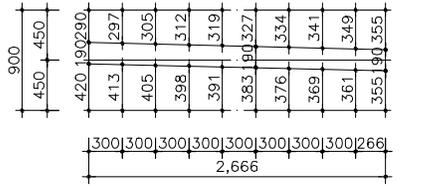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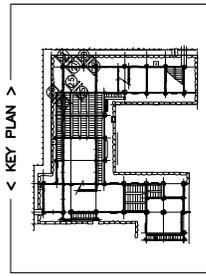
22

23

24

안채 기동상세도-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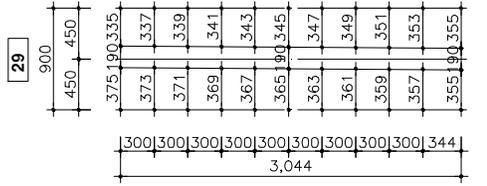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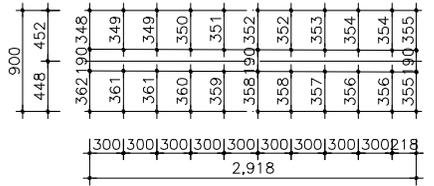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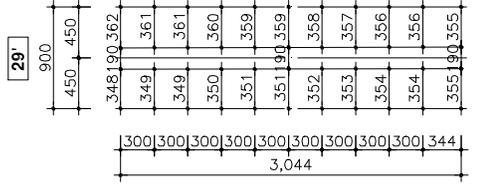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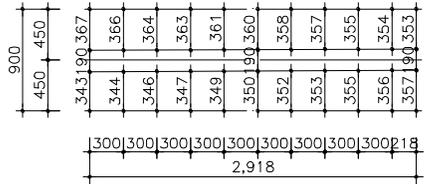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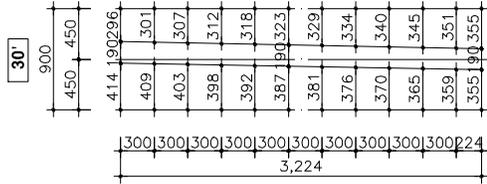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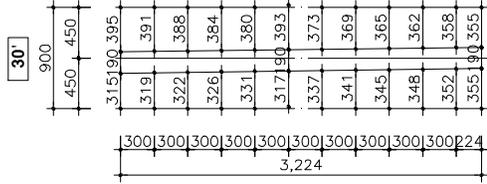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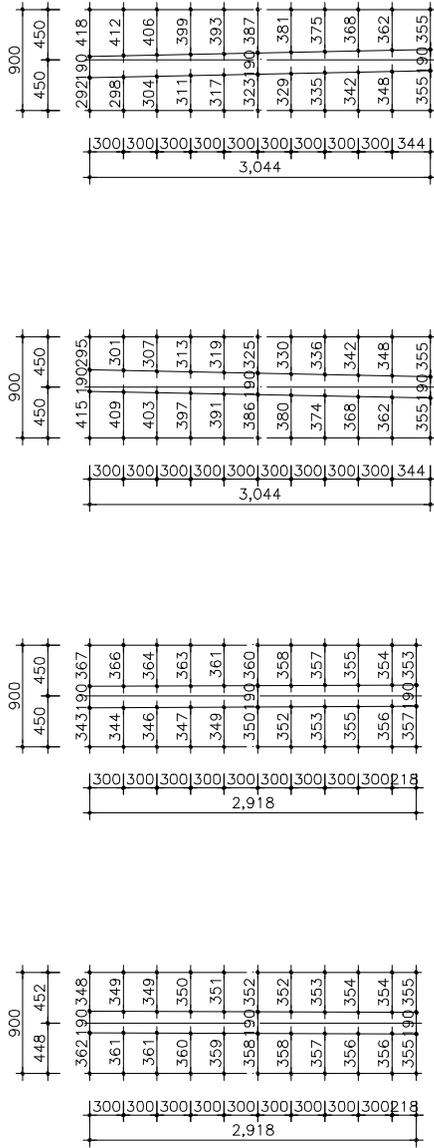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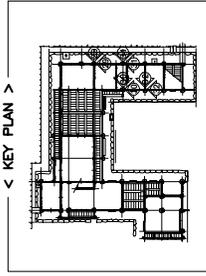
26'

27'

28'

안채 기둥상세도-7





30'

30'

29'

29'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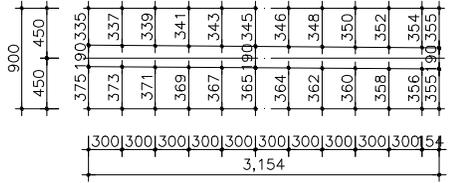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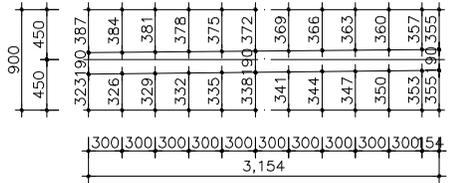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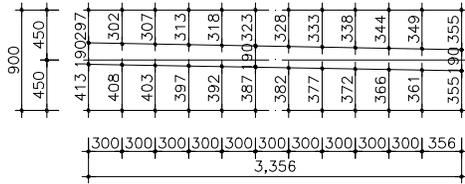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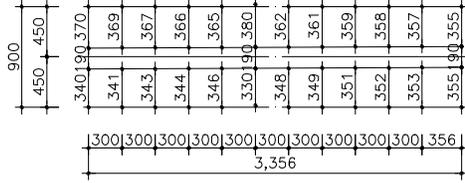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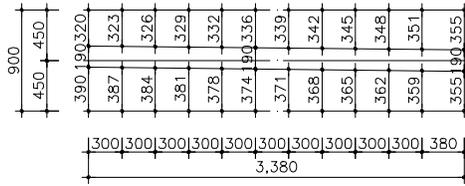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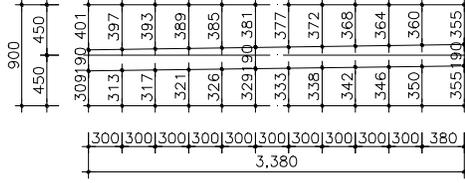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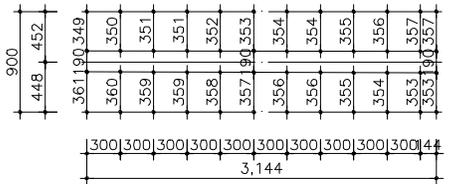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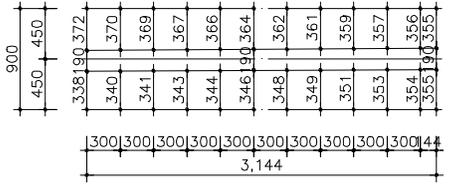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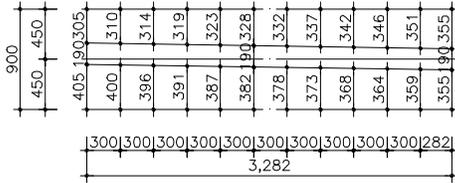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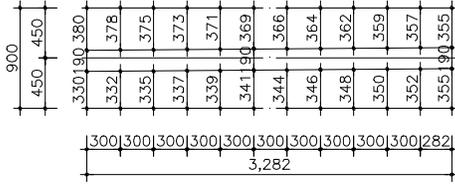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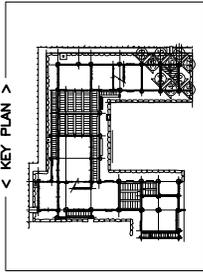
32'

31'

31'



안채 기동상세도-8



37'

34'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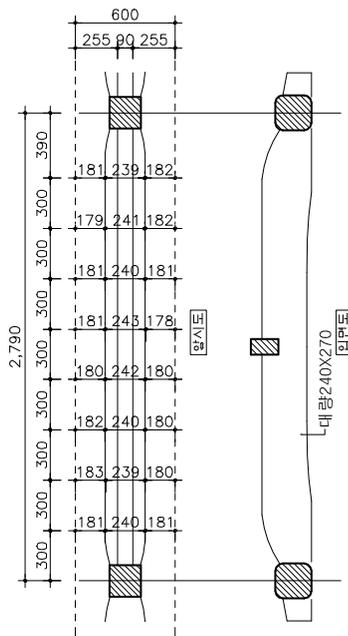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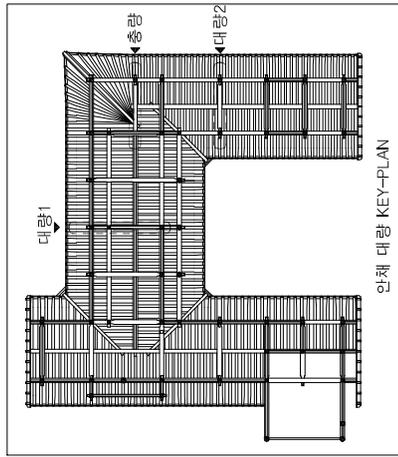
36'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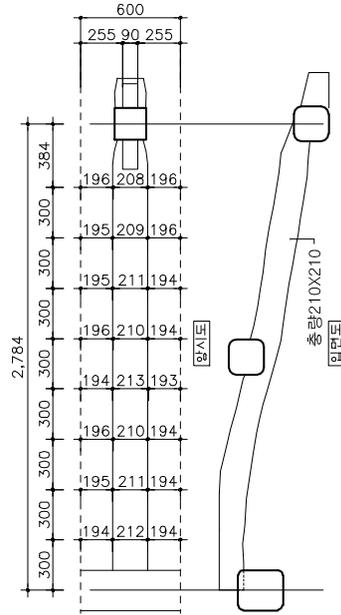
35'

안채 기동상세도-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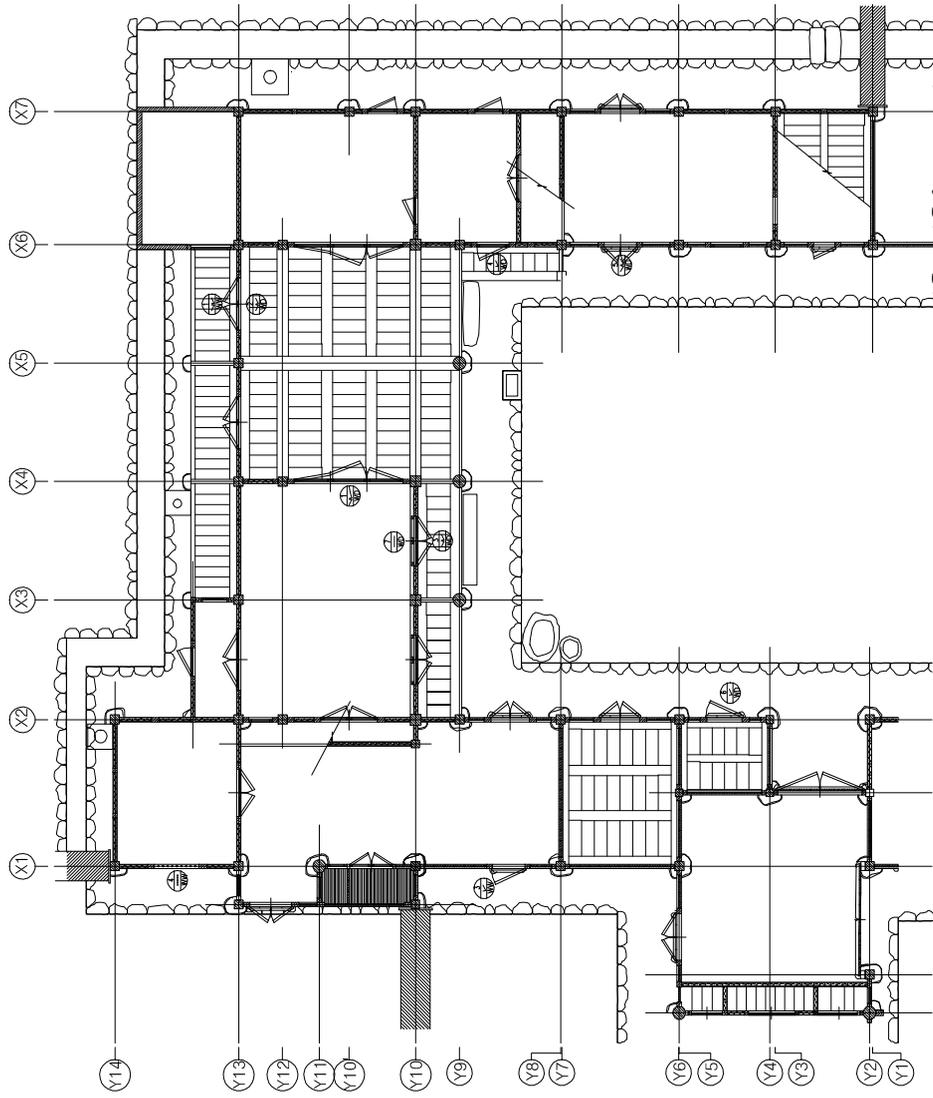
대량1



대량2

안채 대량, 총량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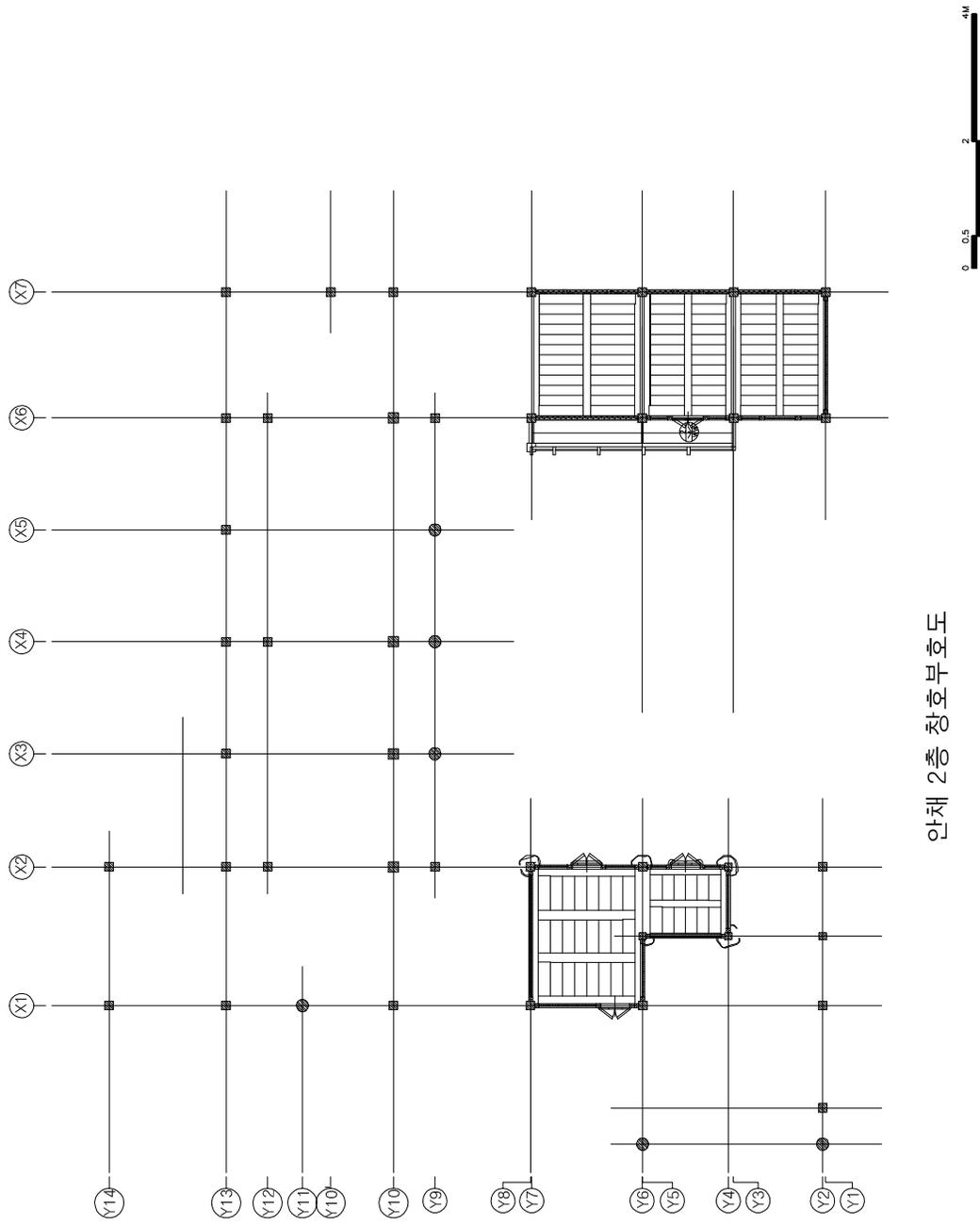


안채 1층 창호부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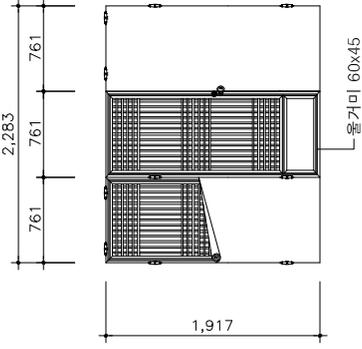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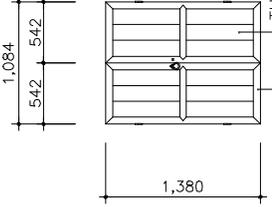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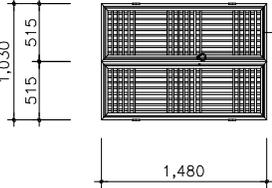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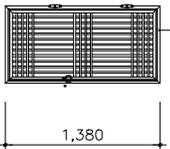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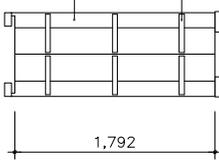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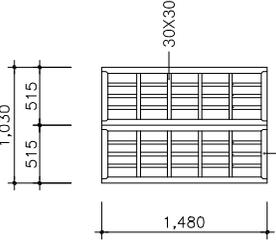
규격 및 형태				
위 치	대칭, 다락	방, 광	부엌, 다락	부엌
철 물	돌쩌귀 4조, 문고리 2조	돌쩌귀 4조, 문고리 4조	돌쩌귀 2조, 국화징 1조	-
마 감	한식창호지	한식창호지	한식창호지	-
비 고				



안채 창호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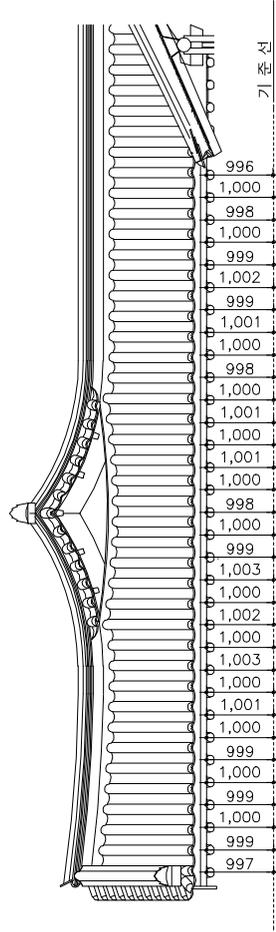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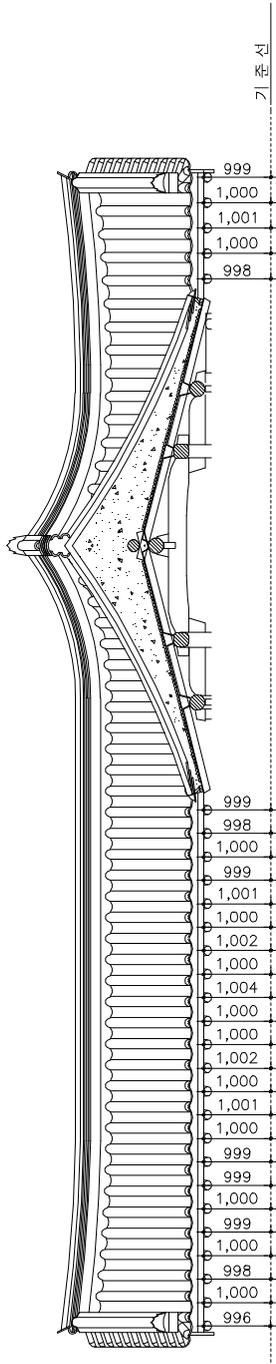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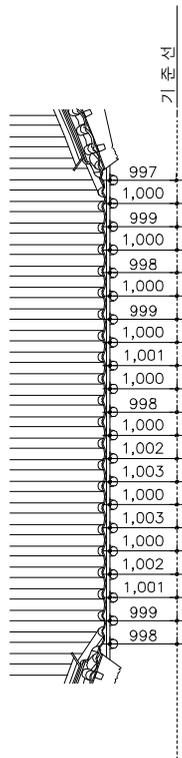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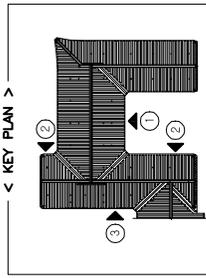


안채 2층 경호부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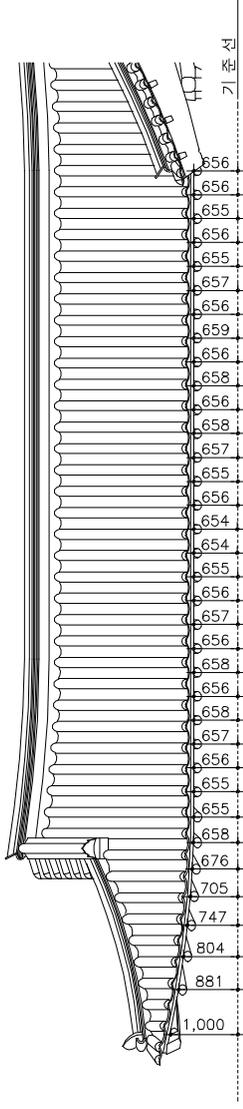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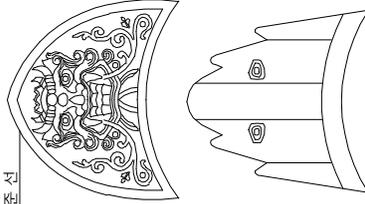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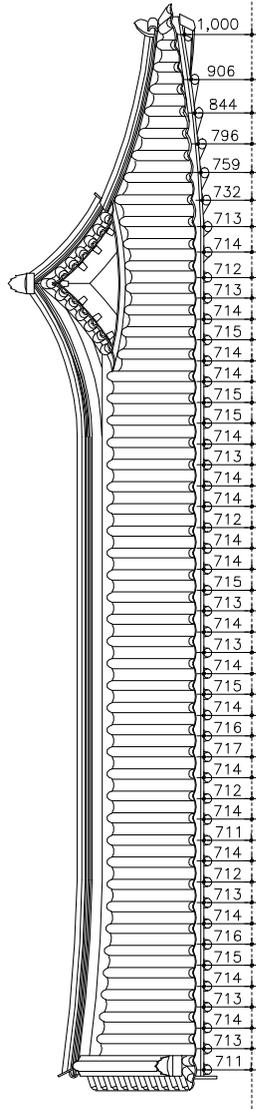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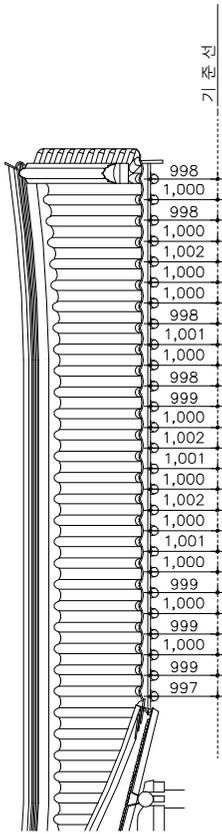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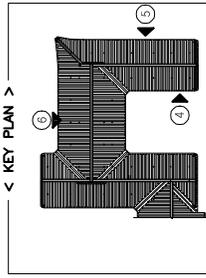
<p>단 면 형 태</p>			
<p>위 치</p>	<p>대칭</p>	<p>대칭</p>	<p>방</p>
<p>질 물</p>	<p>둘째귀 6조, 문고리 4조, 국화정 2조, 삼배막 4조</p>	<p>둘째귀 4조, 문고리 2조</p>	<p>둘째귀 4조, 문고리 4조</p>
<p>마 감</p>	<p>합식창호지</p>	<p>-</p>	<p>합식창호지</p>
<p>비 고</p>	<p>합식창호지</p>	<p>-</p>	<p>합식창호지</p>
<p>단 면 형 태</p>			
<p>위 치</p>	<p>방</p>	<p>부엌</p>	<p>방</p>
<p>질 물</p>	<p>둘째귀 2조, 문고리 4조</p>	<p>-</p>	<p>오목손잡이 4조</p>
<p>마 감</p>	<p>합식창호지</p>	<p>-</p>	<p>합식창호지</p>
<p>비 고</p>	<p>합식창호지</p>	<p>-</p>	<p>합식창호지</p>

안채 창호상세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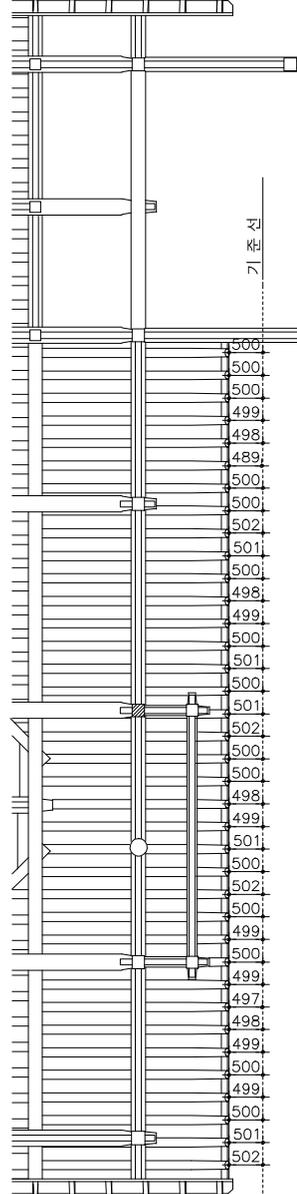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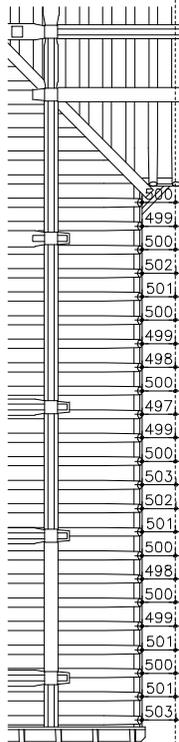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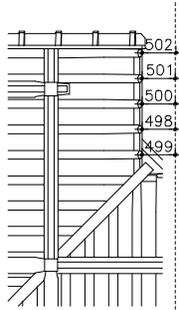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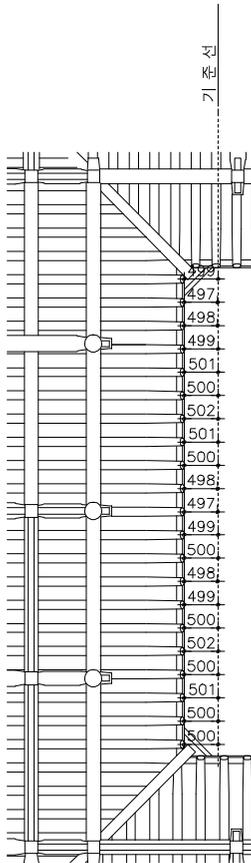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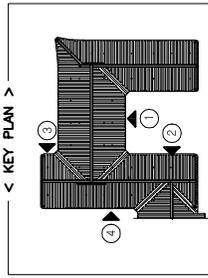


안채 양극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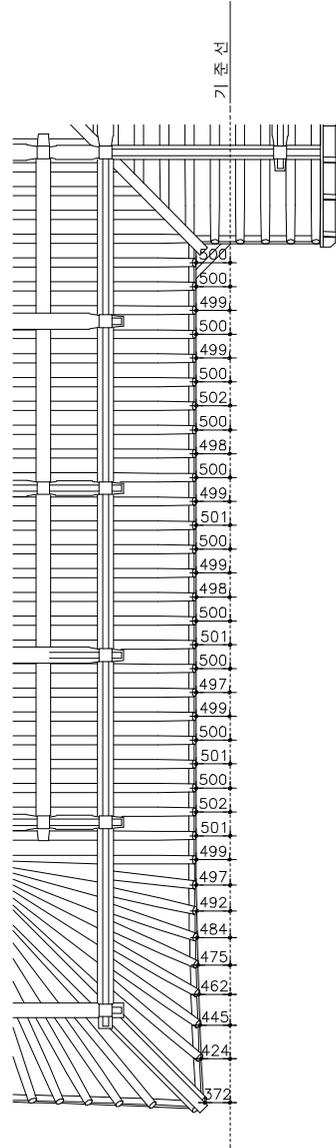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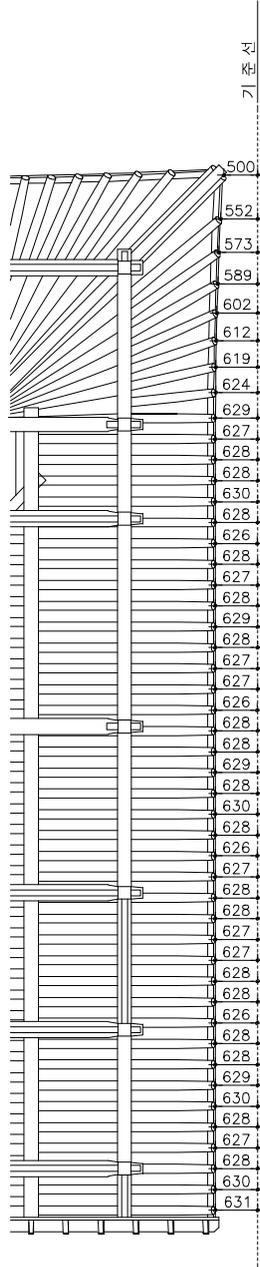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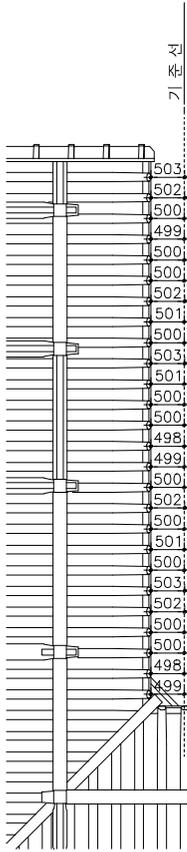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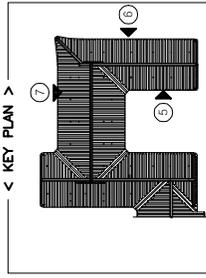


안채 망와 문양 상세도

안채 양곡 상세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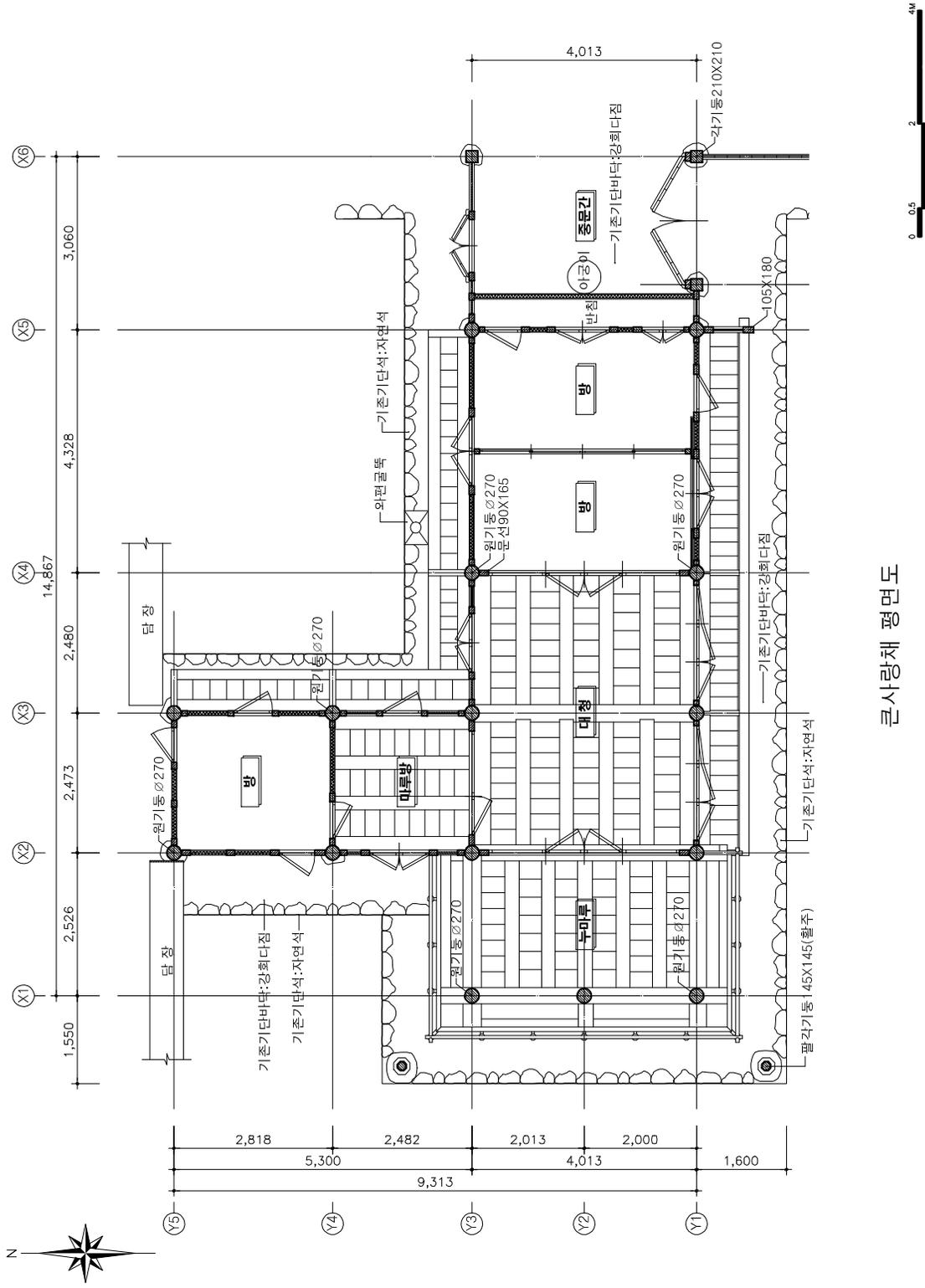


안채 안허리곡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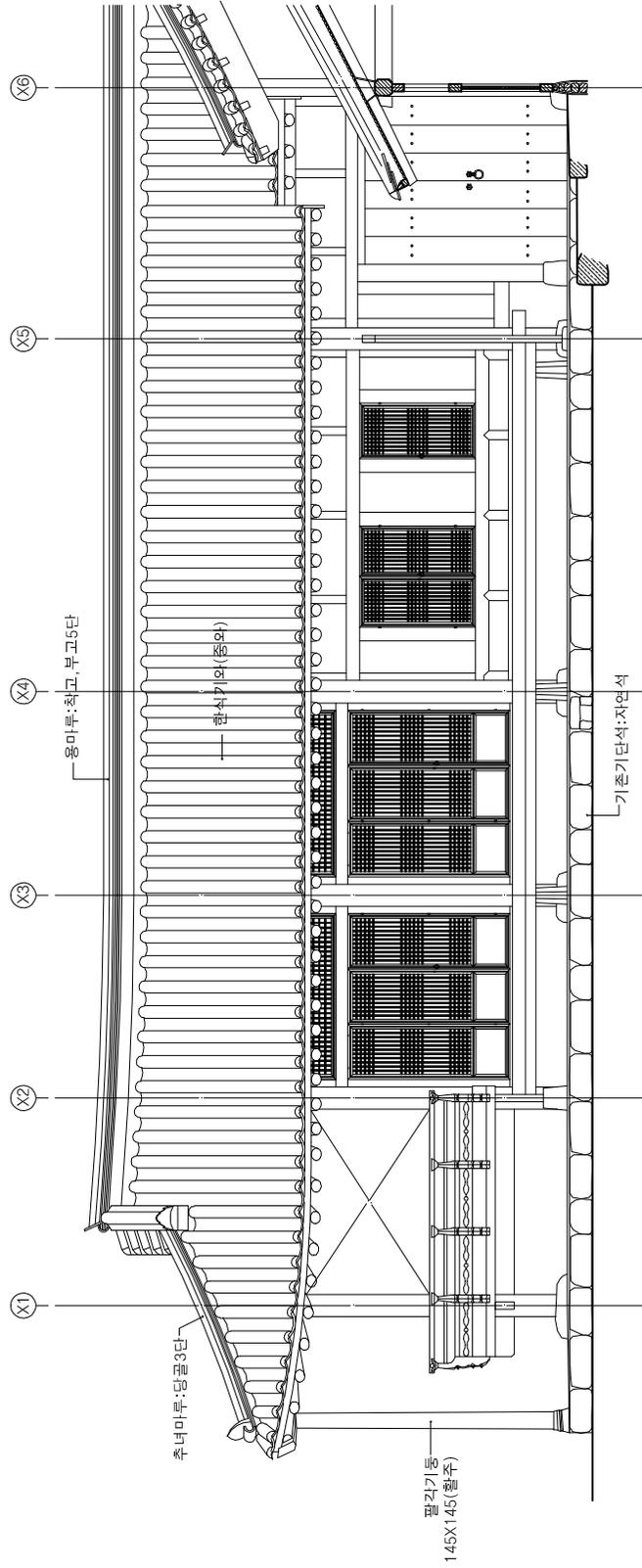


안채 안허리 곡상세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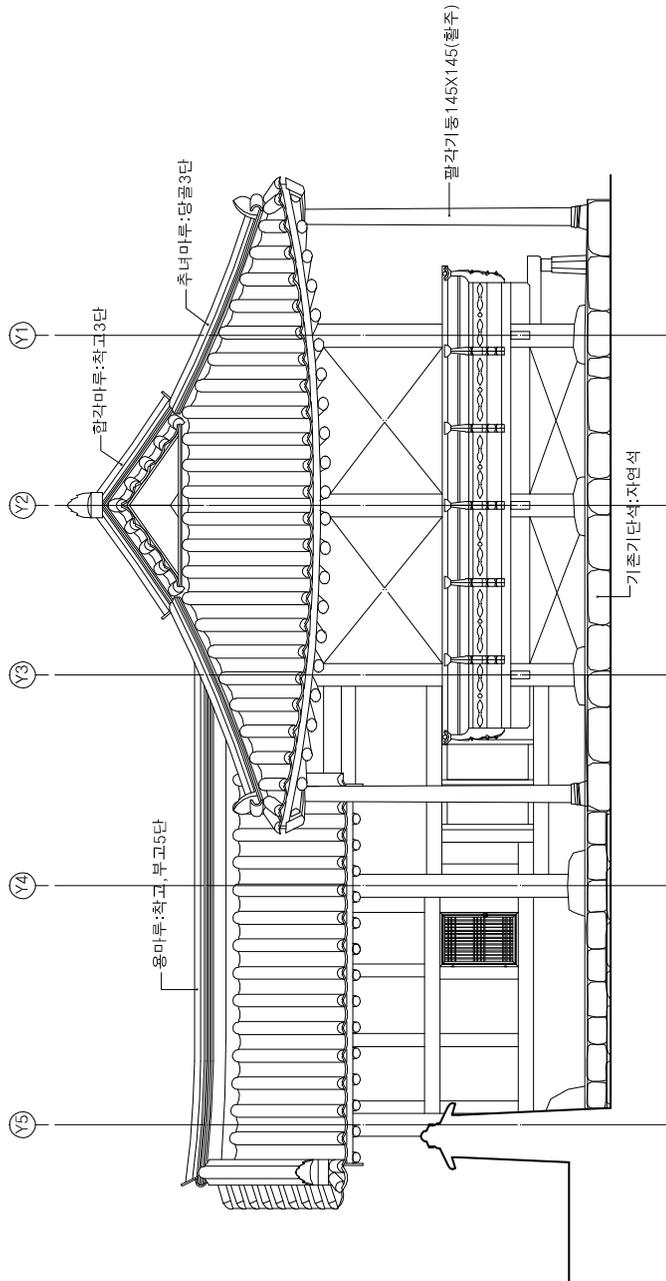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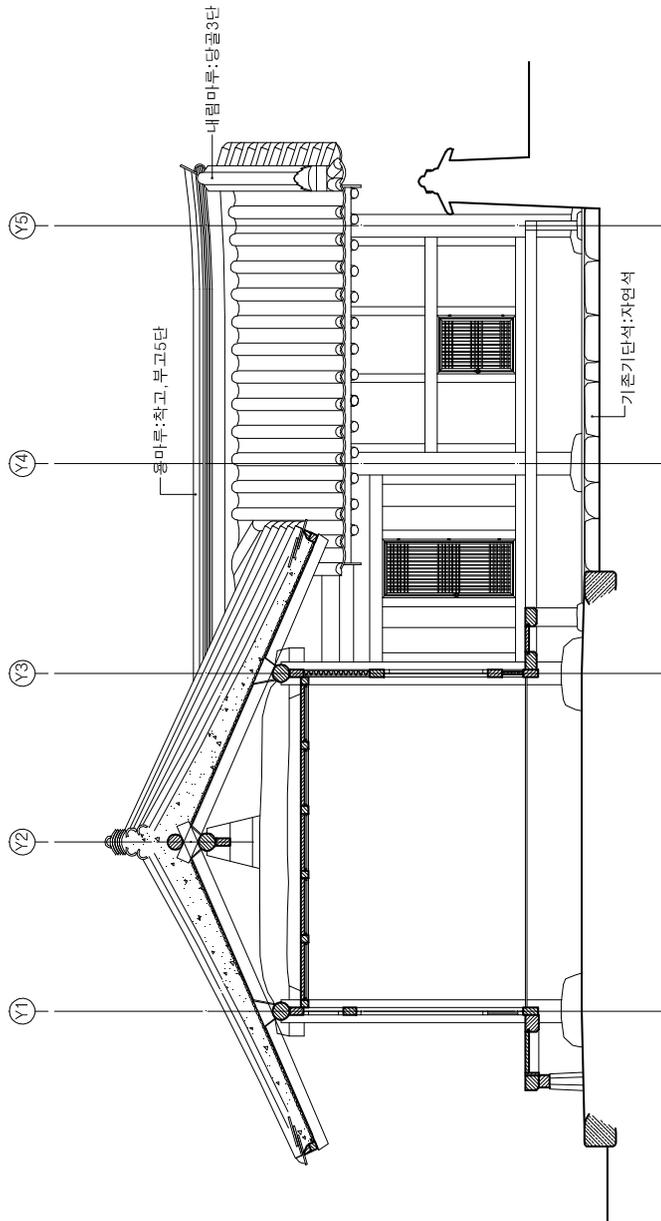
큰사랑채 평면도



큰사랑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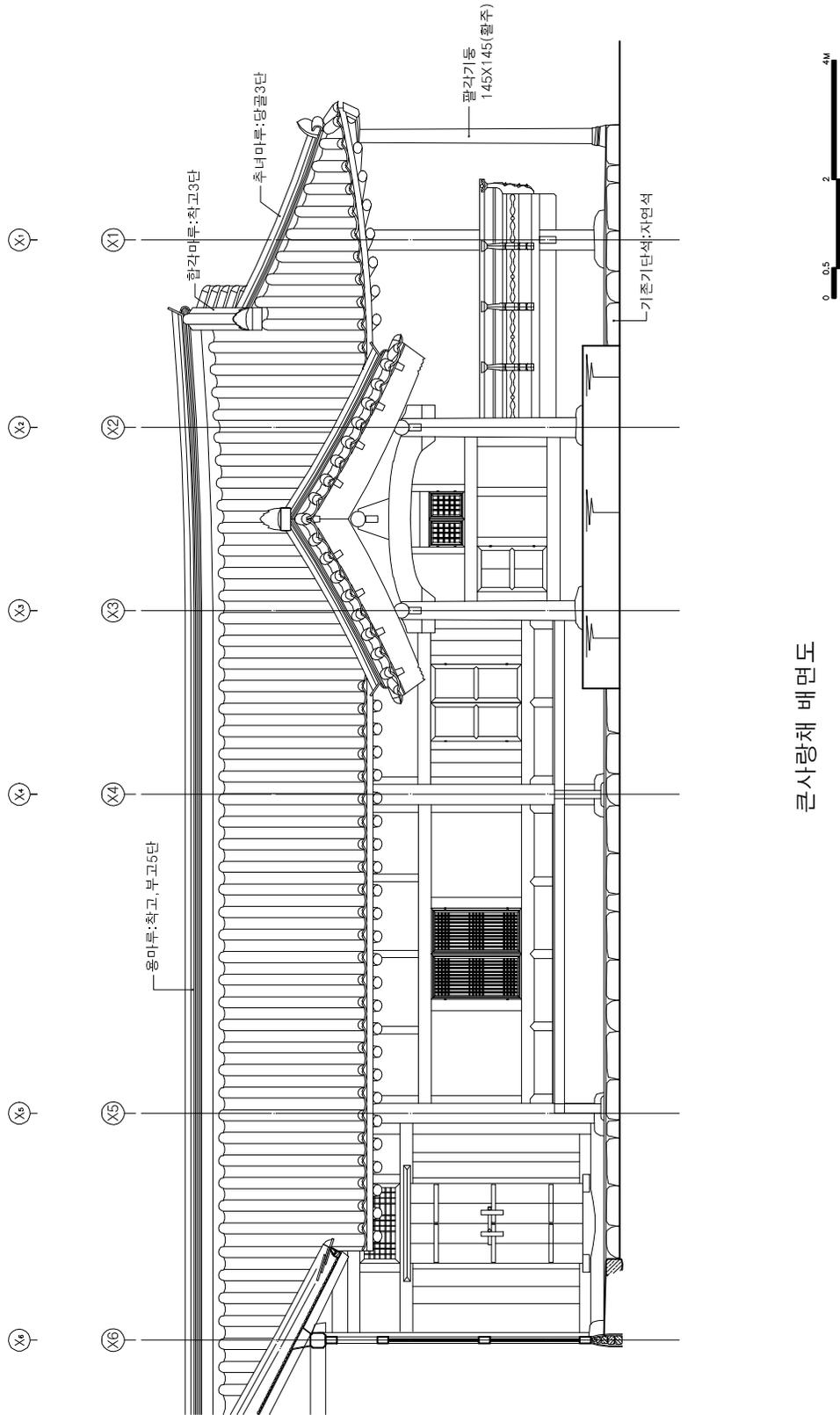


큰사랑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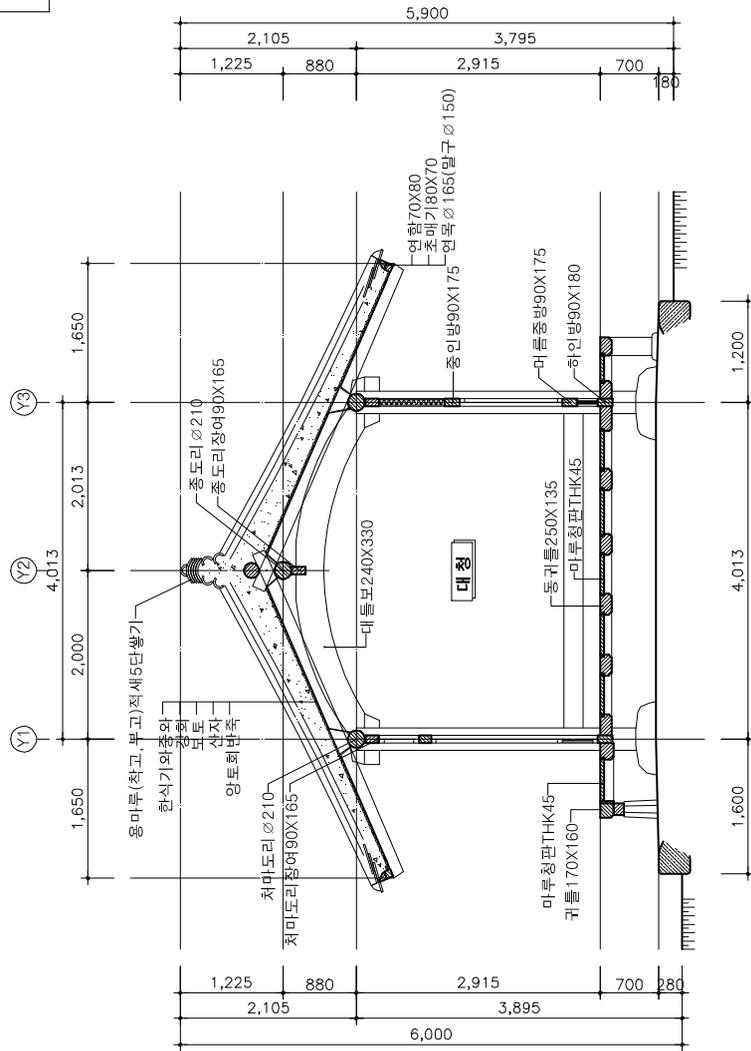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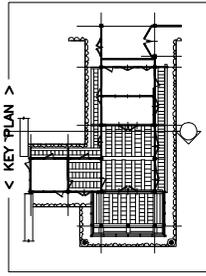


큰사랑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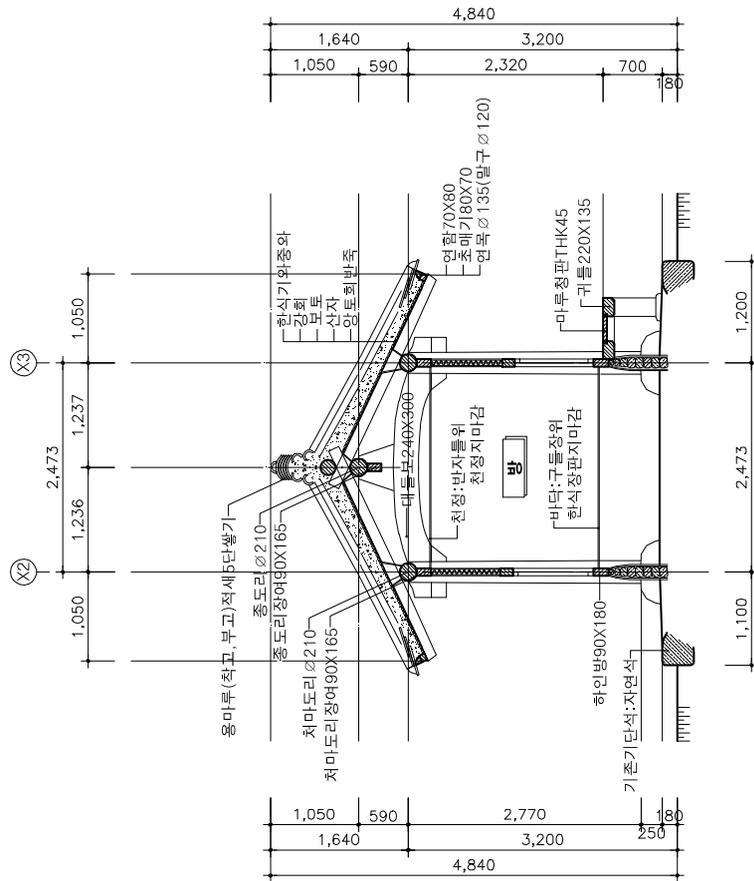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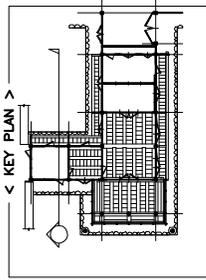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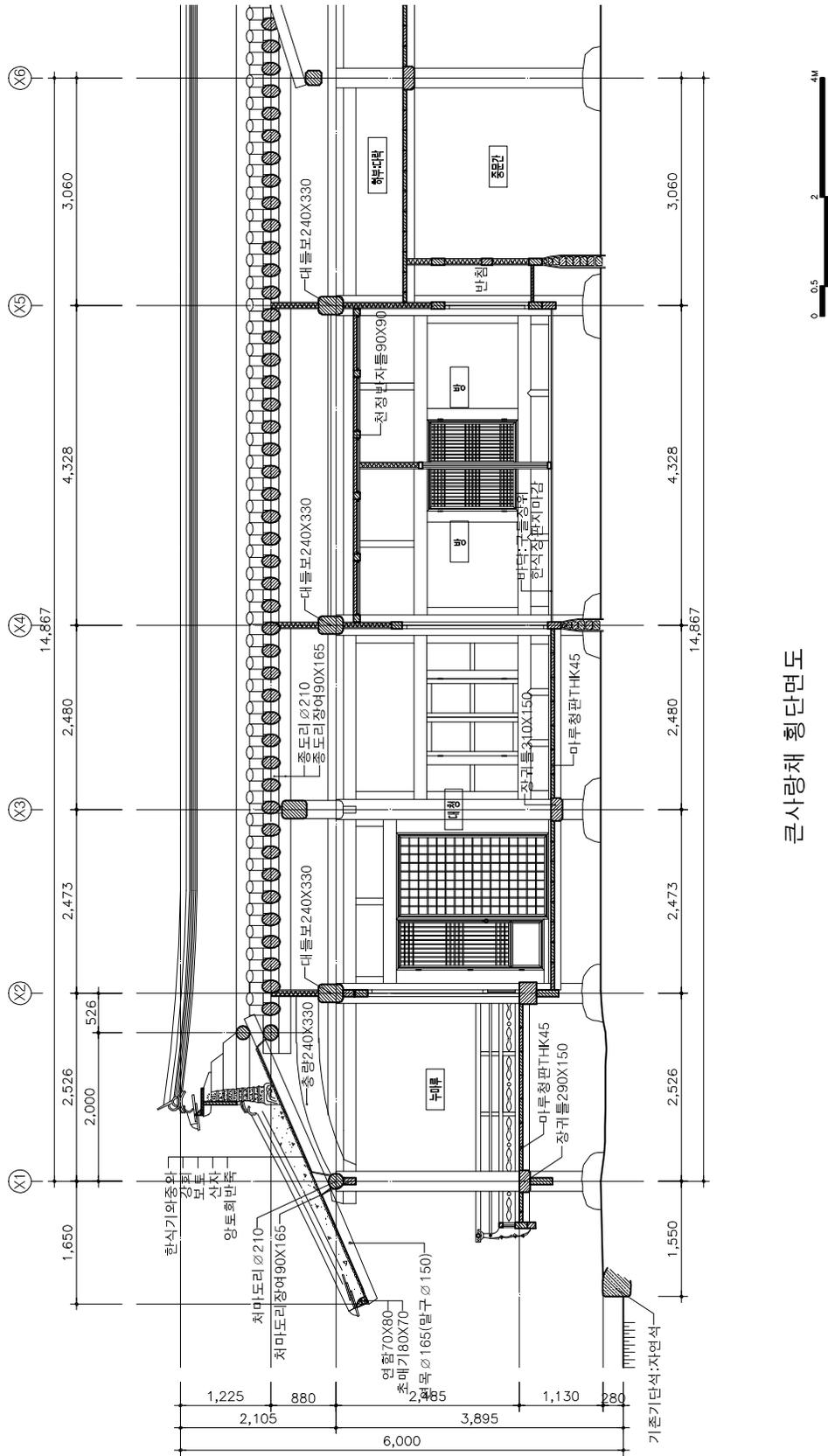
큰사랑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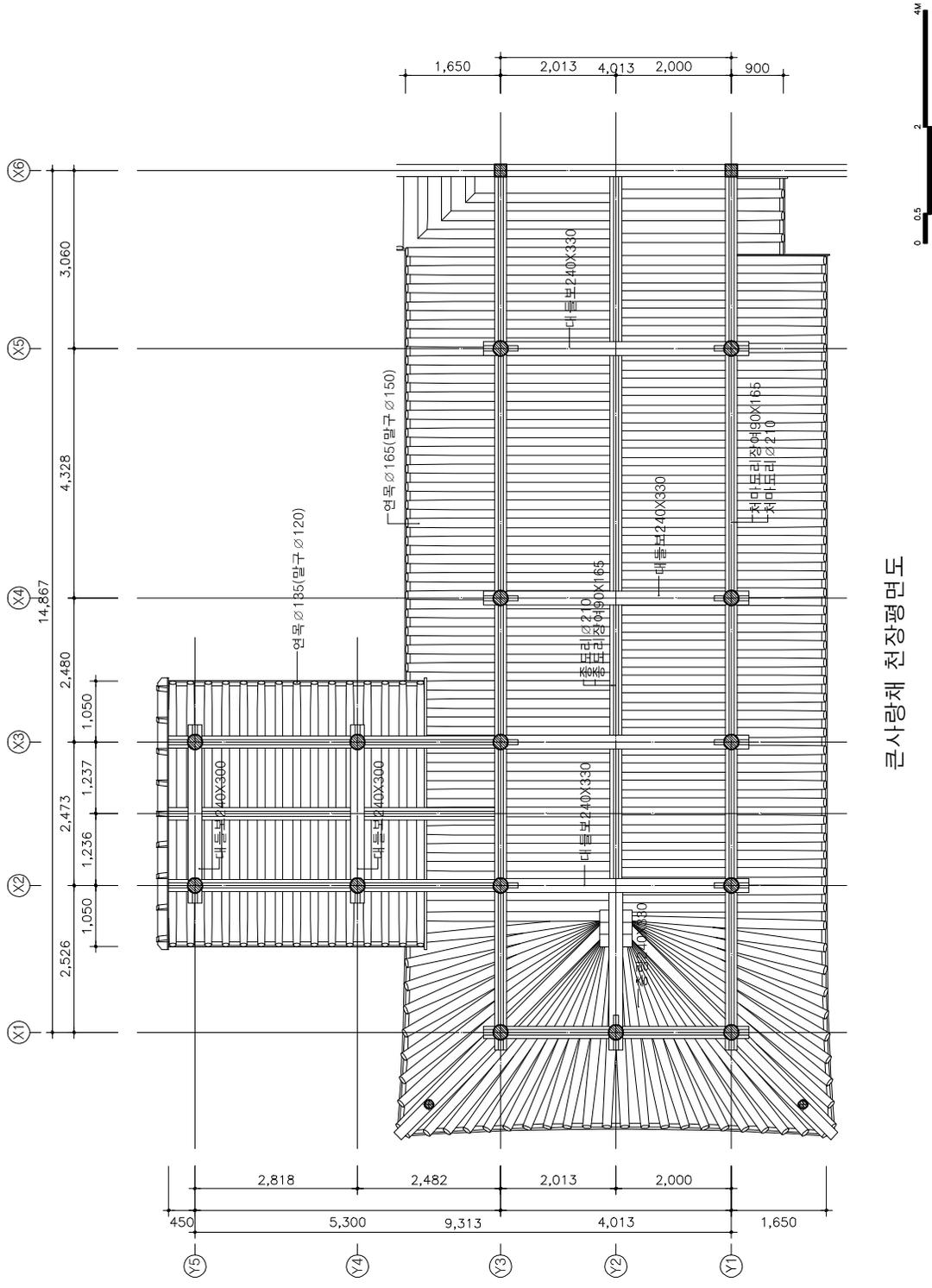
큰사랑채 종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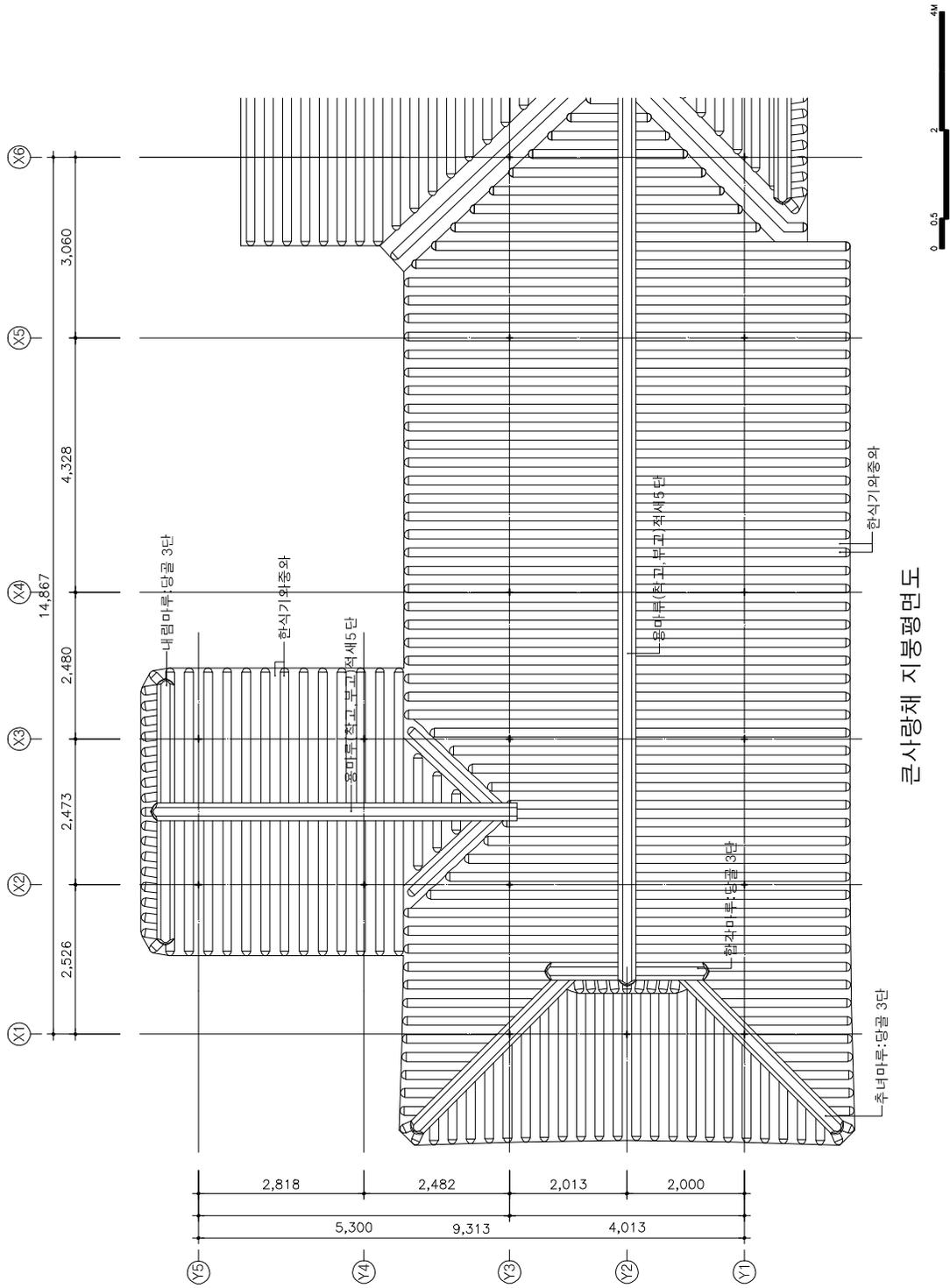
큰사랑채 종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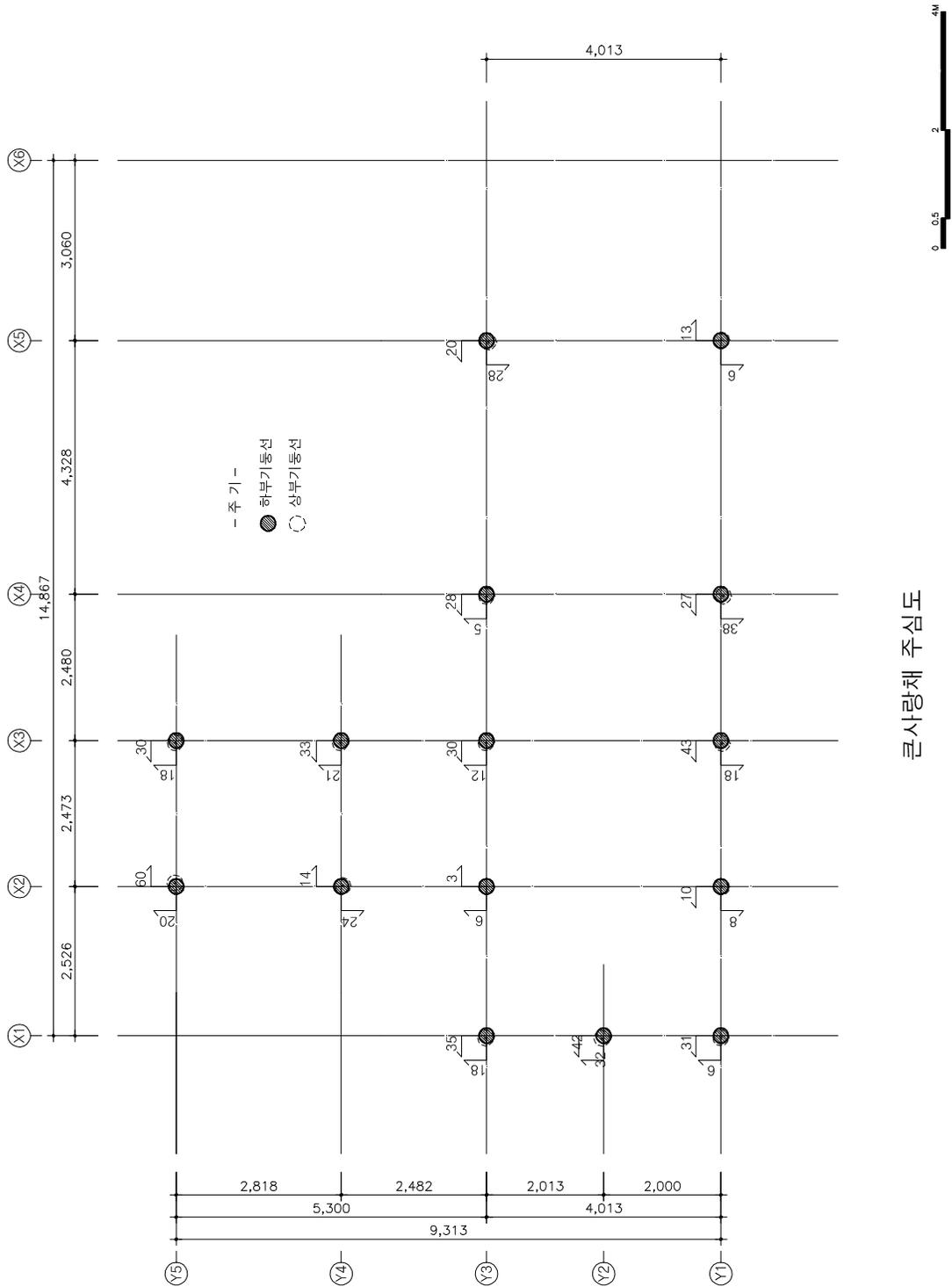
큰사랑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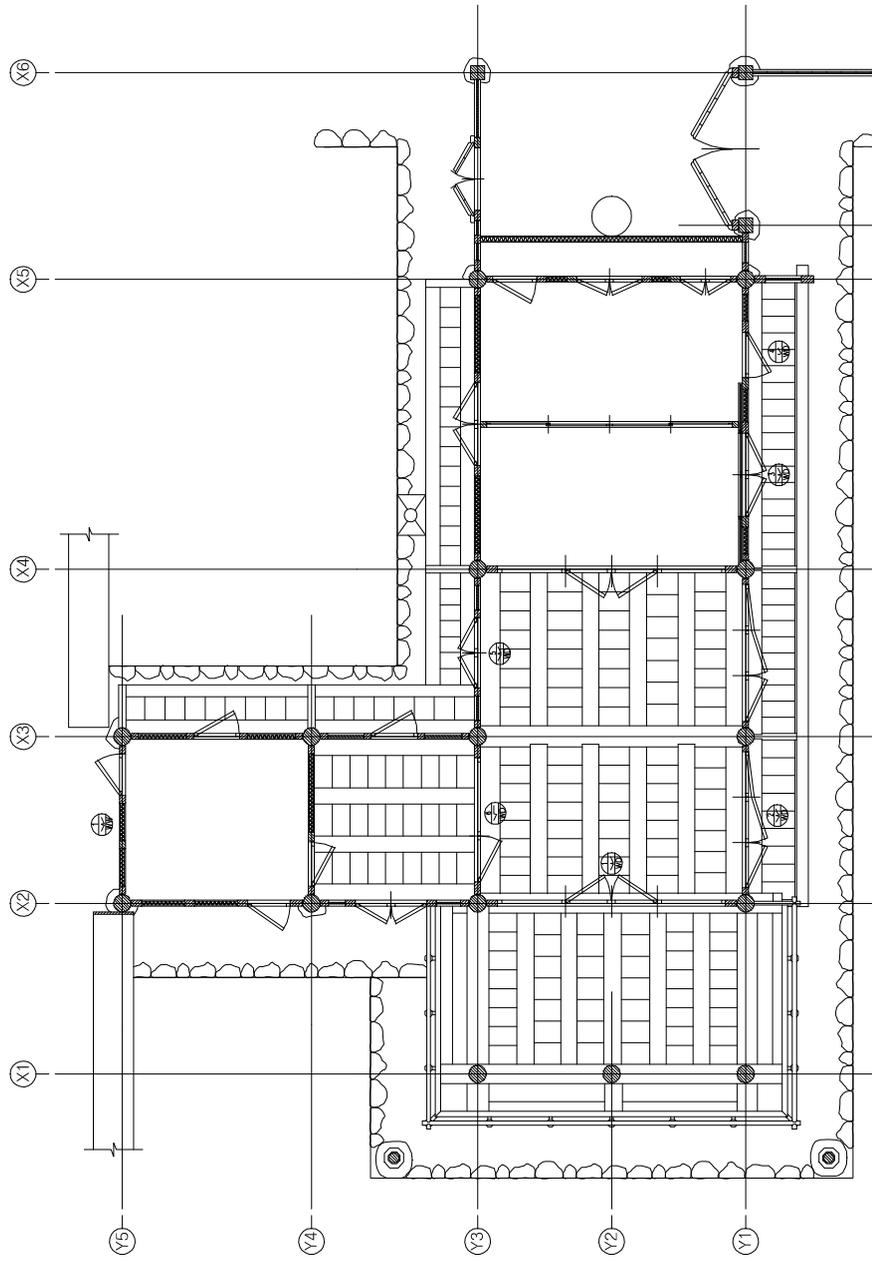
큰시랑채 천장평면도



큰사랑채 지붕평면도



큰사량채 중심도



큰사랑채 창호부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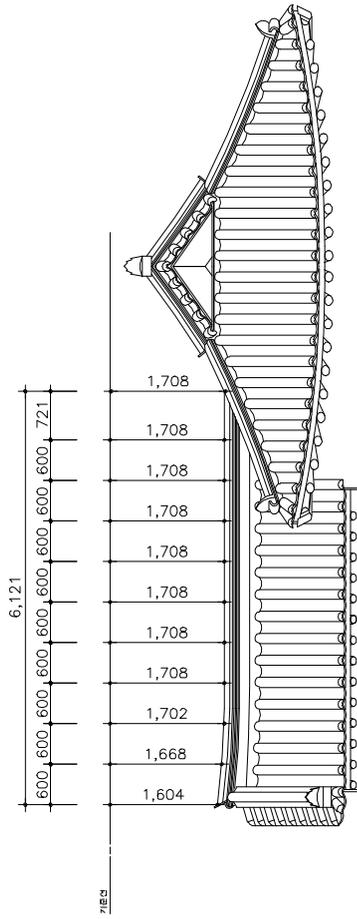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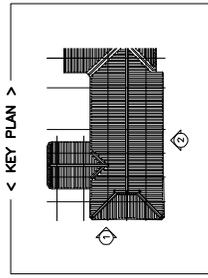
구 격 상 태			
구 격 상 태			
위 치	대칭	대칭	방
철 물 마 감	돌쩌귀 4조, 문고리 2조 한식창호지	돌쩌귀 6조, 문고리 2조, 삼배목 2조 한식창호지	돌쩌귀 4조, 문고리 2조 한식창호지
비 고	한식창호지	한식창호지	한식창호지
구 격 상 태			
위 치	방	대칭	대칭
철 물 마 감	돌쩌귀 2조, 문고리 2조 한식창호지	돌쩌귀 4조, 문고리 2조 한식창호지	돌쩌귀 3조, 문고리 2조 한식창호지
비 고	한식창호지	한식창호지	한식창호지

큰사랑채 창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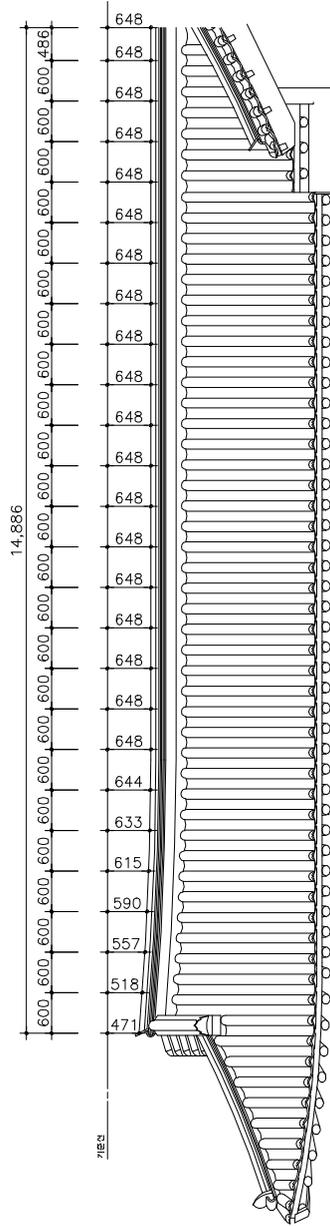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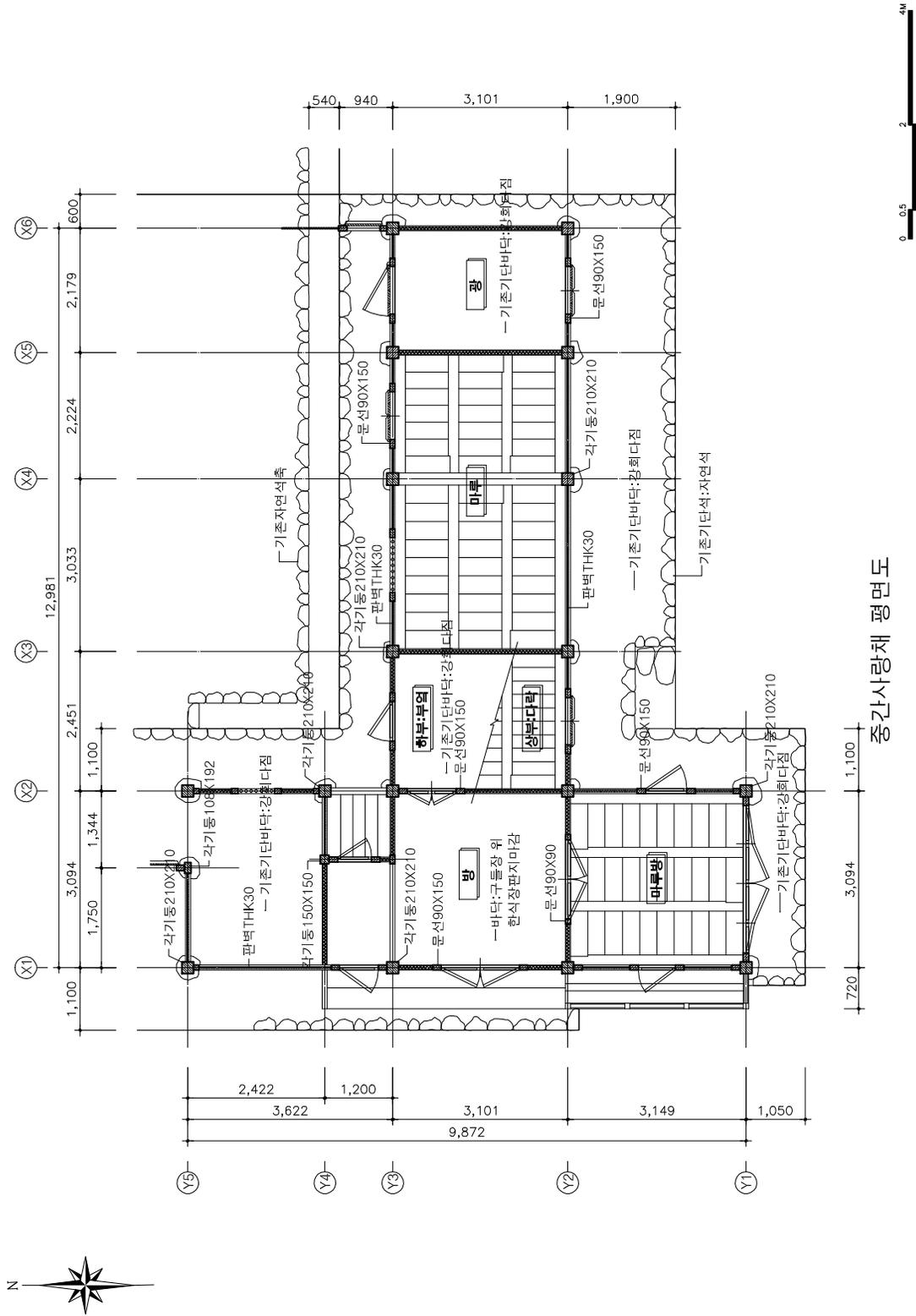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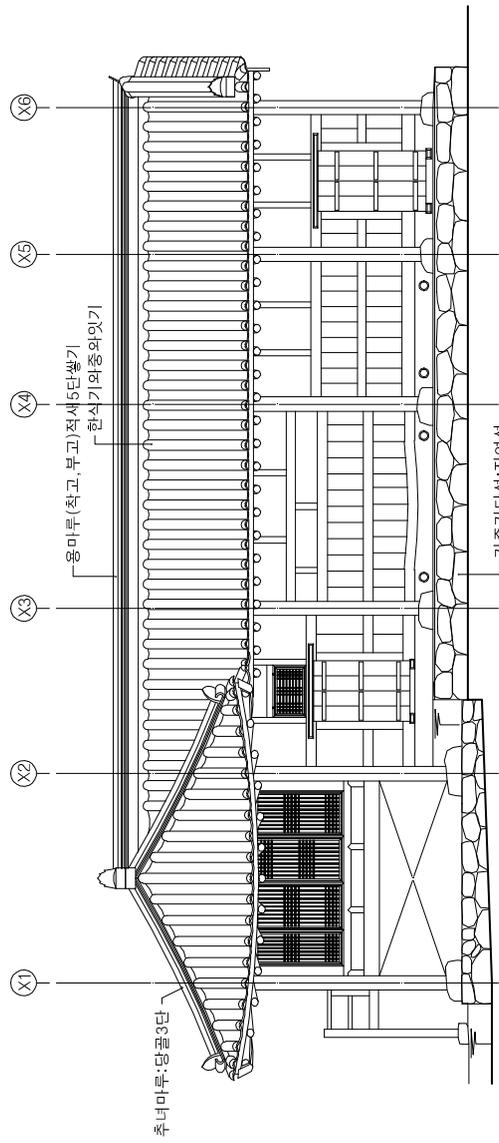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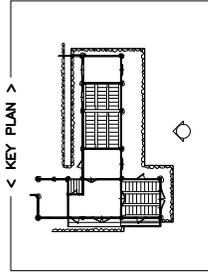
우측면

큰사랑채 용마루곡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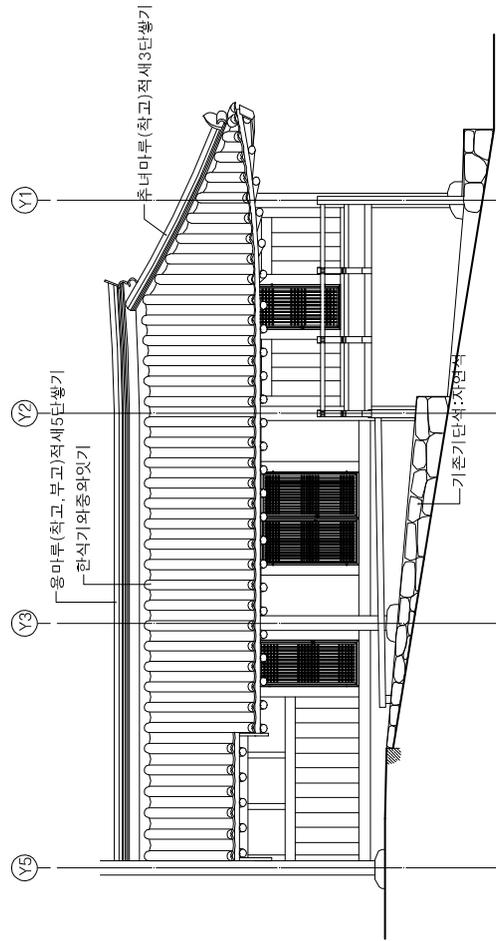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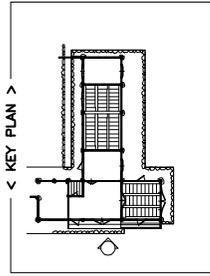


중간사랑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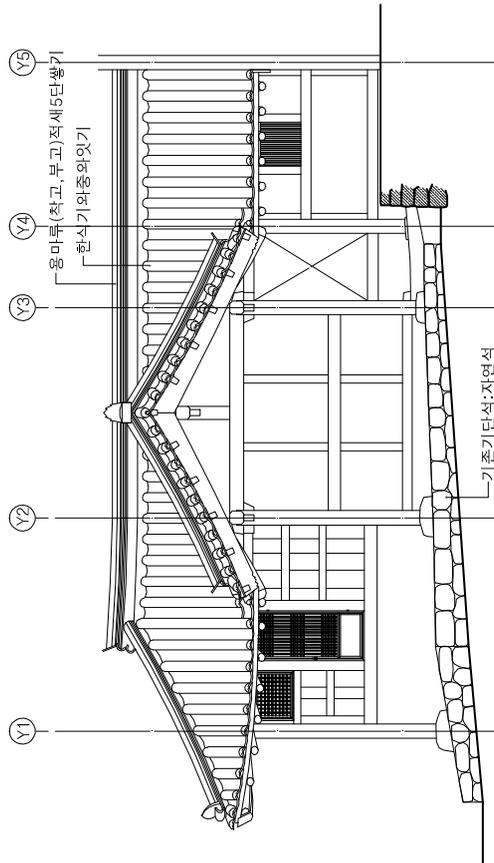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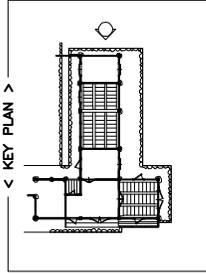


중간사랑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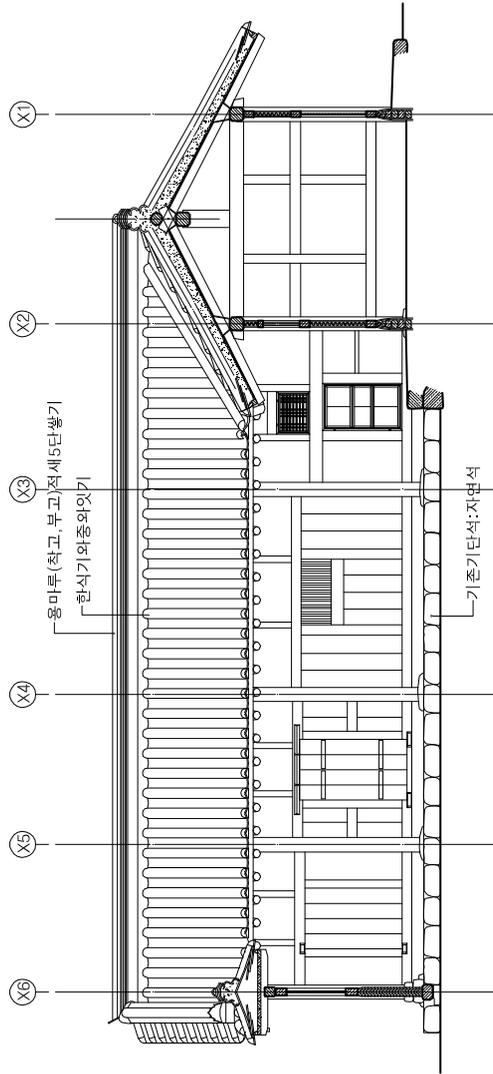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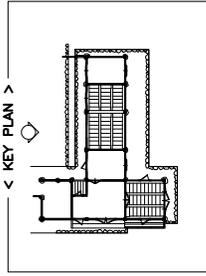


중간사랑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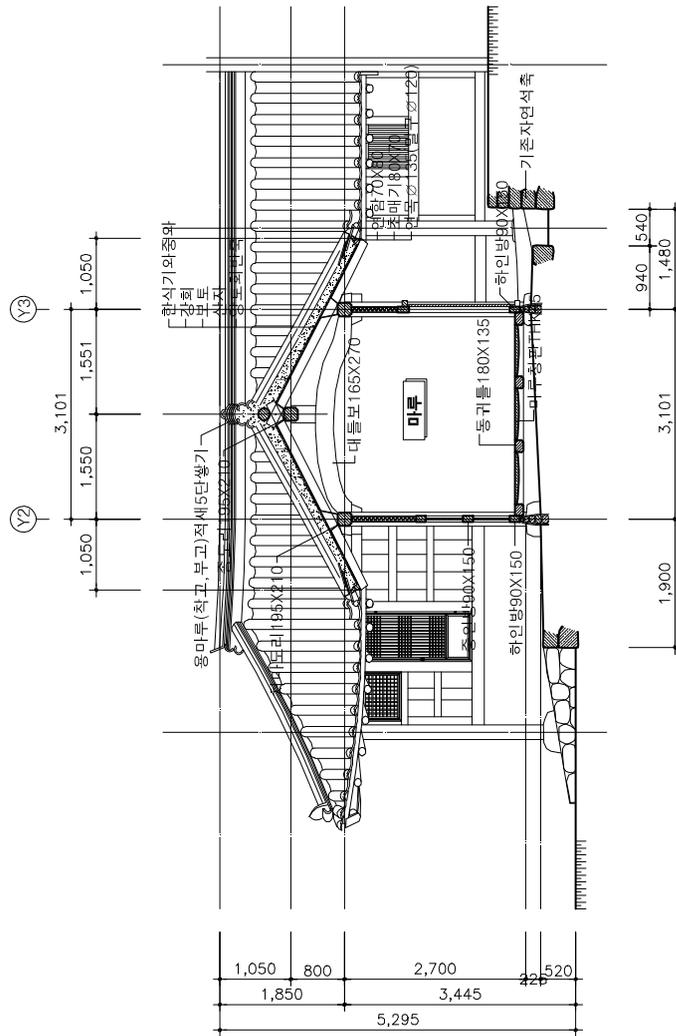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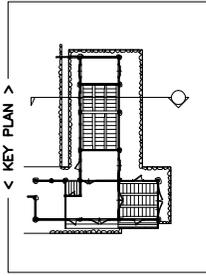


중간사랑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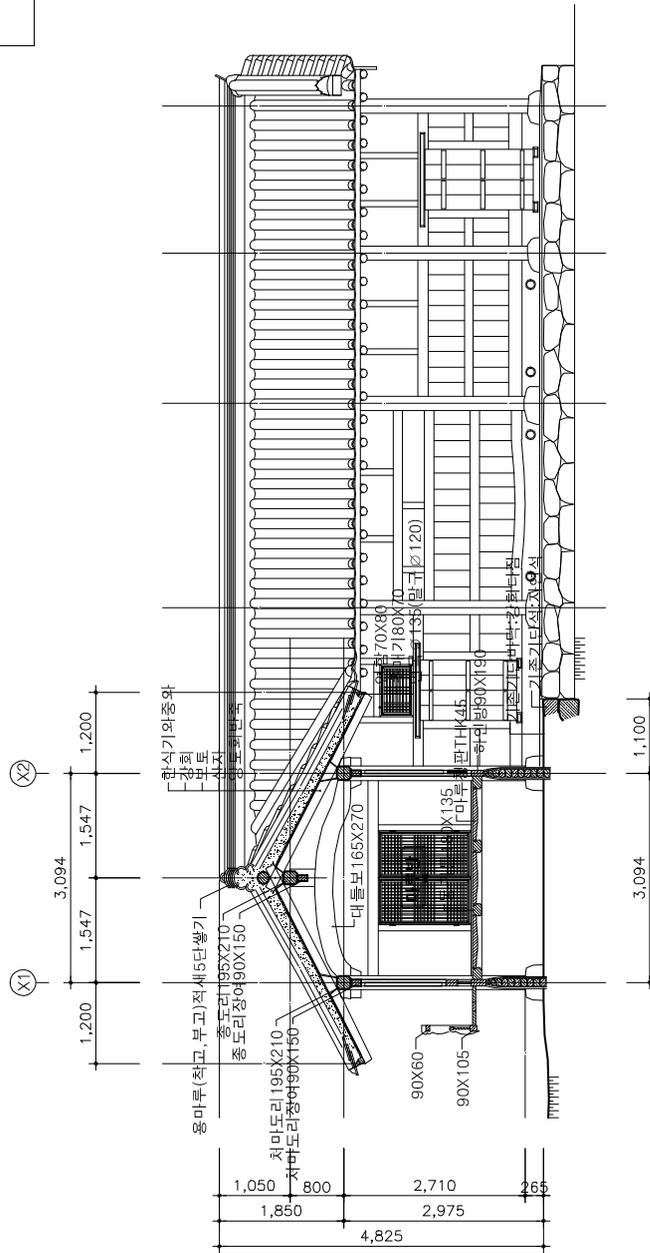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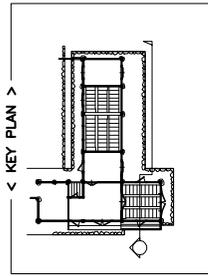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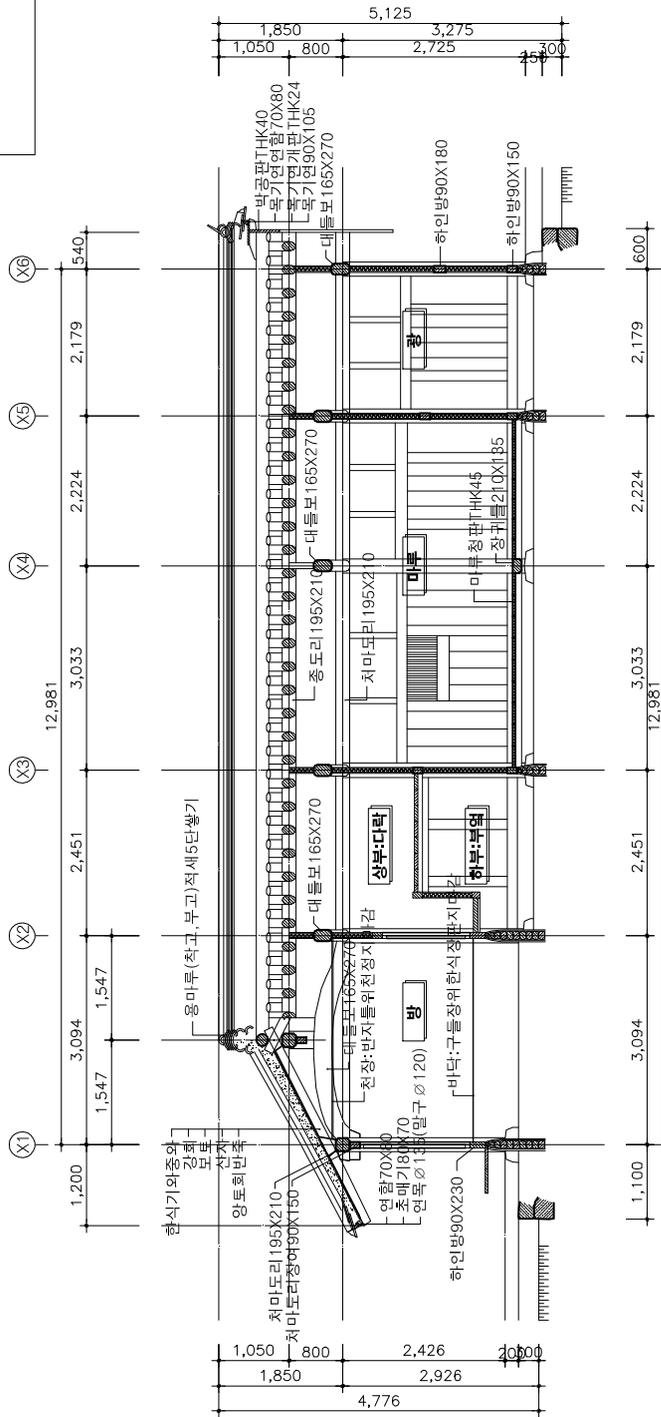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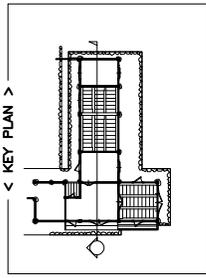
중간사랑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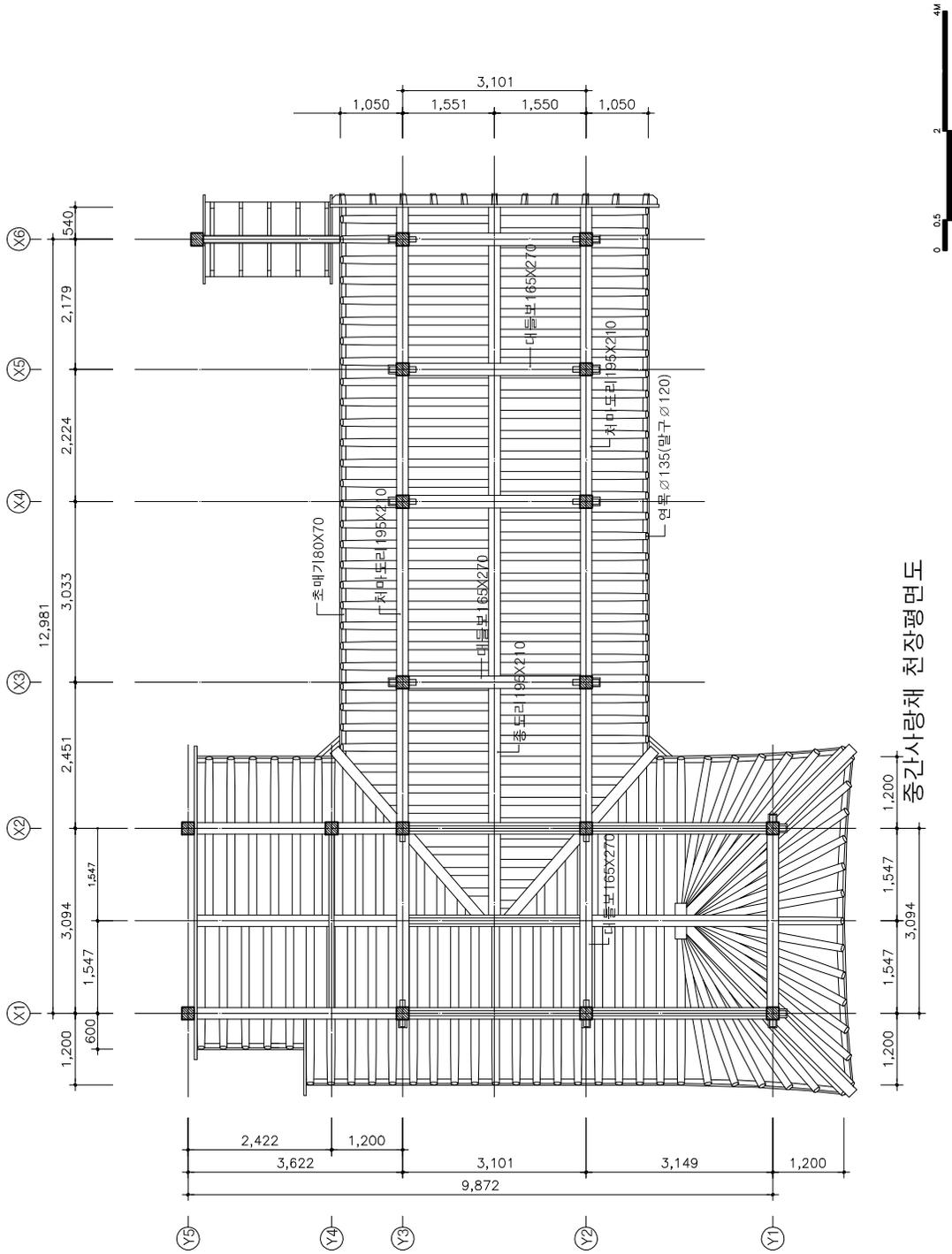
중간사랑채 중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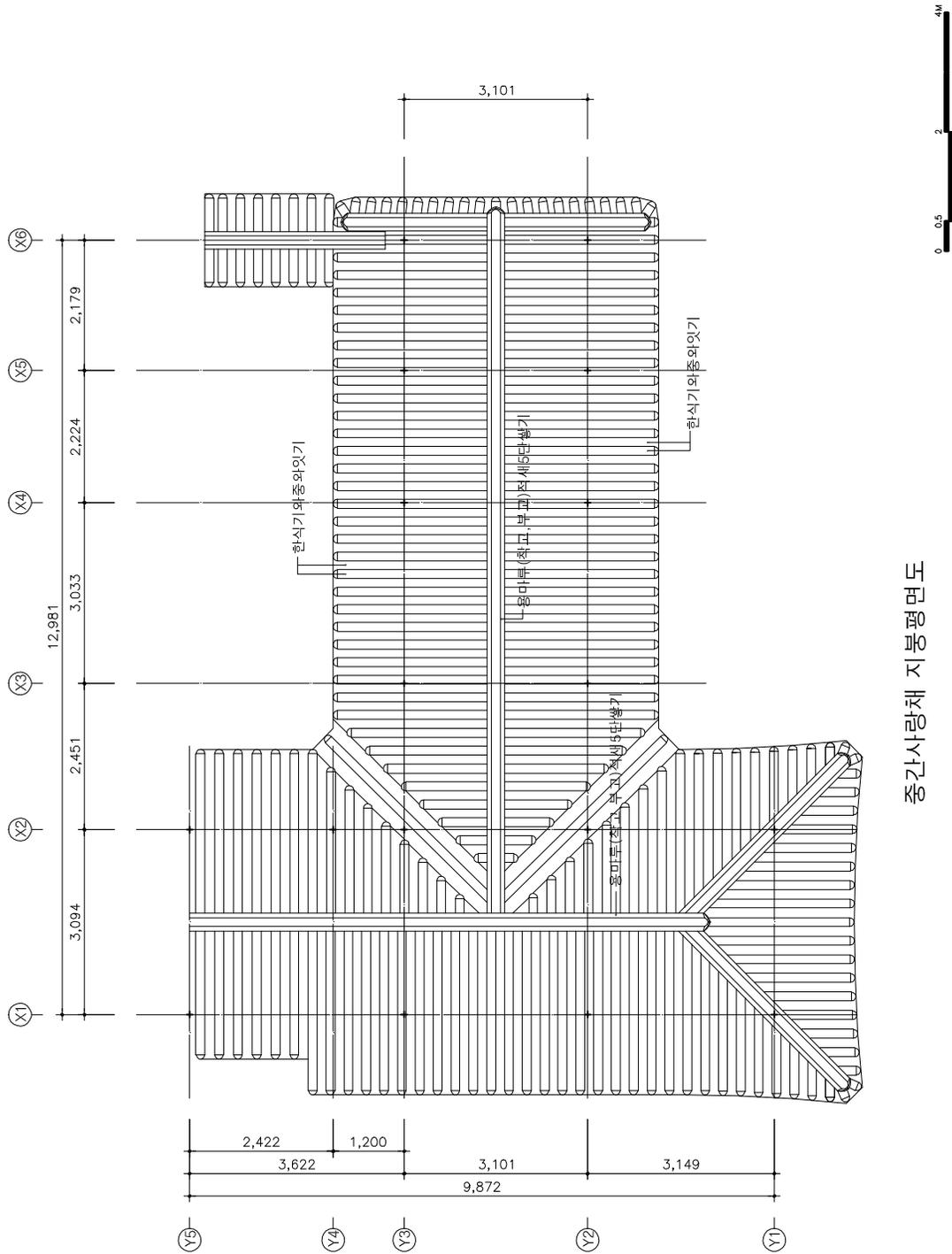


중간사랑채 종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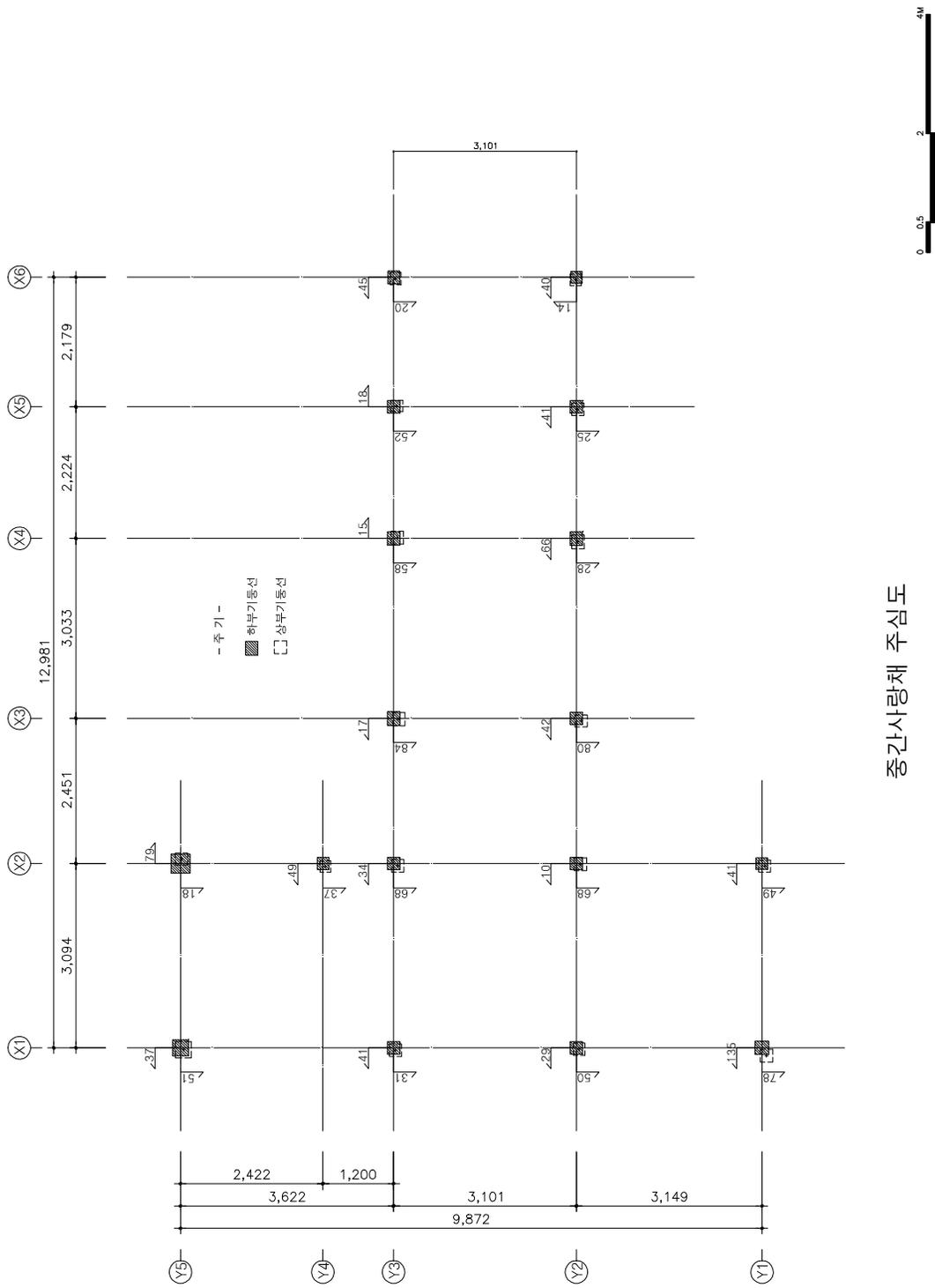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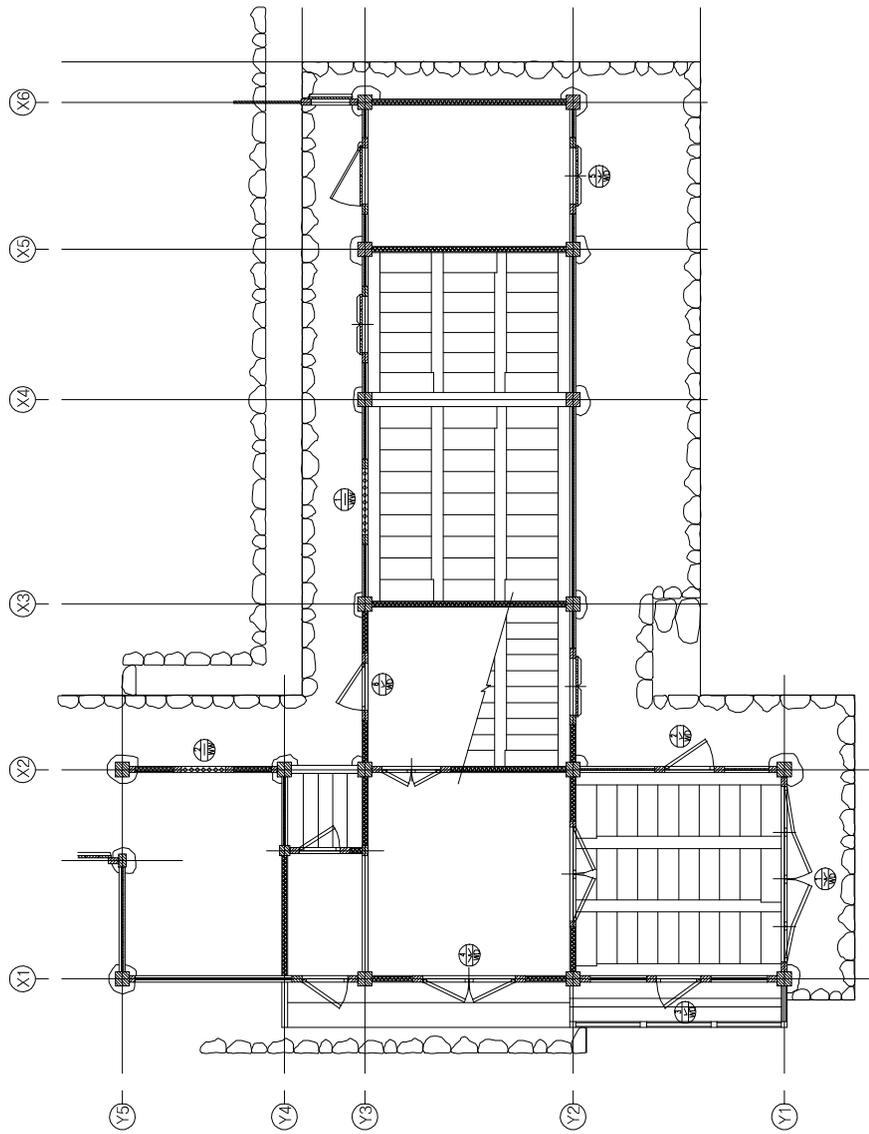
중간사랑채 횡단면도





중간사랑채 지붕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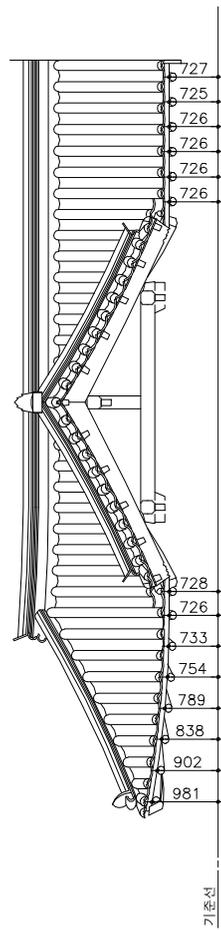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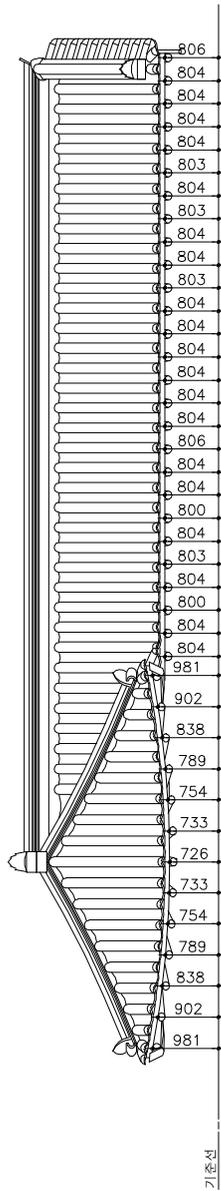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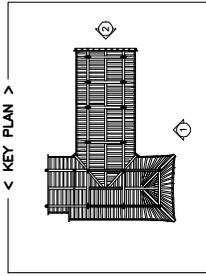


중간사랑채 창호부호도

<p>규격 및 형태</p>					
<p>위치</p>	<p>마루방</p>				
<p>철물</p>	<p>문짝귀 4조, 문고리 2조</p>				
<p>마감</p>	<p>한식창호지</p>				
<p>비고</p>	<p>방</p>				
<p>위치</p>	<p>마루방</p>				
<p>철물</p>	<p>문짝귀 2조, 문고리 2조</p>				
<p>마감</p>	<p>한식창호지</p>				
<p>비고</p>	<p>방</p>				
<p>규격 및 형태</p>					
<p>위치</p>	<p>광</p>				
<p>철물</p>	<p>문짝날 THK30, 문고리 2조</p>				
<p>마감</p>	<p>창살 60X55</p>				
<p>비고</p>	<p>마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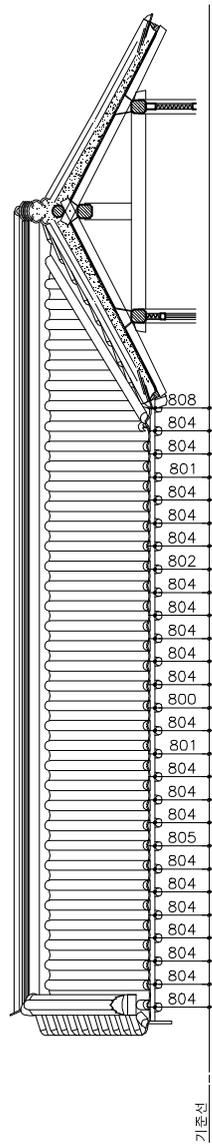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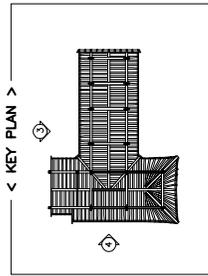
중간사림채 창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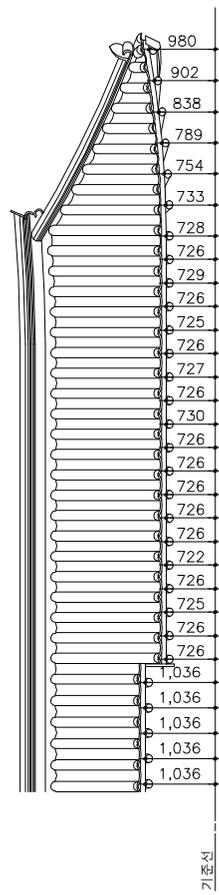


중간사랑채 안곡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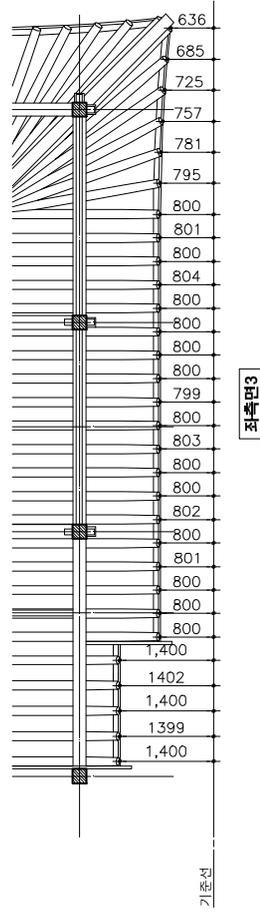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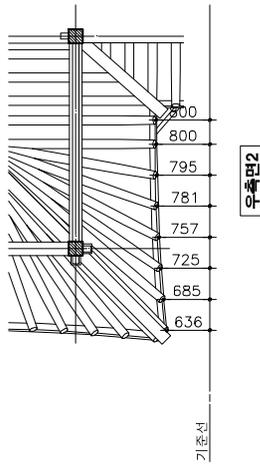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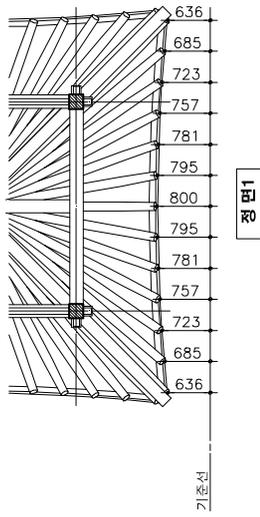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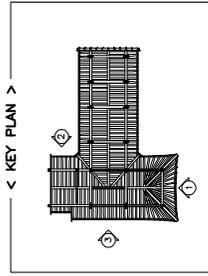
배면3



좌측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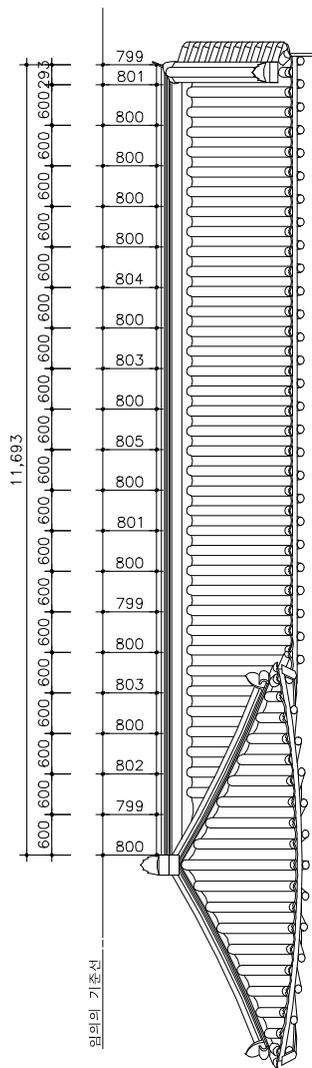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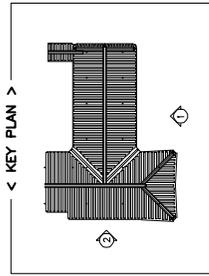


중간사람채 양곡상세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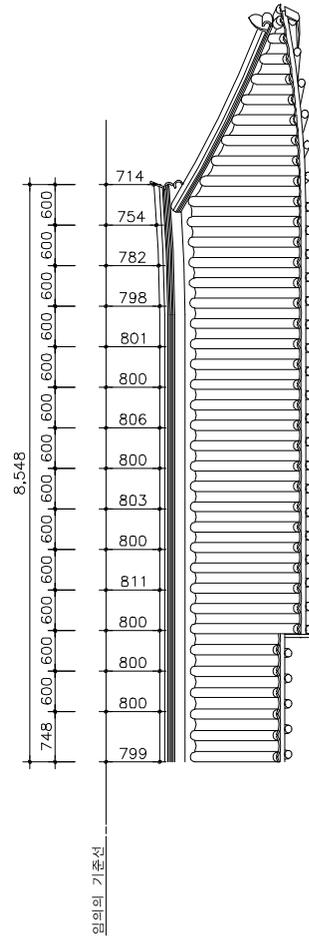


중간사랑채 안허리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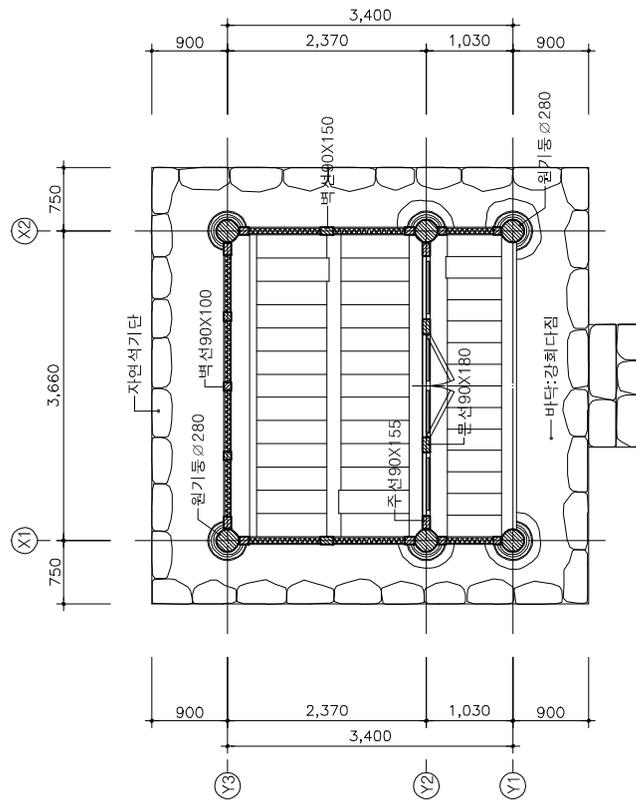
정면1



좌측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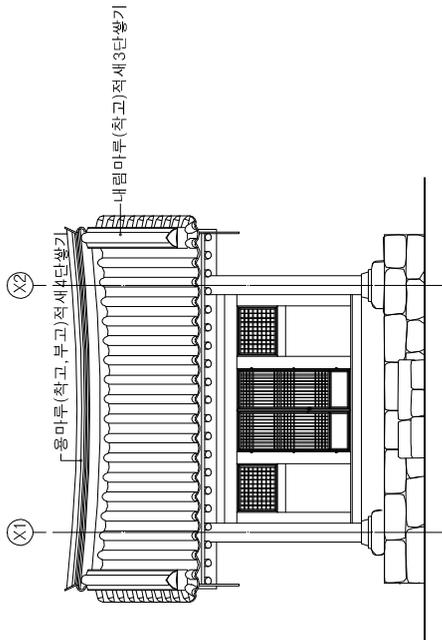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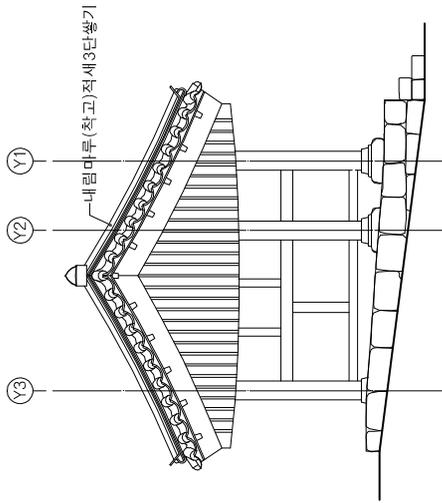


중간사랑채 용마루곡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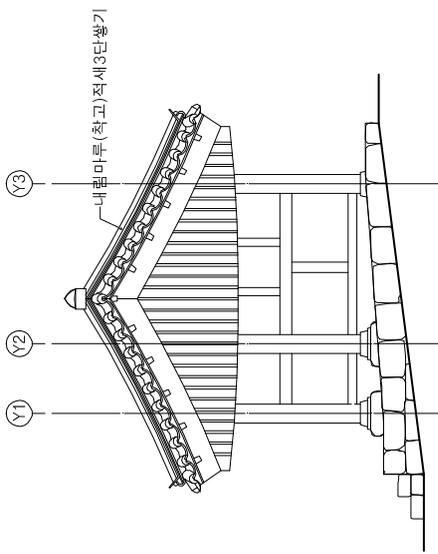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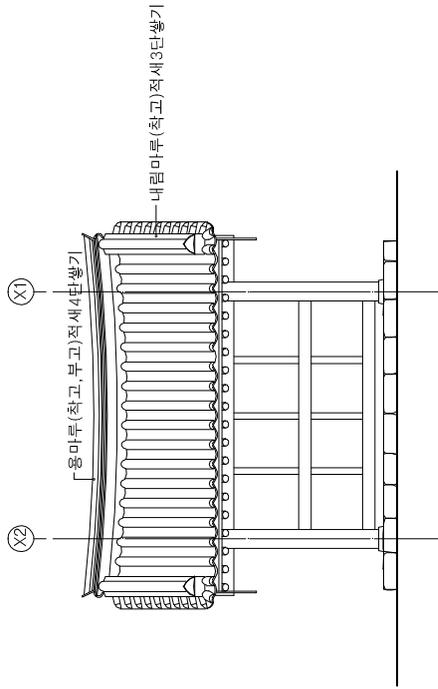
사당 평면도





사당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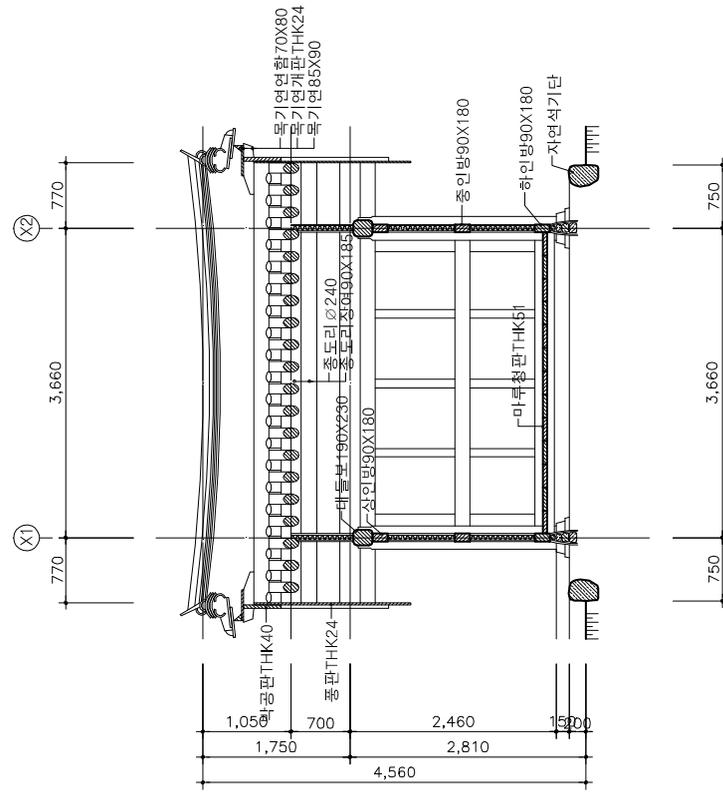
사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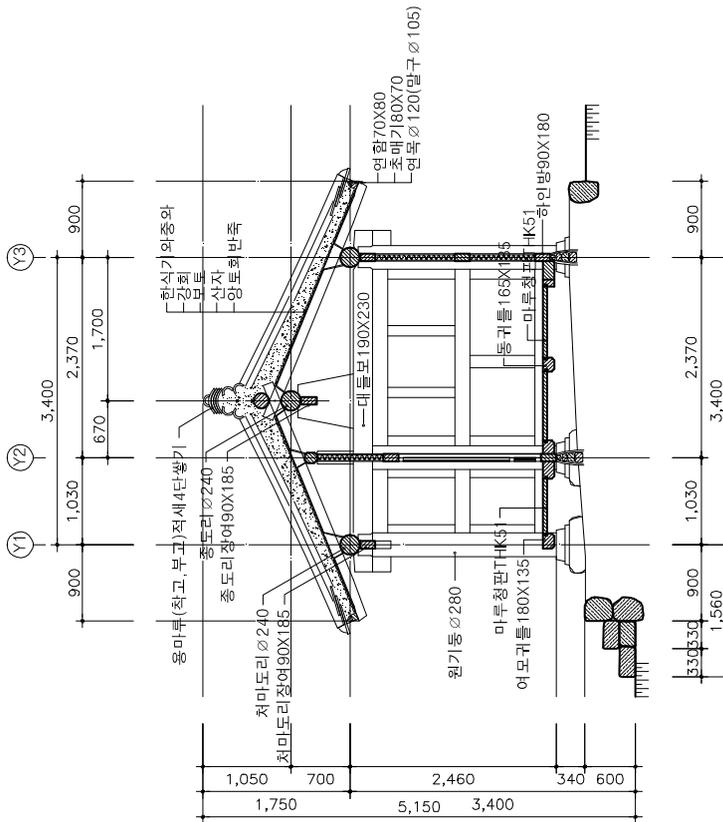
사당 배면도

사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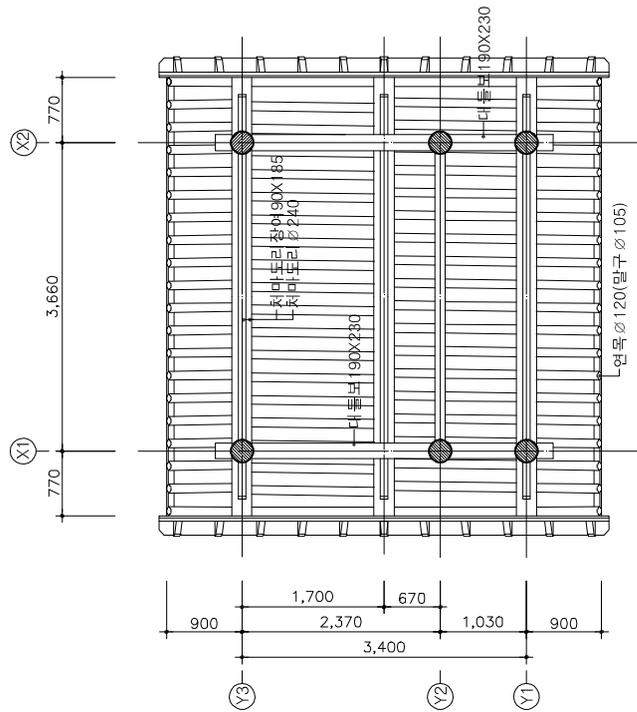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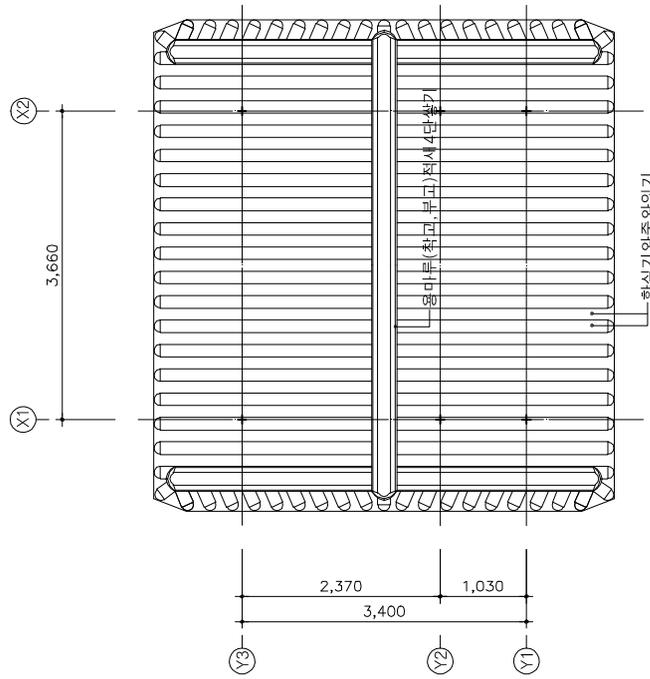




사단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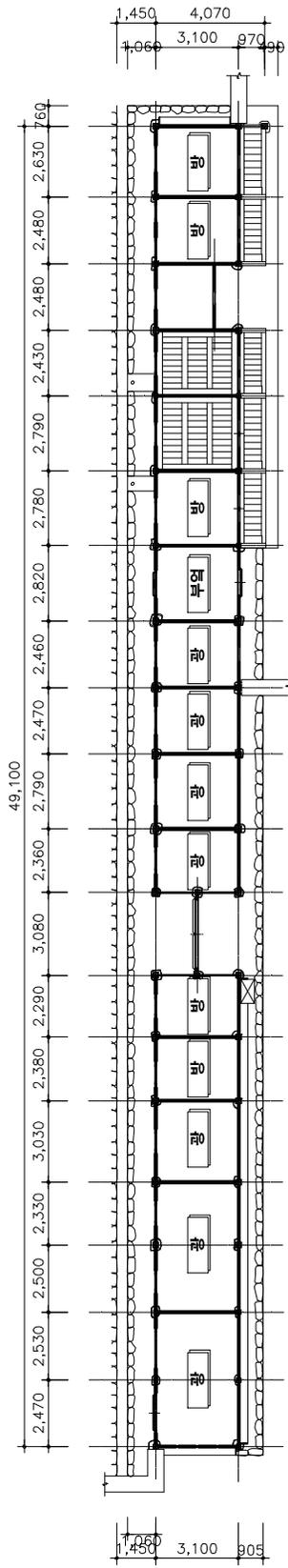


사단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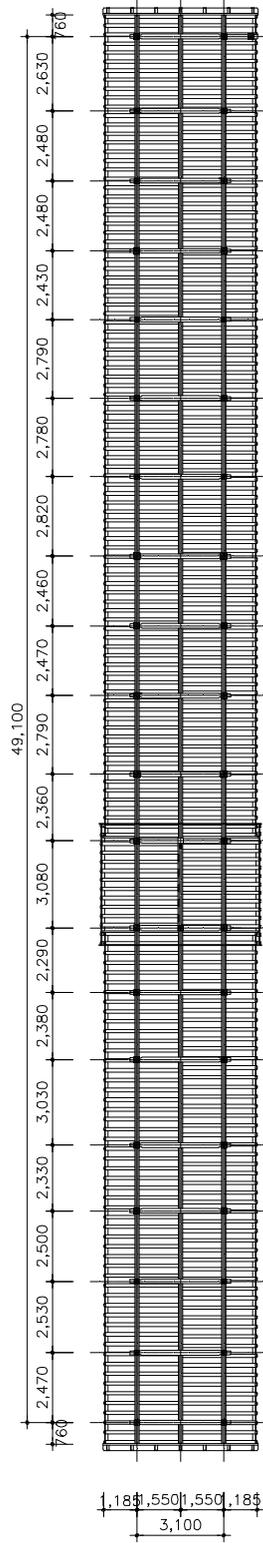


시당 지붕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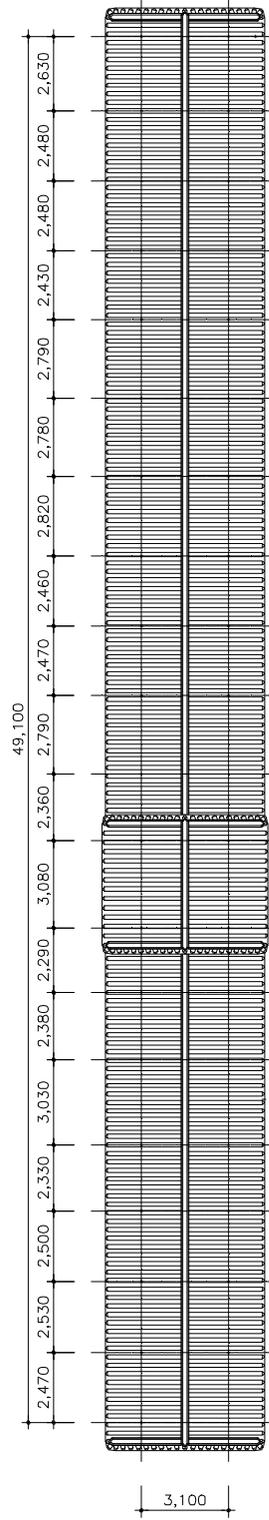
시당 천장평면도



대문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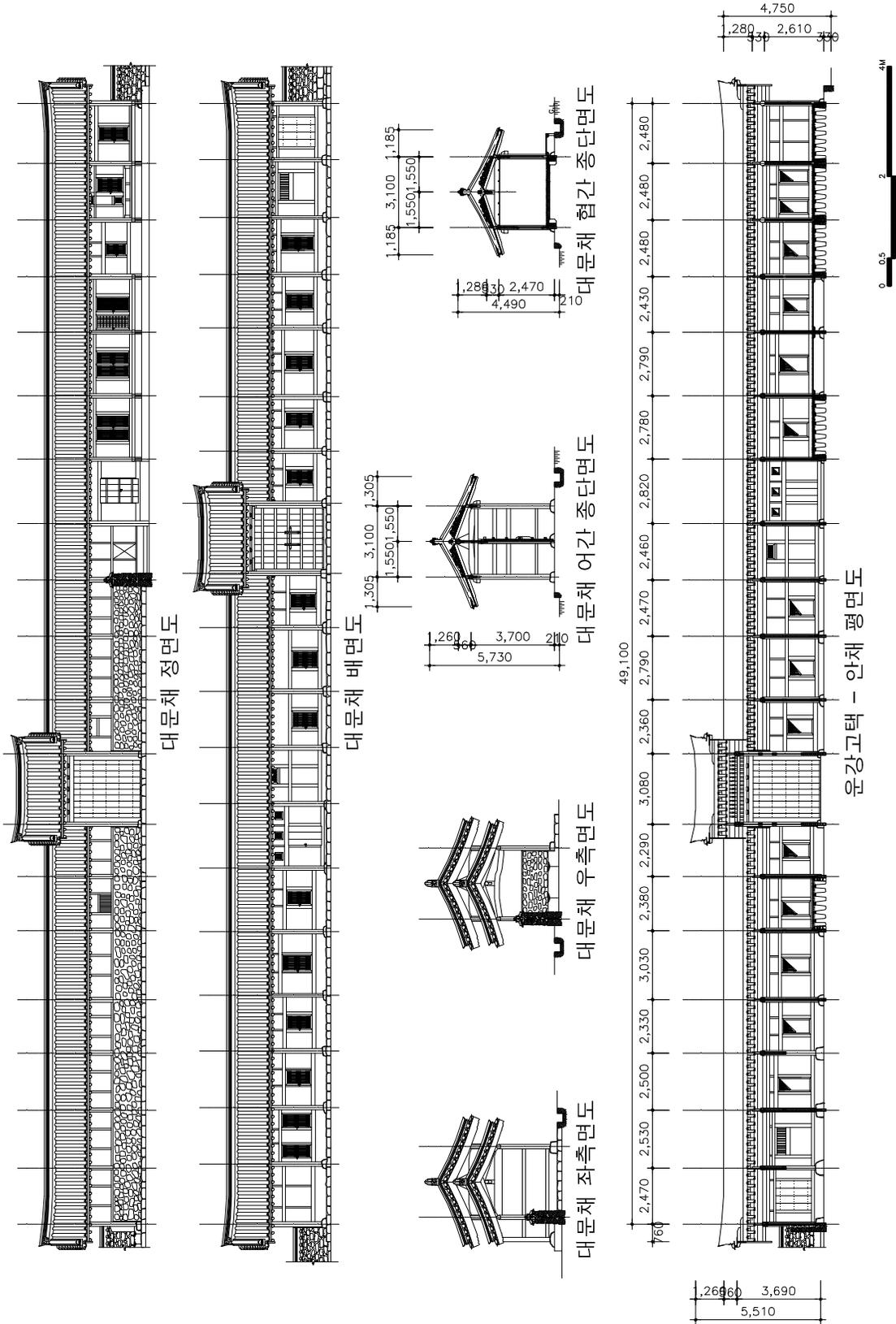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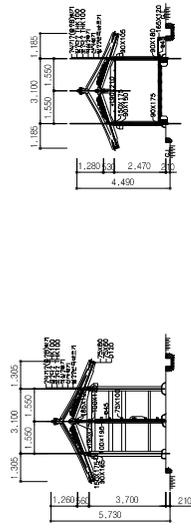
대문채 천장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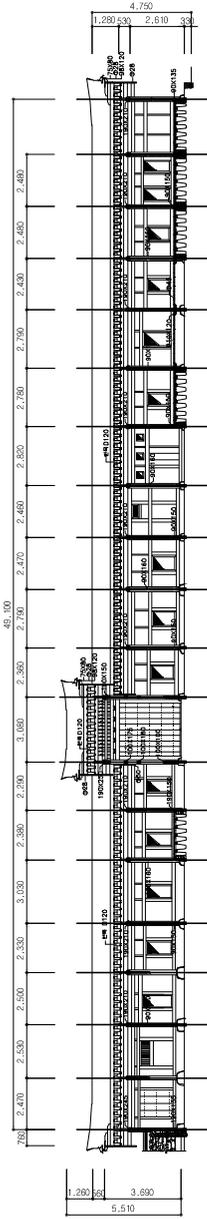
대문채 지붕평면도







대문체 어간, 협간 중단면도



대문체 횡단면도

## 참 고 문 헌

1. 全羅求禮五美洞家圖(도판), 사진첩사본
2. 柳爾肯 《長子區處記》 1793
3. 柳濟陽 《五美洞閭史》 1908
4. 柳濟陽 《是言》 1851-1922년
5. 柳瑩業 《記語》 1898-1937년
6. 尹師國 《三水公行狀》
7. 김정기.장주근 《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8호》 1968.3
8. 김정기 《구례운조루-이조중엽의 상류주택의 일례》 문화재 제4호, 1969
9. 박익수 《구례운조루의 주택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14권2호, 1998.2
10. 최수영외 2인 <전라구례오미동가도를 통해 본 운조루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11호, 2001.11
11. 국립민속박물관 《구례 운조루》 민속박물관학술총서4, 198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례 운조루의 생활일기 상.하》 1991
13. 김광현 《오미동가도》 건축문화, 1997.9
14. 박익수 <구례운조루의 조영에 관한 사료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1994.12
15. 박익수 <조선시대 영건의례의 건축도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6. 서유구 안대회 엮어옮김,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
17.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18. 천득염·전봉희 《한국의 건축문화재-9전남편》 기문당, 2002
19.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의 전통건축 제4집-민가건축Ⅱ》 보성각, 2005
20. 전남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전남의 전통건축》 1999
21. 천득염외 5인 《남도전통주거론》 경인문화사, 2004
22.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23.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아카데미, 2006
24. 장보웅 《한국민가의 지역적 전개》 보진재, 1996

중요민속자료(제8호)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 求禮 雲鳥樓

---

- 조사기관 : (주)삼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발행처 :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 인쇄처 : 엠보코 플러스
- 발행일 : 2007년 12월 21일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550000-000399-01
- ISBN 978-89-8124-812-393610